

국립국어원 2010-01-7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11-01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 : 안태숙(메가리서치)

공동 연구원 : 심영택(청주교육대학교)

민병곤(경인교육대학교)

박재현(상명대학교)

나은미(한성대학교)

연구 보조원 : 김희정(메가리서치)

한송이(메가리서치)

이종민(메가리서치)

임자경(메가리서치)

보 조 원 : 이귀숙(메가리서치)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
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연구 책임자 : 안태숙(메가리서치)

연구기관 (주)메가리서치

연구 책임자 안태숙

공동 연구원 심영택, 민병곤, 박재현, 나은미

연구 보조원 김희정, 한송이, 이종민, 임자경

보 조 원 이귀숙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의 기대 효과	4
3. 연구 내용 및 과정	5
4. 조사 설계 및 절차	9
5. 조사의 제한점	20
제2장 조사 결과	21
1. 인사말	23
2. 가정에서의 호칭 · 지칭어_공통	65
3. 가정에서의 호칭 · 지칭어_여자	119
4. 가정에서의 호칭 · 지칭어_남자	163
5. 사회에서의 호칭 · 지칭어	199
6.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241
제3장 결론	273
1. 요약	275
2. 제언	292
<부록>	295

표 목차

[표 1] 지역별/연령별/성별 표본 설계 현황	9
[표 2] 지역별(16개 시·도) 유효 표본 현황	10
[표 3] 연령별/성별 유효 표본 현황	10
[표 4] 지역별(동/읍/면) 유효 표본 현황	10
[표 5] 응답자 특성	19
[표 6]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	25
[표 7]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	28
[표 8]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31
[표 9] 하교(퇴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34
[표 10] 직장 윗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	37
[표 11]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	40
[표 12]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43
[표 13] 회갑(칠순)을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46
[표 14]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49
[표 15]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52
[표 16]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55
[표 17]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58
[표 18]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	61
[표 19]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	64
[표 20]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67
[표 21] 나의 아버지 부를 때	70
[표 22]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	73
[표 23]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76
[표 24]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79
[표 25]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	82
[표 26] 혼인한 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85
[표 27] 혼인한 딸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88
[표 28]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91
[표 29]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94

[표 30]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97
[표 31]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100
[표 32]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	103
[표 33]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	106
[표 34]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109
[표 35]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112
[표 36]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115
[표 37]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118
[표 38]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121
[표 39]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	124
[표 40]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127
[표 41]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130
[표 42]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133
[표 43]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	136
[표 44]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139
[표 45]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142
[표 46]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145
[표 47]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147
[표 48]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	150
[표 49]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	153
[표 50]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156
[표 51]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159
[표 52]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	162
[표 53]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165
[표 54]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	168
[표 55]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171
[표 56]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174
[표 57] 손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	177
[표 58]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 부인을 부를 때	180
[표 59] 형의 아내를 부를 때	183
[표 60]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186
[표 61]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189

[표 62]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	192
[표 63] 사위가 장모를 지칭할 때	195
[표 64]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198
[표 65] (남자)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201
[표 66] (여자)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204
[표 67]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207
[표 68]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210
[표 69]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212
[표 70]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216
[표 71] 식당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219
[표 72]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222
[표 73]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225
[표 74]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중년 손님을 부를 때	228
[표 75]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젊은 손님을 부를 때	231
[표 76] 친구의 아내를 지칭할 때	234
[표 77]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237
[표 78]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240
[표 79]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	243
[표 80]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	246
[표 81]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 필요성	249
[표 82] 표준 화법의 교육기관	252
[표 83]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에 대한 듣기 경험	255
[표 84]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한 듣기 경험	258
[표 85]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에 대한 수용성	261
[표 86]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한 수용성	264
[표 87] 평직원이 사장에게 과장에 대해 말할 때	267
[표 88]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대해 말할 때	270
[표 89] 표준 화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	271

그림 목차

[그림 1] 표준 화법 연구 목적	3
[그림 2]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연구의 기대 효과	5
[그림 3]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	23
[그림 4]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	26
[그림 5]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29
[그림 6] 하교(퇴근) 후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32
[그림 7] 직장 윗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	35
[그림 8]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	38
[그림 9]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41
[그림 10] 회갑(칠순)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44
[그림 11]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47
[그림 12]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50
[그림 13]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53
[그림 14]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56
[그림 15]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	59
[그림 16]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	62
[그림 17]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65
[그림 18]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68
[그림 19]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	71
[그림 20]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74
[그림 21]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77
[그림 22]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	80
[그림 23] 혼인한 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83
[그림 24] 혼인한 딸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86
[그림 25]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89
[그림 26]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92
[그림 27]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95
[그림 28]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98
[그림 29]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	101

[그림 30]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	104
[그림 31]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107
[그림 32]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110
[그림 33]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113
[그림 34]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116
[그림 35]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119
[그림 36]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	122
[그림 37]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125
[그림 38]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128
[그림 39]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131
[그림 40]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	134
[그림 41]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137
[그림 42]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140
[그림 43]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143
[그림 44]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146
[그림 45]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	148
[그림 46]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	151
[그림 47]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154
[그림 48]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157
[그림 49]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	160
[그림 50]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163
[그림 51]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	166
[그림 52]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169
[그림 53]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172
[그림 54] 손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	175
[그림 55]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 부인을 부를 때	178
[그림 56] 형의 아내를 부를 때	181
[그림 57]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184
[그림 58]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187
[그림 59]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	190
[그림 60] 사위가 장모를 지칭할 때	193
[그림 61]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196

[그림 62]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199
[그림 63]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202
[그림 64]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205
[그림 65]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208
[그림 66]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211
[그림 67]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214
[그림 68] 식당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217
[그림 69]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220
[그림 70]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223
[그림 71]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중년 손님을 부를 때	226
[그림 72]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젊은 손님을 부를 때	229
[그림 73] 친구의 아내를 지칭할 때	232
[그림 74]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235
[그림 75]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238
[그림 76]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	241
[그림 77]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	244
[그림 78]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 필요성	247
[그림 79] 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	250
[그림 80]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에 대한 듣기 경험	253
[그림 81]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한 듣기 경험	256
[그림 82]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에 대한 수용성	259
[그림 83]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한 수용성	262
[그림 84] 평직원이 사장에게 과장에 대해 말할 때	265
[그림 85]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대해 말할 때	268

제1장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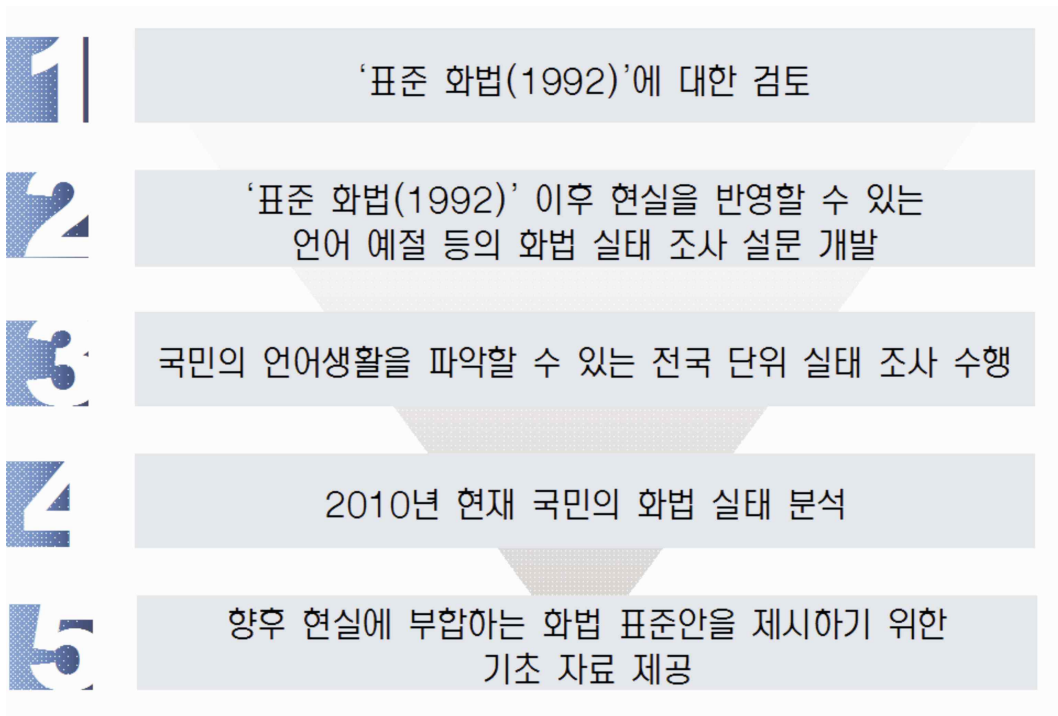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표준 화법’이 제정된 1992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현실에 부합하는 화법 표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표준 화법의 변화 양상을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표본 설계에 의한 국어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국가 수준의 ‘표준 화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표준 화법 연구 목적



1990년대 초 국립국어연구원과 조선일보사가 당시의 생활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쟁점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표준 화법’을 제시하

였다. 그 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이창덕 외, 2009)를 통해 당시 제시한 표준 화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9년 연구는 국어 표준 화법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표준 화법 마련을 위한 화법 전 영역의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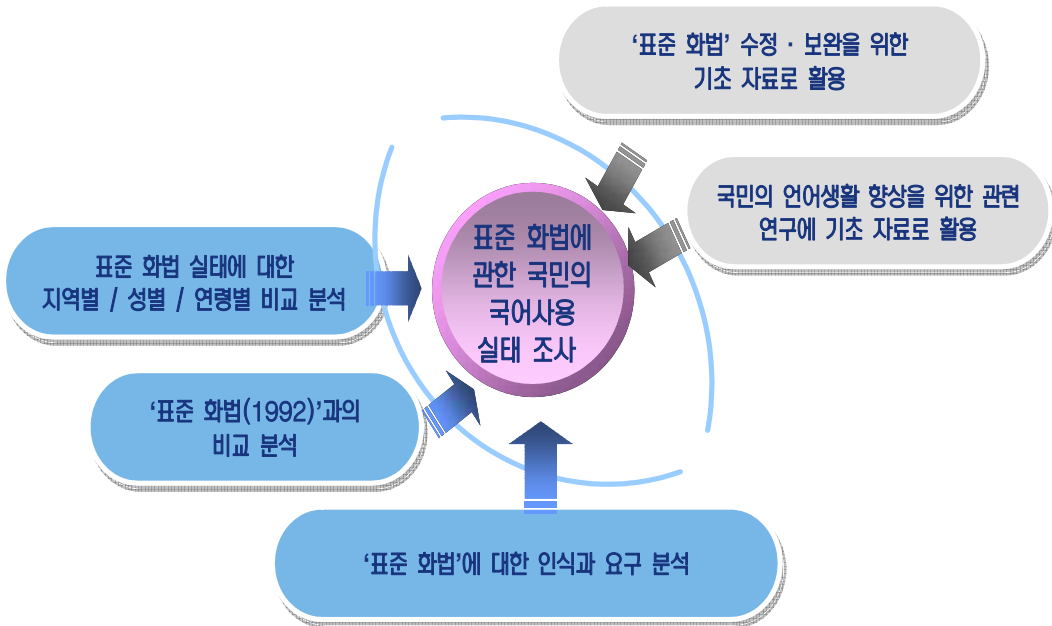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09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 초반에 전문가들이 쟁점으로 삼아 토론했던 것들이 21세기 들어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조사 범위를 전국 16개 시·도로, 연령대를 10대 의견을 반영하고자 1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확대해 전국 단위 15세 이상 국민 5,000명(실제 표본 5,132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결혼 여부별, 거주 지역별, 출신 지역별 변인을 고려한 과학적 표본 추출에 따른 실태 조사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표준 화법에 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표준 화법 규정의 제정이 필요한지, 화법 사용(인사말과 경어법, 호칭 및 지칭 등)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등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기대 효과

이 연구는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를 전국 단위에서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비교·분석하고 기존 ‘표준 화법’과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표준 화법’의 개선·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 화법’이 국민의 의사소통을 효율화하고 언어 예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려면 우리의 언어 문화적 특징을 잘 보존하면서도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적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초 연구에 바탕을 둔 언어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정책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림 2]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연구의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과정

가.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모든 국민의 화법 사용 실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도 지역의 경우 읍/면 지역 포함) 거주자 5,000명(실제 표본 수 5,132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지역에서 1:1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0대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연령대여서 본 연구의 응답자로 포함하였으나, 15세 미만의 학생들은 아직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고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등에서 자신의 관점이나 일관된 언어 용법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표준 화법에서 중심 내용으로 다루었던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었다. 국민들이 매일매일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인사말, 친척과 인척 사이 또는 회사 등 사회에서 상대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사용하는 호칭·지칭어, 그리고 주체 존대 ‘-시-’의 그릇된 사용, 압존법 등에 대한 실태와 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표준 화법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인사말, 호칭·지칭어가 사용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으로 실태 조사를 대신하였다. 그 예로 10대를 포함한 미혼인 경우 가정 안에서의 호칭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일부 문항은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혼인한 아들·딸’에 대한 호칭과 지칭, ‘며느리·사위’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실제 혼인한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가 있는 응답자에 대한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또한 ‘혼인한 아들·딸’, ‘며느리·사위’, ‘부부간’ 호칭의 경우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을 개발한 후 설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예비 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준 화법의 필요성과 같은 기본 인식에 관련된 문항은 실태를 다루는 문항 후반부에 약간만 추가하였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문제되는 영역이 어디이며,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세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행되었다.

단 계	세부 내용
[1단계] 기초 연구	· 착수 보고
	· 선행 연구 - ‘우리말의 예절’(1991)

단 계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화법 해설'(1992) -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2009) 						
[2단계] 연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 보고 및 선행 연구 내용 반영(설문 가안 확인 및 검토) · 표본 설계 검토 : 2009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table border="1"> <tr> <td>성별</td><td>남/여</td></tr> <tr> <td>연령별</td><td>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td></tr> <tr> <td>지역별</td><td>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td></tr> </table> · 전문가 협의(1차,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영역 설정과 문항(안) 검토 · 협의 · 사전 예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서울, 경기 - 2차 : 부산, 광주, 대전, 제주 · 설문 수정 및 보완 후 내용 확정 · 면접원 교육 	성별	남/여	연령별	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지역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성별	남/여						
연령별	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지역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단계] 설문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실시 : 5,132명 · 설문 검증 및 통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검증 : 전체 설문의 30% 전화 검증 - 자료 코딩 및 입력 - 통계 처리 - 통계표 작성 · 설문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별 통계 유의미성 검증 - 영역별 통계 결과에 대한 내용 기술 						
[4단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검토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 연구 추진 일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단 계	세부 내용	진행 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단계] 기초 연구	착수 보고							
	선행 연구							
[2단계] 준비	설문/표본 설계							
	사전 조사(수도권)							
	전문가 회의(1차)							
	사전 조사(지방)							
	설문 수정안 검토							
	전문가 회의(2차)							
	설문 최종 수정							
	면접원 선발 및 교육							
[3단계] 조사 및 분석	설문 조사							
	검증							
	코딩 및 입력							
	전산 처리							
	통계표 작성							
	결과 분석							
[4단계] 마무리	보고서 작성/검토							

4. 조사 설계 및 절차

본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15세 이상 남녀 5,000명(조사표본 5,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 및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대상 및 표집 규모

2009년 주민등록인구(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총 41,524,158명이었다. 이번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에서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인원수를 고려한 비례할당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 1] 지역별/연령별/성별 표본 설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40	40	100	100	115	110	105	105	80	85	75	95	1,050
부산	15	15	35	30	35	30	35	35	35	35	30	40	370
대구	10	10	20	20	25	25	25	30	20	20	20	25	250
인천	15	15	25	25	30	25	30	30	20	20	15	20	270
광주	5	5	15	10	15	15	15	15	10	10	10	15	140
대전	5	5	15	15	15	15	15	15	10	10	10	15	145
울산	5	5	10	10	10	10	15	15	10	10	5	10	115
경기	50	50	95	95	130	125	130	125	85	80	70	95	1,130
강원	5	5	10	10	15	15	15	15	15	15	15	20	155
충북	5	5	15	10	15	15	15	15	10	10	15	20	150
충남	10	10	15	15	20	20	20	20	15	15	20	25	205
전북	5	5	15	10	15	15	20	15	15	15	20	25	175
전남	5	5	15	10	15	15	20	15	15	15	20	30	180
경북	10	10	20	20	25	25	30	25	25	20	25	40	275
경남	15	15	25	25	35	30	35	35	25	25	25	35	325
제주	5	5	5	5	5	5	5	5	5	5	5	10	65
계	205	205	435	410	520	495	530	515	395	390	380	520	5,000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먼저 주민등록인구 분포 및 현황을 고려한 지역별 변인 중에서 16개 시·도를 우선 표본 할당하였다.

[표 2] 지역별(16개 시·도) 유효 표본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원 표본	1,050	370	250	270	140	145	115	1,130	155
조사 표본	1,064	375	260	272	142	149	117	1,148	165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원 표본	150	205	175	180	275	325	65	5,000	
조사 표본	160	221	182	193	284	333	67	5,132	

연령은 10대(15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성별은 남·여로 표본 할당하였다.

[표 3] 연령별/성별 유효 표본 현황

(단위 : 명)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원 표본	205	205	435	410	520	495	530	515	395	390	380	520	5,000
조사 표본	212	208	459	421	528	511	539	526	406	397	397	525	5,132

이후 지역별 2차 층화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표본 할당하였다.

[표 4] 지역별(동/읍/면) 유효 표본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계
	동	읍	면	읍	
원 표본	2,330	1,810	375	485	5,000
조사 표본	2,379	1,842	391	520	5,132

나. 조사 내용 설계

국립국어원에서 1992년에 제시한 ‘표준 화법’을 중심으로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이창덕 외, 2009)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지 초안을 제작하였다.

현 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인사말’,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관한 내용 중 모두 98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때 성별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반응하는 문항과 성별(남, 여)에 따라 달리 반응하는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여 본 연구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내용 등을 회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수 보고회 회의 내용(2010. 5. 19.)>

- 면접원의 자격에 대한 언급
 - 국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교육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 표본 설계에 대한 언급
 - 10대도 반영해야 할 것 같다. ⇨ **15세 이상부터 반영**
 - 직업도 고려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직업에 따른 결과는 테이블로 제공**
 - 서울 및 수도권의 비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지. ⇨ **인구 비례대로 조사**
 - 제주도의 경우 인원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 편성 가능한지. ⇨ **상동**
- 설문지 설계
 - 문항 구성 및 배열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가지런하게 되어야 함.
 - 질문 내용이 갖는 의미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상되는 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설계해야 함.
 - 설문지 설계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잘 구성해야 함.
 - 2009년도 조사를 토대로 설문 설계.
 - 2011년 표준 화법을 미리 예상하고 설계.
 - 방언과 표준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기 항목을 어휘 항목 중심으로 다룸.

- 예비 조사에 관한 언급
 - 예비 조사를 통해서 설문지 문제 발생 시 수정 및 보완해야 함.
- 면접 방법에 대한 언급
 - 면접자가 문항을 보여 주면 가장 많이 쓰는 보기를 응답자가 선택.
 - 응답자 기준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보기에 없을 경우 기타 값 작성.
- 응답자 특성에 관한 언급
 - 인식 조사가 아니라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미혼/기혼, 연령대 등에 따라 문항별 응답 수가 달라질 것임.
 - 응답자가 지역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설문지 보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
 - ➔ **표준 화법을 확인하는 연구이므로 공통된 설문으로 진행하되 분석 시 지역별로 분석함.**
- 총괄
 - 조사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문 문항 구성과 면접원 교육이 중요함.
 - 너무 세부적이지 않아도 큰 틀에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반영되어야 함.

설문지 초안은 서울, 경기 지역 거주자 7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거쳐 전반적인 설문지 흐름이 정리되었다. 이 내용을 토대로 1차 전문가 회의¹⁾를 진행하였으며 국립국어원의 외부 자문 위원을 통해서도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1차 전문가 회의 내용(2010. 6. 11.)>

- 1차 예비 조사 결과
 - 기타 문항 응답 중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문항을 보기에 추가함.

1) 국립국어원(정희창, 이보라미), 공동연구원(민병곤, 박재현, 나은미), 메가리서치(안태숙, 이종민) 참가

○ 인식 조사인가, 실태 조사인가?

- 각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해당되는 인사말, 호칭·지칭어가 있고 없는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함.
- 실태 조사의 목적을 갖지만, 모든 문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하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을 물어봄.

⇒ 가정에서 쓰는 호칭의 경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조사 진행.

미혼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호칭·지칭의 문항은 기혼만 응답하도록 설계.

또한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자녀의 유무를 구분하여 조사 진행. 문항은 아래와 같음.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혼인한 딸을 부를 때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2009)를 통해 확연하게 구분된 내용에 대한 설문 문항 및 의미가 없는 문항 등은 제거하였다(설문 문항이 많고 어려우면 응답자의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확인이 불필요한 아래 문항은 제거함. 특히 본 조사는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집중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삭제된 문항은 아래와 같다.

[인사말]

- 등교(출근)하는 자녀에게
- 출근/퇴근하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는 인사말
- 세배 받을 때 하는 인사말
-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 라디오, TV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하는 시작/종료 인사
- 식당에서 손님에게 주문 받을 때
- 상점에서 상인이 물건을 구매하고 나가는 손님에게 하는 인사말
-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고 나오면서 하는 인사말

[호칭·지칭어]

- (여자가) (남자)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 (남자가) (여자)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부를 때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손님 등을 부를 때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 현행 표준 화법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호칭과 지칭에 대한 구분

- 설문할 때, 호칭과 지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호칭과 지칭 문항을 확실히 구분하고, 설문지에 명암 처리를 하는 등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면접원 교육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교육하고, 전화 검증 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하였다.

1차 예비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수정된 설문지를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 지역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거쳐 기타 응답에 대해 정리하고, 전반적인 설문의 흐름을 재정리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2차 전문가 회의²⁾를 진행하여 설문지를 최종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차 전문가 회의 내용(2010. 7. 20.)>

○ 2차 예비 조사 결과

- 지방권(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에서도 사투리 외에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문항을 보기에 추가함.
- 의미가 없는 보기 문항은 삭제.

○ 압존법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문항은 아래와 같다.

평직원이 사장에게 과장에 대해 말할 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대해 말할 때

2) 국립국어원(정희창, 이보라미), 공동연구원(심영택, 민병곤, 박재현, 나은미), 메가리서치(안태숙, 한송이, 이종민) 참가

○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분석

- 기혼의 경우 자녀 있음, 사위 있음, 며느리 있음 등을 사전 질문을 통해 확인하여, 해당 호칭 및 지칭에 관한 문항에 실태를 분석함. 해당되는 문항은 아래와 같다.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혼인한 아들이 있는 경우
혼인한 딸을 부를 때	혼인한 딸이 있는 경우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며느리가 있는 경우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	사위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	며느리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	사위가 있는 경우

○ 출신 지역별로 조사 결과가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설문지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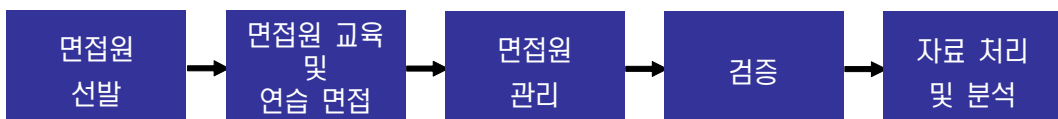
○ 설문지 최종안 확정 : 총 84문항

- 인사말 : 공통 14문항
- 집안에서의 호칭·지칭어(공통) : 공통 2문항, 기혼 16문항
- 집안에서의 호칭·지칭어(여자) : 공통 4문항, 기혼 11문항
- 집안에서의 호칭·지칭어(남자) : 공통 3문항, 기혼 9문항
-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 공통 10문항, 남자 2문항, 여자 2문항
-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 공통 11문항

다. 조사 과정 및 분석 절차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의 전체적인 조사 과정 및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과정>



□ 면접원 선발

‘메가리서치’에 등록된 전문 면접원 중 대국민 실태 조사 경험이 많고 본 조사에 적합한 면접원을 선발하여 교육 후 조사에 투입하였다.

□ 면접원 교육 및 연습 면접

면접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내용, 조사 체계에 따른 조사 원칙, 설문지 작성 방법, 면접 시 주의사항, 예상되는 돌발 상황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하였다. 조사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 연습 면접 및 유료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면접원이 교육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 면접원 관리

담당 연구원과 관리자가 실사 현장에서 실제 조사 여부, 실사 진행 원칙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였다.

□ 검증

설문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증을 실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응답자의 30%를 대상으로 조사 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전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잘못된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설문지를 모두 회수하여 재검토 후 재조사하였다.

□ 자료 처리 및 분석

검증을 마친 설문지는 에디팅, 코딩, 자료 입력(Key-in)과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Excel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의 분석은 설문지 Editing(설문지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확인·보완) ⇨ Coding(설문지 내용 부호화) ⇨ Data Entry(자료 입력) ⇨ Data Cleaning(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및 보완) ⇨ 통계 분석의 통계 처리 과정을 거쳤다.

라. 통계 처리 및 보고서 작성

□ 변인 설정

본 연구에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변인으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거주 지역, 출신 지역을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연령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령별 화법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0대를 포함하고, 연령을 10세 단위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15세 미만의 경우 학습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제외하였다. 가정에서의 호칭 및 지칭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혼 여부별로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지역별 화법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신 지역을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주로 보낸 지역으로 정의해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거주 지역과 출신 지역의 16개 시·도는 권역으로 재구성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 대전, 충북, 충남 / 강원권 : 강원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호남권 : 광주, 전북, 전남 / 제주권 : 제주)

다만, 인사말이나 호칭에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 친소관계, 상대적인 나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변수 통제의 제약으로 고려하지 않아, 해당 조사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 통계 처리

처리된 자료를 통계 분석 패키지인 SPSS 12.0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으로 설정한 성별, 연령별, 결혼 여부별, 거주 지역별, 출신 지역별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χ^2 검정도 병행하였다. 교차 분석을 통해 항목별 빈도와 퍼센트를 확인하고, 대략적인 양상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연령별, 결혼 여부별 통계를 막대그래프로 함께 제시하였다. 설문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변인이 명목 척도로 구성되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복응답(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을 제외한 전 문항을 유의 수준 .05로 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 보고서 작성

각 문항별 조사 결과는 전체 값과 주요 변인인 연령, 결혼 여부별 응답 비율을 막대그래프³⁾로 제시하였다. 다만 기혼자에게만 물어본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별 응답 결과만 제시하였다.

그래프의 배열 순서는 설문지에 제시된 보기 문항 순서대로 나타냈으며, 이는 설문지 설계 시 고려한 사항(설문지의 보기 내용 중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기 문항을 ①, ②에 두었을 때, 응답자가 ①, ②에 일률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응답 비율이 3% 미만인 것은 기타로 묶어서 하단부에 표로 제시하였으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보기 문항은 동그라미로 표시하였다. 또한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표준어로 제시한 것들은 기타란 아래 제시하였다.

표의 배열 순서 또한 설문지에 제시된 보기 문항 순서대로 나타냈는데, 막대그래프와 다르게 설문지에 제시된 보기 문항을 모두 나열하였다. 설문지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응답은 모아서 표현하였으며 이는 [부록4]에도 문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은 먼저 조사 결과 전체 값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거주 지역, 출신 지역별로 해석하였다. 또한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제시한 표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해석하였으며, [부록2]에 각 문항별로 <표준 화법 해설>(1992) 내용과 조사 결과를 비교한 표를 제시하였다.

3) 문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변인(연령, 결혼 여부 등)도 일부 있다. 하지만 '연령' 및 '결혼 여부'라는 변인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보고서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 모든 문항의 결과 그림에 연령과 결혼 여부별 응답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마.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전체 표본은 5,132명이었다.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은 2009년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비례할당추출 하였다.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3,584명(69.8%)이었고, 미혼은 1,548명(30.2%)이었다. 출신 지역은 수도권이 1,658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남권 1,588명(30.9%), 호남권 818명(15.9%), 충청권 721명(14.0%), 강원권 256명(5.0%), 제주권 73명(1.4%) 순이었다. 기타 지역은 이북 지역과 미주 지역 등으로 18명(0.4%)이 응답하였다.

[표 5] 응답자 특성

구 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5,132	100.0
성별	남성	2,541	49.5
	여성	2,591	50.5
연령	10대	420	8.2
	20대	880	17.1
	30대	1,039	20.2
	40대	1,065	20.8
	50대	803	15.6
	60대 이상	925	18.0
결혼 여부	기혼	3,584	69.8
	미혼	1,548	30.2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48.4
	충청권	530	10.3
	강원권	165	3.2
	영남권	1,369	26.7
	호남권	517	10.1
	제주권	67	1.3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32.3
	충청권	721	14.0
	강원권	256	5.0
	영남권	1,588	30.9
	호남권	818	15.9
	제주권	73	1.4
	기타	18	0.4

5. 조사의 제한점

본 조사는 ‘표준 화법’이 제정된 1992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현실에 부합하는 화법 표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를 파악하였으나 조사 결과의 해석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항목에 따라 응답 대상을 통제한 경우가 있다.

84개의 문항에서 물어보는 인사말과 가정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 문항마다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실태 파악에는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는 남자와 여자의 응답 문항을 구분하였고, 가정 및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의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는 수준에서 변수를 통제하였다. 나머지는 응답자가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범위를 한정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 친소(親疎) 관계나 연령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인사말이나 호칭에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 친소관계, 상대적인 나이 차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아래 직원이 나이가 많은 경우,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여동생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손위, 손아래인 경우 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님에 대한 호칭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매개 변수가 지나치게 많아짐으로써 대규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친소 관계, 연령, 공사(公私)의 상황 등 다양한 매개 변수들을 통제하여 복잡한 사회 구조와 개인 간의 관계를 조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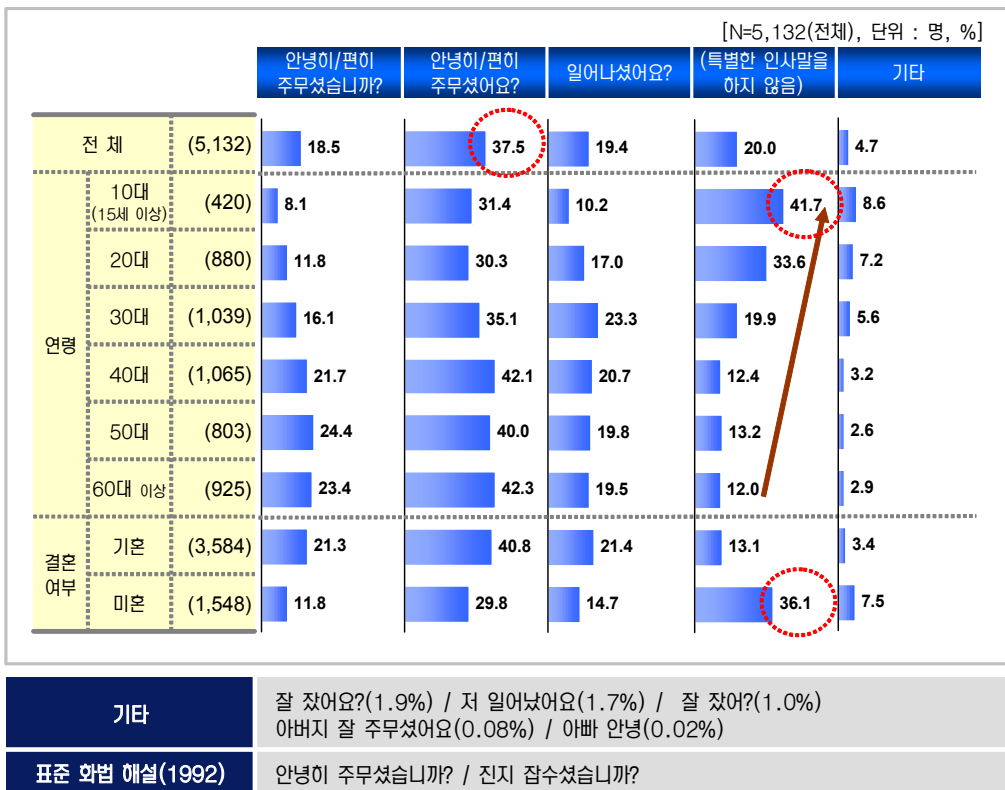


1. 인사말

가.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을 보면,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일어나셨어요?’(19.4%),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18.5%)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20.0%로 전체 응답자 중 1/5을 차지했다. 기타 응답⁴⁾으로는 ‘잘 잤어요?’, ‘저 일어났어요’, ‘잘 잤어?’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3]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



4) 응답 비율이 3% 미만인 표현은 기타 항목으로 묶었으며, 막대그래프 하단부의 '기타'란에 정리하여 표시했다.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표준으로 제시한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성이 21.5%로 여성(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대의 경우 8.1%, 20대 11.8%, 30대 16.1%, 40대 21.7%, 50대 24.4%, 60대 이상 23.4%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에 대한 응답도 40대 42.1%, 50대 40.0%, 60대 이상 42.3%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은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와 ‘일어나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도 각각 21.3%와 21.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혼은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권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권에서는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의 응답 비율이 11.9%로 낮은 반면, ‘일어나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의 응답 비율도 25.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과 유사하게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북 및 해외 등 기타 지역 출신 응답자의 경우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의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를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 이외에 ‘일어나셨어요?’ 등 다양한 인사말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6]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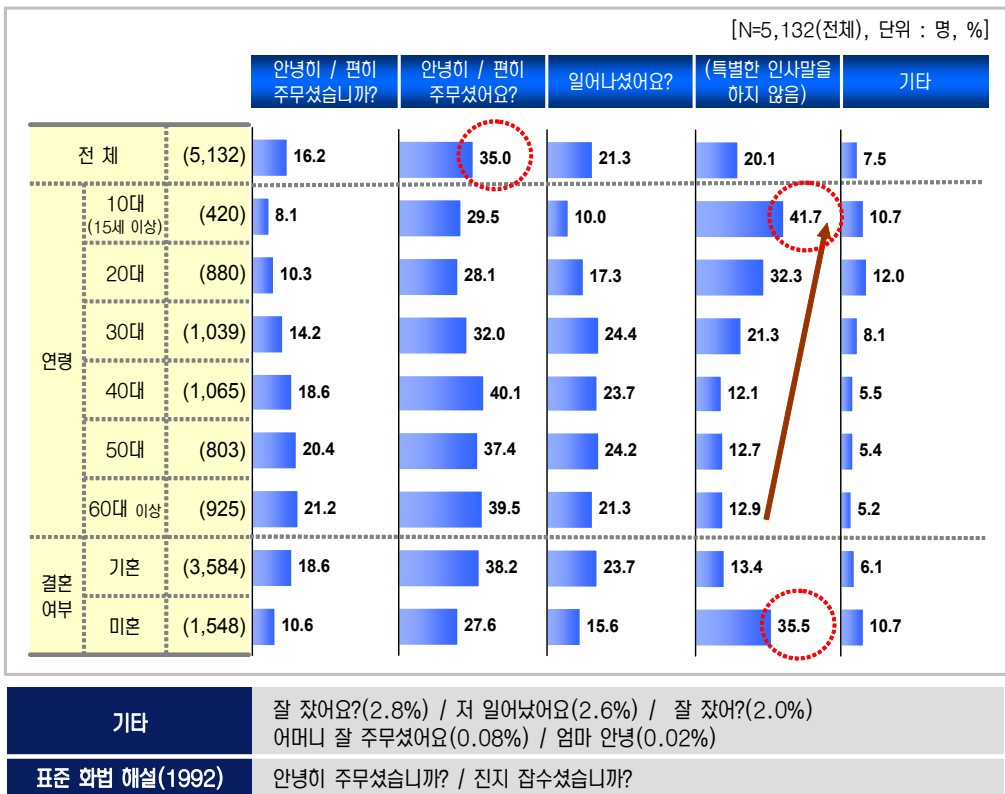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안녕히 /편히 주무셨습 니까?	안녕히 /편히 주무셨어 요?	일어 나셨어 요?	잘 자았어요?	잘 자았어?	저 일어 났어요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18.5	37.5	19.4	1.9	1.0	1.7	20.0	0.1	
성별	남성	(2,541)	21.5	36.2	19.0	1.8	0.5	1.5	19.3	0.1	41.90
	여성	(2,591)	15.5	38.7	19.8	2.0	1.4	1.8	20.7	0.1	***
연령	15~19세	(420)	8.1	31.4	10.2	1.4	1.9	5.0	41.7	0.2	504.84 ***
	20대	(880)	11.8	30.3	17.0	2.4	1.9	2.8	33.6	0.0	
	30대	(1,039)	16.1	35.1	23.3	2.3	1.3	2.0	19.9	0.0	
	40대	(1,065)	21.7	42.1	20.7	2.1	0.2	0.9	12.4	0.0	
	50대	(803)	24.4	40.0	19.8	1.2	0.6	0.6	13.2	0.1	
	60대 이상	(925)	23.4	42.3	19.5	1.7	0.5	0.3	12.0	0.3	
결혼 여부	기혼	(3,584)	21.3	40.8	21.4	1.7	0.6	1.1	13.1	0.1	451.70
	미혼	(1,548)	11.8	29.8	14.7	2.5	1.9	3.0	36.1	0.1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7.4	41.9	20.4	1.7	1.1	2.0	15.2	0.1	176.30 ***
	충청권	(530)	16.2	39.6	17.5	1.1	0.8	1.3	23.0	0.4	
	강원권	(165)	21.8	32.1	24.2	3.6	2.4	0.0	15.8	0.0	
	영남권	(1,369)	21.5	31.8	17.6	2.1	0.7	0.8	25.4	0.0	
	호남권	(517)	15.9	33.8	17.2	2.3	0.8	3.1	26.9	0.0	
	제주권	(67)	25.4	11.9	35.8	4.5	0.0	1.5	20.9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6.3	38.6	19.8	1.9	1.4	2.2	19.7	0.1	186.74 ***
	충청권	(721)	16.6	42.6	18.3	1.0	0.4	2.2	18.6	0.3	
	강원권	(256)	24.6	30.9	25.8	3.1	1.6	0.0	14.1	0.0	
	영남권	(1,588)	20.5	34.6	18.4	2.1	0.6	0.9	22.8	0.1	
	호남권	(818)	17.6	40.3	18.1	2.2	1.1	2.2	18.5	0.0	
	제주권	(73)	23.3	16.4	35.6	2.7	0.0	1.4	20.5	0.0	
	기타	(18)	44.4	33.3	5.6	0.0	0.0	0.0	11.1	5.6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나.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로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어나셨어요?’(21.3%),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16.2%) 순으로 나타났다.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20.1%로 전체 응답자 중 1/5을 차지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잘 잤어요?’, ‘저 일어났어요’, ‘잘 잤어?’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응답 비율은 35.0%로 동일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대의 경우 8.1%, 20대 10.3%, 30대 14.2%, 40대 18.6%, 50대 20.4%, 60대 이상 2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도 40대 40.1%, 50대 37.4%, 60대 이상 39.5% 등으로 30대 이하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 ‘일어나셨어요?’라는 인사말도 10~20대에 비해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은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고, ‘일어나셨어요?’ 23.7%,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 18.6%의 응답 비율을 나타낸 반면, 미혼은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혼이 미혼에 비해 집안에서 인사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권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권에서는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의 응답 비율이 9.0%로 낮은 반면, ‘일어나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북 및 해외 등 기타 지역 출신 응답자의 경우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를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하는 인사말과 마찬가지로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 이외에 ‘일어나셨어요?’ 등 다양한 인사말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표 7]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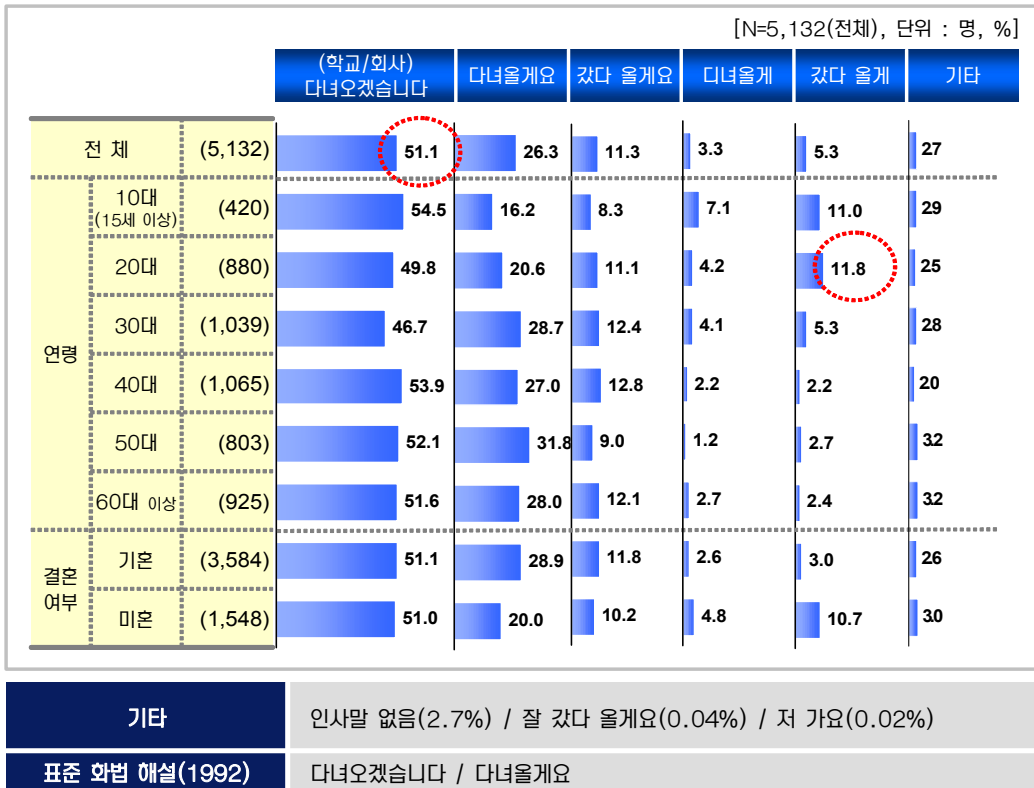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안녕히/ 편히 주무셨 습니까?	안녕히 /편히 주무셨 어요?	일어 나셨어 요?	잘 잤어요?	잘 잤어?	저 일어 났어 요.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16.2	35.0	21.3	2.8	2.0	2.6	20.1	0.1	
성별	남성	(2,541)	18.6	35.0	21.4	2.3	1.1	2.3	19.4	0.0	48.66
	여성	(2,591)	13.9	35.0	21.2	3.3	2.9	2.9	20.8	0.2	***
연령	15~19세	(420)	8.1	29.5	10.0	1.9	2.6	6.2	41.7	0.0	500.80 ***
	20대	(880)	10.3	28.1	17.3	2.5	4.4	5.0	32.3	0.1	
	30대	(1,039)	14.2	32.0	24.4	3.1	2.1	2.8	21.3	0.1	
	40대	(1,065)	18.6	40.1	23.7	3.2	1.0	1.3	12.1	0.0	
	50대	(803)	20.4	37.4	24.2	2.0	1.7	1.5	12.7	0.1	
	60대 이상	(925)	21.2	39.5	21.3	3.5	0.8	0.8	12.9	0.2	
결혼 여부	기혼	(3,584)	18.6	38.2	23.7	2.9	1.4	1.7	13.4	0.1	437.44
	미혼	(1,548)	10.6	27.6	15.6	2.5	3.6	4.6	35.5	0.1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4.4	39.8	22.6	2.6	2.0	3.1	15.3	0.2	193.20 ***
	충청권	(530)	14.5	36.6	20.0	1.7	1.9	1.9	23.2	0.2	
	강원권	(165)	20.0	29.7	26.1	3.6	4.2	1.2	15.2	0.0	
	영남권	(1,369)	19.5	30.0	19.2	3.0	1.3	1.6	25.3	0.0	
	호남권	(517)	15.3	28.2	17.8	3.7	3.7	4.1	27.3	0.0	
	제주권	(67)	25.4	9.0	38.8	6.0	0.0	1.5	19.4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3.3	36.8	22.0	2.4	2.4	3.3	19.8	0.0	199.45 ***
	충청권	(721)	15.1	40.5	19.3	1.7	1.2	2.9	19.1	0.1	
	강원권	(256)	21.9	31.3	25.8	3.9	3.5	1.6	12.1	0.0	
	영남권	(1,588)	18.1	32.2	20.7	3.1	1.2	1.8	22.8	0.1	
	호남권	(818)	16.1	34.8	20.0	3.7	3.3	2.9	18.9	0.1	
	제주권	(73)	23.3	16.4	37.0	2.7	0.0	1.4	19.2	0.0	
	기타	(18)	50.0	27.8	5.6	0.0	0.0	0.0	11.1	5.6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다.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로 '(학교/회사) 다녀오겠습니다'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녀올게요'(26.3%), '갔다 올게요'(11.3%), '갔다 올게'(5.3%), '다녀올게'(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인사말 없음', '잘 갔다 올게요', '저 가요'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5]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학교/회사) 다녀오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학교/회사) 다녀오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52.7%로 여성(49.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학교/회사) 다녀오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연령별로 사용 비율은 차이가 있어서 10대에서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4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녀올게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16.2%)와 20대(20.6%)에 비해 3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녀올게'는 연령대가 낮은 10대에서, '갔다 올게'는 10대와 20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회사) 다녀오겠습니다'의 경우 결혼 여부에 차이가 없었으나, '다녀올게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28.9%로 미혼(20.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갔다 올게'는 미혼이 10.7%로 기혼(3.0%)보다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학교/회사) 다녀오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제주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다녀올게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30.7%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강원권은 '갔다 올게요'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제주권과 기타 지역에서 '(학교/회사) 다녀오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56.2%, 55.6%로 높게 나타났다. '갔다 올게요'는 강원권과 기타 지역이 15.2%와 16.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를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준 화법 해설과 동일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도 16.6%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다녀올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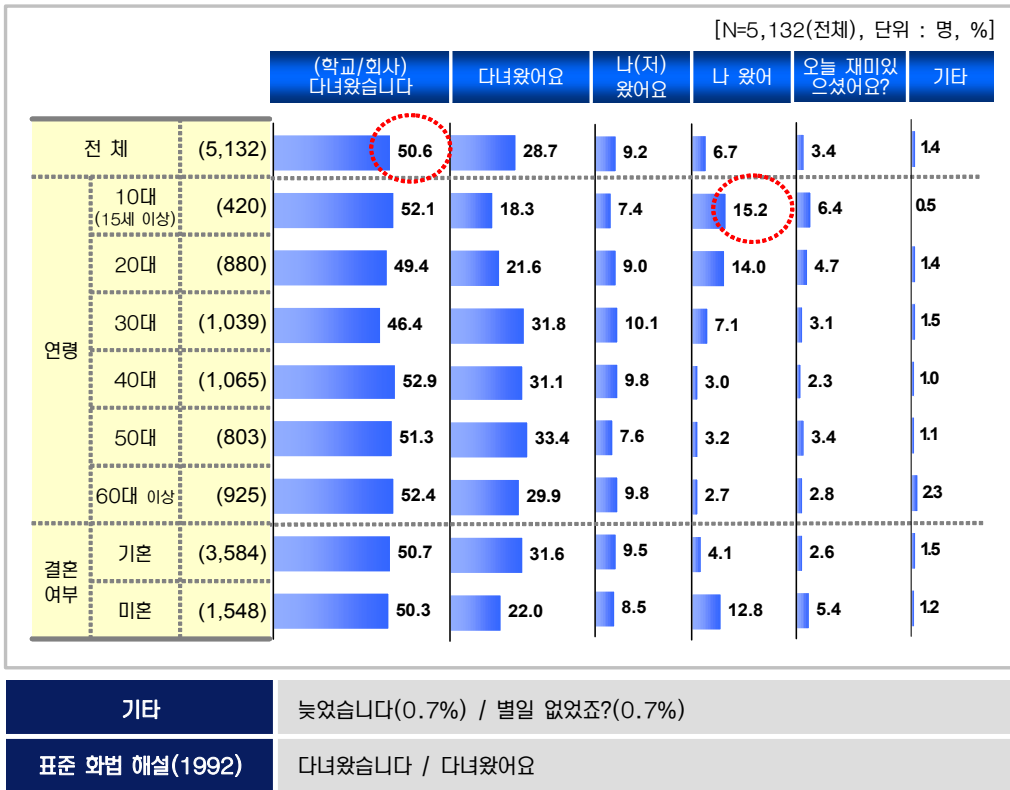
		응답자 수	(학교/회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 올게요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	갔다 올게	(인사말 없음)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51.1	26.3	11.3	3.3	5.3	2.7	0.1	
성별	남성	(2,541)	52.7	26.1	11.5	2.5	4.0	3.1	0.1	33.49
	여성	(2,591)	49.5	26.5	11.2	4.0	6.6	2.2	0.0	***
연령	15~19세	(420)	54.5	16.2	8.3	7.1	11.0	2.9	0.0	249.75 ***
	20대	(880)	49.8	20.6	11.1	4.2	11.8	2.5	0.0	
	30대	(1,039)	46.7	28.7	12.4	4.1	5.3	2.8	0.0	
	40대	(1,065)	53.9	27.0	12.8	2.2	2.2	1.8	0.2	
	50대	(803)	52.1	31.8	9.0	1.2	2.7	3.1	0.1	
	60대 이상	(925)	51.6	28.0	12.1	2.7	2.4	3.2	0.0	
결혼 여부	기혼	(3,584)	51.1	28.9	11.8	2.6	3.0	2.5	0.1	171.76
	미혼	(1,548)	51.0	20.3	10.2	4.8	10.7	3.0	0.0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48.3	30.7	11.4	2.9	5.5	1.2	0.0	143.03 ***
	충청권	(530)	56.6	23.8	9.8	1.1	4.2	4.5	0.0	
	강원권	(165)	50.3	17.0	17.6	3.0	9.1	3.0	0.0	
	영남권	(1,369)	55.0	20.9	10.7	4.7	5.2	3.3	0.1	
	호남권	(517)	46.8	25.7	12.8	3.7	5.0	6.0	0.0	
	제주권	(67)	62.7	20.9	9.0	1.5	3.0	3.0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50.9	26.8	10.8	3.5	6.4	1.6	0.0	68.97 **
	충청권	(721)	50.8	28.0	12.1	1.8	3.6	3.7	0.0	
	강원권	(256)	52.0	22.7	15.2	2.0	5.9	2.3	0.0	
	영남권	(1,588)	52.8	23.7	11.1	4.3	5.2	2.8	0.1	
	호남권	(818)	47.6	29.8	10.9	2.8	4.9	3.9	0.1	
	제주권	(73)	56.2	26.0	12.3	1.4	4.1	0.0	0.0	
	기타	(18)	55.6	22.2	16.7	0.0	0.0	5.6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라. 하교(퇴근) 후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하교(퇴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로 '(학교/회사) 다녀왔습니다'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녀왔어요'(28.7%), '나(저) 왔어요'(9.2%), '나 왔어'(6.7%), '오늘 재미있으셨어요?'(3.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늦었습니다', '별일 없었죠?'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 하교(퇴근) 후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학교(퇴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학교/회사) 다녀왔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나(저) 왔어요’, ‘나 왔어’ 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학교/회사) 다녀왔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40대에서 52.9%, 60대 이상에서 52.4%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46.4%로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았다. ‘다녀왔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20대에 비해 30대 이상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왔어’는 연령대가 낮은 10대와 20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회사) 다녀왔습니다’의 경우 결혼 여부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다. ‘다녀왔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31.6%로 미혼(22.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왔어’는 미혼이 12.8%로 기혼(4.1%)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학교/회사) 다녀왔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충청권(57.2%), 영남권 (56.6%), 제주권(55.2%), 강원권 (53.3%)이 수도권(46.3%)이나 호남권(47.2%)에 비해 높았다. ‘다녀왔어요’의 응답 비율은 수도권(34.1%)과 호남권(29.2%)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에서 ‘(학교/회사) 다녀왔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녀왔어요’는 수도권(30.6%), 호남권(33.9%), 제주권(30.1%), 기타 지역(33.3%)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를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준 화법 해설과 동일하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나 중심의 표현인 ‘나(저) 왔어요’, ‘나 왔어’도 15.9%가 사용하며, 그 외에도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표 9] 하교(퇴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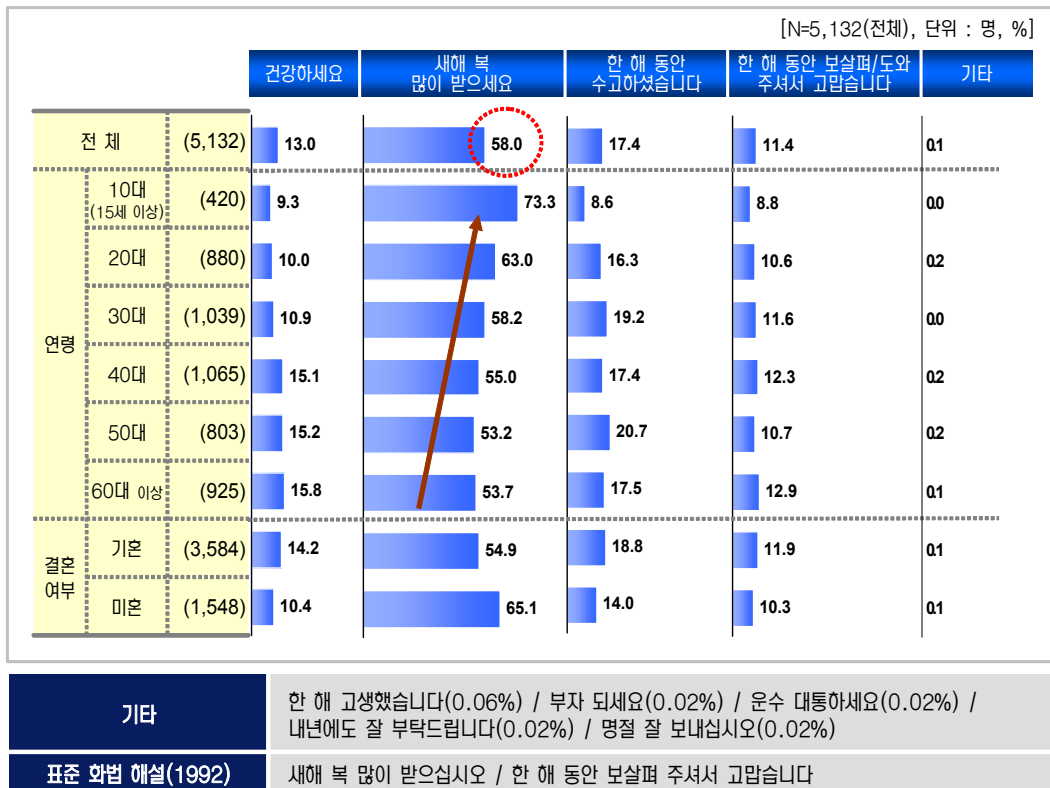
		응답자 수	(학교/회사)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어요	나(저) 왔어요	나 왔어	늦었습니다	별일 없었죠?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50.6	28.7	9.2	6.7	0.7	0.7	3.4	
성별	남성	(2,541)	51.8	28.8	8.7	5.0	0.9	0.7	4.2	36.09 ***
	여성	(2,591)	49.4	28.6	9.6	8.4	0.5	0.7	2.7	
연령	15~19세	(420)	52.1	18.3	7.4	15.2	0.2	0.2	6.4	261.25 ***
	20대	(880)	49.4	21.6	9.0	14.0	0.9	0.5	4.7	
	30대	(1,039)	46.4	31.8	10.1	7.1	0.9	0.7	3.1	
	40대	(1,065)	52.9	31.1	9.8	3.0	0.6	0.5	2.3	
	50대	(803)	51.3	33.4	7.6	3.2	0.4	0.7	3.4	
	60대 이상	(925)	52.4	29.9	9.8	2.7	1.0	1.3	2.8	
결혼 여부	기혼	(3,584)	50.7	31.6	9.5	4.1	0.7	0.8	2.6	185.40 ***
	미혼	(1,548)	50.3	22.0	8.5	12.8	0.8	0.4	5.4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46.3	34.1	9.5	6.6	0.8	0.6	2.1	136.62 ***
	충청권	(530)	57.2	23.2	8.3	4.9	0.4	1.3	4.7	
	강원권	(165)	53.3	18.2	10.9	10.9	1.8	0.6	4.2	
	영남권	(1,369)	56.6	22.1	8.4	7.1	0.7	0.7	4.4	
	호남권	(517)	47.2	29.2	10.1	7.0	0.0	0.6	6.0	
	제주권	(67)	55.2	26.9	9.0	4.5	0.0	0.0	4.5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49.1	30.6	8.5	7.7	0.9	0.6	2.6	57.42 *
	충청권	(721)	50.2	29.5	10.4	4.3	0.7	1.0	3.9	
	강원권	(256)	53.9	25.0	9.0	7.8	0.8	0.4	3.1	
	영남권	(1,588)	53.7	24.1	9.6	7.0	0.8	0.8	4.1	
	호남권	(818)	46.7	33.9	8.6	6.2	0.2	0.6	3.8	
	제주권	(73)	52.1	30.1	11.0	5.5	0.0	0.0	1.4	
	기타	(18)	55.6	33.3	5.6	0.0	0.0	0.0	5.6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마. 직장 윗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

직장 윗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17.4%), '건강하세요'(13.0%), '한 해 동안 보살펴/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11.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한 해 고생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운수 대통하세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7] 직장 윗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



직장 윗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대에서 73.3%, 20대 63.0%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하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30대 이하보다 40대 이상에서 약간 높았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50대에서 20.7%로 가장 높은 반면, 10대에서는 8.6%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경우 미혼이 65.1%로 기혼(5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하세요’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는 기혼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충청권에서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하세요’는 제주권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는 강원권과 영남권, 호남권에서, ‘한 해 동안 보살펴/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수도권과 충청권, 제주권에서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특별히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을 제시하지 않고, 비고란에 상대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치하의 뜻을 포함한 표현으로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10] 직장 윗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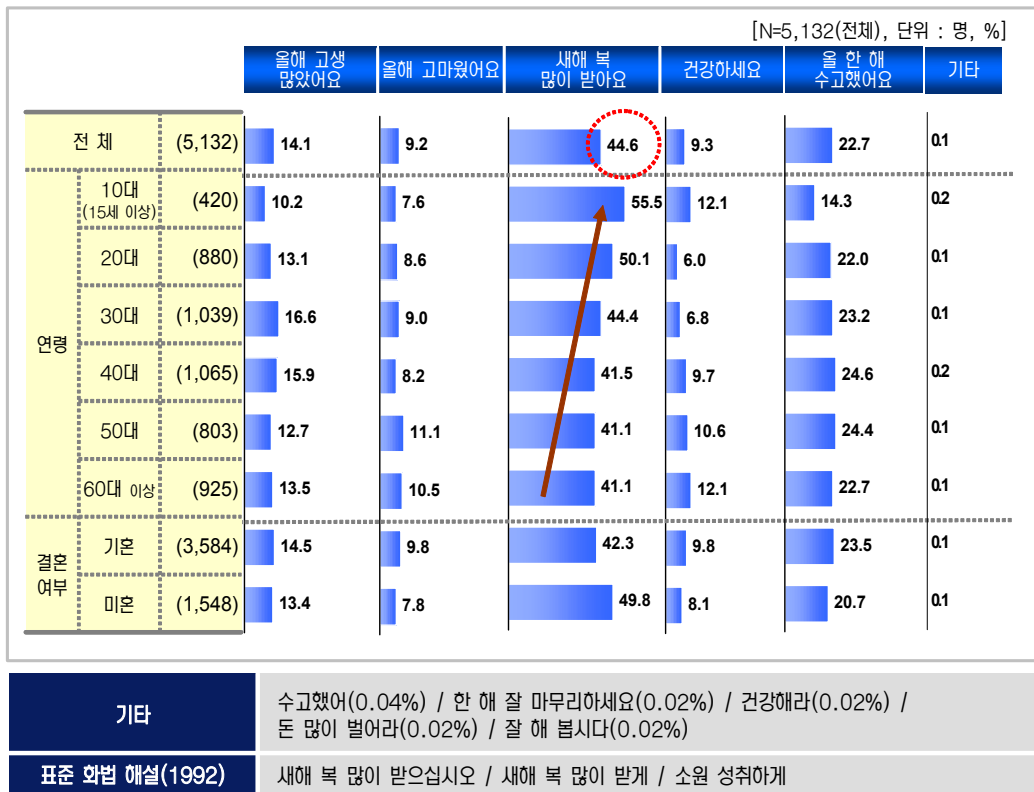
		응답자 수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보살펴/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13.0	58.0	17.4	11.4	0.1	
성별	남성	(2,541)	12.4	57.6	17.7	12.1	0.1	10.72 n.s
	여성	(2,591)	13.6	58.4	17.0	10.8	0.2	
연령	15~19세	(420)	9.3	73.3	8.6	8.8	0.0	112.65 ***
	20대	(880)	10.0	63.0	16.3	10.6	0.2	
	30대	(1,039)	10.9	58.2	19.2	11.6	0.0	
	40대	(1,065)	15.1	55.0	17.4	12.3	0.2	
	50대	(803)	15.2	53.2	20.7	10.7	0.2	
	60대 이상	(925)	15.8	53.7	17.5	12.9	0.1	
결혼 여부	기혼	(3,584)	14.2	54.9	18.8	11.9	0.1	51.52 ***
	미혼	(1,548)	10.4	65.1	14.0	10.3	0.1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4.6	57.3	15.0	13.0	0.0	143.23 ***
	충청권	(530)	12.6	64.0	9.6	13.8	0.0	
	강원권	(165)	15.2	53.9	20.6	9.7	0.6	
	영남권	(1,369)	10.7	55.7	23.1	10.3	0.3	
	호남권	(517)	10.6	62.7	21.9	4.6	0.2	
	제주권	(67)	19.4	59.7	7.5	13.4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4.5	58.3	14.2	12.9	0.1	106.64 ***
	충청권	(721)	13.9	59.8	12.5	13.9	0.0	
	강원권	(256)	13.7	55.5	17.6	12.9	0.4	
	영남권	(1,588)	11.1	55.0	22.4	11.2	0.3	
	호남권	(818)	12.5	61.7	19.1	6.6	0.1	
	제주권	(73)	19.2	61.6	9.6	9.6	0.0	
	기타	(18)	5.6	77.8	11.1	5.6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바.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아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올 한 해 수고했어요'(22.7%), '올해 고생 많았어요'(14.1%), '건강하세요'(9.3%), '올해 고마웠어요'(9.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수고했어', '한 해 잘 마무리하세요',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잘 해 봅시다'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8]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새해 복 많이 받아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여성의 경우 46.6%로 남성(4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새해 복 많이 받아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대에서 55.5%, 20대 50.1% 등 낮은 연령대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한 해 수고했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에서 14.3%로 낮은 반면 20대 이상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하세요’는 10대와 60대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새해 복 많이 받아요’의 경우 미혼이 49.8%로 기혼(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제주권에서 ‘올해 고생 많았어요’와 ‘건강하세요’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신 지역별로도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기타 지역에서 ‘새해 복 많이 받아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77.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윗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과 동일하게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도 ‘올 한 해 수고했어요’보다는 ‘새해 복 많이 받아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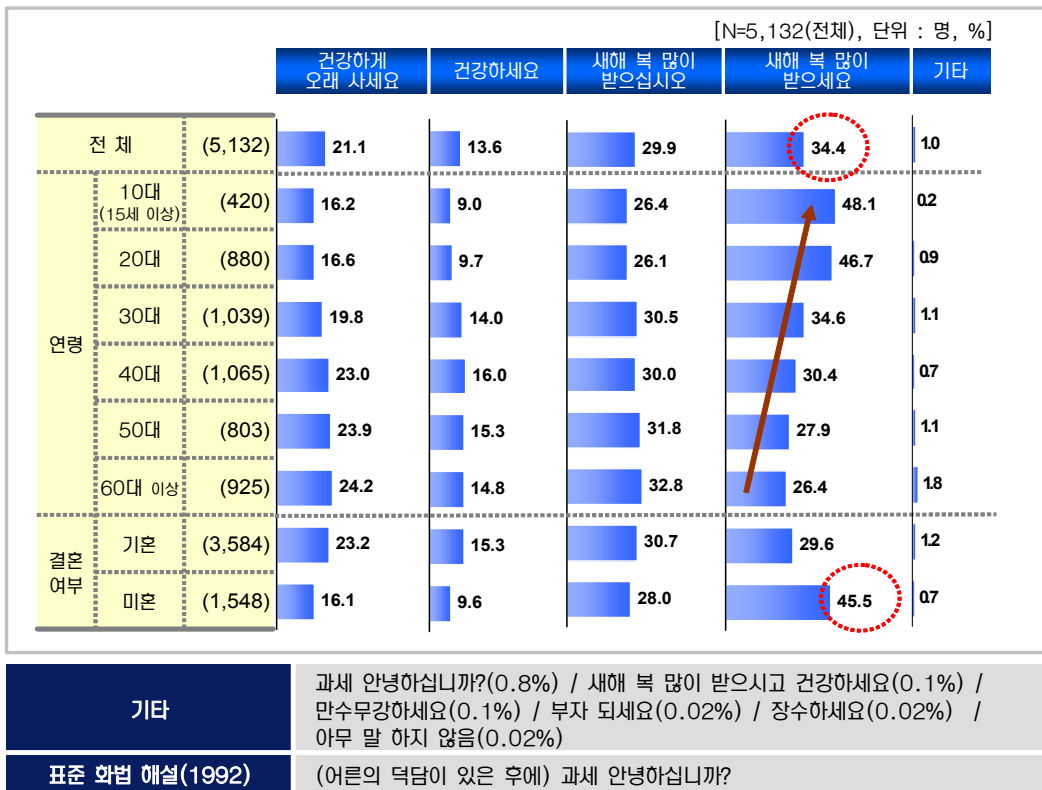
		응답자 수	올해 고생 많았어요	올해 고마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건강하세요	올 한 해 수고했어요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14.1	9.2	44.6	9.3	22.7	0.1	
성별	남성	(2,541)	15.9	8.9	42.5	8.5	24.2	0.1	30.39 **
	여성	(2,591)	12.4	9.6	46.6	10.0	21.2	0.2	
연령	15~19세	(420)	10.2	7.6	55.5	12.1	14.3	0.2	119.74 ***
	20대	(880)	13.1	8.6	50.1	6.0	22.0	0.1	
	30대	(1,039)	16.6	9.0	44.4	6.8	23.2	0.1	
	40대	(1,065)	15.9	8.2	41.5	9.7	24.6	0.2	
	50대	(803)	12.7	11.1	41.1	10.6	24.4	0.1	
	60대 이상	(925)	13.5	10.5	41.1	12.1	22.7	0.1	
결혼 여부	기혼	(3,584)	14.5	9.8	42.3	9.8	23.5	0.1	33.05 ***
	미혼	(1,548)	13.4	7.8	49.8	8.1	20.7	0.1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3.6	10.4	43.8	9.9	22.3	0.1	62.83 n.s
	충청권	(530)	13.0	8.1	48.5	9.6	20.6	0.2	
	강원권	(165)	17.0	5.5	45.5	7.3	24.8	0.0	
	영남권	(1,369)	13.7	8.6	44.9	8.2	24.5	0.1	
	호남권	(517)	17.0	8.3	42.9	8.9	22.6	0.2	
	제주권	(67)	25.4	3.0	46.3	13.4	11.9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3.8	9.3	46.2	9.7	20.9	0.2	77.63 n.s
	충청권	(721)	13.3	7.9	47.2	10.0	21.5	0.1	
	강원권	(256)	21.1	6.6	38.7	9.4	24.2	0.0	
	영남권	(1,588)	12.8	9.6	43.6	8.5	25.4	0.1	
	호남권	(818)	15.4	11.1	42.1	9.0	22.2	0.1	
	제주권	(73)	24.7	4.1	43.8	13.7	13.7	0.0	
	기타	(18)	5.6	0.0	77.8	0.0	16.7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사.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9.9%),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21.1%), ‘건강하세요’(1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과세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장수하세요’, ‘아무 말 하지 않음’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9]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이 38.5%로 남성(30.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이 33.5%로 여성(2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대에서 48.1%, 20대 46.7%, 30대 34.6%, 40대 30.4%, 50대 27.9%, 60대 이상 26.4%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경우 미혼이 45.5%로 기혼(29.6%)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23.2%)와 ‘건강하세요’(15.3%)는 기혼이 미혼(16.1%, 9.6%)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강원권에서 46.7%, 제주권에서 43.3%로 높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제주권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의 응답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다. 기타 지역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의 응답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세배는 원칙적으로 절하는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절 받는 어른에게 특별히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절을 받은 어른이 덕담을 하게 된다. 만약 절을 한 뒤 어른의 덕담이 끝이어나오지 않을 때나 덕담이 있는 후에 어른께 말로 인사를 할 경우에는 ‘과세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좋다.”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에 대한 응답이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 이들 표현이 세배할 때의 인사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자 수	과세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0.8	21.1	13.6	29.9	34.4	0.2	
성별	남성	(2,541)	0.7	21.6	13.5	33.5	30.2	0.3	52.23
	여성	(2,591)	0.9	20.5	13.7	26.4	38.5	0.1	***
연령	15~19세	(420)	0.0	16.2	9.0	26.4	48.1	0.2	179.66 ***
	20대	(880)	0.6	16.6	9.7	26.1	46.7	0.3	
	30대	(1,039)	1.0	19.8	14.0	30.5	34.6	0.1	
	40대	(1,065)	0.7	23.0	16.0	30.0	30.4	0.0	
	50대	(803)	0.9	23.9	15.3	31.8	27.9	0.2	
	60대 이상	(925)	1.4	24.2	14.8	32.8	26.4	0.4	
결혼 여부	기혼	(3,584)	1.0	23.2	15.3	30.7	29.6	0.2	141.81
	미혼	(1,548)	0.5	16.1	9.6	28.0	45.5	0.3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0.9	22.6	13.4	25.7	37.2	0.2	166.75 ***
	충청권	(530)	1.1	23.0	15.3	23.0	37.4	0.2	
	강원권	(165)	0.6	23.6	8.5	20.6	46.7	0.0	
	영남권	(1,369)	0.4	15.9	14.5	40.8	28.2	0.2	
	호남권	(517)	1.2	25.1	13.0	31.1	29.4	0.2	
	제주권	(67)	0.0	17.9	6.0	32.8	43.3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0.8	20.9	13.5	25.8	38.7	0.3	163.71 ***
	충청권	(721)	1.0	23.2	15.0	22.2	38.4	0.3	
	강원권	(256)	0.8	27.7	10.2	21.9	39.5	0.0	
	영남권	(1,588)	0.6	17.8	14.2	38.8	28.5	0.1	
	호남권	(818)	1.1	23.6	13.2	30.3	31.5	0.2	
	제주권	(73)	0.0	17.8	5.5	32.9	43.8	0.0	
	기타	(18)	5.6	38.9	16.7	22.2	16.7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아. 회갑(칠순)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회갑(칠순)을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의 응답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었다.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16.5%), '만수무강하십시오'(15.8%), '만수무강하세요'(15.5%),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13.3%),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10.0%), '(생신) 축하드려요'(7.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축하합니다',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10] 회갑(칠순)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N=5,132(전체), 단위 : 명, %]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하세요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기타
전체	(5,132)	10.0	15.8	15.5	13.3	16.5	18.4	7.5	28
연령	10대 (15세 이상) (420)	9.3	11.9	15.5	9.8	16.9	19.3	14.5	29
	20대 (880)	9.4	11.7	18.8	10.7	17.3	16.9	12.6	26
	30대 (1,039)	10.8	16.0	14.0	12.7	15.9	20.3	8.1	23
	40대 (1,065)	11.9	15.9	14.5	15.2	17.0	17.6	4.8	32
	50대 (803)	9.7	20.7	16.1	14.7	14.3	16.7	4.7	31
	60대 이상 (925)	8.1	17.1	14.8	14.8	17.7	19.9	4.5	30
결혼 여부	기혼 (3,584)	10.1	16.9	14.8	14.6	16.3	18.7	5.7	30
	미혼 (1,548)	9.9	13.4	17.0	10.4	17.1	17.8	11.8	26
기타		축하합니다(1.5%) /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1.2%) / 오래오래 건강하세요(0.06%)							
표준 화법 해설(1992)		(생신) 축하합니다 /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회갑(칠순)을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생신) 축하드립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20.3%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만수무강하십시오’에 대한 응답 비율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어미가 ‘-십시오’인 경우는 남성이, ‘-하세요’인 경우는 여성에게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신) 축하드립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0대에서 20.3%, 60대 이상 19.9%, 10대 19.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생신) 축하드려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14.5%), 20대(12.6%)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과 미혼 모두 ‘(생신) 축하드립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신) 축하드려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미혼의 경우 11.8%로 기혼(5.7%)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였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사말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에서는 ‘만수무강하세요’(22.3%), 강원권에서는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22.4%), 영남권에서는 ‘(생신) 축하드립니다’(28.4%), 호남권에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22.1%), 제주권에서는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26.9%)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에서 ‘만수무강하십시오’에 대한 응답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생신) 축하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만수무강하십시오’는 현수할 때 하는 인사말로 제시하였다. 다른 인사말에서는 한문 투의 고전적인 인사말들이 많이 사라진 반면에 이 인사말에서는 여전히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13] 회갑(칠순)을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 자 수	(더욱) 건강 하시기 바랍 니다	만수 무강 하십 시오	만수 무강 하세 요	오래 (건강하 게) 사십 시오	오래 (건강하 게) 사세 요	(생신) 축하드 립니다	(생신) 축하드 려요	(더욱) 강녕하 시기 바랍 니다	축하 합니다	기타 응답	통계 량 (χ^2)
전 체		(5,132)	10.0	15.8	15.5	13.3	16.5	18.4	7.5	1.2	1.5	0.1	
성별	남성	(2,541)	11.2	19.7	16.3	14.3	14.6	16.6	5.0	1.3	1.1	0.0	131.14 ***
	여성	(2,591)	8.9	12.0	14.7	12.4	18.4	20.3	10.1	1.2	1.9	0.1	
연령	15~19세	(420)	9.3	11.9	15.5	9.8	16.9	19.3	14.5	0.7	2.1	0.0	163.70 ***
	20대	(880)	9.4	11.7	18.8	10.7	17.3	16.9	12.6	1.3	1.4	0.0	
	30대	(1,039)	10.8	16.0	14.0	12.7	15.9	20.3	8.1	0.9	1.3	0.1	
	40대	(1,065)	11.9	15.9	14.5	15.2	17.0	17.6	4.8	1.3	1.8	0.1	
	50대	(803)	9.7	20.7	16.1	14.7	14.3	16.7	4.7	1.5	1.6	0.0	
	60대 이상	(925)	8.1	17.1	14.8	14.8	17.7	19.9	4.5	1.6	1.3	0.1	
결혼 여부	기혼	(3,584)	10.1	16.9	14.8	14.6	16.3	18.7	5.7	1.3	1.6	0.1	80.38 ***
	미혼	(1,548)	9.9	13.4	17.0	10.4	17.1	17.8	11.8	1.1	1.5	0.0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0.1	17.3	16.1	12.2	17.6	15.9	7.0	1.7	2.1	0.0	343.44 ***
	충청권	(530)	8.1	15.3	22.3	12.8	20.4	12.6	6.0	0.9	1.5	0.0	
	강원권	(165)	22.4	13.9	12.1	13.3	15.2	17.0	4.2	1.2	0.0	0.6	
	영남권	(1,369)	9.1	11.4	10.6	15.6	12.3	28.4	11.0	0.7	0.8	0.1	
	호남권	(517)	8.1	22.1	20.5	11.6	19.3	11.8	4.1	0.8	1.7	0.0	
	제주권	(67)	23.9	13.4	7.5	26.9	14.9	9.0	3.0	1.5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0.3	17.2	15.8	12.3	17.2	16.5	7.7	1.4	1.6	0.1	284.14 ***
	충청권	(721)	9.2	15.1	20.9	12.2	20.7	12.3	6.4	1.2	1.9	0.0	
	강원권	(256)	19.5	17.2	12.5	12.1	15.2	17.6	3.1	2.0	0.4	0.4	
	영남권	(1,588)	8.8	12.0	11.6	15.1	13.4	26.5	10.3	1.2	1.2	0.0	
	호남권	(818)	9.0	19.8	19.2	12.3	17.8	13.7	5.0	0.9	2.2	0.0	
	제주권	(73)	17.8	19.2	8.2	24.7	19.2	6.8	2.7	1.4	0.0	0.0	
	기타	(18)	11.1	44.4	16.7	11.1	11.1	5.6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자.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의 응답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들어가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시(또) 연락드릴게요’(19.3%), ‘안녕히 계십시오’(15.8%), ‘이만(그만) 끊겠습니다’(12.0%), ‘(먼저) 끊습니다’(10.2%), ‘먼저 끊겠습니다’(8.4%),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6.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끊어’, ‘네. 응’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11]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N=5,132(전체), 단위 : 명, %]							
		다시(또)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먼저) 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먼저)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전 체	(5,132)	19.3	27.3	10.2	15.8	12.0	8.4	6.2	08
연령	10대 (15세 이상)	14.8	12.1	16.7	23.3	13.6	13.3	4.0	21
	20대	20.6	22.0	9.7	19.7	10.1	9.4	7.7	08
	30대	18.2	31.6	8.1	13.7	13.8	7.3	6.6	08
	40대	22.1	30.4	8.5	14.6	9.7	6.9	7.1	08
	50대	20.4	29.4	11.3	13.0	13.2	7.3	5.1	02
	60대 이상	17.3	29.1	11.5	15.1	12.5	9.1	4.9	05
결혼 여부	기혼	19.9	30.3	9.8	14.3	11.7	7.6	5.8	06
	미혼	18.0	20.4	11.3	19.4	12.5	10.1	7.0	12
기타		끊어(0.12%) / 네 응(0.1%) / 수고하세요(0.08%) / 네.알겠습니다(0.08%) / 쉬세요(0.04%) / 끊을게(0.04%) / 다음에 전화할게(0.04%) / 좋은 시간 되세요(0.04%) / 말없이 끊는다(0.04%) / 안녕(0.04%) /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0.02%) / 안녕히 계세요(0.02%) / 예, 알았어요(0.02%) / 다음에 밥 한번 먹자(0.02%) / 알았어(0.02%) / 바이(0.02%) / 안녕히 계세요(0.02%)							
표준 화법 해설(1992)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오 / 고맙습니다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들어가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이 30.4%로 남성(24.2%)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들어가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의 경우 ‘안녕히 계십시오’에 대한 응답 비율이 23.3%로 가장 높았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과 미혼 모두 ‘들어가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기혼의 경우 30.3%로 미혼(20.4%)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들어가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권이 34.3%, 충청권이 32.3%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만 끊겠습니다’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들어가요’라는 인사말에 대해서는 “명령형이고, 일부 지방 사람들이 자주 쓰며, 상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들어가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4]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자 수	다시 (또) 연락드릴게요	들어가 세요	(먼저) 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그만) 끊겠습니다	(먼저)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19.3	27.3	10.2	15.8	12.0	8.4	6.2	0.8	
성별	남성	(2,541)	19.1	24.2	10.6	17.3	12.5	8.7	6.9	0.7	53.56
	여성	(2,591)	19.5	30.4	9.9	14.4	11.4	8.1	5.4	0.8	***
연령	15~19세	(420)	14.8	12.1	16.7	23.3	13.6	13.3	4.0	2.1	305.19 ***
	20대	(880)	20.6	22.0	9.7	19.7	10.1	9.4	7.7	0.8	
	30대	(1,039)	18.2	31.6	8.1	13.7	13.8	7.3	6.6	0.8	
	40대	(1,065)	22.1	30.4	8.5	14.6	9.7	6.9	7.1	0.8	
	50대	(803)	20.4	29.4	11.3	13.0	13.2	7.3	5.1	0.2	
	60대 이상	(925)	17.3	29.1	11.5	15.1	12.5	9.1	4.9	0.5	
결혼 여부	기혼	(3,584)	19.9	30.3	9.8	14.3	11.7	7.6	5.8	0.6	99.41
	미혼	(1,548)	18.0	20.4	11.3	19.4	12.5	10.1	7.0	1.2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9.9	26.5	9.3	18.7	11.7	7.5	5.9	0.4	206.84 ***
	충청권	(530)	15.3	32.3	7.5	15.5	11.3	6.2	10.4	1.5	
	강원권	(165)	12.7	27.3	11.5	18.2	13.3	9.1	7.3	0.6	
	영남권	(1,369)	20.5	27.4	13.1	11.2	11.9	9.7	5.0	1.2	
	호남권	(517)	19.1	25.0	9.9	14.7	14.1	10.6	6.0	0.6	
	제주권	(67)	22.4	34.3	9.0	9.0	9.0	11.9	3.0	1.5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9.8	25.8	9.1	19.7	10.9	7.8	6.4	0.5	164.19 n.s
	충청권	(721)	16.5	29.3	9.0	14.1	14.1	6.2	9.4	1.2	
	강원권	(256)	15.6	25.0	12.1	20.3	11.7	7.8	7.0	0.4	
	영남권	(1,588)	20.3	27.9	12.7	12.2	12.1	9.1	4.8	1.0	
	호남권	(818)	19.4	27.5	8.7	15.8	12.7	9.9	5.4	0.6	
	제주권	(73)	23.3	35.6	8.2	9.6	6.8	12.3	4.1	0.0	
	기타	(18)	27.8	27.8	5.6	16.7	5.6	11.1	5.6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차.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의 응답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안녕하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찍 나왔네’(18.4%), ‘좋은 아침입니다’(17.8%), ‘안녕?’(17.6%), ‘좋은 아침!’(13.3%), ‘왔어?’(8.3%), ‘반갑습니다’(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안녕하십니까?’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12]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N=5,132(전체), 단위 : 명, %]

		안녕하세요?	안녕?	일찍 나왔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반갑습니다	왔어?	기타
연령	전 체 (5,132)	21.2	17.6	18.4	17.8	13.3	3.6	8.1	00
	10대 (15세 이상) (420)	16.2	44.5	7.4	10.0	10.5	1.4	10.0	00
	20대 (880)	25.6	22.6	11.8	18.0	12.2	1.9	8.0	00
	30대 (1,039)	24.1	16.8	17.4	15.6	16.7	2.5	6.9	00
	40대 (1,065)	20.4	13.7	17.6	21.7	14.7	4.1	7.7	01
	50대 (803)	18.1	14.4	22.5	18.8	13.1	5.1	8.0	00
	60대 이상 (925)	19.6	8.9	28.3	18.2	10.3	5.4	9.4	00
결혼 여부	기혼 (3,584)	20.1	13.5	21.8	18.6	13.6	4.0	8.3	00
	미혼 (1,548)	23.6	27.3	10.7	15.8	12.4	2.6	7.8	00
기타		안녕하십니까?(0.02%)							
표준 화법 해설(1992)		동료 : 안녕하세요? 아랫사람 : 안녕하세요? / 나왔군 / 나오나?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안녕하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22.5%로 남성(19.8%)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서 ‘안녕?’에 대한 응답 비율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20~30대에서는 ‘안녕하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25.6%, 24.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40대에서는 ‘좋은 아침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21.7%,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일찍 나왔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22.5%, 28.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안녕?’(27.3%)과 ‘안녕하세요?’(23.6%)의 응답 비율이 기혼보다 높았고, 기혼의 경우 ‘일찍 나왔네’(21.8%), ‘좋은 아침입니다’(18.6%), ‘좋은 아침!’(13.6%), ‘왔어?’(8.3%), ‘반갑습니다’(4.0%)의 응답 비율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안녕하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에서는 ‘좋은 아침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20.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 기타 지역에서 ‘안녕하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25.2%, 22.2%, 24.7%, 44.4%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안녕?’(21.0%), 강원권에서는 ‘좋은 아침입니다’(26.6%), 영남권에서는 ‘일찍 나왔네’(21.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를, 아랫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나왔군.’, ‘나오나?’와 같은 완전한 문장 표현을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좋은 아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직역한 말이고, 이에 대한 전통적인 인사말이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좋은 아침입니다’(17.8%), ‘안녕?’(17.6%), ‘좋은 아침’(13.3%)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48.7%로 나타났다.

[표 15]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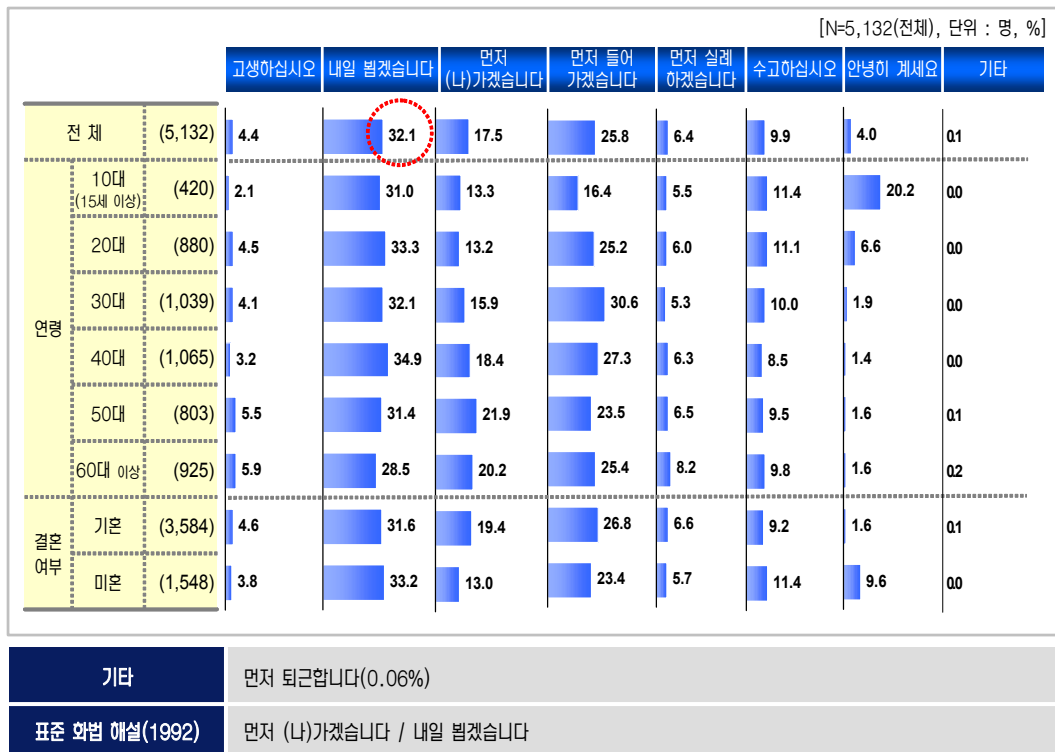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안녕하세요?	안녕?	일찍 나왔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반갑습니다	왔어?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21.2	17.6	18.4	17.8	13.3	3.6	8.1	0.0	
성별	남성	(2,541)	19.8	15.4	19.1	19.3	13.5	4.2	8.7	0.0	34.80 ***
	여성	(2,591)	22.5	19.8	17.8	16.3	13.0	3.0	7.6	0.0	
연령	15~19세	(420)	16.2	44.5	7.4	10.0	10.5	1.4	10.0	0.0	454.49 ***
	20대	(880)	25.6	22.6	11.8	18.0	12.2	1.9	8.0	0.0	
	30대	(1,039)	24.1	16.8	17.4	15.6	16.7	2.5	6.9	0.0	
	40대	(1,065)	20.4	13.7	17.6	21.7	14.7	4.1	7.7	0.1	
	50대	(803)	18.1	14.4	22.5	18.8	13.1	5.1	8.0	0.0	
	60대 이상	(925)	19.6	8.9	28.3	18.2	10.3	5.4	9.4	0.0	
결혼 여부	기혼	(3,584)	20.1	13.5	21.8	18.6	13.6	4.0	8.3	0.0	208.59 ***
	미혼	(1,548)	23.6	27.3	10.7	15.8	12.4	2.6	7.8	0.0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7.9	18.8	19.0	20.9	15.3	2.8	5.4	0.0	293.88 ***
	충청권	(530)	28.9	21.5	13.6	15.3	12.6	2.3	5.7	0.2	
	강원권	(165)	26.1	12.7	12.7	21.2	21.8	1.8	3.6	0.0	
	영남권	(1,369)	21.0	15.6	20.5	13.3	8.9	6.3	14.5	0.0	
	호남권	(517)	26.7	14.7	18.6	15.9	13.9	1.7	8.5	0.0	
	제주권	(67)	31.3	20.9	9.0	19.4	7.5	6.0	6.0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9.7	21.0	16.3	19.6	15.6	2.7	5.2	0.0	223.79 ***
	충청권	(721)	25.2	18.9	17.1	17.2	11.8	3.1	6.7	0.1	
	강원권	(256)	22.7	10.2	14.8	26.6	18.4	2.7	4.7	0.0	
	영남권	(1,588)	19.6	15.5	21.1	14.9	10.3	5.7	12.8	0.0	
	호남권	(818)	22.2	16.5	20.8	17.6	13.8	1.7	7.3	0.0	
	제주권	(73)	24.7	19.2	12.3	16.4	13.7	4.1	9.6	0.0	
	기타	(18)	44.4	0.0	5.6	16.7	16.7	16.7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카. 먼저 퇴근하면서 뒷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먼저 퇴근하면서 뒷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내일 뵙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25.8%), ‘먼저 (나)가겠습니다’(17.5%), ‘수고하십시오’(9.9%), ‘먼저 실례하겠습니다’(6.4%), ‘고생하십시오’(4.4%), ‘안녕히 계세요’(4.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먼저 퇴근합니다’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13] 먼저 퇴근하면서 뒷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여성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34.2%로 남성(29.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내일 뵙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녕히 계세요’의 경우 10대의 응답 비율이 20.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내일 뵙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미혼의 경우 33.2%로 기혼(31.6%)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에 대해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내일 뵙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영남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고하십시오’의 경우 제주권의 응답 비율이 19.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에서는 ‘내일 뵙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청권, 강원권, 기타 지역에서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를 표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수고하십시오’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윗사람에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말이다.”라고 그 사용을 금지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화를 끊을 때 하는 인사말과 같이 ‘들어가다’는 표현을 사용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25.8%로 나타났다. 한편 ‘수고하십시오’는 모든 세대가 골고루(10대 11.4%, 20대 11.1%, 30대 10.0%, 40대 8.5%, 50대 9.5%, 60대 이상 9.8%)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먼저 퇴근하면서 뒷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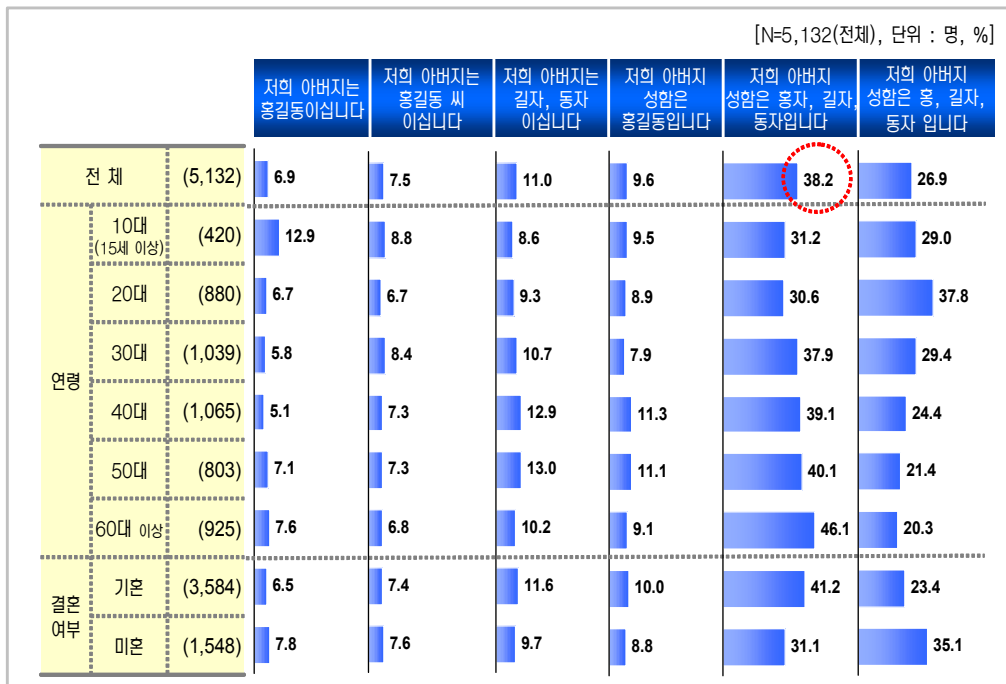
		응답자 수	고생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4.4	32.1	17.5	25.8	6.4	9.9	4.0	0.1	
성별	남성	(2,541)	5.6	29.9	16.9	26.6	6.8	10.5	3.5	0.1	38.28 ***
	여성	(2,591)	3.2	34.2	18.0	25.0	5.9	9.3	4.6	0.0	
연령	15~19세	(420)	2.1	31.0	13.3	16.4	5.5	11.4	20.2	0.0	440.48 ***
	20대	(880)	4.5	33.3	13.2	25.2	6.0	11.1	6.6	0.0	
	30대	(1,039)	4.1	32.1	15.9	30.6	5.3	10.0	1.9	0.0	
	40대	(1,065)	3.2	34.9	18.4	27.3	6.3	8.5	1.4	0.0	
	50대	(803)	5.5	31.4	21.9	23.5	6.5	9.5	1.6	0.1	
	60대 이상	(925)	5.9	28.5	20.2	25.4	8.2	9.8	1.6	0.2	
결혼 여부	기혼	(3,584)	4.6	31.6	19.4	26.8	6.6	9.2	1.6	0.1	210.73 ***
	미혼	(1,548)	3.8	33.2	13.0	23.4	5.7	11.4	9.6	0.0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4.4	31.2	15.8	28.4	6.5	9.9	3.8	0.0	145.26 ***
	충청권	(530)	4.3	30.4	19.1	28.7	3.8	7.2	6.6	0.0	
	강원권	(165)	4.2	24.2	17.6	33.3	3.0	11.5	6.1	0.0	
	영남권	(1,369)	3.5	38.6	18.9	20.9	6.1	9.6	2.4	0.1	
	호남권	(517)	5.6	24.4	20.5	21.5	10.3	11.6	6.0	0.2	
	제주권	(67)	11.9	23.9	11.9	22.4	6.0	19.4	4.5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4.5	31.9	14.3	28.1	6.0	10.0	5.1	0.1	134.68 ***
	충청권	(721)	4.2	27.6	21.2	28.3	4.6	8.7	5.4	0.0	
	강원권	(256)	4.3	27.3	16.0	32.8	5.5	10.2	3.9	0.0	
	영남권	(1,588)	3.7	38.4	18.4	21.6	6.3	9.6	2.1	0.1	
	호남권	(818)	5.4	26.3	19.4	24.8	9.0	10.5	4.4	0.1	
	제주권	(73)	9.6	24.7	15.1	23.3	4.1	19.2	4.1	0.0	
	기타	(18)	0.0	27.8	16.7	38.9	11.1	5.6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타.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은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 길자, 동자입니다’(26.9%), ‘저희 아버지는 길자, 동자이십니다’(11.0%),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길동입니다’(9.6%),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 씨 이십니다’(7.5%),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이십니다’(6.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표준 화법 해설(1992)

저희 아버지는(아버지의 함자는)오자 오자이십니다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46.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는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 길자, 동자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41.2%로 미혼(3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 길자, 동자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이 35.1%로 기혼(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권에서는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 길자, 동자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의 응답 비율이 61.1%로 가장 높았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저희 아버지는(아버지의 함자는) O자, O자이십니다’를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글자 뒤에 ‘자’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24.0%이었고, 성씨(姓氏)를 붙이지 않고 이름만 소개하는 경우가 11.0%로, 이 둘을 합하면 3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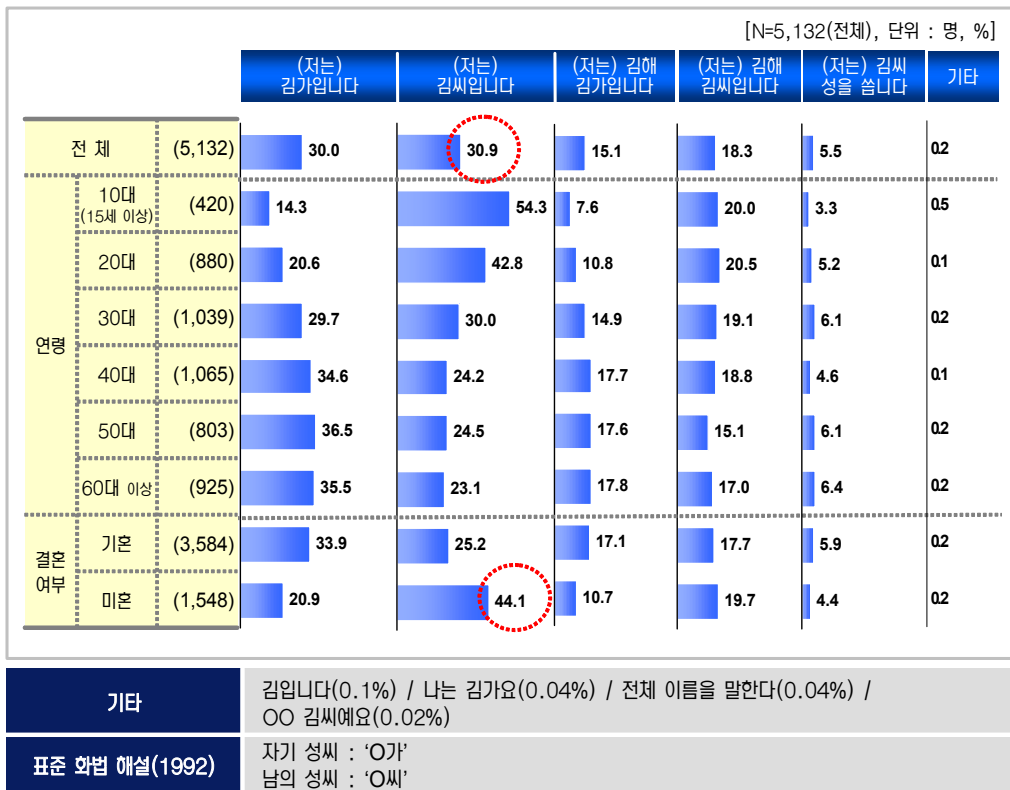
		응답자 수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이 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 씨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길자, 동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함은 홍길동입 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 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 길자, 동자입니 다	통계량 (χ^2)
전 체		(5,132)	6.9	7.5	11.0	9.6	38.2	26.9	
성별	남성	(2,541)	6.1	7.5	11.6	9.3	39.0	26.5	8.63 n.s
	여성	(2,591)	7.7	7.4	10.3	9.9	37.4	27.2	
연령	15~19세	(420)	12.9	8.8	8.6	9.5	31.2	29.0	156.28 ***
	20대	(880)	6.7	6.7	9.3	8.9	30.6	37.8	
	30대	(1,039)	5.8	8.4	10.7	7.9	37.9	29.4	
	40대	(1,065)	5.1	7.3	12.9	11.3	39.1	24.4	
	50대	(803)	7.1	7.3	13.0	11.1	40.1	21.4	
	60대 이상	(925)	7.6	6.8	10.2	9.1	46.1	20.3	
결혼 여부	기혼	(3,584)	6.5	7.4	11.6	10.0	41.2	23.4	92.09 ***
	미혼	(1,548)	7.8	7.6	9.7	8.8	31.1	35.1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5.2	10.3	12.4	9.8	39.8	22.5	294.13 ***
	충청권	(530)	7.9	2.8	16.8	5.8	35.8	30.8	
	강원권	(165)	3.6	3.6	10.9	2.4	35.8	43.6	
	영남권	(1,369)	7.2	5.8	7.9	8.8	36.8	33.6	
	호남권	(517)	14.5	5.0	6.2	18.0	35.6	20.7	
	제주권	(67)	7.5	1.5	13.4	1.5	47.8	28.4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5.5	10.0	11.8	9.8	39.0	24.0	159.42 ***
	충청권	(721)	7.1	4.6	16.2	5.7	38.8	27.6	
	강원권	(256)	4.3	7.4	9.8	5.9	37.5	35.2	
	영남권	(1,588)	6.4	6.6	8.9	9.6	37.4	31.1	
	호남권	(818)	11.1	7.1	9.0	14.5	36.3	21.9	
	제주권	(73)	9.6	4.1	12.3	4.1	46.6	23.3	
	기타	(18)	5.6	0.0	11.1	5.6	61.1	16.7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파.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은 ‘(저는) 김씨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0.9%, ‘(저는) 김가입니다’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18.3%), ‘(저는) 김해 김가입니다’(15.1%), ‘(저는) 김씨 성을 씁니다’(5.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김입니다’, ‘나는 김가요’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15]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저는) 김가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29.9%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저는) 김씨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 ‘(저는) 김씨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저는) 김가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의 경우 ‘(저는) 김가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3.9%로 가장 높은 반면, 미혼의 경우 ‘(저는) 김씨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에서는 ‘(저는) 김씨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권과 영남권에서는 ‘(저는) 김가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제주권과 수도권에서 ‘(저는) 김씨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자기 성씨에는 ‘가’를 붙이고 남의 성씨에는 ‘씨’를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성에 ‘씨’를 붙여 소개하는 경우가 54.7%로 자신의 성을 소개할 때도 ‘씨’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자 수	(저는) 김가입니다	(저는) 김씨입니다	(저는) 김해 김가입니다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저는) 김씨 성을 씁니다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30.0	30.9	15.1	18.3	5.5	0.2	
성별	남성	(2,541)	29.9	27.9	16.3	20.8	4.9	0.2	46.17 ***
	여성	(2,591)	30.1	33.8	14.0	15.9	6.0	0.2	
연령	15~19세	(420)	14.3	54.3	7.6	20.0	3.3	0.5	324.89 ***
	20대	(880)	20.6	42.8	10.8	20.5	5.2	0.1	
	30대	(1,039)	29.7	30.0	14.9	19.1	6.1	0.2	
	40대	(1,065)	34.6	24.2	17.7	18.8	4.6	0.1	
	50대	(803)	36.5	24.5	17.6	15.1	6.1	0.2	
	60대 이상	(925)	35.5	23.1	17.8	17.0	6.4	0.2	
결혼 여부	기혼	(3,584)	33.9	25.2	17.1	17.7	5.9	0.2	226.54 ***
	미혼	(1,548)	20.9	44.1	10.7	19.7	4.4	0.2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25.2	35.1	15.4	18.9	5.3	0.1	277.82 ***
	충청권	(530)	30.2	34.3	11.7	19.4	4.2	0.2	
	강원권	(165)	28.5	26.1	21.8	17.6	6.1	0.0	
	영남권	(1,369)	38.6	20.1	18.8	18.3	3.7	0.4	
	호남권	(517)	33.1	35.2	5.6	13.5	12.4	0.2	
	제주권	(67)	9.0	46.3	14.9	26.9	3.0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22.5	38.4	14.7	19.2	5.2	0.1	441.85 ***
	충청권	(721)	29.5	33.1	12.8	19.3	5.0	0.3	
	강원권	(256)	24.2	27.7	24.6	20.3	3.1	0.0	
	영남권	(1,588)	37.9	21.5	19.0	17.3	4.0	0.4	
	호남권	(818)	34.0	31.4	8.2	16.4	10.0	0.0	
	제주권	(73)	8.2	49.3	9.6	30.1	2.7	0.0	
	기타	(18)	27.8	33.3	11.1	5.6	16.7	5.6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하.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14.2%),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11.7%), ‘고생이 많으십니다’(11.1%), ‘힘내세요’(8.7%), ‘얼마나 슬프십니까?’(7.1%), ‘편히 가셨을 겁니다’(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없이 인사만 한다)’는 응답도 17.2%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16]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26.8%로 여성(21.8%)보다 높게 나타났다. '(말없이 인사만 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이 19.4%로 남성(1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의 경우 '(말없이 인사만 한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26.8%로 여성(21.8%)보다 높게 나타났다. '(말없이 인사만 한다)'의 경우 여성의 응답 비율이 19.4%로 남성(15.1%)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과 미혼 모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혼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26.7%로 기혼(23.2%)보다 높게 나타났다. '(말없이 인사만 한다)'의 경우 미혼의 응답 비율이 26.6%로 기혼(13.2%)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영남권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호남권에서는 '(말없이 인사만 한다)', 제주권에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제주권에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라고 한 뒤 만약 말을 해야 할 때의 표준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등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상의 예절에 맞지 않는 '고생이 많으십니다'도 11.1%를 차지하였다.

[표 19]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자 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편히 가셨을 겁니다	힘내세요	얼마나 슬프십니까	(말없이 인사만 한다)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11.1	24.2	11.7	14.2	5.3	8.7	7.1	17.2	0.4	
성별	남성	(2,541)	10.9	26.8	12.1	16.2	4.3	7.2	7.2	15.1	0.3	73.19 ***
	여성	(2,591)	11.2	21.8	11.2	12.3	6.4	10.2	7.1	19.4	0.5	
연령	15~19세	(420)	6.0	27.9	5.7	6.0	4.5	12.4	1.7	36.0	0.0	462.67 ***
	20대	(880)	6.4	26.1	8.0	13.4	4.2	12.8	3.5	25.6	0.0	
	30대	(1,039)	12.0	25.0	11.9	15.1	4.6	9.5	5.6	16.2	0.0	
	40대	(1,065)	11.5	24.3	12.5	14.9	5.9	9.1	8.0	13.3	0.4	
	50대	(803)	13.8	21.0	14.7	15.6	5.9	5.6	10.1	13.0	0.4	
	60대 이상	(925)	13.8	22.6	14.1	15.8	6.4	4.5	11.1	10.3	1.4	
결혼 여부	기혼	(3,584)	13.1	23.2	13.3	14.9	5.7	7.1	8.8	13.2	0.6	288.31 ***
	미혼	(1,548)	6.3	26.7	7.8	12.6	4.3	12.4	3.2	26.6	0.0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9.7	24.4	11.8	16.3	6.9	10.3	5.1	15.3	0.2	366.50 ***
	충청권	(530)	6.4	25.3	15.3	14.5	2.8	10.8	10.2	13.8	0.9	
	강원권	(165)	7.9	31.5	11.5	16.4	2.4	7.9	6.1	15.8	0.6	
	영남권	(1,369)	12.6	22.2	11.7	11.9	5.0	6.7	10.8	18.8	0.4	
	호남권	(517)	15.9	26.3	7.9	10.6	1.7	4.8	5.2	26.5	1.0	
	제주권	(67)	38.8	17.9	6.0	6.0	7.5	6.0	0.0	17.9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8.9	26.1	11.2	14.7	6.2	11.8	4.1	16.8	0.3	274.67 ***
	충청권	(721)	8.5	24.1	13.5	16.1	4.3	9.2	11.0	12.8	0.7	
	강원권	(256)	10.2	27.0	11.3	21.9	3.9	7.0	3.9	14.5	0.4	
	영남권	(1,588)	12.5	21.9	11.9	12.5	5.9	7.1	10.1	17.8	0.3	
	호남권	(818)	13.3	24.0	11.2	13.1	4.0	6.2	5.5	22.1	0.5	
	제주권	(73)	34.2	26.0	6.8	6.8	5.5	4.1	1.4	15.1	0.0	
	기타	(18)	11.1	33.3	5.6	16.7	0.0	11.1	5.6	16.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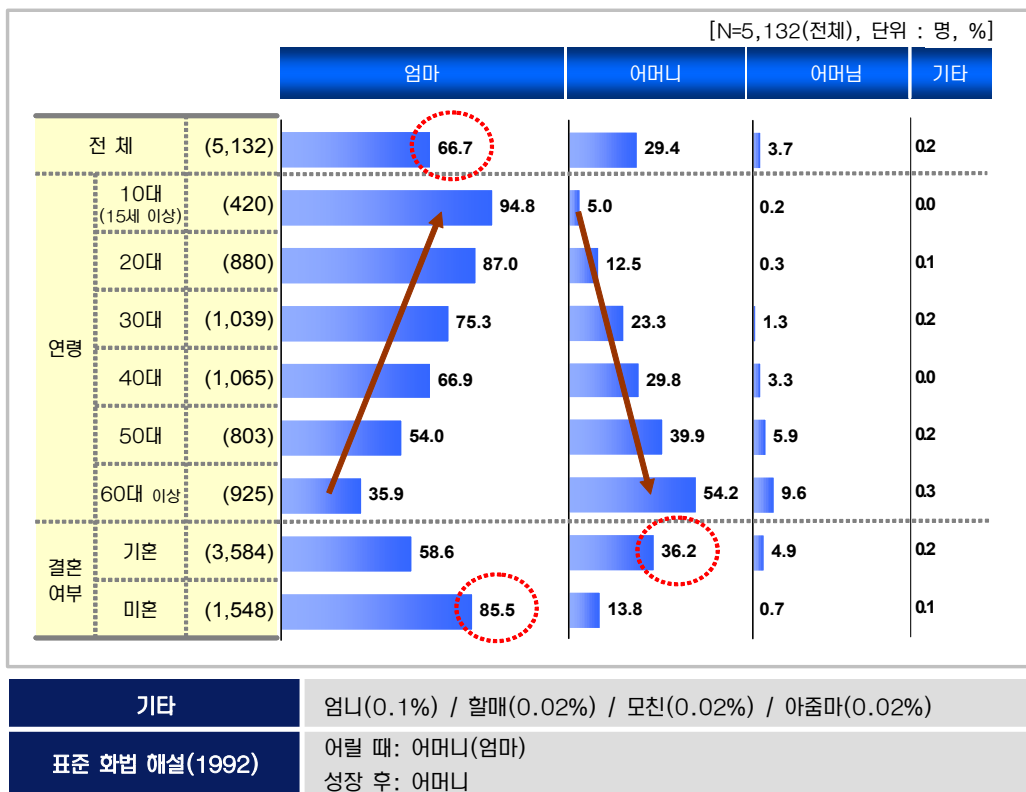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가정에서의 호칭 · 지칭어_공통(남/여)

가.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의 호칭은 '엄마'에 대한 응답 비율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머니'(29.4%), '어머님'(3.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엄니', '할매', '모친', '아줌마'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17]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엄마’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78.0%로 남성(55.3%)과 비교하여 높게 조사되었다. 반대로 ‘어머니’,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엄마’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10대의 경우 94.8%의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60대 이상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54.2%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과 미혼 모두 ‘엄마’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미혼의 경우 85.5%로 기혼(58.6%)과 비교하여 높게 조사되었다. 반대로 ‘어머니’,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엄마’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권에서는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9.7%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수도권과 영남권 출신자가 타 지역보다 ‘엄마’라고 호칭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도와 기타 지역은 ‘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58.9%, 55.6%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어릴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장성해서는 ‘어머니’라고 고쳐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엄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0]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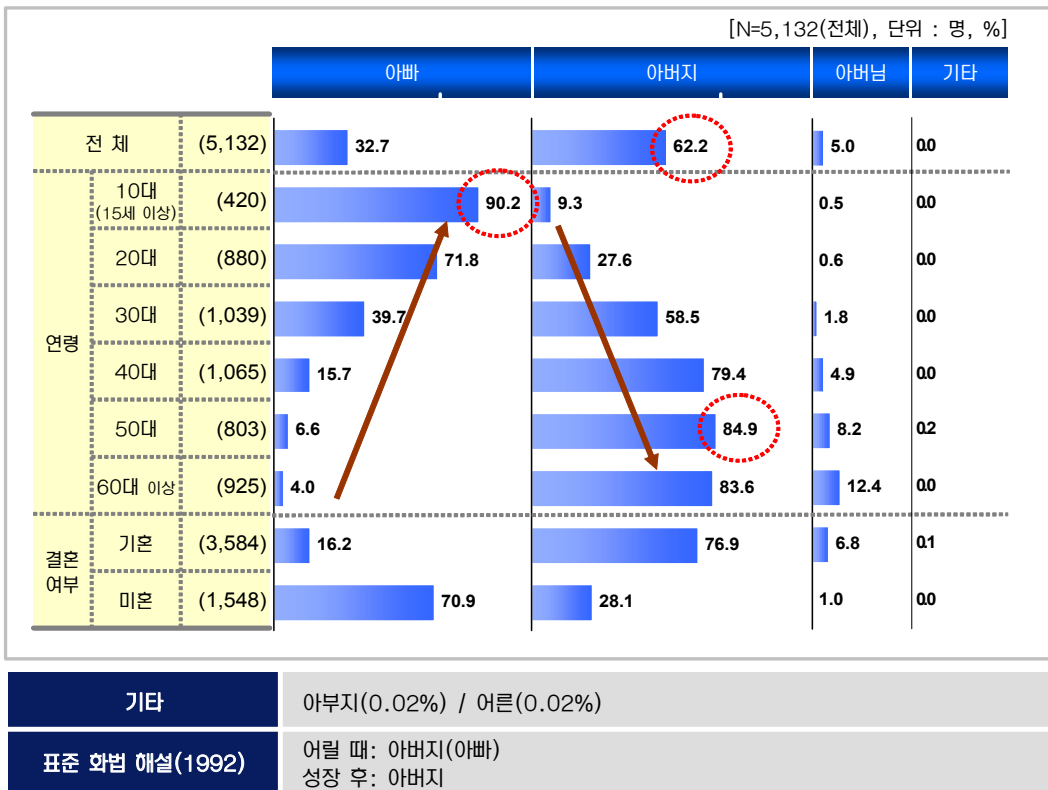
		응답자 수	엄마	어머니	어머님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66.7	29.4	3.7	0.2	
성별	남성	(2,541)	55.3	38.7	5.7	0.2	308.92 ***
	여성	(2,591)	78.0	20.3	1.6	0.1	
연령	15~19세	(420)	94.8	5.0	0.2	0.0	850.05 ***
	20대	(880)	87.0	12.5	0.3	0.1	
	30대	(1,039)	75.3	23.3	1.3	0.2	
	40대	(1,065)	66.9	29.8	3.3	0.0	
	50대	(803)	54.0	39.9	5.9	0.2	
	60대 이상	(925)	35.9	54.2	9.6	0.3	
결혼 여부	기혼	(3,584)	58.6	36.2	4.9	0.2	355.95 ***
	미혼	(1,548)	85.5	13.8	0.7	0.1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66.0	30.0	3.9	0.0	107.57 ***
	충청권	(530)	64.0	30.2	5.3	0.6	
	강원권	(165)	52.7	37.6	9.7	0.0	
	영남권	(1,369)	71.9	25.4	2.5	0.2	
	호남권	(517)	68.1	30.2	1.5	0.2	
	제주권	(67)	34.3	59.7	6.0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70.5	26.1	3.3	0.1	187.95 ***
	충청권	(721)	59.9	34.4	5.3	0.4	
	강원권	(256)	53.1	37.9	9.0	0.0	
	영남권	(1,588)	71.0	26.4	2.4	0.2	
	호남권	(818)	64.5	31.9	3.5	0.0	
	제주권	(73)	35.6	58.9	5.5	0.0	
	기타	(18)	33.3	55.6	5.6	5.6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나.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의 호칭은 어머니를 부를 때의 호칭 결과와 달리 '아버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빠'(32.7%), '아버님'(5.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부지', '어른'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18]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아버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66.5%로 여성(58.0%)과 비교하여 높게 조사되었다. 반대로 ‘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이 39.8%로 남성(2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50대의 경우 84.9%의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특별히 10~20대의 경우 ‘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90.2%, 71.8%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76.9%로 미혼(28.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의 경우 ‘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70.9%로 기혼(16.2%)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두 ‘아버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엄마’라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영남권 거주자가 아버지에 대한 호칭에서는 ‘아버지’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70.0%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영남권 출신자가 타 지역보다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엄마’라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도권 출신자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에서도 ‘아빠’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어릴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장성해서는 ‘아버지’라고 고쳐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를 부를 때와 다르게 20대 이하에서는 ‘아빠’라고 부르는 비율이 높고, 30대 이상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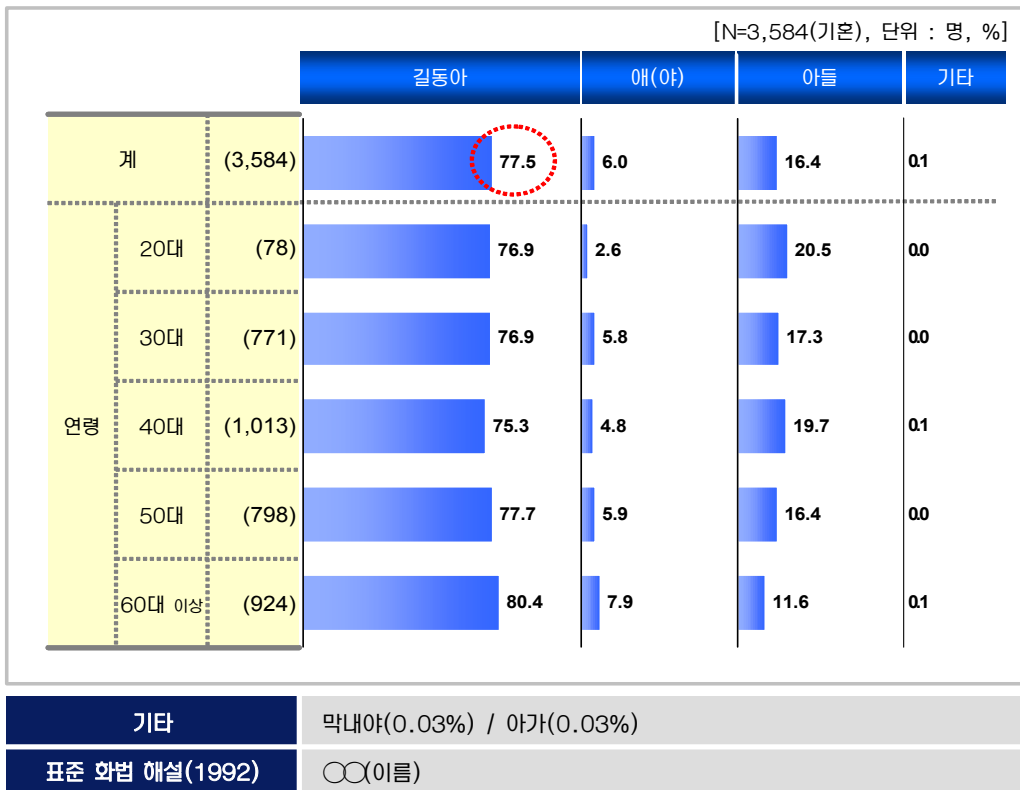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빠	아버지	아버님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32.7	62.2	5.0	0.0	
성별	남성	(2,541)	25.6	66.5	7.9	0.1	175.20 ***
	여성	(2,591)	39.8	58.0	2.3	0.0	
연령	15~19세	(420)	90.2	9.3	0.5	0.0	2,092.27 ***
	20대	(880)	71.8	27.6	0.6	0.0	
	30대	(1,039)	39.7	58.5	1.8	0.0	
	40대	(1,065)	15.7	79.4	4.9	0.0	
	50대	(803)	6.6	84.9	8.2	0.2	
	60대 이상	(925)	4.0	83.6	12.4	0.0	
결혼 여부	기혼	(3,584)	16.2	76.9	6.8	0.1	1,475.69 ***
	미혼	(1,548)	70.9	28.1	1.0	0.0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36.0	58.7	5.3	0.0	82.68 ***
	충청권	(530)	33.2	59.1	7.7	0.0	
	강원권	(165)	32.1	57.6	10.3	0.0	
	영남권	(1,369)	26.5	70.0	3.4	0.1	
	호남권	(517)	33.1	63.2	3.5	0.2	
	제주권	(67)	32.8	61.2	6.0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44.3	51.1	4.6	0.0	197.74 ***
	충청권	(721)	28.8	63.9	7.2	0.0	
	강원권	(256)	26.2	63.7	10.2	0.0	
	영남권	(1,588)	26.3	70.2	3.5	0.1	
	호남권	(818)	28.4	66.1	5.4	0.1	
	제주권	(73)	28.8	64.4	6.8	0.0	
	기타	(18)	0.0	94.4	5.6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다.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

기혼자를 대상으로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의 호칭을 조사한 결과 '길동아'와 같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응답 비율이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들'(16.4%), '애(야)'(6.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막내야', '아가'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19]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



기혼자를 대상으로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 연령 / 거주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길동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78.8%로 여성(76.4%)과 비교하여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과 50대에서 '길동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40대에서는 '아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은 20.5%, 19.7%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길동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에서는 '아들'에 대한 응답 비율이 25.4%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해외 및 이북의 기타 지역에서 '길동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94.1%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 'OO(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본 조사 결과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16.4%를 차지했다.

[표 22]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

[N = 3,584(기혼), 단위 : 명, %]

		응답자 수	길동아	애(야)	아들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77.5	6.0	16.4	0.1	
성별	남성	(1,679)	78.8	6.7	14.5	0.1	11.84 *
	여성	(1,905)	76.4	5.5	18.1	0.1	
연령	20대	(78)	76.9	2.6	20.5	0.0	37.64 **
	30대	(771)	76.9	5.8	17.3	0.0	
	40대	(1,013)	75.3	4.8	19.7	0.1	
	50대	(798)	77.7	5.9	16.4	0.0	
	60대 이상	(924)	80.4	7.9	11.6	0.1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75.5	6.8	17.6	0.1	63.58 ***
	충청권	(366)	66.4	8.2	25.4	0.0	
	강원권	(121)	77.7	1.7	20.7	0.0	
	영남권	(957)	82.3	5.3	12.3	0.0	
	호남권	(401)	84.0	3.7	12.2	0.0	
	제주권	(43)	86.0	4.7	9.3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74.1	6.0	19.7	0.2	35.39 n. s
	충청권	(543)	72.9	7.0	20.1	0.0	
	강원권	(203)	77.3	4.9	17.7	0.0	
	영남권	(1,151)	80.2	6.2	13.6	0.0	
	호남권	(671)	81.1	5.4	13.6	0.0	
	제주권	(53)	79.2	5.7	15.1	0.0	
	기타	(17)	94.1	5.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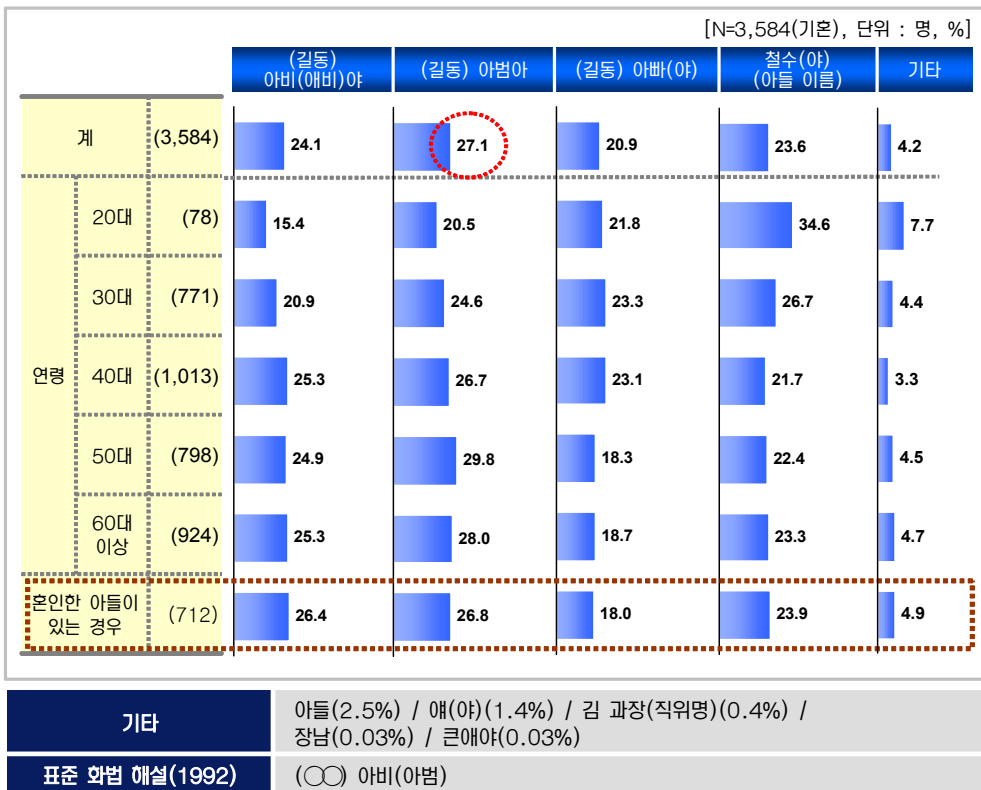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라.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1) 혼인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혼인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들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한 응답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길동) 아범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길동) 아비(애비)야’가 24.1%, ‘철수(야)’와 같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비율이 23.6%, ‘(길동) 아빠(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20.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아들’, ‘애(야)’, ‘김 과장(직위명)’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20]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보다 아들의 자녀 이름과 함께 아들을 호칭하는 응답 비율이 7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한 아들이 있는 경우 전체 응답 비율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 ‘(길동) 아비(애비)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들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길동) 아범아’와 ‘(길동) 아비(애비)야’의 경우 40대 이상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철수(야)’와 ‘(길동) 아빠(야)’의 경우는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길동) 아범아’의 경우 수도권에서 35.8%의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반면 호남권, 제주권에서는 10% 중반 이하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길동) 아비(애비)야’의 경우 제주권에서 2.3%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철수(야)’의 경우 영남권에서 43.1%의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에서 10% 중반 이하의 비율로 나타났다. ‘(길동) 아빠(야)’의 경우 제주권에서 48.8%의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해외 및 이북의 기타 지역에서 ‘(길동) 아빠(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47.1%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OO) 아비(아범)’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길동) 아범아’(27.1%), ‘(길동) 아비(애비)야’(24.1%)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도 23.6%, ‘(길동) 아빠(야)’는 20.9%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N = 3,584(기본),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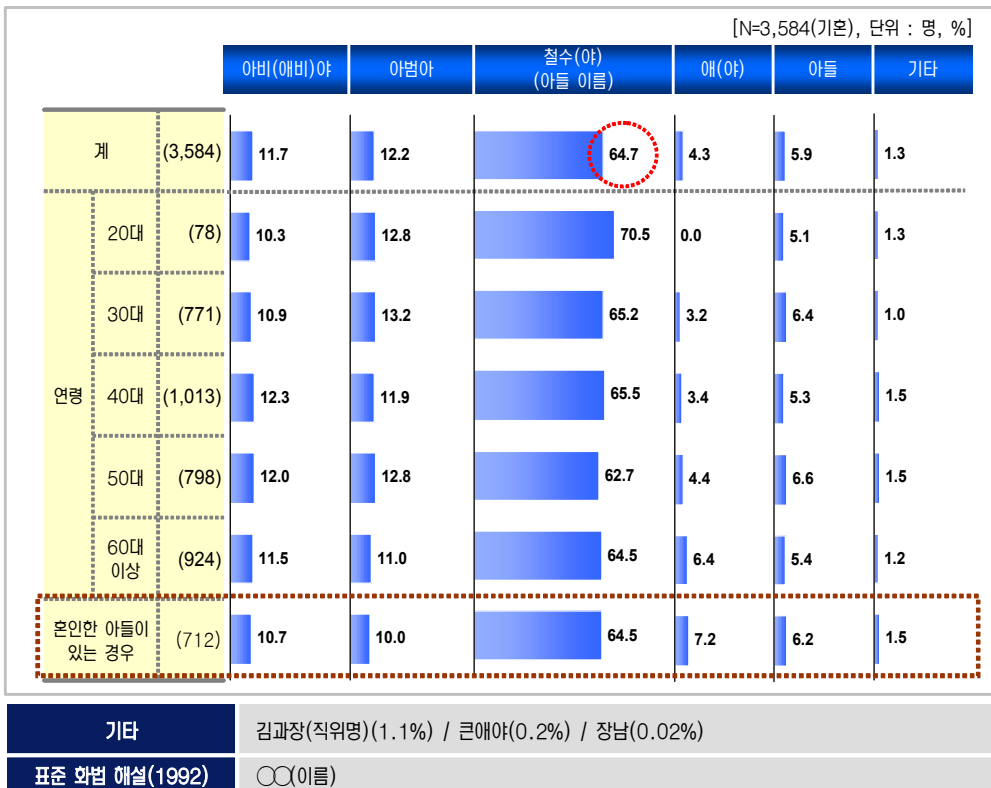
		응답자 수	(길동) 아비 (애비) 야	(길동) 아범아	(길동) 아빠 (아) 야	철수 (야) (아들 이름)	김 과장 (직위 명)	애(야)	아들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24.1	27.1	20.9	23.6	0.4	1.4	2.5	0.1	
혼인한 아들이 있는 경우		(712)	26.4	26.8	18.0	23.9	0.6	1.7	2.4	0.3	
성별	남성	(1,679)	24.0	28.1	20.5	23.2	0.5	1.4	2.2	0.1	6.99 n.s
	여성	(1,905)	24.1	26.4	21.3	24.0	0.2	1.3	2.7	0.1	
연령	20대	(78)	15.4	20.5	21.8	34.6	0.0	2.6	5.1	0.0	49.85 *
	30대	(771)	20.9	24.6	23.3	26.7	0.4	1.4	2.6	0.0	
	40대	(1,013)	25.3	26.7	23.1	21.7	0.4	0.5	2.4	0.0	
	50대	(798)	24.9	29.8	18.3	22.4	0.3	1.6	2.6	0.0	
	60대 이상	(924)	25.3	28.0	18.7	23.3	0.4	1.9	2.1	0.2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26.8	35.8	20.4	13.0	0.4	1.2	2.3	0.0	545.14 ***
	충청권	(366)	29.8	25.7	27.9	9.6	0.5	2.2	4.1	0.3	
	강원권	(121)	28.1	37.2	14.9	14.0	0.8	0.8	4.1	0.0	
	영남권	(957)	20.9	18.0	15.2	43.1	0.3	1.1	1.5	0.0	
	호남권	(401)	15.7	12.0	29.4	36.7	0.2	2.0	3.7	0.2	
출신 지역	제주권	(43)	2.3	14.0	48.8	34.9	0.0	0.0	0.0	0.0	319.51 ***
	수도권	(946)	28.3	32.5	21.1	13.4	0.4	1.0	3.3	0.0	
	충청권	(543)	29.1	32.2	23.0	10.9	0.4	1.3	2.9	0.2	
	강원권	(203)	27.6	37.4	15.8	14.8	0.5	0.5	3.4	0.0	
	영남권	(1,151)	22.0	22.4	16.7	36.1	0.3	1.3	1.2	0.0	
	호남권	(671)	18.0	21.6	25.6	28.9	0.3	2.5	2.8	0.1	
	제주권	(53)	5.7	18.9	39.6	32.1	1.9	0.0	1.9	0.0	
기타		(17)	17.6	11.8	47.1	23.5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혼인한 아들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혼인한 아들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아들을 부를 때의 호칭은 혼인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의 호칭과 달리, '철수(아)'와 같이 아들 이름을 부르는 응답 비율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범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12.2%, '아비(애비)야'(11.7%), '애(아)'(4.3%) 순으로 조사되었다. 혼인한 아들이 있는 경우 전체 응답 비율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김 과장', '큰애야', '장남'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21]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혼인한 아들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아들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철수(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65.6%로 여성(63.9%)과 비교하여 높게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철수(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에서 83.2%, 호남권에서 78.3%, 제주권에서 72.1%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범아'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19.0%로, '아비(애비)야'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1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영남권과 해외 및 이북의 기타 지역에서 '철수(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77.1%, 70.6%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53.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아들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 'OO(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도 아들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아범아'(12.2%), '아비(애비)야'(11.7%)처럼 아들에게 자녀가 있을 때 자녀의 이름과 함께 부르는 호칭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N = 3,584(기혼),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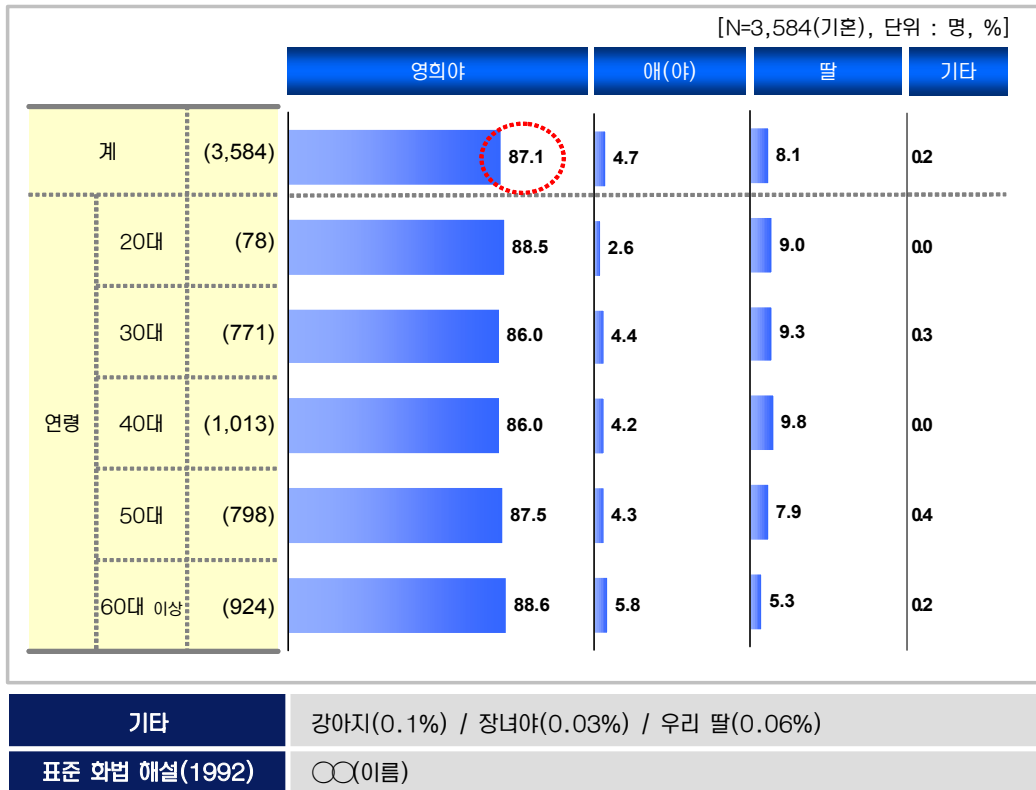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버지(아버지)아	아범아	철수(아) (아들 이름)	김 과장 (직위명)	애(00)	아들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11.7	12.2	64.7	1.1	4.3	5.9	0.2	
혼인한 아들이 있는 경우		(712)	10.7	10.0	64.5	0.8	7.2	6.2	0.7	
성별	남성	(1,679)	11.9	13.0	65.6	1.0	4.1	4.2	0.2	19.70 **
	여성	(1,905)	11.5	11.4	63.9	1.2	4.4	7.3	0.2	
연령	20대	(78)	10.3	12.8	70.5	1.3	0.0	5.1	0.0	29.85 n.s
	30대	(771)	10.9	13.2	65.2	0.9	3.2	6.4	0.1	
	40대	(1,013)	12.3	11.9	65.5	1.4	3.4	5.3	0.1	
	50대	(798)	12.0	12.8	62.7	1.3	4.4	6.6	0.3	
	60대 이상	(924)	11.5	11.0	64.5	0.8	6.4	5.4	0.4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18.7	16.6	52.7	1.2	4.4	6.3	0.2	387.00 ***
	충청권	(366)	10.7	13.7	59.0	1.1	6.8	8.5	0.3	
	강원권	(121)	7.4	19.0	56.2	1.7	2.5	12.4	0.8	
	영남권	(957)	3.8	5.9	83.2	1.0	3.0	3.1	0.0	
	호남권	(401)	3.5	5.0	78.3	0.7	5.2	6.5	0.7	
	제주권	(43)	9.3	14.0	72.1	0.0	2.3	2.3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18.2	17.7	53.0	0.6	4.1	6.2	0.2	236.57 ***
	충청권	(543)	15.3	14.5	54.5	1.1	6.4	7.9	0.2	
	강원권	(203)	10.8	14.8	58.6	3.0	3.4	8.9	0.5	
	영남권	(1,151)	6.9	7.9	77.1	1.2	3.5	3.5	0.0	
	호남권	(671)	8.6	8.9	69.7	1.0	4.0	7.0	0.6	
	제주권	(53)	7.5	17.0	66.0	0.0	3.8	5.7	0.0	
	기타	(17)	5.9	5.9	70.6	0.0	17.6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마.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

기혼자를 대상으로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의 호칭은 ‘영희야’와 같이 딸의 이름을 부르는 응답 비율이 8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딸’(8.1%), ‘애(야)’(4.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강아지’, ‘장녀야’, ‘우리 딸’ 등이 조사되었다. 이는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응답 비율 77.5%보다 높은 응답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87.7%로 남성(86.3%)과 비교하여 높게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92.8%, 92.0%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과 수도권에서는 ‘딸’에 대한 응답 비율이 11.7%, 10.0%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해외 및 이북의 기타 지역에서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0.0%, 영남권에서 91.3%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는 ‘딸’에 대한 응답 비율이 12.8%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 ‘OO(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본 조사 결과에서도 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8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8.1%를 차지했다.

[표 25]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

[N = 3,584(기혼), 단위 : 명, %]

		응답자 수	영희야	애(야)	딸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87.1	4.7	8.1	0.2	
성별	남성	(1,679)	86.3	5.9	7.7	0.1	14.89 *
	여성	(1,905)	87.7	3.6	8.5	0.3	
연령	20대	(78)	88.5	2.6	9.0	0.0	27.04 n.s
	30대	(771)	86.0	4.4	9.3	0.3	
	40대	(1,013)	86.0	4.2	9.8	0.0	
	50대	(798)	87.5	4.3	7.9	0.4	
	60대 이상	(924)	88.6	5.8	5.3	0.2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84.2	5.7	10.0	0.1	81.48 ***
	충청권	(366)	80.1	7.4	11.7	0.8	
	강원권	(121)	87.6	5.0	7.4	0.0	
	영남권	(957)	92.8	2.5	4.6	0.1	
	호남권	(401)	92.0	2.2	5.5	0.2	
	제주권	(43)	83.7	9.3	7.0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83.6	5.9	10.4	0.1	62.37 ***
	충청권	(543)	83.8	6.3	9.2	0.7	
	강원권	(203)	81.8	5.4	12.8	0.0	
	영남권	(1,151)	91.3	3.1	5.5	0.1	
	호남권	(671)	88.7	3.9	7.3	0.1	
	제주권	(53)	84.9	7.5	7.5	0.0	
	기타	(17)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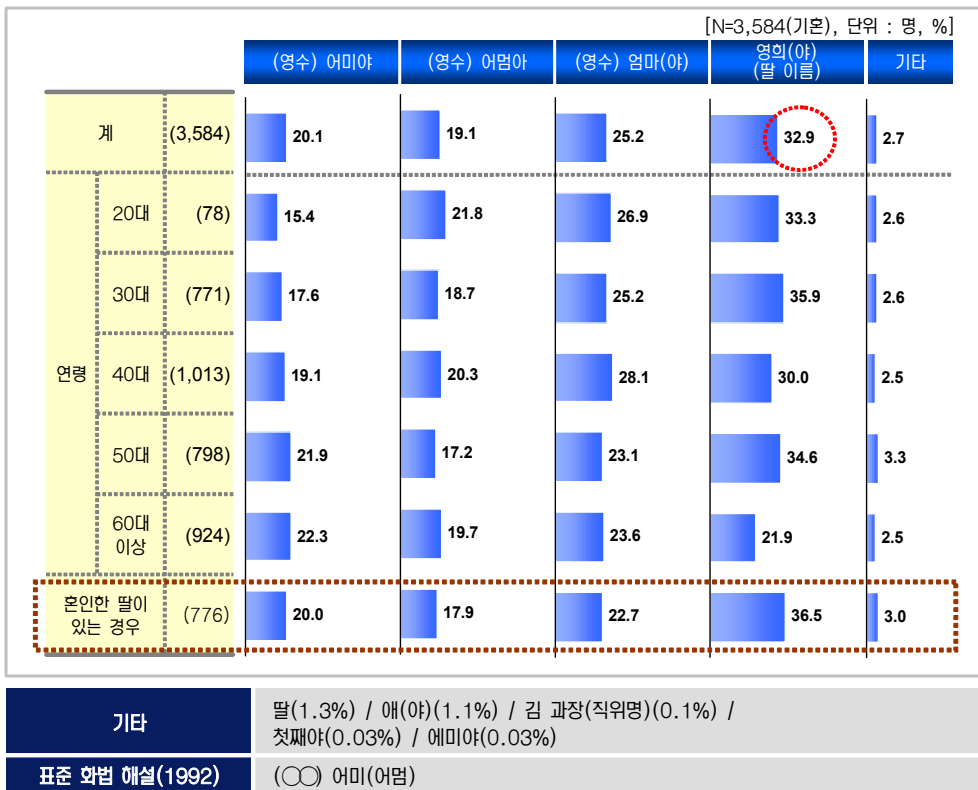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바. 혼인한 딸을 부를 때

(1) 혼인한 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혼인한 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딸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한 응답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영희(아)’와 같이 딸의 이름을 부르는 응답 비율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영수) 엄마야’(25.2%), ‘(영수) 어미야’(20.1%), ‘(영수) 어멈아’(19.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딸’, ‘애(아)’, ‘김 과장(직위명)’, ‘첫째야’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23] 혼인한 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한 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보다 딸의 자녀 이름과 함께 딸을 호칭하는 응답 비율이 64.4%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혼인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들을 부를 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응답 비율이 23.6%였던 것에 비하여 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한 딸이 있는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영희(야)’가 36.5%로 전체 값(32.9%)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한 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희야’의 경우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각각 55.4%, 44.4%의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에서는 19.8%로 나타났다. ‘(영수)엄마(야)’의 경우에는 제주권에서 51.2%의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영수)어머나’의 경우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각각 8.7%, 7.5%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영수)어미야’의 경우 제주권에서 4.7%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48.2%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혼인한 딸을 부를 때 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OO)어미(어멈)’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수)어머나’ 19.1%, ‘(영수)어미야’ 20.1%의 응답 비율이 나타났지만, 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32.9%로 가장 높았으며, ‘(영수)엄마(야)’도 25.2%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혼인한 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N = 3,584(기혼),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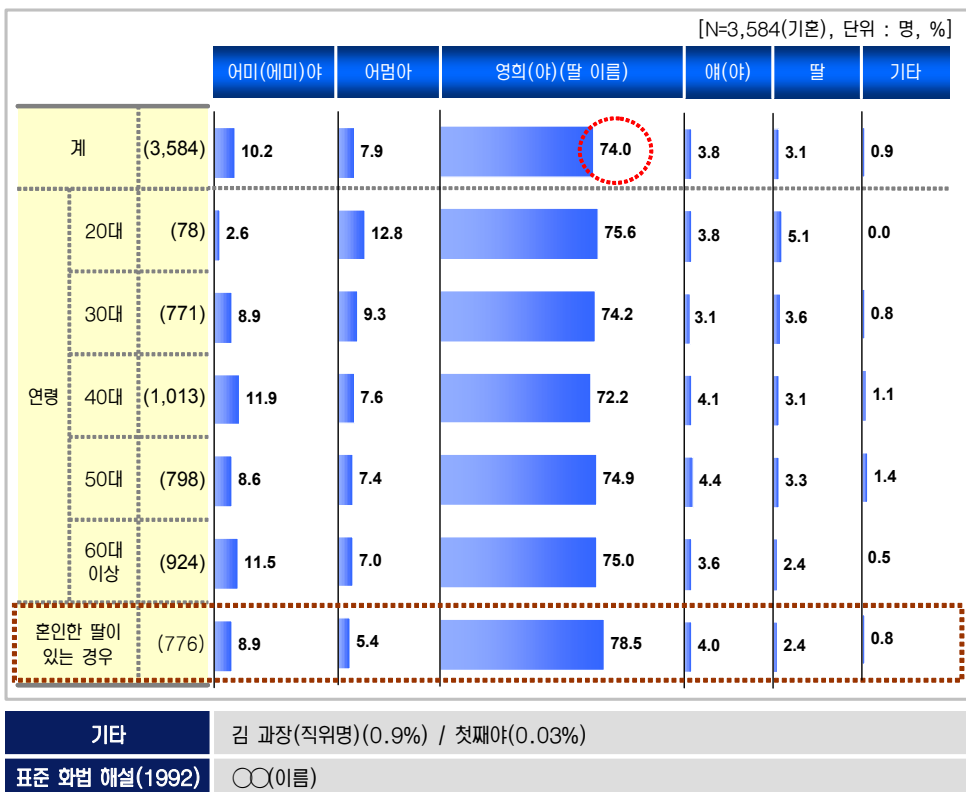
		응답자 수	(영수) 어미야	(영수) 어머야	(영수) 엄마(야)	영희(야) (딸 이름)	김과장 (직위명)	애(야)	딸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20.1	19.1	25.2	32.9	0.1	1.1	1.3	0.1	
혼인한 딸이 있는 경우		(776)	20.0	17.9	22.7	36.5	0.0	1.2	1.4	0.4	
성별	남성	(1,679)	21.6	20.3	24.9	30.7	0.1	1.3	1.2	0.0	14.12 n.s
	여성	(1,905)	18.9	18.1	25.4	34.8	0.2	1.0	1.5	0.2	
연령	20대	(78)	15.4	21.8	26.9	33.3	0.0	2.6	0.0	0.0	37.93 n.s
	30대	(771)	17.6	18.7	25.2	35.9	0.1	1.2	1.3	0.0	
	40대	(1,013)	19.1	20.3	28.1	30.0	0.2	0.8	1.5	0.0	
	50대	(798)	21.9	17.2	23.1	34.6	0.1	1.4	1.6	0.1	
	60대 이상	(924)	22.3	19.7	23.6	31.9	0.0	1.2	1.1	0.2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24.3	28.9	24.3	19.8	0.1	1.1	1.5	0.1	565.07 ***
	충청권	(366)	26.0	14.8	31.4	24.0	0.0	2.2	1.4	0.3	
	강원권	(121)	20.7	19.8	27.3	26.4	0.0	2.5	3.3	0.0	
	영남권	(957)	14.5	8.7	20.4	55.4	0.1	0.4	0.4	0.1	
	호남권	(401)	12.2	7.5	31.2	44.4	0.5	1.7	2.5	0.0	
	제주권	(43)	4.7	11.6	51.2	32.6	0.0	0.0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25.8	24.5	25.4	21.1	0.1	1.7	1.3	0.1	300.33 ***
	충청권	(543)	24.9	23.0	28.7	21.0	0.0	0.9	1.5	0.0	
	강원권	(203)	20.7	28.1	22.2	24.6	0.0	1.0	3.4	0.0	
	영남권	(1,151)	16.3	12.7	21.3	48.2	0.2	0.5	0.6	0.2	
	호남권	(671)	15.9	16.8	27.7	35.6	0.1	1.8	1.9	0.0	
	제주권	(53)	5.7	20.8	45.3	26.4	0.0	0.0	1.9	0.0	
	기타	(17)	17.6	11.8	35.3	35.3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혼인한 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혼인한 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딸을 부를 때의 호칭은 혼인한 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의 호칭과 달리 '영희(아)'와 같이 딸의 이름을 부르는 응답 비율이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혼인한 아들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아들을 호칭할 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비율(64.7%)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미(에미)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2%, '어멈아'(7.9%), '애(아)'(3.8%), '딸'(3.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혼인한 딸이 있는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영희(아)'가 78.5%로 전체 값(74.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 혼인한 딸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혼인한 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에서 89.3%, 호남권에서 87.3%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62.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어미(에미)야'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16.5%로, '어멈아'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14.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영남권과 해외 및 이북의 기타 지역에서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83.2%, 82.4%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64.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혼인한 딸을 부를 때 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 'OO(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도 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어미(에미)야'(10.2%), '어멈아'(7.9%)처럼 딸에게 자녀가 있을 때 자녀의 이름과 함께 부르는 호칭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혼인한 딸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N = 3,584(기혼), 단위 : 명, %]

		응답자 수	어미 (에미) 야	어멈아	영희 (야) (딸 이름)	김 과장 (직위명)	애(야)	딸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10.2	7.9	74.0	0.9	3.8	3.1	0.0	
혼인한 딸이 있는 경우		(776)	8.9	5.4	78.5	0.6	4.0	2.4	0.1	
성별	남성	(1,679)	10.6	8.2	73.7	1.1	3.8	2.6	0.0	6.73 n.s
	여성	(1,905)	9.9	7.6	74.3	0.7	3.9	3.6	0.1	
연령	20대	(78)	2.6	12.8	75.6	0.0	3.8	5.1	0.0	32.21 n.s
	30대	(771)	8.9	9.3	74.2	0.8	3.1	3.6	0.0	
	40대	(1,013)	11.9	7.6	72.2	1.1	4.1	3.1	0.0	
	50대	(798)	8.6	7.4	74.9	1.4	4.4	3.3	0.0	
	60대 이상	(924)	11.5	7.0	75.0	0.4	3.6	2.4	0.1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16.5	10.9	62.9	1.1	4.6	4.0	0.1	298.86 ***
	충청권	(366)	9.8	7.7	71.9	1.1	4.9	4.6	0.0	
	강원권	(121)	7.4	11.6	70.2	1.7	5.8	3.3	0.0	
	영남권	(957)	3.3	3.9	89.3	0.5	1.9	1.0	0.0	
	호남권	(401)	2.2	3.2	87.3	0.5	3.7	3.0	0.0	
	제주권	(43)	4.7	14.0	76.7	0.0	2.3	2.3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16.1	10.7	64.3	1.0	4.1	3.9	0.0	149.52 ***
	충청권	(543)	12.3	9.2	68.1	0.7	5.3	4.2	0.0	
	강원권	(203)	9.9	11.3	67.0	2.0	4.9	4.9	0.0	
	영남권	(1,151)	6.6	5.2	83.2	0.8	2.7	1.4	0.1	
	호남권	(671)	7.0	6.3	78.7	0.9	3.7	3.4	0.0	
	제주권	(53)	5.7	13.2	73.6	0.0	3.8	3.8	0.0	
	기타	(17)	11.8	0.0	82.4	0.0	5.9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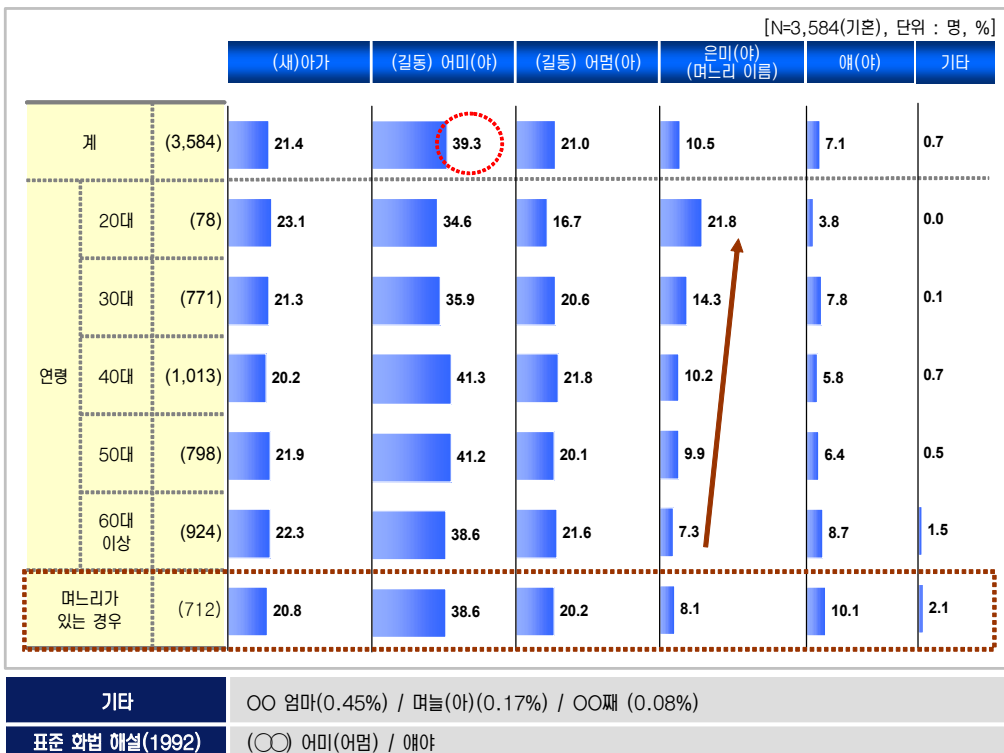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사.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1) 며느리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시부모가 자녀가 있는 며느리를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한 응답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길동) 어미(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아가’ 21.4%, ‘(길동) 어멈(아)’ 21.0%, ‘은미(아)’와 같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는 응답 비율이 10.5%, ‘애(아)’ 7.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OO 엄마’, ‘며늘(아)’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25]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한 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딸을 부를 때 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응답 비율이 32.9%였던 것에 비하여 며느리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응답 비율이 10.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며느리가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전체 값과 큰 차이는 없으며 ‘애(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1%로 전체 값(7.1%)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부모가 자녀가 있는 며느리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길동) 어미(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39.5%로 여성(3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동) 어미(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41.3%, 41.2%로 조사되었다.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20대 그룹에서 21.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길동) 어미(아)’의 경우 수도권(41.7%)과 충청권(44.5%), 영남권(34.4%), 호남권(39.2%)에서 높게 나타났고, ‘(길동) 어멈(아)’의 경우 강원권(40.5%), 제주권(3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길동) 어미(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권에서는 ‘(길동) 어멈(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37.7%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며느리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OO) 어미(어멈)’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애야’는 어조에 따라 며느리가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할 말이라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길동) 어미(아)’(39.3%), ‘(길동) 어멈(아)’(21.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 부르는 게 바람직한 ‘(새)아가’에 대한 응답 비율도 21.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며느리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10.5%, ‘애(아)’가 7.1%로 조사되었다.

[표 28]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N = 3,584(기본), 단위 : 명, %]

		응답자 수	(새)아가	(길동) 어미 (아)	(길동) 어멈 (아)	은미 (아) (며느리 이름)	애(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21.4	39.3	21.0	10.5	7.1	0.7	
며느리가 있는 경우		(712)	20.8	38.6	20.2	8.1	10.1	2.1	
성별	남성	(1679)	23.1	39.5	21.4	9.6	5.7	0.6	19.03 *
	여성	(1905)	19.9	39.1	20.6	11.2	8.2	0.8	
연령	20대	(78)	23.1	34.6	16.7	21.8	3.8	0.0	61.87 **
	30대	(771)	21.3	35.9	20.6	14.3	7.8	0.1	
	40대	(1013)	20.2	41.3	21.8	10.2	5.8	0.7	
	50대	(798)	21.9	41.2	20.1	9.9	6.4	0.5	
	60대 이상	(924)	22.3	38.6	21.6	7.3	8.7	1.5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24.4	41.7	23.4	6.1	4.2	0.2	334.01 ***
	충청권	(366)	18.6	44.5	17.8	6.8	10.7	1.6	
	강원권	(121)	13.2	33.1	40.5	7.4	5.0	0.8	
	영남권	(957)	19.5	34.4	14.3	21.1	10.0	0.6	
	호남권	(401)	19.5	39.2	22.7	6.7	9.7	2.2	
	제주권	(43)	14.0	27.9	32.6	23.3	2.3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24.3	40.4	22.4	7.8	4.7	0.4	189.80 ***
	충청권	(543)	20.1	44.2	21.4	5.5	8.1	0.7	
	강원권	(203)	19.2	36.0	31.5	7.9	4.9	0.5	
	영남권	(1151)	19.9	36.7	15.9	17.8	9.0	0.7	
	호남권	(671)	23.0	39.3	23.0	6.3	7.2	1.3	
	제주권	(53)	9.4	32.1	37.7	17.0	3.8	0.0	
	기타	(17)	11.8	58.8	23.5	0.0	5.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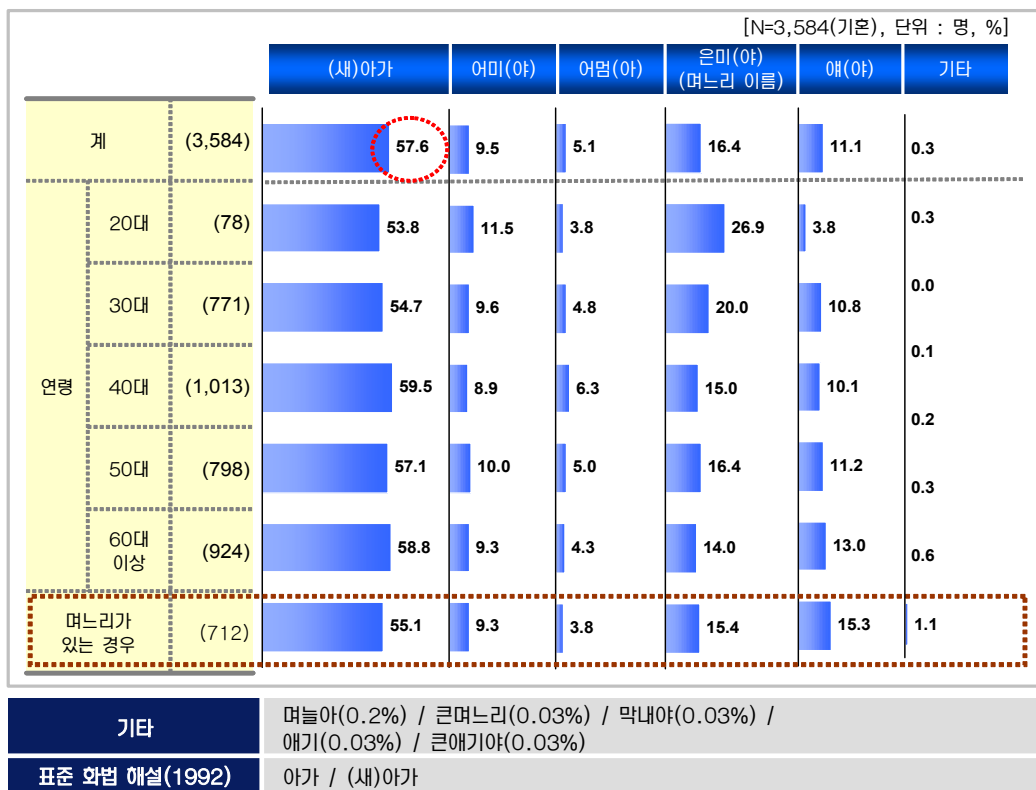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며느리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시부모가 자녀가 없는 며느리를 부를 때의 호칭은 자녀가 있는 경우와 달리 '(새)아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은미(야)'와 같이 며느리 이름에 대한 응답 비율이 16.4%, '애(야)'(11.1%), '어미(야)'(9.5%), '어멈(아)'(5.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며늘아', '큰며느리', '막내야', '애기', '큰애기야' 등이 조사되었다.

며느리가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전체 값과 큰 차이는 없으며 '애(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15.3%로 전체 값(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시부모가 자녀가 없는 며느리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새)아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는 ‘은미(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주권에서 ‘어멈(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16.3%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는 ‘은미(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25.3%, 호남권에서는 ‘애(아)’에 대한 응답 비율이 20.7%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해외 및 이북의 기타 지역에서 ‘(새)아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며느리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 ‘(새)아가’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도 ‘(새)아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어미(아)’(9.5%), ‘어멈(아)’(5.1%)처럼 며느리에게 자녀가 있을 때 자녀의 이름과 함께 부르는 호칭도 많이 사용하며, 며느리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16.4%, ‘애(아)’는 11.1%로 나타났다.

[표 29]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N = 3,584(기혼), 단위 : 명, %]

		응답자 수	(새)아가	어미 (아)	어멈 (아)	은미 (아) (며느리 이름)	애(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57.6	9.5	5.1	16.4	11.1	0.3	
며느리가 있는 경우		(712)	55.1	9.3	3.8	15.4	15.3	1.1	
성별	남성	(1,679)	58.8	9.6	5.8	15.1	10.4	0.2	11.26 n.s
	여성	(1,905)	56.6	9.3	4.6	17.5	11.7	0.4	
연령	20대	(78)	53.8	11.5	3.8	26.9	3.8	0.0	48.58 n.s
	30대	(771)	54.7	9.6	4.8	20.0	10.8	0.1	
	40대	(1,013)	59.5	8.9	6.3	15.0	10.1	0.2	
	50대	(798)	57.1	10.0	5.0	16.4	11.2	0.3	
	60대 이상	(924)	58.8	9.3	4.3	14.0	13.0	0.6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62.5	11.3	7.0	12.1	7.0	0.1	411.85 ***
	충청권	(366)	52.5	12.0	3.6	15.8	15.6	0.5	
	강원권	(121)	68.6	9.9	5.0	9.9	6.6	0.0	
	영남권	(957)	50.8	7.1	2.9	25.3	13.4	0.5	
	호남권	(401)	59.9	5.5	2.7	11.2	20.7	0.0	
	제주권	(43)	11.6	4.7	16.3	55.8	4.7	7.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59.1	11.4	6.9	14.8	7.5	0.3	222.92 ***
	충청권	(543)	59.1	10.7	5.2	11.8	13.1	0.2	
	강원권	(203)	65.0	8.9	9.4	9.4	7.4	0.0	
	영남권	(1,151)	53.3	8.5	3.5	22.3	12.0	0.3	
	호남권	(671)	61.8	7.9	3.4	12.4	14.3	0.1	
	제주권	(53)	18.9	5.7	17.0	45.3	9.4	3.8	
	기타	(17)	88.2	5.9	0.0	0.0	5.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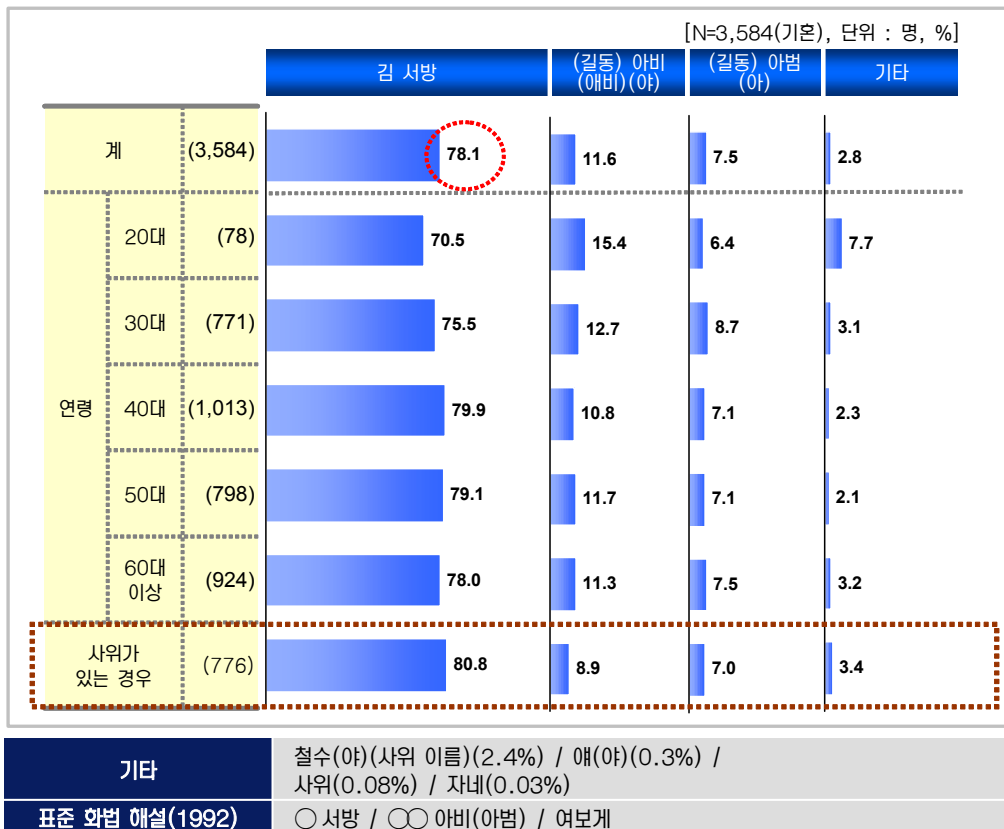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아.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

(1) 사위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장인(장모)이 자녀가 있는 사위를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한 응답 비율은 '김 서방'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길동) 아비(애비)(아)'(11.6%), '(길동) 아범(아)'(7.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철수(아)', '애(아)', '사위', '자네'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27]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이는 시부모가 자녀가 있는 며느리를 부를 때 ‘(길동) 어미(아)’, ‘(길동) 어멈(아)’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사위가 있는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김 서방’이 80.8%로 전체 값(7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인(장모)이 자녀가 있는 사위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영남권에서는 그 비율이 92.8%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에서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 사위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O 서방’, ‘OO 아비(아범)’, ‘여보게’ 등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도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위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도 2.4%로 나타났으며, 실제 사위가 있는 경우에도 2.7%가 사위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고 조사되었다.

[표 30]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N = 3,584(기혼), 단위 : 명, %]

		응답자 수	김 서방	(길동) 아비(아비) (아)	(길동) 아범(아)	철수(아) (사위 이름)	애(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78.1	11.6	7.5	2.4	0.3	0.1	
사위가 있는 경우		(776)	80.8	8.9	7.0	2.7	0.3	0.4	
성별	남성	(1,679)	78.7	10.9	7.4	2.7	0.2	0.1	4.49 n.s
	여성	(1,905)	77.5	12.2	7.7	2.1	0.4	0.2	
연령	20대	(78)	70.5	15.4	6.4	6.4	1.3	0.0	31.94 n.s
	30대	(771)	75.5	12.7	8.7	2.9	0.1	0.1	
	40대	(1,013)	79.9	10.8	7.1	1.8	0.5	0.0	
	50대	(798)	79.1	11.7	7.1	2.0	0.1	0.0	
	60대 이상	(924)	78.0	11.3	7.5	2.6	0.3	0.3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69.2	16.7	11.6	2.1	0.4	0.0	293.21 ***
	충청권	(366)	82.2	12.0	2.7	2.2	0.3	0.5	
	강원권	(121)	74.4	7.4	15.7	0.8	0.8	0.8	
	영남권	(957)	92.8	3.3	1.9	1.9	0.0	0.1	
	호남권	(401)	78.8	10.2	5.5	5.0	0.5	0.0	
	제주권	(43)	67.4	16.3	9.3	4.7	2.3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69.2	16.5	11.4	2.5	0.3	0.0	184.09 ***
	충청권	(543)	76.8	14.2	6.4	2.0	0.2	0.4	
	강원권	(203)	71.4	15.3	10.8	1.0	1.0	0.5	
	영남권	(1,151)	89.1	5.5	3.9	1.6	0.0	0.0	
	호남권	(671)	75.1	11.9	8.2	4.0	0.6	0.1	
	제주권	(53)	67.9	17.0	7.5	5.7	1.9	0.0	
	기타	(17)	94.1	0.0	5.9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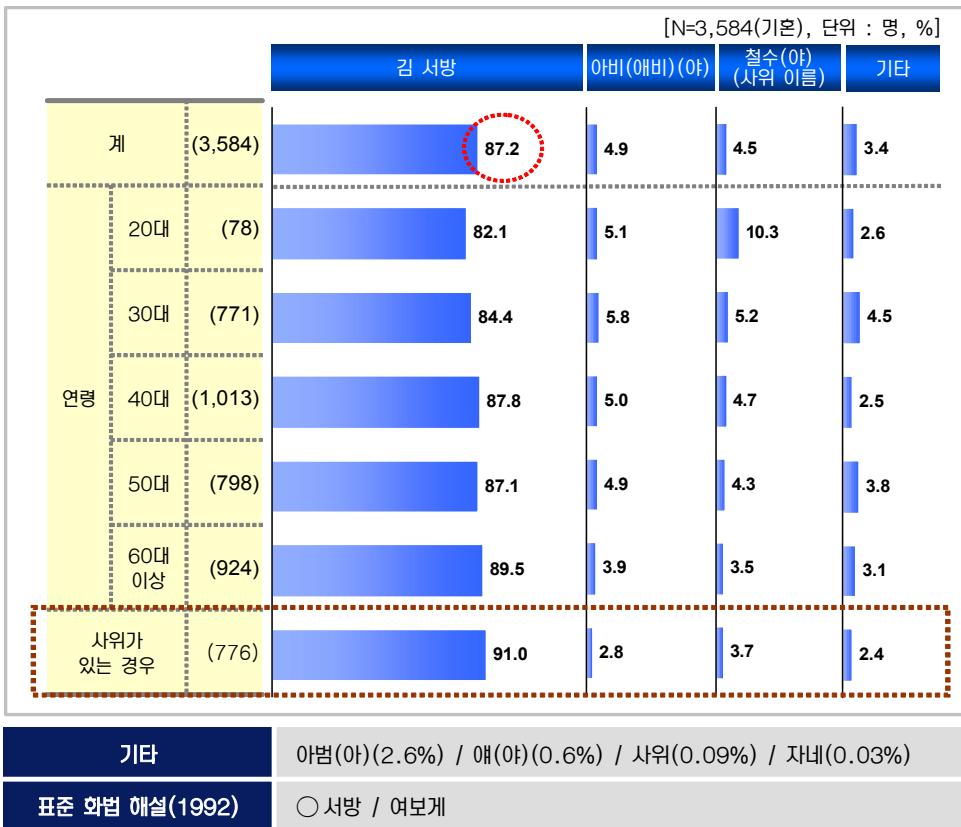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사위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장인(장모)이 자녀가 없는 사위를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한 응답 비율은 '김 서방'이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비(애비)(야)' 4.9%, '철수(야)'와 같이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응답 비율이 4.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범(아)', '애(야)', '사위', '자네' 등이 조사되었다.

이는 자녀가 있는 사위를 부를 때,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 78.1%보다 높은 수치다. 사위가 있는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김 서방'이 91.0%로 전체 값(87.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장인(장모)이 자녀가 없는 사위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권과 영남권에서는 그 비율이 95.0%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에서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 사위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 'O 서방', '여보게'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도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사위가 있는 경우에도 91.0%가 '김 서방'을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사위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4.5%로 나타났으며, '애(야)'라고 부르는 경우도 0.6%를 차지했다.

[표 31]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N = 3,584(기본),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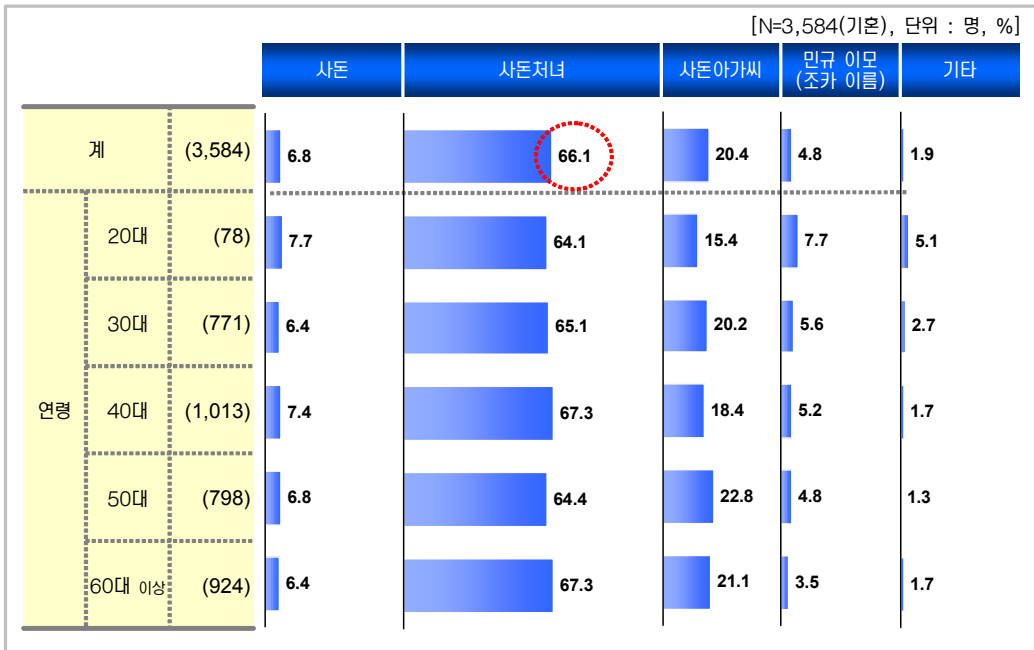
		응답자 수	김 서방	아비 (애비)야	아범(아)	철수(야) (사위 이름)	애(야)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87.2	4.9	2.6	4.5	0.6	0.1	
사위가 있는 경우		(776)	91.0	2.8	1.7	3.7	0.4	0.4	
성별	남성	(1,679)	86.1	5.3	3.2	4.9	0.5	0.1	7.63 n.s
	여성	(1905)	88.2	4.5	2.2	4.2	0.7	0.2	
연령	20대	(78)	82.1	5.1	1.3	10.3	1.3	0.0	33.58 n.s
	30대	(771)	84.4	5.8	3.5	5.2	0.9	0.1	
	40대	(1,013)	87.8	5.0	2.0	4.7	0.5	0.0	
	50대	(798)	87.1	4.9	3.1	4.3	0.6	0.0	
	60대 이상	(924)	89.5	3.9	2.3	3.5	0.5	0.3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81.3	7.3	4.2	6.3	1.0	0.0	156.79 ***
	충청권	(366)	88.8	4.9	1.6	3.3	0.8	0.5	
	강원권	(121)	95.0	2.5	0.8	0.8	0.0	0.8	
	영남권	(957)	95.0	2.0	0.7	2.1	0.1	0.1	
	호남권	(401)	90.3	2.2	1.5	5.5	0.5	0.0	
	제주권	(43)	83.7	7.0	7.0	2.3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80.7	7.2	4.7	6.8	0.7	0.0	117.14 ***
	충청권	(543)	85.6	6.3	2.4	4.1	1.3	0.4	
	강원권	(203)	88.2	4.9	2.5	3.9	0.0	0.5	
	영남권	(1,151)	93.2	3.0	1.5	2.3	0.1	0.0	
	호남권	(671)	87.3	3.7	1.8	5.8	1.2	0.1	
	제주권	(53)	81.1	7.5	5.7	5.7	0.0	0.0	
	기타	(17)	100.0	0.0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자.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

기혼자를 대상으로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의 호칭은 ‘사돈처녀’에 대한 응답 비율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돈아가씨’ 20.4%, ‘사돈’ 6.8%, ‘민규 이모’와 같이 조카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경우 4.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영희 씨’와 같이 당사자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김 과장’과 같이 직위명을 부르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29]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



기타	영희 씨(1.3%) / 김 과장(직위명)(0.4%) / 사화생(0.09%) / 사돈 큰애기(0.09%) / 사지덕(0.03%) / 사형덕(0.03%) / 사지상(0.03%)
표준 화법 해설(1992)	사돈 / 사돈처녀 / 사돈아가씨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사돈처녀'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영남권과 강원권에서 그 비율이 각각 79.9%, 75.2%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영남권에서 그 비율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

[N = 3,584(기혼),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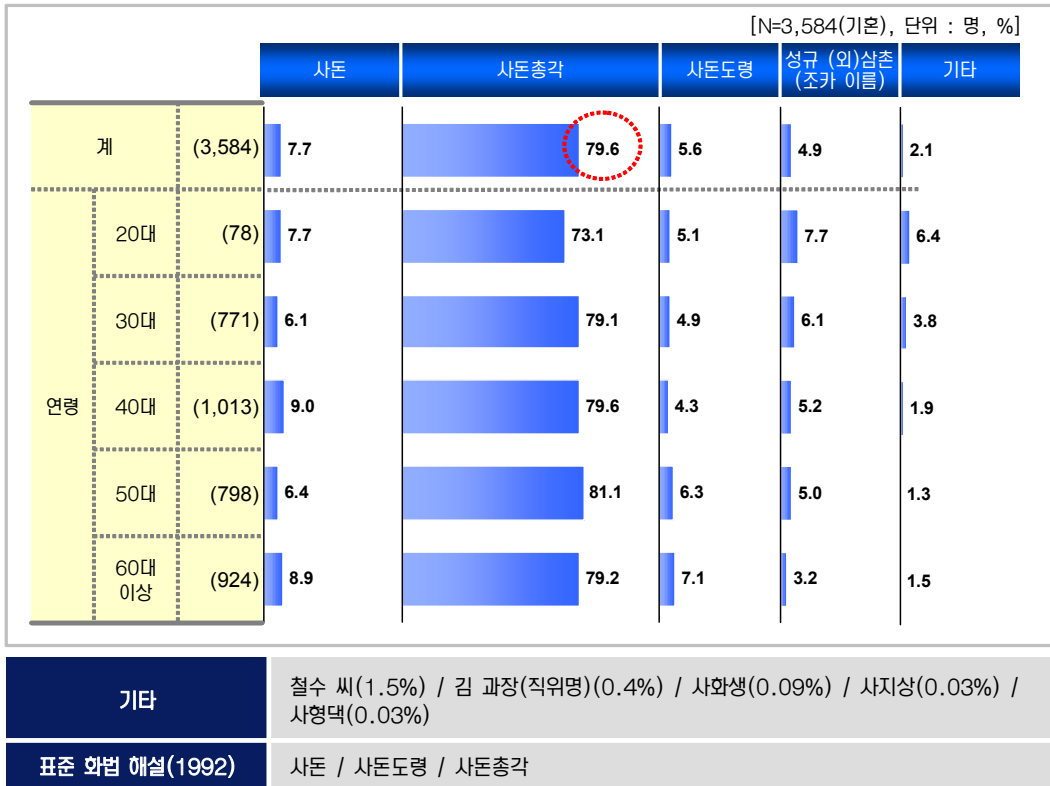
		응답자 수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김 과장 (직위명)	영희 씨	민규 이모 (조카 이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6.8	66.1	20.4	0.4	1.3	4.8	0.3	
성별	남성	(1,679)	6.8	65.1	21.8	0.3	1.3	4.5	0.3	11.19 n.s
	여성	(1,905)	6.8	67.0	19.2	0.4	1.3	5.1	0.2	
연령	20대	(78)	7.7	64.1	15.4	0.0	5.1	7.7	0.0	52.15 n.s
	30대	(771)	6.4	65.1	20.2	0.4	2.2	5.6	0.1	
	40대	(1,013)	7.4	67.3	18.4	0.4	1.3	5.2	0.0	
	50대	(798)	6.8	64.4	22.8	0.3	0.9	4.8	0.1	
	60대 이상	(924)	6.4	67.3	21.1	0.4	0.5	3.5	0.8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7.7	59.6	24.5	0.3	1.7	6.2	0.0	242.03 ***
	충청권	(366)	2.2	66.4	24.3	0.3	1.9	4.9	0.0	
	강원권	(121)	0.8	75.2	22.3	0.0	0.0	1.7	0.0	
	영남권	(957)	6.2	79.9	11.4	0.1	0.3	1.5	0.6	
	호남권	(401)	9.2	57.6	21.9	1.5	1.7	7.2	0.7	
	제주권	(43)	16.3	67.4	7.0	0.0	0.0	9.3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8.6	60.0	23.2	0.1	1.7	6.4	0.0	178.87 ***
	충청권	(543)	5.5	63.7	23.2	0.4	1.5	5.7	0.0	
	강원권	(203)	1.5	71.9	20.2	0.0	1.5	4.9	0.0	
	영남권	(1,151)	6.2	76.5	14.0	0.2	0.5	2.1	0.5	
	호남권	(671)	7.2	57.1	26.2	1.2	1.6	6.3	0.4	
	제주권	(53)	13.2	64.2	11.3	0.0	3.8	7.5	0.0	
	기타	(17)	17.6	70.6	11.8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차.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

기혼자를 대상으로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의 호칭은 ‘사돈총각’에 대한 응답 비율이 7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돈’ 7.7%, ‘사돈도령’ 5.6%, ‘성규 (외)삼촌’과 같이 조카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경우 4.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철수 씨’와 같이 당사자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김 과장’과 같이 직위명을 부르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30]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사돈총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50대의 응답 비율이 81.1%로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사돈총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원권에서 그 비율이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호남권에서는 전체 값보다 10% 이상 낮은 67.3%의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사돈도령'에 대한 응답 결과가 12.0%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강원권과 영남권에서 그 비율이 각각 86.7%, 86.3%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

[N = 3,584(기혼), 단위 : 명, %]

		응답자 수	사돈	사돈 총각	사돈 도령	김 과장 (직위명)	철수 씨	성규 (외) 삼촌 (조카 이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7.7	79.6	5.6	0.4	1.5	4.9	0.2	
성별	남성	(1,679)	8.0	78.7	6.4	0.4	1.7	4.5	0.3	11.93
	여성	(1,905)	7.5	80.3	5.0	0.5	1.3	5.3	0.2	n.s
연령	20대	(78)	7.7	73.1	5.1	1.3	5.1	7.7	0.0	70.02 **
	30대	(771)	6.1	79.1	4.9	0.6	3.0	6.1	0.1	
	40대	(1,013)	9.0	79.6	4.3	0.5	1.4	5.2	0.0	
	50대	(798)	6.4	81.1	6.3	0.3	0.9	5.0	0.1	
	60대 이상	(924)	8.9	79.2	7.1	0.2	0.6	3.2	0.6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9.3	76.8	5.5	0.2	2.0	6.3	0.0	188.23 ***
	충청권	(366)	2.5	84.2	6.0	0.3	2.2	4.9	0.0	
	강원권	(121)	3.3	91.7	0.8	0.8	0.0	3.3	0.0	
	영남권	(957)	6.4	86.7	4.0	0.1	0.5	1.7	0.6	
	호남권	(401)	9.7	67.3	12.0	2.0	1.7	6.7	0.5	
	제주권	(43)	16.3	72.1	0.0	0.0	0.0	11.6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10.0	75.4	4.9	0.4	2.3	7.0	0.0	146.91 ***
	충청권	(543)	6.6	79.6	6.6	0.2	1.8	5.2	0.0	
	강원권	(203)	3.4	86.7	3.9	0.0	1.0	4.9	0.0	
	영남권	(1,151)	6.3	86.3	4.1	0.1	0.7	2.0	0.5	
	호남권	(671)	8.3	72.3	9.7	1.3	1.5	6.6	0.3	
	제주권	(53)	13.2	73.6	0.0	0.0	3.8	9.4	0.0	
	기타	(17)	17.6	82.4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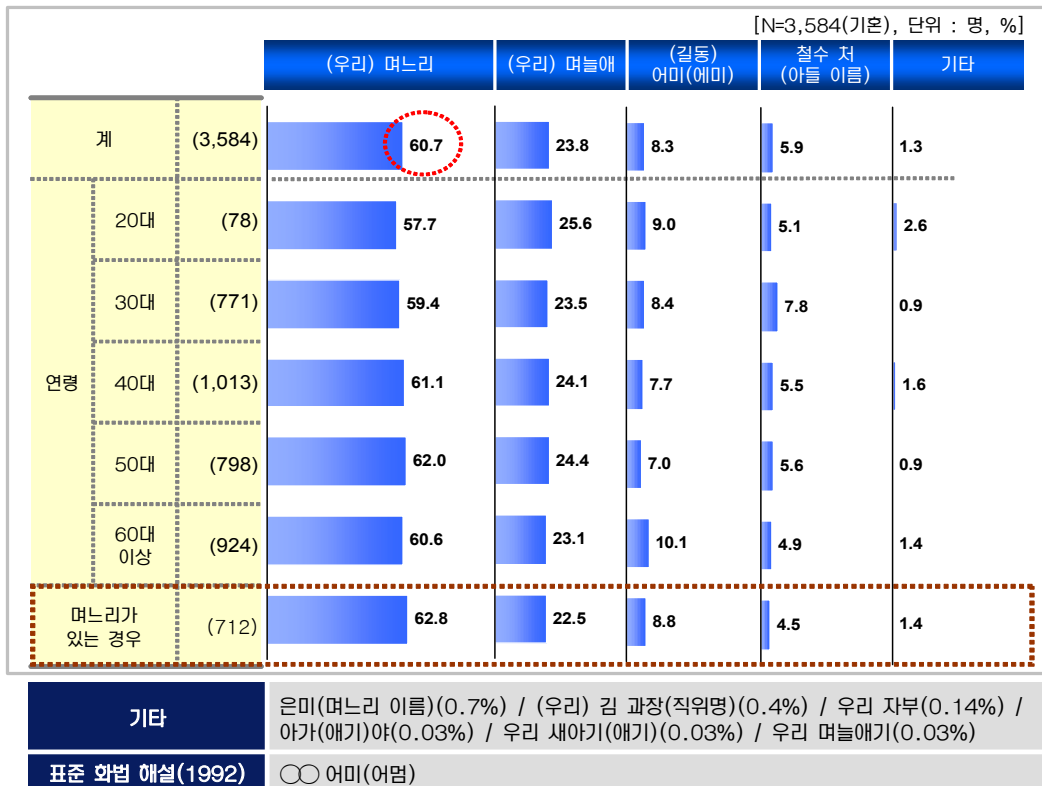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카.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

(1) 며느리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있는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응답 비율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며느라애’ 23.8%, ‘(길동) 어미(에미)’ 8.3%, ‘철수 처’와 같이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 5.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은미’와 같이 며느리의 이름을 지칭하는 경우, ‘(우리) 김 과장’과 같이 며느리의 직위명을 지칭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으며, 며느리가 있는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며느리’가 62.8%로 전체 값(60.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 '철수 처'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체 값보다 약 8.1% 높은 14.0%로 조사되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에서 '(길동) 어미(에미)'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체 값보다 15.2% 높은 23.5%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 며느리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OO) 어미(어멈)'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며느리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었던 '(우리) 며느리'(60.7%), '(우리) 며늘애'(23.8%)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N = 3,584(기혼),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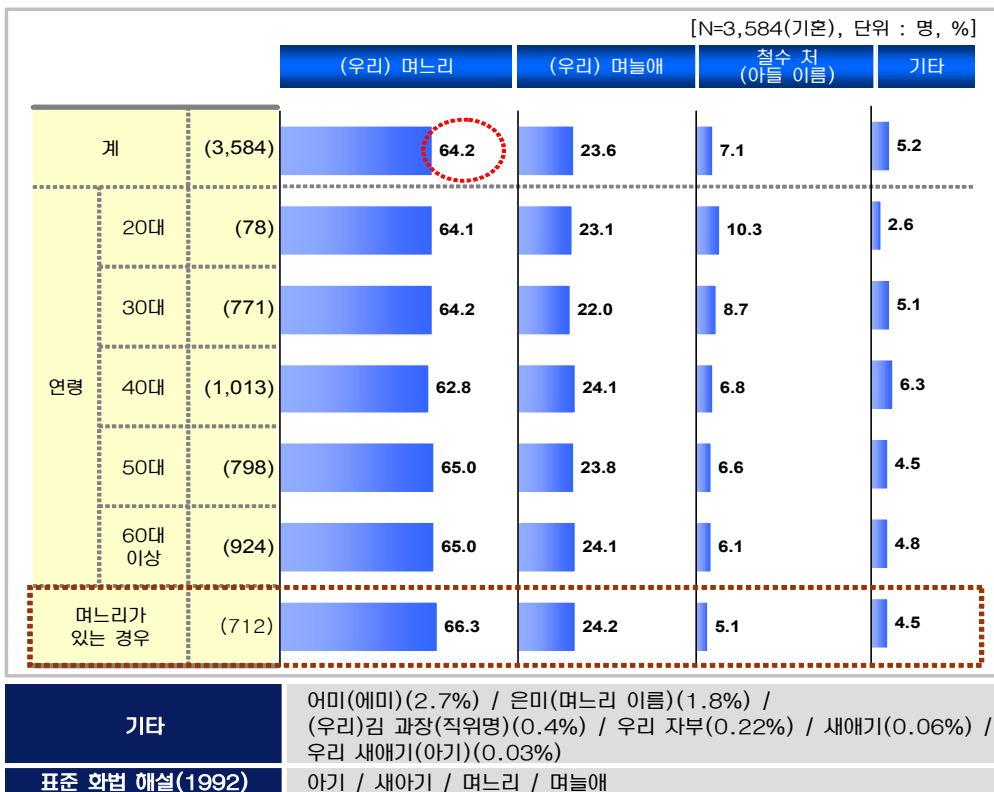
		응답자 수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라	(길동) 어미 (에미)	(우리) 김 과장 (직위 명)	철수 처 (아들 이름)	은미 (며느리 이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60.7	23.8	8.3	0.4	5.9	0.7	0.2	
며느리가 있는 경우		(712)	62.8	22.5	8.8	0.3	4.5	0.3	0.8	
성별	남성	(1,679)	60.9	24.3	7.8	0.5	5.8	0.5	0.3	12.69 n.s
	여성	(1,905)	60.6	23.4	8.8	0.3	5.9	0.8	0.2	
연령	20대	(78)	57.7	25.6	9.0	0.0	5.1	2.6	0.0	46.46 n.s
	30대	(771)	59.4	23.5	8.4	0.1	7.8	0.8	0.0	
	40대	(1,013)	61.1	24.1	7.7	0.6	5.5	0.9	0.1	
	50대	(798)	62.0	24.4	7.0	0.4	5.6	0.4	0.1	
	60대 이상	(924)	60.6	23.1	10.1	0.3	4.9	0.4	0.6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58.5	24.6	9.6	0.5	5.7	0.9	0.2	98.65 ***
	충청권	(366)	64.8	20.2	9.3	0.3	3.8	1.1	0.5	
	강원권	(121)	60.3	19.8	12.4	0.0	6.6	0.8	0.0	
	영남권	(957)	64.2	24.6	3.6	0.0	7.5	0.1	0.1	
	호남권	(401)	57.9	23.9	13.2	0.7	3.5	0.5	0.2	
	제주권	(43)	65.1	16.3	2.3	0.0	14.0	2.3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59.0	24.8	9.1	0.2	5.3	1.2	0.4	90.97 **
	충청권	(543)	62.4	22.3	8.8	0.2	5.2	0.7	0.4	
	강원권	(203)	57.6	26.6	8.9	0.0	6.4	0.5	0.0	
	영남권	(1,151)	62.9	24.2	5.1	0.3	7.2	0.2	0.1	
	호남권	(671)	59.0	23.0	12.1	1.0	4.0	0.7	0.1	
	제주권	(53)	66.0	11.3	5.7	0.0	15.1	1.9	0.0	
	기타	(17)	47.1	23.5	23.5	0.0	5.9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며느리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없는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응답 비율이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며늘애’ 23.6%, ‘철수 처’와 같이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 7.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어미(에미)’, ‘은미’와 같이 며느리의 이름을 지칭하는 경우, ‘(우리) 김 과장’과 같이 며느리의 직위명을 지칭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으며, 며느리가 있는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며느리’가 66.3%로 전체 값(64.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없는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그 응답 비율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에서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권에서는 ‘철수 처’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체 값보다 6.9% 높은 14.0%로 조사되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에서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체 값보다 11.7% 높은 35.3%로 나타났다.

[표 35]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N = 3,584(기혼), 단위 : 명, %]

		응답자 수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라	어미 (에미)	(우리) 김 과장 (직위 명)	철수 처 (아들 이름)	은미 (며느리 이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3,584)	64.2	23.6	2.7	0.4	7.1	1.8	0.3	
며느리가 있는 경우		(712)	66.3	24.2	2.2	0.0	5.1	0.8	1.4	
성별	남성	(1,679)	64.4	22.9	2.5	0.5	7.4	1.9	0.3	6.15 n.s
	여성	(1,905)	64.0	24.1	2.8	0.3	6.7	1.8	0.3	
연령	20대	(78)	64.1	23.1	0.0	0.0	10.3	2.6	0.0	59.58 **
	30대	(771)	64.2	22.0	2.9	0.3	8.7	1.9	0.0	
	40대	(1,013)	62.8	24.1	3.2	0.9	6.8	2.3	0.0	
	50대	(798)	65.0	23.8	2.1	0.3	6.6	2.0	0.1	
	60대 이상	(924)	65.0	24.1	2.6	0.0	6.1	1.1	1.1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63.8	23.3	3.7	0.5	6.4	2.0	0.2	92.89 ***
	충청권	(366)	70.5	19.4	1.1	0.5	6.6	1.6	0.3	
	강원권	(121)	63.6	21.5	2.5	0.0	9.1	0.8	2.5	
	영남권	(957)	62.7	25.3	2.0	0.1	9.0	0.7	0.2	
	호남권	(401)	63.8	25.9	1.2	0.5	4.2	4.0	0.2	
	제주권	(43)	65.1	14.0	2.3	0.0	14.0	4.7	0.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64.1	23.7	2.7	0.6	6.6	2.0	0.3	71.07 *
	충청권	(543)	66.9	21.4	2.8	0.4	6.4	1.8	0.4	
	강원권	(203)	61.6	25.6	2.5	0.5	7.9	0.5	1.5	
	영남권	(1,151)	62.7	24.6	2.8	0.2	8.7	0.9	0.2	
	호남권	(671)	65.4	23.4	2.5	0.3	4.8	3.4	0.1	
	제주권	(53)	67.9	13.2	0.0	0.0	15.1	3.8	0.0	
	기타	(17)	58.8	35.3	0.0	0.0	0.0	5.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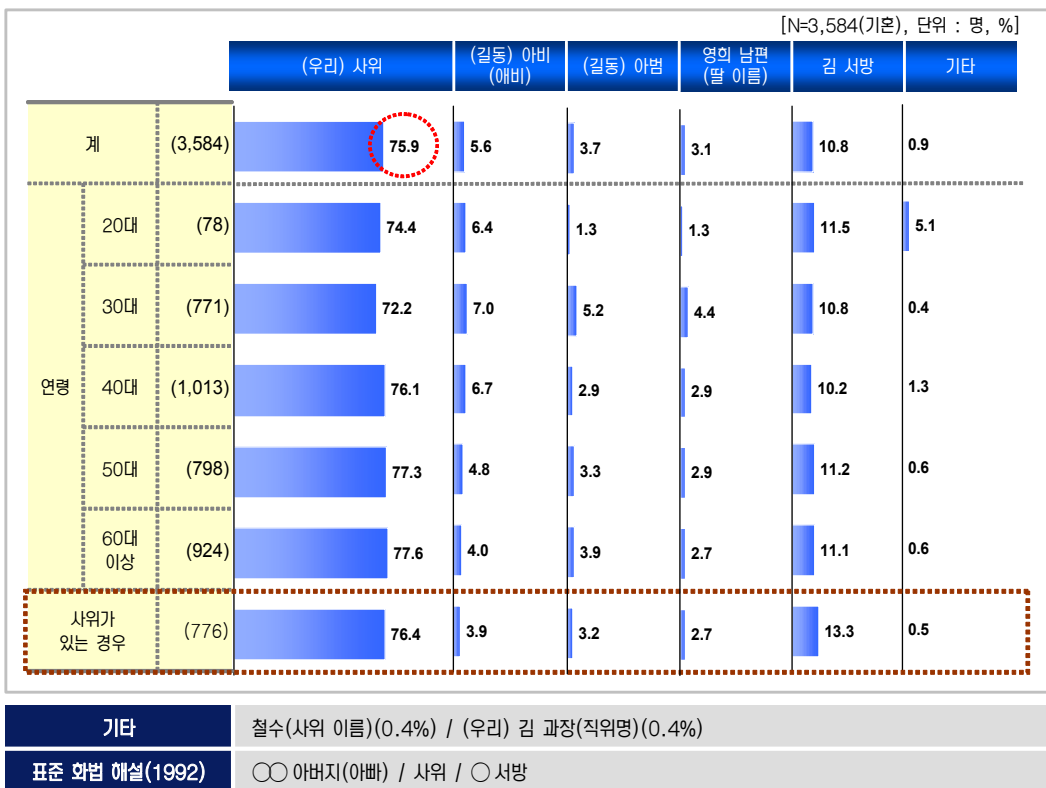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타.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

(1) 사위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있는 사위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우리) 사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 서방’(10.8%), ‘(길동) 아버지(애비)’(5.6%), ‘(길동) 아범’(3.7%), ‘영희 남편’과 같이 딸의 이름에 붙여 지칭하는 경우(3.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우리) 김 과장’과 같이 사위의 직위명을 지칭하는 경우, ‘철수’와 같이 사위 이름을 직접 지칭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으며, 사위가 있는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사위’가 76.4%로 전체 값(75.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사위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우리) 사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그 응답 비율이 각각 77.3%, 77.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우리) 사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에서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체 값보다 20.6% 높은 31.4%로 조사되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기타 지역 47.1%, 호남권 22.2%로 전체 값(1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는 '영희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13.2%로 전체 값(3.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6]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N = 3,584(기혼),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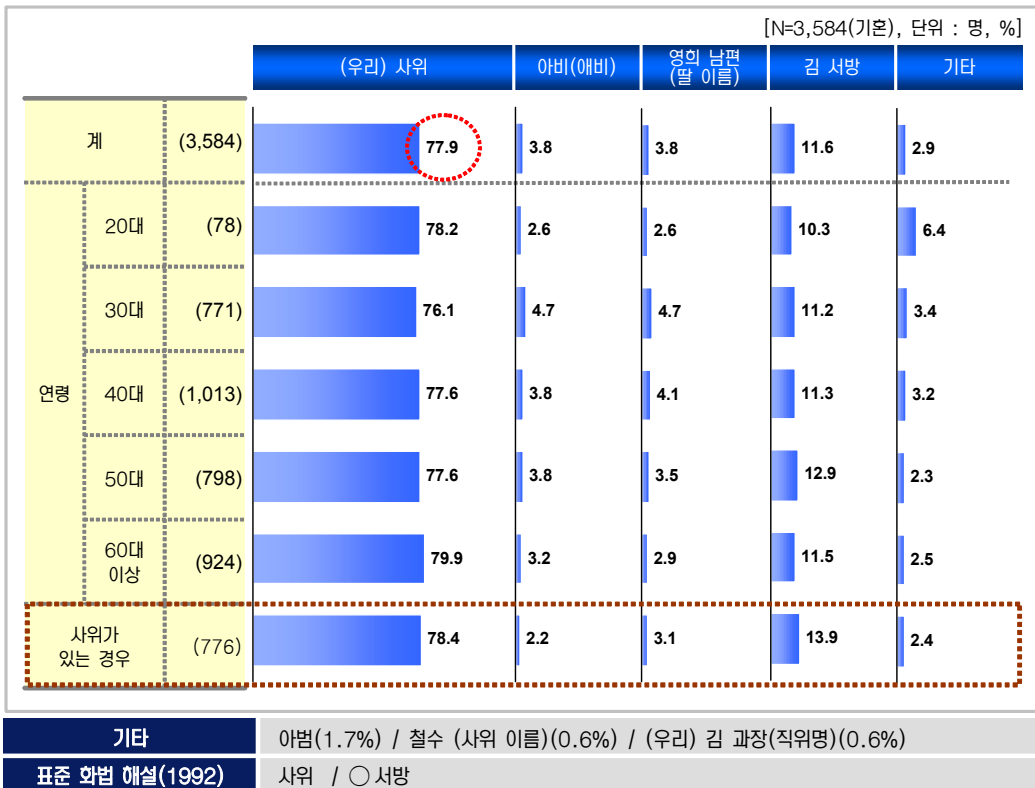
		응답자 수	(우리) 사위	(길동) 아비 (애비)	(길동) 아범	(우리) 김 과장 (직위 명)	영희 남편 (딸 이름)	철수 (사위 이름)	김 서방	통계량 (χ^2)
계		(3,584)	75.9	5.6	3.7	0.4	3.1	0.4	10.8	
사위가 있는 경우		(776)	76.4	3.9	3.2	0.4	2.7	0.1	13.3	
성별	남성	(1,679)	76.3	5.5	3.8	0.5	2.6	0.4	11.0	3.31 n.s
	여성	(1,905)	75.5	5.8	3.6	0.4	3.6	0.5	10.6	
연령	20대	(78)	74.4	6.4	1.3	1.3	1.3	3.8	11.5	57.43 ***
	30대	(771)	72.2	7.0	5.2	0.3	4.4	0.1	10.8	
	40대	(1,013)	76.1	6.7	2.9	0.6	2.9	0.7	10.2	
	50대	(798)	77.3	4.8	3.3	0.3	2.9	0.4	11.2	
	60대 이상	(924)	77.6	4.0	3.9	0.5	2.7	0.1	11.1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73.6	7.8	4.8	0.6	4.5	0.8	7.8	379.52 ***
	충청권	(366)	89.3	3.8	1.9	0.3	2.7	0.0	1.9	
	강원권	(121)	76.9	5.0	8.3	0.0	5.8	0.8	3.3	
	영남권	(957)	83.5	2.5	1.4	0.1	0.4	0.0	12.1	
	호남권	(401)	54.6	6.2	4.5	0.7	2.2	0.2	31.4	
	제주권	(43)	79.1	2.3	4.7	0.0	11.6	0.0	2.3	
출신 지역	수도권	(946)	75.9	8.4	4.2	0.7	4.1	0.6	6.0	259.92 ***
	충청권	(543)	81.2	5.3	3.9	0.2	3.5	0.2	5.7	
	강원권	(203)	81.3	3.9	4.4	0.5	4.4	0.0	5.4	
	영남권	(1,151)	81.6	3.7	2.0	0.3	1.0	0.3	11.2	
	호남권	(671)	61.1	6.0	5.4	0.6	4.0	0.7	22.2	
	제주권	(53)	73.6	3.8	5.7	0.0	13.2	0.0	3.8	
	기타	(17)	47.1	5.9	0.0	0.0	0.0	0.0	47.1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사위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없는 사위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우리) 사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 서방’(11.6%), ‘아비(애비)’(3.8%), ‘영희 남편’과 같이 딸의 이름에 붙여 지칭하는 경우(3.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범’, ‘(우리) 김 과장’과 같이 사위의 직위명을 지칭하는 경우, ‘철수’와 같이 사위 이름을 직접 지칭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으며, 사위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사위’, ‘김 서방’이라고 지칭하는 응답 비율이 각각 2.0%, 0.8%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위가 있는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사위’가 78.4%로 전체 값(77.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없는 사위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우리) 사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그 응답 비율이 각각 78.2%, 79.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우리) 사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에서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체 값보다 21.3% 높은 32.9%로 조사되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과 호남권에서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체 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는 '영희 남편'이 전체 값보다 9.4% 높은 13.2%로 조사되었다.

[표 37]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N = 3,584(기혼), 단위 : 명, %]

		응답자 수	(우리) 사위	아비 (아버지)	아범	(우리) 김 과장 (직위 명)	영희 남편 (발 이름)	철수 (사위 이름)	김 서방	통계량 (χ^2)
계		(3,584)	77.9	3.8	1.7	0.6	3.8	0.6	11.6	
사위가 있는 경우		(776)	78.4	2.2	1.9	0.3	3.1	0.3	13.9	
성별	남성	(1,679)	78.1	4.3	1.6	0.7	3.4	0.4	11.5	5.62 n.s
	여성	(1,905)	77.7	3.4	1.7	0.5	4.1	0.8	11.8	
연령	20대	(78)	78.2	2.6	1.3	2.6	2.6	2.6	10.3	25.84 n.s
	30대	(771)	76.1	4.7	1.9	0.6	4.7	0.8	11.2	
	40대	(1,013)	77.6	3.8	1.7	0.8	4.1	0.7	11.3	
	50대	(798)	77.6	3.8	1.1	0.5	3.5	0.6	12.9	
	60대 이상	(924)	79.9	3.2	1.9	0.3	2.9	0.2	11.5	
거주 지역	수도권	(1,696)	76.1	6.0	2.7	0.8	5.2	0.9	8.3	364.15 ***
	충청권	(366)	88.8	2.5	0.5	0.3	4.4	0.3	3.3	
	강원권	(121)	81.8	1.7	1.7	0.0	9.1	1.7	4.1	
	영남권	(957)	84.0	1.7	0.4	0.3	0.5	0.1	13.0	
	호남권	(401)	59.4	2.2	1.5	1.0	2.2	0.7	32.9	
	제주권	(43)	81.4	0.0	0.0	0.0	11.6	0.0	7.0	
출신 지역	수도권	(946)	77.5	5.6	2.5	0.8	5.5	1.1	7.0	229.90 ***
	충청권	(543)	83.8	3.9	1.1	0.4	4.1	0.6	6.3	
	강원권	(203)	81.3	3.4	2.0	1.0	5.9	0.5	5.9	
	영남권	(1,151)	82.5	2.6	0.9	0.4	1.3	0.3	11.9	
	호남권	(671)	65.1	3.6	2.4	0.7	4.0	0.6	23.5	
	제주권	(53)	77.4	3.8	0.0	0.0	13.2	0.0	5.7	
	기타	(17)	58.8	0.0	0.0	0.0	0.0	0.0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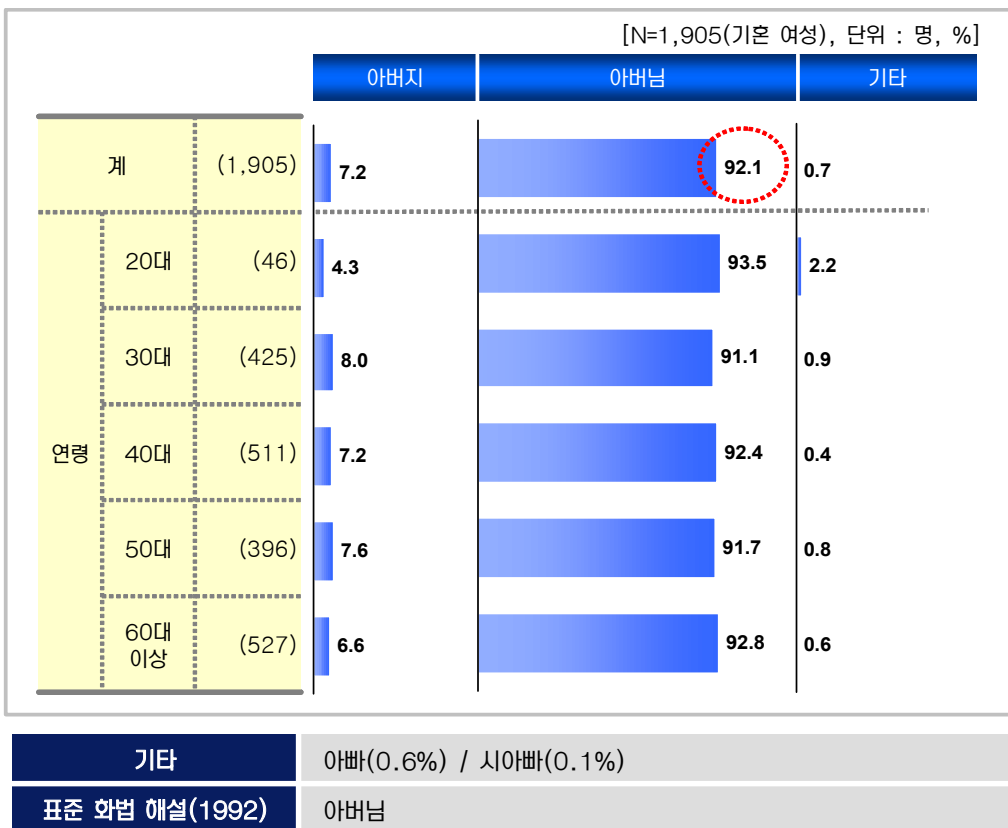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3. 가정에서의 호칭 · 지칭어_여자

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9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버지’가 7.2%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아빠’, ‘시아빠’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35]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아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과 호남권에서는 ‘아버지’가 각각 30.4%, 17.8%로 조사돼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아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94.4%, 94.0%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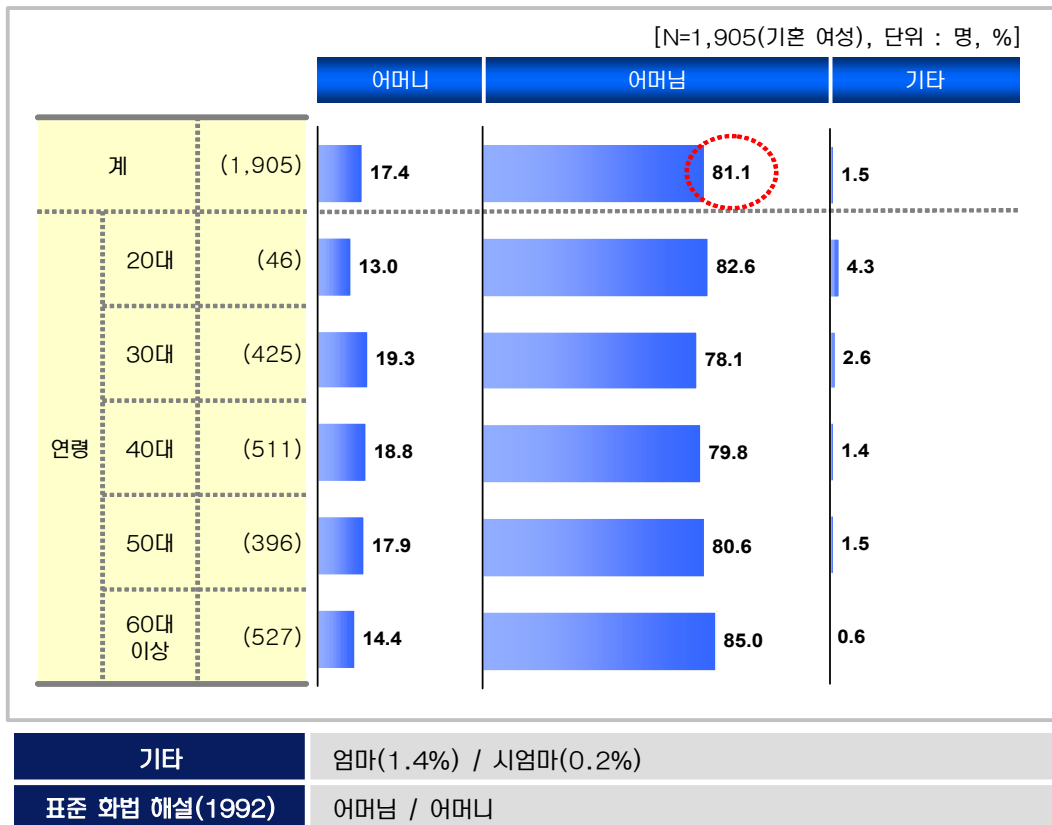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버지	아버님	아빠	시아빠	통계량 (χ^2)
계		(1,905)	7.2	92.1	0.6	0.1	
연령	20대	(46)	4.3	93.5	2.2	0.0	8.09 n.s
	30대	(425)	8.0	91.1	0.9	0.0	
	40대	(511)	7.2	92.4	0.4	0.0	
	50대	(396)	7.6	91.7	0.5	0.3	
	60대 이상	(527)	6.6	92.8	0.6	0.0	
거주 지역	수도권	(909)	5.0	94.3	0.7	0.1	71.03 ***
	충청권	(195)	4.6	94.4	1.0	0.0	
	강원권	(67)	14.9	85.1	0.0	0.0	
	영남권	(503)	6.0	93.4	0.6	0.0	
	호남권	(208)	17.8	81.7	0.5	0.0	
	제주권	(23)	30.4	69.6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503)	5.0	94.0	1.0	0.0	35.45 **
	충청권	(271)	8.1	91.5	0.4	0.0	
	강원권	(109)	11.0	89.0	0.0	0.0	
	영남권	(611)	5.1	94.4	0.5	0.0	
	호남권	(378)	10.8	88.1	0.8	0.3	
	제주권	(25)	24.0	76.0	0.0	0.0	
	기타	(8)	12.5	87.5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의 '아버님'(92.1%)보다 11.0% 정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17.4%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엄마', '시엄마'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36]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에서 8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과 제주권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35.6%, 34.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과 강원권에서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87.5%, 87.2%로 높게 나타났다.

[표 39]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응답자 수	어머니	어머님	엄마	시엄마	통계량 (χ^2)
계		(1,905)	17.4	81.1	1.4	0.2	
연령	20대	(46)	13.0	82.6	4.3	0.0	20.55 n.s
	30대	(425)	19.3	78.1	2.6	0.0	
	40대	(511)	18.8	79.8	1.0	0.4	
	50대	(396)	17.9	80.6	1.3	0.3	
	60대 이상	(527)	14.4	85.0	0.6	0.0	
거주 지역	수도권	(909)	13.6	84.7	1.3	0.3	80.43 ***
	충청권	(195)	8.7	88.7	2.6	0.0	
	강원권	(67)	20.9	79.1	0.0	0.0	
	영남권	(503)	18.7	80.3	1.0	0.0	
	호남권	(208)	35.6	62.5	1.9	0.0	
	제주권	(23)	34.8	65.2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503)	15.9	82.3	1.4	0.4	37.05 **
	충청권	(271)	11.1	86.7	2.2	0.0	
	강원권	(109)	11.0	87.2	1.8	0.0	
	영남권	(611)	17.5	81.8	0.7	0.0	
	호남권	(378)	24.9	73.0	1.9	0.3	
	제주권	(25)	28.0	72.0	0.0	0.0	
	기타	(8)	12.5	87.5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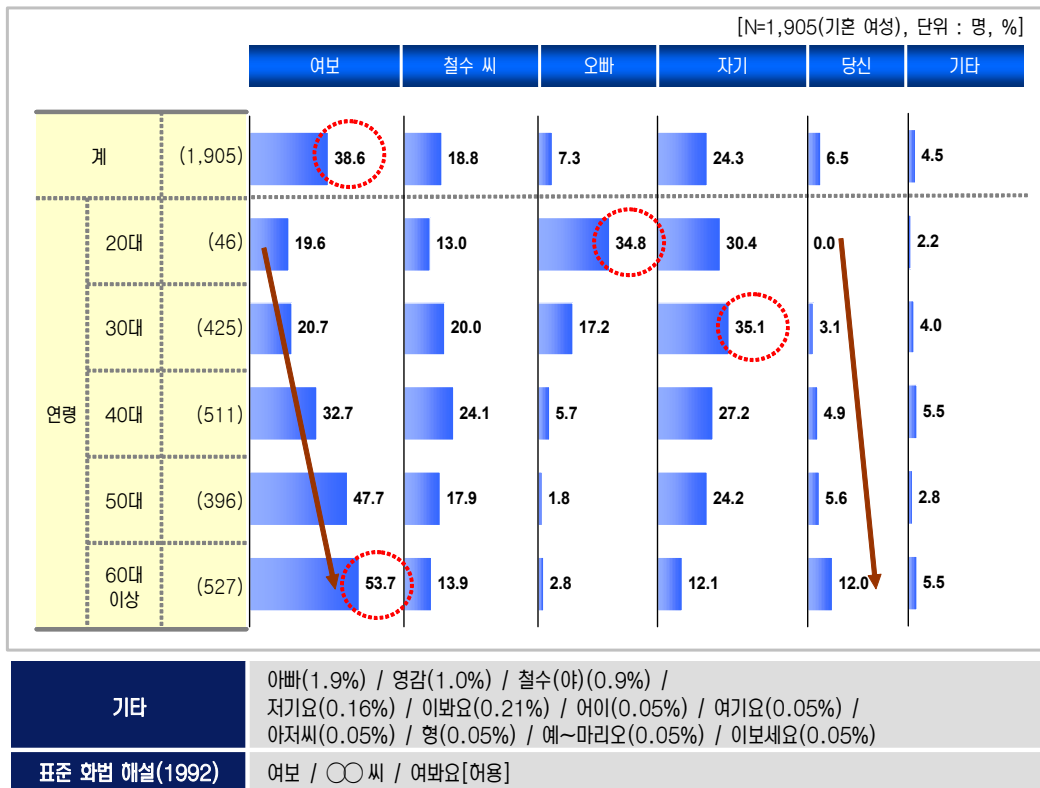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1)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을 때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보’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기’(24.3%), ‘철수 씨’(18.8%), ‘오빠’(7.3%), ‘당신’(6.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빠’, ‘영감’, ‘철수(야)’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37]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을 때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 19.6%, 30대 20.7%, 40대 32.7%, 50대 47.7%, 60대 이상 53.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30대 35.1%, 40대 27.2%, 50대 24.2%, 60대 이상 12.1% 등 30대를 시작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빠’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전체 값은 7.3%였으나, 20대 34.8%, 30대 17.2%로 연령대가 낮은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권에서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권에서는 ‘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30.4%, ‘당신’에 대한 응답 비율이 13.0%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과 제주권에서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87.5%, 48.0%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 결혼 전의 호칭을 그대로 결혼 후에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일 뿐 아니라 어법에도 맞지 않아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OO 씨’의 ‘씨’와 ‘자기’ 역시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기’(24.3%), ‘철수 씨’(18.8%), ‘오빠’(7.3%)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쓸 수 있다고 한 ‘영감’이라는 호칭은 50대에서 0.3%, 60대 이상에서 3.0%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응답자 수	여보	철수 씨	철수 (아)	아빠	오빠	영감	자기	당신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905)	38.6	18.8	0.9	1.9	7.3	1.0	24.3	6.5	0.7	
연령	20대	(46)	19.6	13.0	2.2	0.0	34.8	0.0	30.4	0.0	0.0	400.69 ***
	30대	(425)	20.7	20.0	1.2	2.1	17.2	0.7	35.1	3.1	0.0	
	40대	(511)	32.7	24.1	1.4	3.7	5.7	0.0	27.2	4.9	0.4	
	50대	(396)	47.7	17.9	0.5	1.3	1.8	0.3	24.2	5.6	0.8	
	60대 이상	(527)	53.7	13.9	0.4	0.6	2.8	3.0	12.1	12.0	1.5	
거주 지역	수도권	(909)	36.0	18.7	0.9	2.4	7.8	0.7	25.5	7.6	0.4	143.85 ***
	충청권	(195)	39.5	15.4	0.5	1.5	6.7	0.5	30.8	3.1	2.1	
	강원권	(67)	50.7	13.4	1.5	3.0	4.5	0.0	20.9	6.0	0.0	
	영남권	(503)	42.5	21.9	0.6	1.6	7.8	0.4	20.5	4.4	0.4	
	호남권	(208)	36.1	15.4	1.9	0.5	6.7	4.8	24.0	9.1	1.4	
	제주권	(23)	39.1	30.4	0.0	0.0	0.0	4.3	13.0	13.0	0.0	
출신 지역	수도권	(503)	33.8	18.1	1.8	2.2	9.1	1.2	27.4	5.6	0.8	117.46 *
	충청권	(271)	41.7	18.5	0.0	2.2	5.9	0.4	24.4	5.5	1.5	
	강원권	(109)	42.2	11.9	0.0	4.6	4.6	0.0	31.2	5.5	0.0	
	영남권	(611)	42.4	21.6	0.3	1.3	7.9	0.7	20.6	5.1	0.2	
	호남권	(378)	34.1	17.5	1.6	1.6	6.6	2.1	24.6	10.8	1.1	
	제주권	(25)	48.0	24.0	0.0	0.0	0.0	4.0	16.0	8.0	0.0	
	기타	(8)	87.5	0.0	0.0	0.0	0.0	0.0	12.5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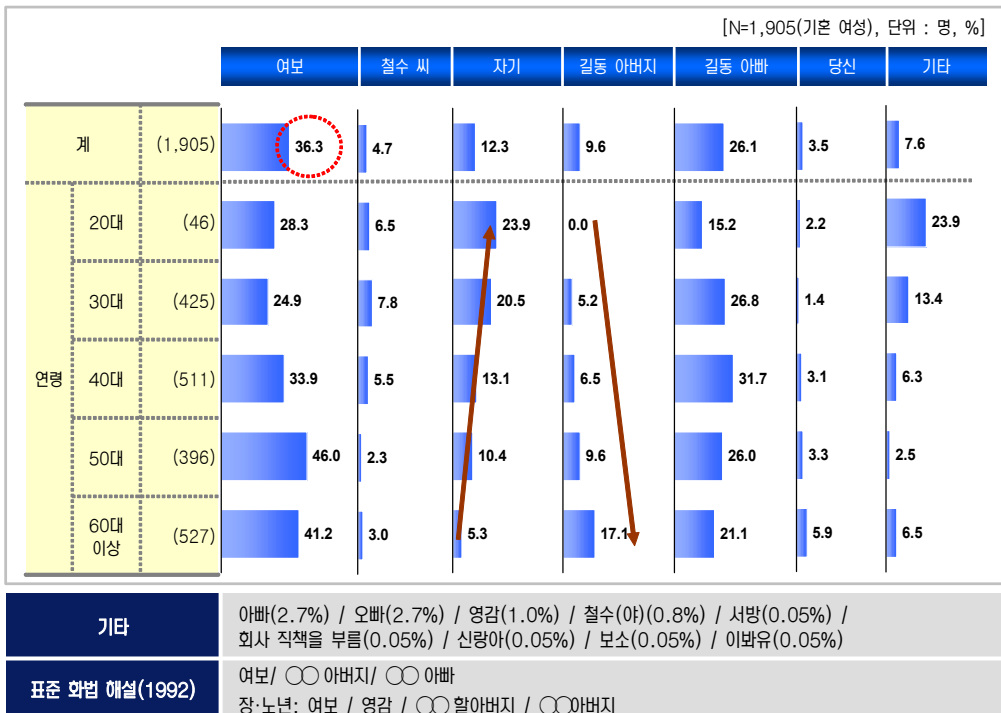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길동 아빠'(26.1%), '자기'(12.3%), '길동 아버지'(9.6%), '철수 씨'(4.7%), '당신'(3.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빠', '오빠', '영감', '철수(야)' 등이 조사되었다.

자녀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길동 아빠'와 '길동 아버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늘면서 '자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24.3%에서 12.3%, '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18.8%에서 4.7%로, '오빠'에 대한 응답 비율은 7.3%에서 2.7%로 줄어들었다. 반면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은 38.6%에서 36.3%로 소폭 줄어들었다.

[그림 38]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은 50대에서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 23.9%, 30대 20.5%, 40대 13.1%, 50대 10.4%, 60대 이상 5.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길동 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은 40대에서 31.7%, 30대에서 26.8%, 50대에서 26.0%로 높게 나타났으나, ‘길동 아버지’에 대한 응답은 20대에서 0.0%, 30대 5.2%, 40대 6.5%, 50대 9.6%, 60대 이상 17.1%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권, 영남권에서는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과 제주권에서는 ‘길동 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여보’와 ‘길동 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 지역에서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고, 또 아이에게 기대어 ‘OO 아버지’, ‘OO 아빠’라고 하는 경향은 본 조사 결과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편을 ‘자기’라고 하는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12.3%를 차지했다.

[표 41]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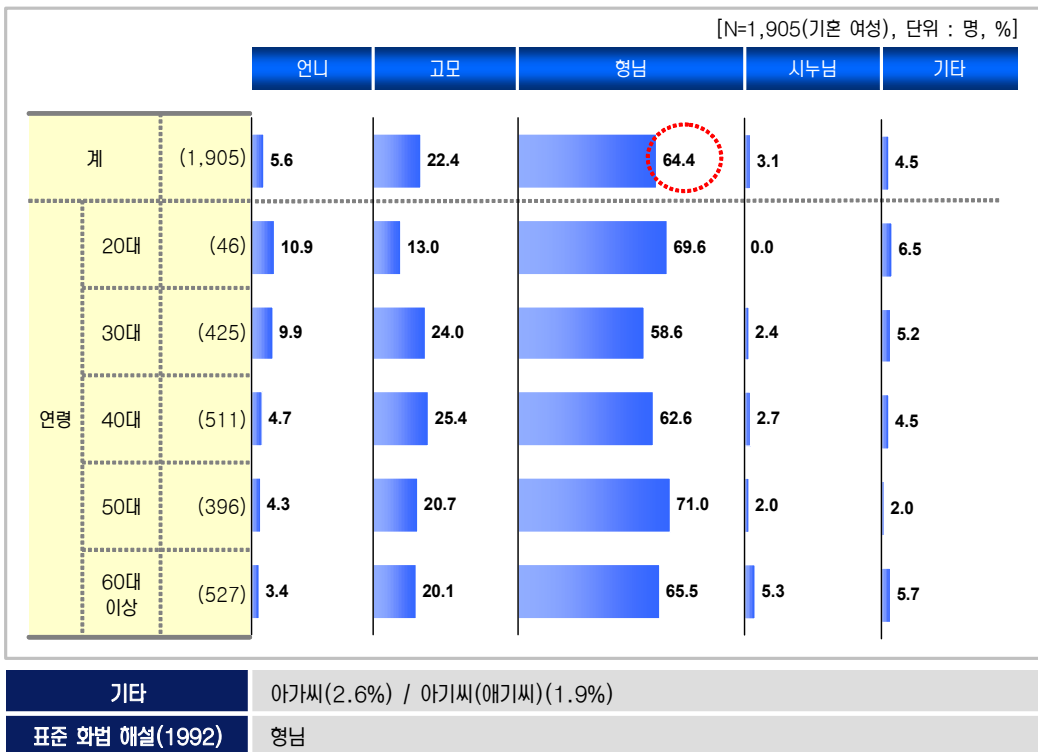
		응답자 수	여보	철수 씨	철수 (아)	아빠	오빠	영감	자기	길동 아버지	길동 아빠	당신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905)	36.3	4.7	0.8	2.7	2.7	1.0	12.3	9.6	26.1	3.5	0.3	
연령	20대	(46)	28.3	6.5	0.0	0.0	23.9	0.0	23.9	0.0	15.2	2.2	0.0	381.60 ***
	30대	(425)	24.9	7.8	1.9	4.0	7.3	0.0	20.5	5.2	26.8	1.4	0.2	
	40대	(511)	33.9	5.5	1.0	4.1	1.0	0.0	13.1	6.5	31.7	3.1	0.2	
	50대	(396)	46.0	2.3	0.3	1.5	0.3	0.5	10.4	9.6	26.0	3.3	0.0	
	60대 이상	(527)	41.2	3.0	0.4	1.3	0.8	3.4	5.3	17.1	21.1	5.9	0.6	
거주 지역	수도권	(909)	35.8	4.6	0.8	3.5	3.4	0.0	12.8	8.5	26.8	3.7	0.1	204.21 ***
	충청권	(195)	30.3	5.6	2.6	4.6	2.1	0.5	10.8	10.8	30.3	1.5	1.0	
	강원권	(67)	46.3	3.0	0.0	3.0	0.0	0.0	16.4	9.0	19.4	3.0	0.0	
	영남권	(503)	39.8	6.0	0.4	1.2	3.0	0.6	13.7	11.9	19.3	3.8	0.4	
	호남권	(208)	33.2	1.4	1.0	1.0	1.0	7.7	8.2	7.7	35.6	3.4	0.0	
	제주권	(23)	30.4	4.3	0.0	0.0	0.0	0.0	0.0	13.0	43.5	8.7	0.0	
출신 지역	수도권	(503)	34.2	4.6	1.6	3.8	3.4	0.4	14.5	7.8	26.8	2.8	0.2	153.77 ***
	충청권	(271)	32.5	4.8	1.5	4.4	2.6	0.4	9.6	10.3	31.4	1.8	0.7	
	강원권	(109)	42.2	1.8	0.0	2.8	1.8	0.0	21.1	10.1	15.6	3.7	0.9	
	영남권	(611)	39.6	6.2	0.3	1.3	2.9	0.5	12.6	11.0	21.6	3.8	0.2	
	호남권	(378)	33.9	3.2	0.5	2.4	2.1	3.4	9.0	9.0	31.5	5.0	0.0	
	제주권	(25)	36.0	4.0	0.0	0.0	0.0	0.0	4.0	16.0	32.0	8.0	0.0	
	기타	(8)	75.0	0.0	0.0	0.0	0.0	12.5	0.0	0.0	12.5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라.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형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모’(22.4%), ‘언니’(5.6%), ‘시누님’(3.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가씨’, ‘아기씨(애기씨)’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39]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형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에서 71.0%, 20대에서 69.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에서는 ‘고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24.0%, 25.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에서는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10.9%, 9.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형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영남권에서 77.5%로 나타났다. 제주권에서는 ‘고모’에 대한 응답 비율이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영남권에서는 ‘형님’이 75.5%, 제주권에서는 ‘고모’가 60.0%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형님’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형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모’에 대한 응답 비율도 22.4%를 차지했다.

[표 42]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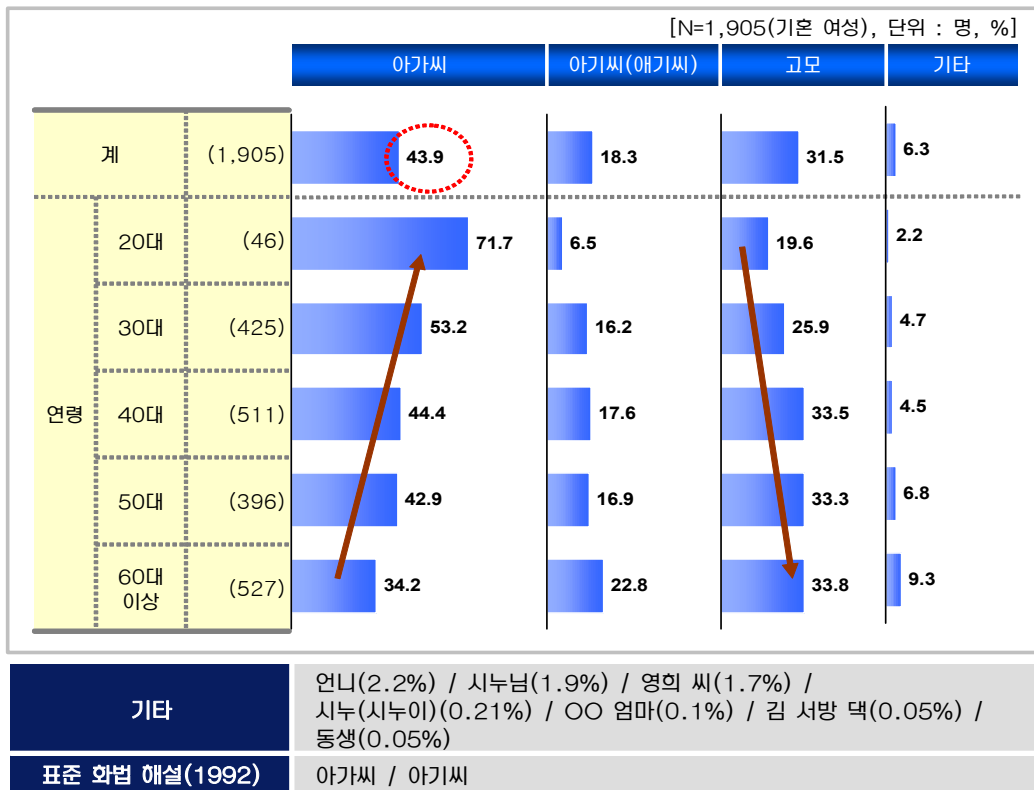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가씨	아가씨 (애기씨)	언니	고모	형님	시누님	통계량 (χ^2)
계		(1,905)	2.6	1.9	5.6	22.4	64.4	3.1	
연령	20대	(46)	4.3	2.2	10.9	13.0	69.6	0.0	61.60 ***
	30대	(425)	3.8	1.4	9.9	24.0	58.6	2.4	
	40대	(511)	2.7	1.8	4.7	25.4	62.6	2.7	
	50대	(396)	1.3	0.8	4.3	20.7	71.0	2.0	
	60대 이상	(527)	2.3	3.4	3.4	20.1	65.5	5.3	
거주 지역	수도권	(909)	3.9	3.1	4.4	23.0	62.9	2.8	146.43 ***
	충청권	(195)	2.1	1.5	5.6	26.7	57.4	6.7	
	강원권	(67)	0.0	0.0	9.0	32.8	47.8	10.4	
	영남권	(503)	1.2	1.0	5.0	13.9	77.5	1.4	
	호남권	(208)	1.9	0.0	10.6	26.9	57.2	3.4	
	제주권	(23)	0.0	4.3	8.7	73.9	8.7	4.3	
출신 지역	수도권	(503)	4.2	3.6	4.4	25.4	59.8	2.6	112.01 ***
	충청권	(271)	2.6	2.6	5.5	22.9	62.0	4.4	
	강원권	(109)	0.9	0.0	5.5	29.4	55.0	9.2	
	영남권	(611)	1.6	1.3	4.7	15.2	75.5	1.6	
	호남권	(378)	2.6	0.8	8.7	24.9	59.5	3.4	
	제주권	(25)	0.0	4.0	4.0	60.0	24.0	8.0	
	기타	(8)	0.0	0.0	0.0	25.0	75.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마.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의 호칭으로는 ‘아가씨’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모’(31.5%), ‘아기씨(애기씨)’(18.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언니’, ‘시누님’, ‘영희 씨’, ‘시누(시누이)’, ‘○○ 엄마’, ‘김 서방 댁’, ‘동생’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0]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가 71.7%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모’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은 40대 이상에서 연령대가 낮은 30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기씨(애기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는 6.5%에 불과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22.8%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권과 호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권과 호남권에서는 ‘고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69.6%,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과 강원권에서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62.5%, 47.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는 ‘고모’에 대한 응답 비율이 68.0%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 ‘아가씨’, ‘아기씨’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43.9%로 가장 높고 ‘아기씨(애기씨)’도 18.3%로 나타났으나, ‘고모’에 대한 응답 비율도 31.5%를 차지했다.

[표 43]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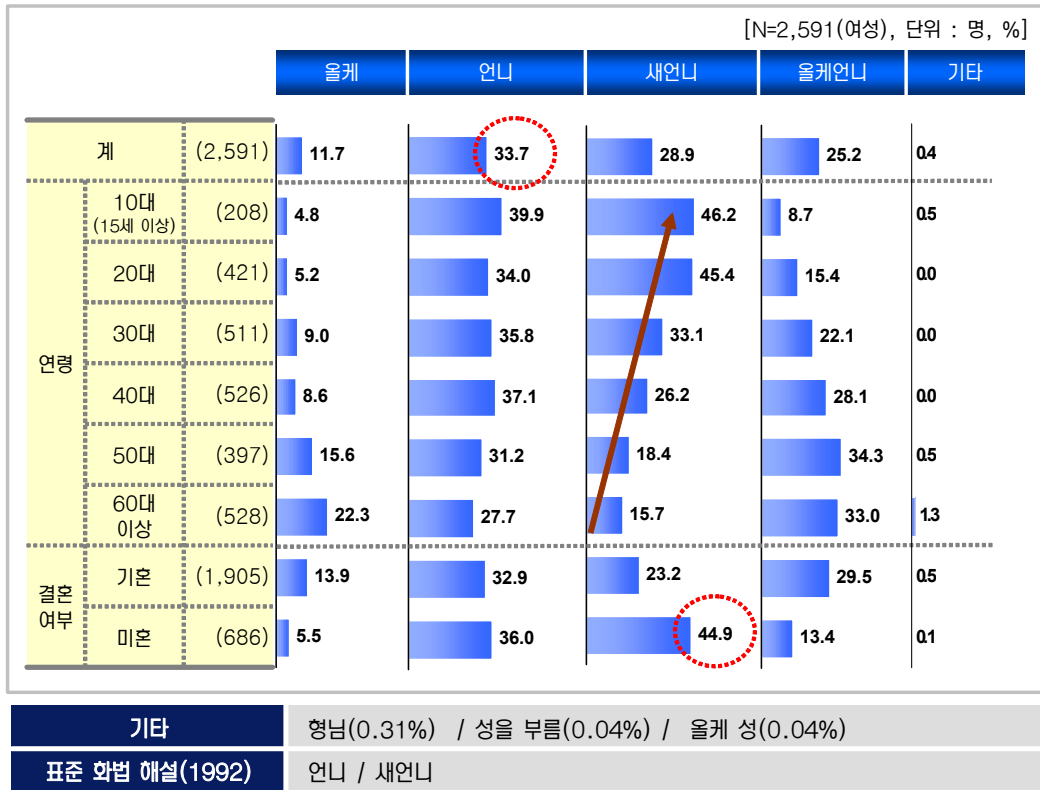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가씨	아기씨 (애기씨)	언니	고모	영희 씨	시누님	기타	통계량 (χ^2)
계		(1,905)	43.9	18.3	2.2	31.5	1.7	1.9	0.5	
연령	20대	(46)	71.7	6.5	0.0	19.6	2.2	0.0	0.0	93.25 ***
	30대	(425)	53.2	16.2	1.4	25.9	2.8	0.5	0.0	
	40대	(511)	44.4	17.6	1.8	33.5	1.2	1.4	0.2	
	50대	(396)	42.9	16.9	2.3	33.3	2.0	2.0	0.5	
	60대 이상	(527)	34.2	22.8	3.4	33.8	1.1	3.6	1.1	
거주 지역	수도권	(909)	44.9	17.8	3.0	31.5	1.5	0.9	0.4	140.33 ***
	충청권	(195)	42.1	13.8	0.5	39.0	0.0	3.1	1.5	
	강원권	(67)	55.2	20.9	0.0	23.9	0.0	0.0	0.0	
	영남권	(503)	46.7	21.1	2.2	26.6	0.4	2.6	0.4	
	호남권	(208)	34.1	18.3	1.4	34.6	7.7	3.8	0.0	
	제주권	(23)	13.0	8.7	0.0	69.6	4.3	4.3	0.0	
출신 지역	수도권	(503)	45.9	17.3	2.8	31.6	1.4	1.0	0.0	131.27 ***
	충청권	(271)	43.9	13.7	1.8	36.2	0.4	2.2	1.8	
	강원권	(109)	47.7	19.3	0.9	30.3	0.9	0.0	0.9	
	영남권	(611)	47.0	20.3	2.0	28.3	0.3	1.8	0.3	
	호남권	(378)	37.0	20.4	2.4	31.2	5.6	3.2	0.3	
	제주권	(25)	8.0	8.0	4.0	68.0	4.0	8.0	0.0	
	기타	(8)	62.5	12.5	0.0	25.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바.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의 호칭은 '언니'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새언니'(28.9%), '올케언니'(25.2%), '올케'(11.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형님', '성을 부름', '올케 성'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1]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에서는 '새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46.2%, 45.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40대에서는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35.8%, 37.1%로,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올케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34.3%,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새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44.9%로 기혼(2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도 36.0%로 기혼(32.9%)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혼은 '올케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29.5%로 미혼(13.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올케'에 대한 응답 비율이 13.9%로 미혼(5.5%)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에서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새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는 '올케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올케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언니', '새언니'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새)언니'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언니'(33.7%)와 '새언니'(28.9%)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올케언니' 25.2%, '올케'도 11.7%를 차지했다.

[표 44]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N = 2,591(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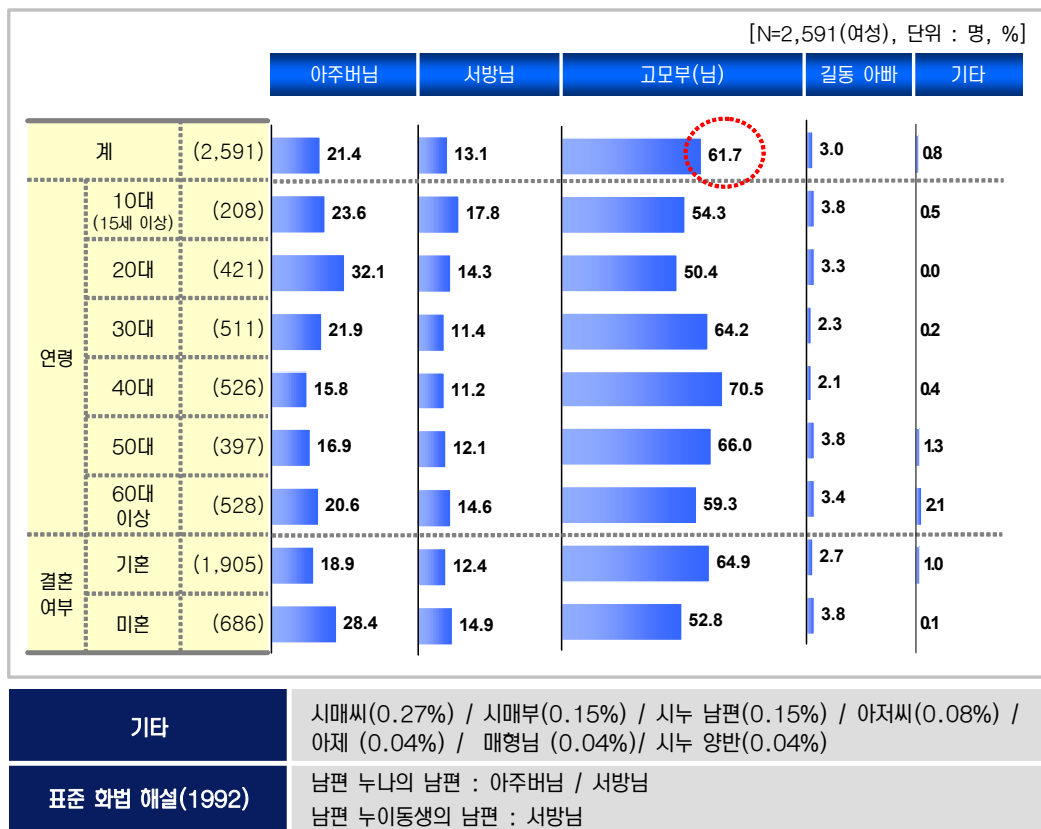
		응답자 수	올케	언니	새언니	올케언니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2,591)	11.7	33.7	28.9	25.2	0.4	
연령	15~19세	(208)	4.8	39.9	46.2	8.7	0.5	298.51 ***
	20대	(421)	5.2	34.0	45.4	15.4	0.0	
	30대	(511)	9.0	35.8	33.1	22.1	0.0	
	40대	(526)	8.6	37.1	26.2	28.1	0.0	
	50대	(397)	15.6	31.2	18.4	34.3	0.5	
	60대 이상	(528)	22.3	27.7	15.7	33.0	1.3	
결혼 여부	기혼	(1,905)	13.9	32.9	23.2	29.5	0.5	166.93
	미혼	(686)	5.5	36.0	44.9	13.4	0.1	***
거주 지역	수도권	(1,251)	8.6	31.1	34.0	26.1	0.2	135.66 ***
	충청권	(268)	9.7	38.1	28.0	23.9	0.4	
	강원권	(86)	17.4	24.4	22.1	34.9	1.2	
	영남권	(694)	14.6	35.6	28.7	20.9	0.3	
	호남권	(257)	19.1	38.5	11.3	30.0	1.2	
	제주권	(35)	14.3	45.7	8.6	31.4	0.0	
출신 지역	수도권	(815)	7.4	33.1	36.3	23.1	0.1	138.04 ***
	충청권	(350)	10.6	35.4	28.9	24.9	0.3	
	강원권	(134)	14.2	26.1	23.1	34.3	2.2	
	영남권	(811)	13.4	34.4	29.2	22.7	0.2	
	호남권	(438)	16.4	34.0	18.9	29.9	0.7	
	제주권	(35)	17.1	45.7	5.7	31.4	0.0	
	기타	(8)	0.0	12.5	0.0	87.5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사.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⁵⁾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은 ‘고모부(님)’가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주버님’ 21.4%, ‘서방님’ 13.1%, ‘길동 아빠’와 같이 조카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경우 3.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시매씨’, ‘시매부’, ‘시누 남편’, ‘아저씨’, ‘아제’, ‘매형님’, ‘시누 양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2]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5) 시누이가 남편 누나인지, 남편 누이동생인지 구분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남편 누나의 남편을 ‘아주버님’, ‘서방님’으로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을 ‘서방님’으로 호칭한다고 제시하였다.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모부(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주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고모부(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의 경우 64.9%로 미혼(52.8%)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아주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의 경우 28.4%로 기혼(18.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서방님'과 '길동 아빠'는 결혼 여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고모부(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주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과 충청권, 수도권에서 '고모부(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87.5%, 69.4%, 68.8%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N = 2,591(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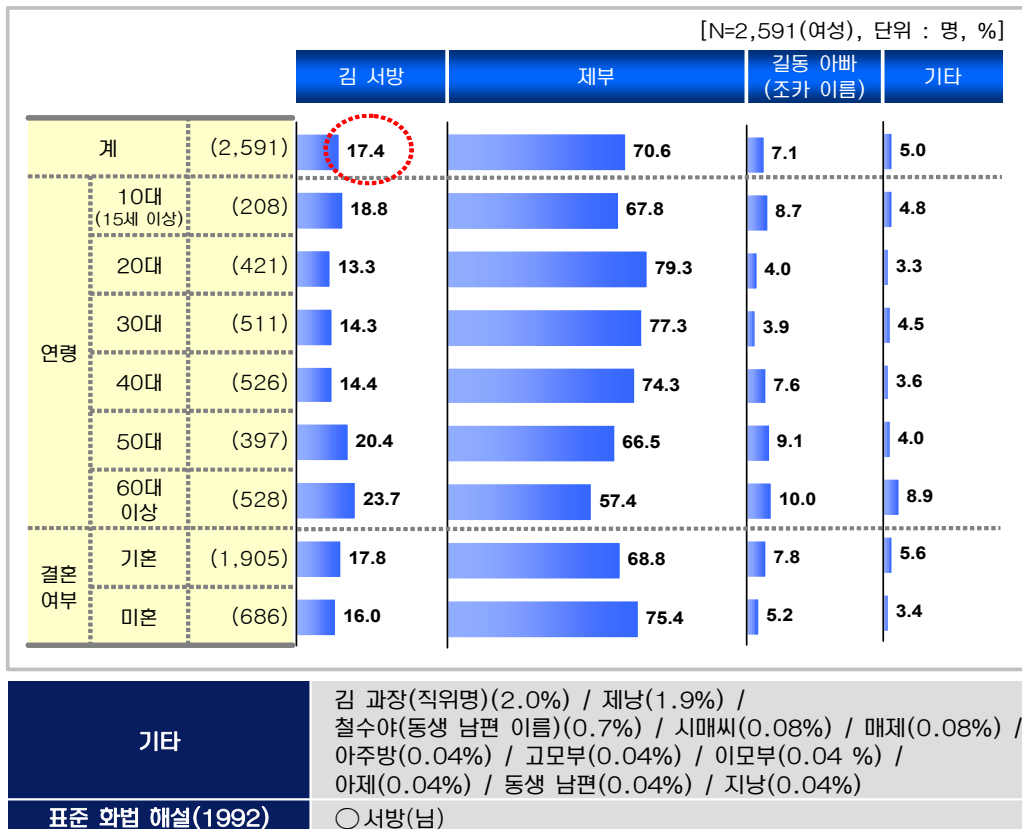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주버님	서방님	고모부 (님)	길동 아빠 (조카 이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2,591)	21.4	13.1	61.7	3.0	0.8	
연령	15~19세	(208)	23.6	17.8	54.3	3.8	0.5	102.54 ***
	20대	(421)	32.1	14.3	50.4	3.3	0.0	
	30대	(511)	21.9	11.4	64.2	2.3	0.2	
	40대	(526)	15.8	11.2	70.5	2.1	0.4	
	50대	(397)	16.9	12.1	66.0	3.8	1.3	
	60대 이상	(528)	20.6	14.6	59.3	3.4	2.1	
결혼 여부	기혼	(1,905)	18.9	12.4	64.9	2.7	1.0	43.39 ***
	미혼	(686)	28.4	14.9	52.8	3.8	0.1	
거주 지역	수도권	(1,251)	16.1	10.5	70.2	2.8	0.4	180.05 ***
	충청권	(268)	15.7	10.4	67.5	5.2	1.1	
	강원권	(86)	26.7	8.1	64.0	1.2	0.0	
	영남권	(694)	29.1	17.4	49.1	2.7	1.6	
	호남권	(257)	28.4	18.7	49.8	2.7	0.4	
	제주권	(35)	37.1	11.4	45.7	5.7	0.0	
출신 지역	수도권	(815)	18.0	10.3	68.8	2.2	0.6	115.52 ***
	충청권	(350)	16.9	8.9	69.4	4.3	0.6	
	강원권	(134)	23.1	10.4	64.2	1.5	0.7	
	영남권	(811)	26.8	16.4	52.4	3.2	1.2	
	호남권	(438)	20.5	16.9	58.7	3.4	0.5	
	제주권	(35)	28.6	8.6	57.1	5.7	0.0	
	기타	(8)	12.5	0.0	87.5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아.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⁶⁾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은 '제부'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김 서방' 17.4%, '길동 아빠'와 같이 조카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경우 7.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김 과장'과 같이 직위명을 부르는 경우, '제남', '철수야'와 같이 동생 남편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3]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6) 여동생의 남편의 상대적인 나이(손위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여동생의 남편을 'O 서방', 'O 서방님'으로 제시하였는데 여동생의 남편이 나이가 더 많은 경우에는 'O 서방님'으로 부르도록 한 것이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제부'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에서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20대로 내려갈수록 그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제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미혼의 경우 75.4%로 기혼(68.8%)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제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28.5%, 호남권에서 21.0%로 높게 나타났는데, 호남권에서는 '제낭'에 대한 응답 비율도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제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O 서방(님)'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부'가 70.6%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길동 아빠'와 같이 자녀에게 기대어 부르는 비율도 7.1%로 나타났다.

[표 46]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N = 2,591(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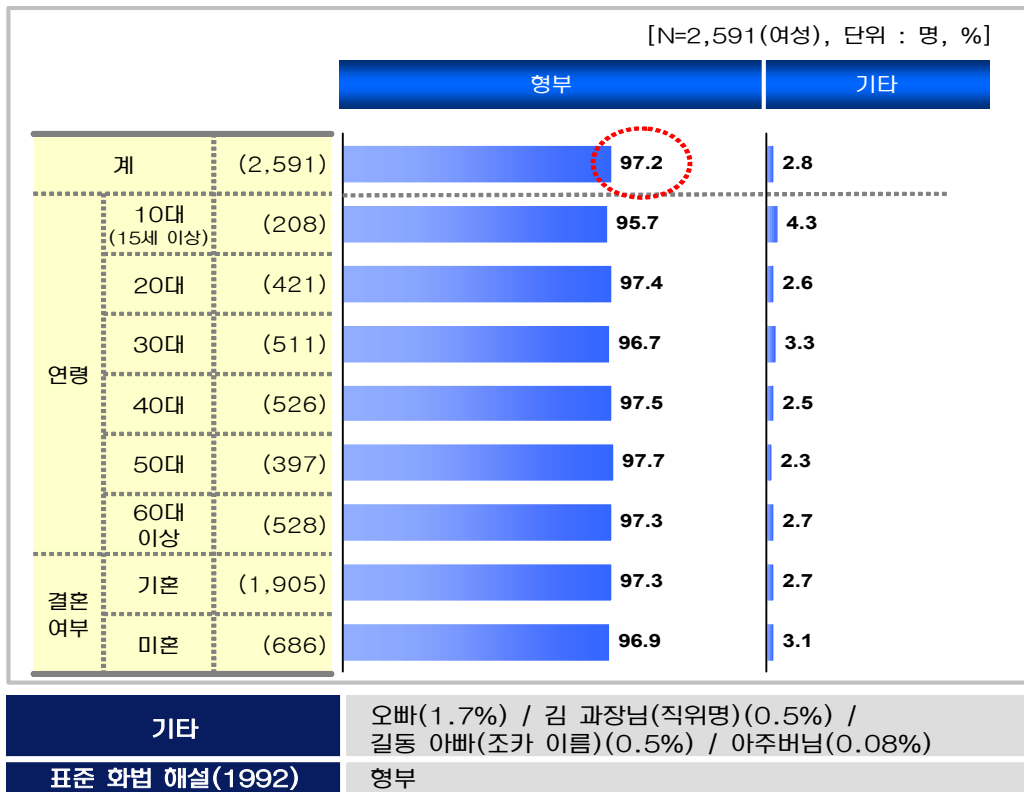
		응답자 수	김 서방	김 과장 (직위명)	제부	제남	길동 아빠 (조카 이름)	철수야 (동생 남편 이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2,591)	17.4	2.0	70.6	1.9	7.1	0.7	0.4	
연령	15~19세	(208)	18.8	0.5	67.8	0.0	8.7	3.8	0.5	205.34 ***
	20대	(421)	13.3	1.7	79.3	0.2	4.0	1.2	0.2	
	30대	(511)	14.3	2.5	77.3	1.4	3.9	0.6	0.0	
	40대	(526)	14.4	2.9	74.3	0.6	7.6	0.0	0.2	
	50대	(397)	20.4	1.5	66.5	2.0	9.1	0.0	0.5	
	60대 이상	(528)	23.7	1.9	57.4	5.7	10.0	0.4	0.9	
결혼 여부	기혼	(1,905)	17.8	2.4	68.8	2.5	7.8	0.2	0.4	62.29 ***
	미혼	(686)	16.0	0.9	75.4	0.1	5.2	2.0	0.3	
거주 지역	수도권	(1,251)	12.4	2.5	74.1	0.6	9.8	0.5	0.2	467.49 ***
	충청권	(268)	11.2	0.7	74.3	3.4	7.8	2.2	0.4	
	강원권	(86)	9.3	3.5	82.6	0.0	2.3	1.2	1.2	
	영남권	(694)	28.5	2.0	66.0	0.1	2.7	0.1	0.4	
	호남권	(257)	21.0	0.8	58.4	12.5	6.2	0.8	0.4	
	제주권	(35)	14.3	0.0	65.7	0.0	11.4	5.7	2.9	
출신 지역	수도권	(815)	11.7	3.2	75.8	0.4	8.1	0.7	0.1	373.55 ***
	충청권	(350)	12.3	0.9	73.4	2.6	9.1	1.7	0.0	
	강원권	(134)	11.2	2.2	75.4	0.0	9.0	0.0	2.2	
	영남권	(811)	26.1	2.0	67.4	0.4	3.5	0.2	0.4	
	호남권	(438)	18.0	0.9	63.2	7.5	9.4	0.5	0.5	
	제주권	(35)	11.4	0.0	65.7	0.0	14.3	5.7	2.9	
	기타	(8)	25.0	0.0	62.5	12.5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자.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은 '형부'가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오빠', '김 과장님'과 같이 직위명을 부르는 경우, '길동 아빠'와 같이 조카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경우, '아주버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4]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거주 지역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형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권과 제주권에서 100.0%로 나타났다.

[표 47]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N = 2,591(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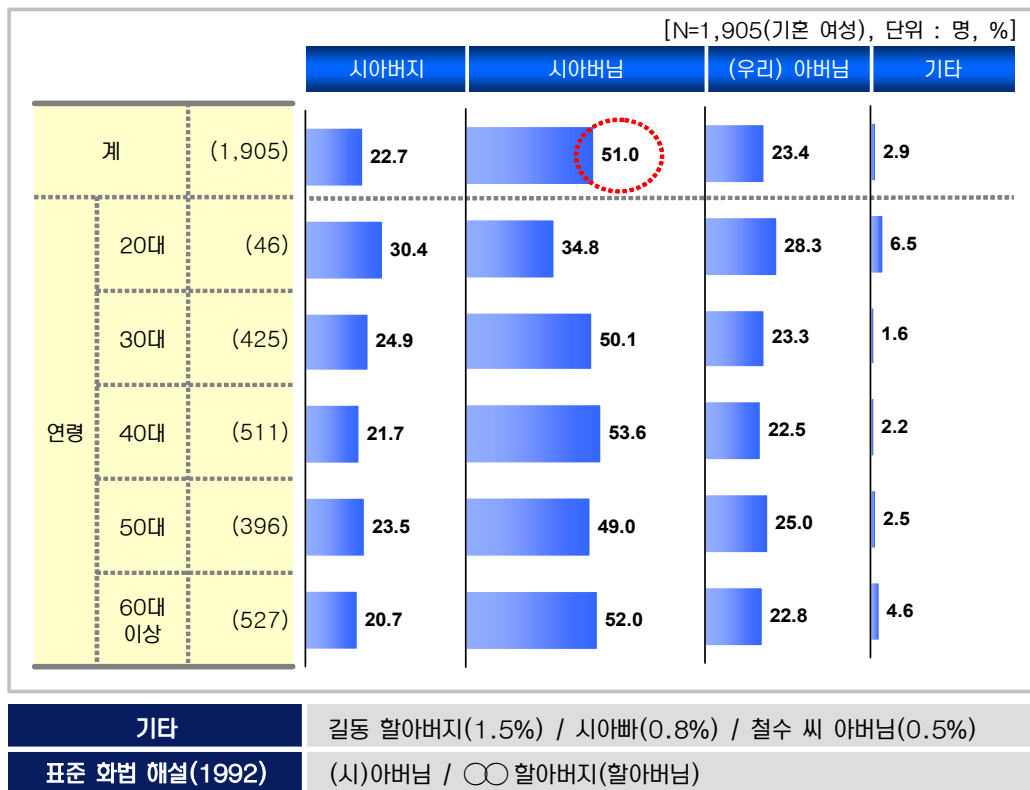
		응답자 수	형부	김 과장님 (직위명)	오빠	길동 아빠 (조카 이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2,591)	97.2	0.5	1.7	0.5	0.1	
연령	15~19세	(208)	95.7	1.0	2.4	1.0	0.0	10.20 n.s
	20대	(421)	97.4	0.2	1.9	0.5	0.0	
	30대	(511)	96.7	0.6	2.2	0.6	0.0	
	40대	(526)	97.5	0.4	1.5	0.6	0.0	
	50대	(397)	97.7	0.8	1.0	0.3	0.3	
	60대 이상	(528)	97.3	0.6	1.3	0.6	0.2	
결혼 여부	기혼	(1,905)	97.3	0.6	1.5	0.6	0.1	2.65 n.s
	미혼	(686)	96.9	0.4	2.2	0.4	0.0	
거주 지역	수도권	(1,251)	95.8	0.7	2.9	0.6	0.0	46.26 **
	충청권	(268)	98.5	0.0	1.1	0.4	0.0	
	강원권	(86)	100.0	0.0	0.0	0.0	0.0	
	영남권	(694)	98.8	0.3	0.4	0.1	0.3	
	호남권	(257)	96.5	1.2	0.4	1.9	0.0	
	제주권	(35)	100.0	0.0	0.0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815)	96.0	0.9	2.7	0.5	0.0	32.18 n.s
	충청권	(350)	98.3	0.0	1.1	0.6	0.0	
	강원권	(134)	99.3	0.0	0.7	0.0	0.0	
	영남권	(811)	98.2	0.4	1.1	0.1	0.2	
	호남권	(438)	95.9	0.9	1.6	1.6	0.0	
	제주권	(35)	100.0	0.0	0.0	0.0	0.0	
	기타	(8)	100.0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차.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을 조사한 결과 ‘시아버님’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리) 아버님’(23.4%), ‘시아버지’(22.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길동 할아버지’, ‘시아빠’, ‘철수 씨 아버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5]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시아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과 충청권에서 각각 65.2%, 59.5%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 아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27.6%로 가장 높았으며, '시아버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 '(시)아버님', 'OO 할아버지(할아버님)'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아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51.0%로 높게 나타났으나, '시아버지'(22.7%), '(우리) 아버님'(23.4%)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길동 할아버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1.5%에 그쳤다.

[표 48]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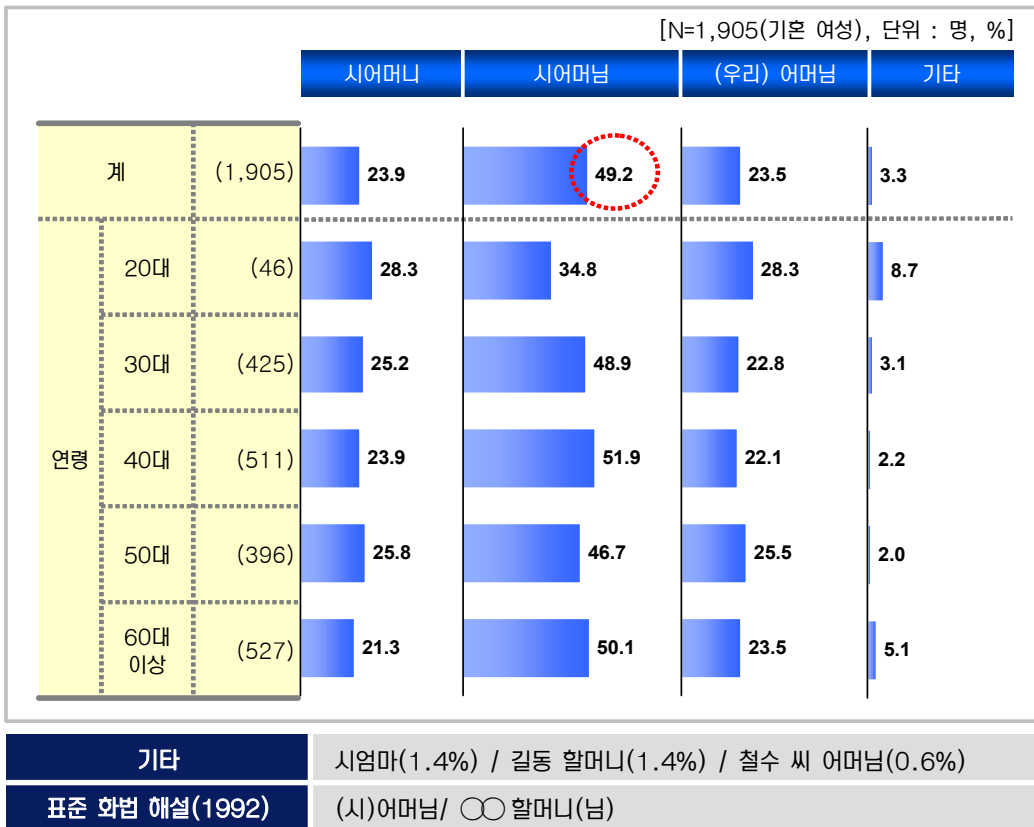
		응답자 수	시아버지	시아버님	시아빠	철수 씨 아버지	길동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통계량 (χ^2)
계		(1,905)	22.7	51.0	0.8	0.5	1.5	23.4	
연령	20대	(46)	30.4	34.8	4.3	0.0	2.2	28.3	30.47 n.s
	30대	(425)	24.9	50.1	0.9	0.5	0.2	23.3	
	40대	(511)	21.7	53.6	0.6	0.6	1.0	22.5	
	50대	(396)	23.5	49.0	0.8	0.3	1.5	25.0	
	60대 이상	(527)	20.7	52.0	0.8	0.8	3.0	22.8	
거주 지역	수도권	(909)	21.6	52.8	1.4	0.6	1.4	22.2	73.32 ***
	충청권	(195)	11.8	59.5	0.5	0.0	1.5	26.7	
	강원권	(67)	25.4	52.2	0.0	0.0	0.0	22.4	
	영남권	(503)	25.4	45.5	0.0	0.0	1.4	27.6	
	호남권	(208)	32.2	46.2	1.0	2.4	2.9	15.4	
	제주권	(23)	8.7	65.2	0.0	0.0	0.0	26.1	
출신 지역	수도권	(503)	18.3	54.5	1.8	0.6	1.4	23.5	49.72 **
	충청권	(271)	21.0	52.0	0.7	0.4	1.8	24.0	
	강원권	(109)	19.3	51.4	0.0	0.0	3.7	25.7	
	영남권	(611)	25.2	47.0	0.0	0.2	1.1	26.5	
	호남권	(378)	27.0	50.8	1.3	1.3	1.6	18.0	
	제주권	(25)	24.0	56.0	0.0	0.0	0.0	20.0	
	기타	(8)	12.5	87.5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을 조사한 결과 '시어머님'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어머니'(23.9%), '(우리) 어머님'(23.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시엄마', '길동 할머니', '철수 씨 어머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6]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시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4.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다. 또한 '시어머니'와 '(우리)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20대에서 각각 28.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시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과 충청권에서 각각 65.2%, 56.4%로 높게 나타났다. '시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37.0%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시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 '(시)어머님', 'OO 할머니(할머님)'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49.2%로 높게 나타났으나, '시어머니'(23.9%), '(우리) 어머님'(23.5%)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길동 할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1.4%에 그쳤다.

[표 49]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응답자 수	시어머니	시어머님	시엄마	철수 씨 어머니	길동 할머니	(우리) 어머니	통계량 (χ^2)
계		(1,905)	23.9	49.2	1.4	0.6	1.4	23.5	
연령	20대	(46)	28.3	34.8	6.5	0.0	2.2	28.3	40.64 **
	30대	(425)	25.2	48.9	1.9	0.9	0.2	22.8	
	40대	(511)	23.9	51.9	0.8	0.4	1.0	22.1	
	50대	(396)	25.8	46.7	1.3	0.0	0.8	25.5	
	60대 이상	(527)	21.3	50.1	1.1	0.9	3.0	23.5	
거주 지역	수도권	(909)	22.9	51.4	2.2	0.7	1.2	21.7	82.84 ***
	충청권	(195)	13.3	56.4	1.5	0.0	1.5	27.2	
	강원권	(67)	25.4	49.3	0.0	0.0	0.0	25.4	
	영남권	(503)	25.0	45.5	0.0	0.0	1.2	28.2	
	호남권	(208)	37.0	40.4	1.4	2.4	2.9	15.9	
	제주권	(23)	8.7	65.2	0.0	0.0	0.0	26.1	
출신 지역	수도권	(503)	20.3	52.1	2.4	1.0	1.4	22.9	50.68 *
	충청권	(271)	21.8	50.6	1.8	0.0	1.5	24.4	
	강원권	(109)	20.2	48.6	0.9	0.0	3.7	26.6	
	영남권	(611)	25.2	46.5	0.3	0.2	0.8	27.0	
	호남권	(378)	29.6	47.9	1.6	1.3	1.6	18.0	
	제주권	(25)	24.0	56.0	0.0	0.0	0.0	20.0	
	기타	(8)	12.5	87.5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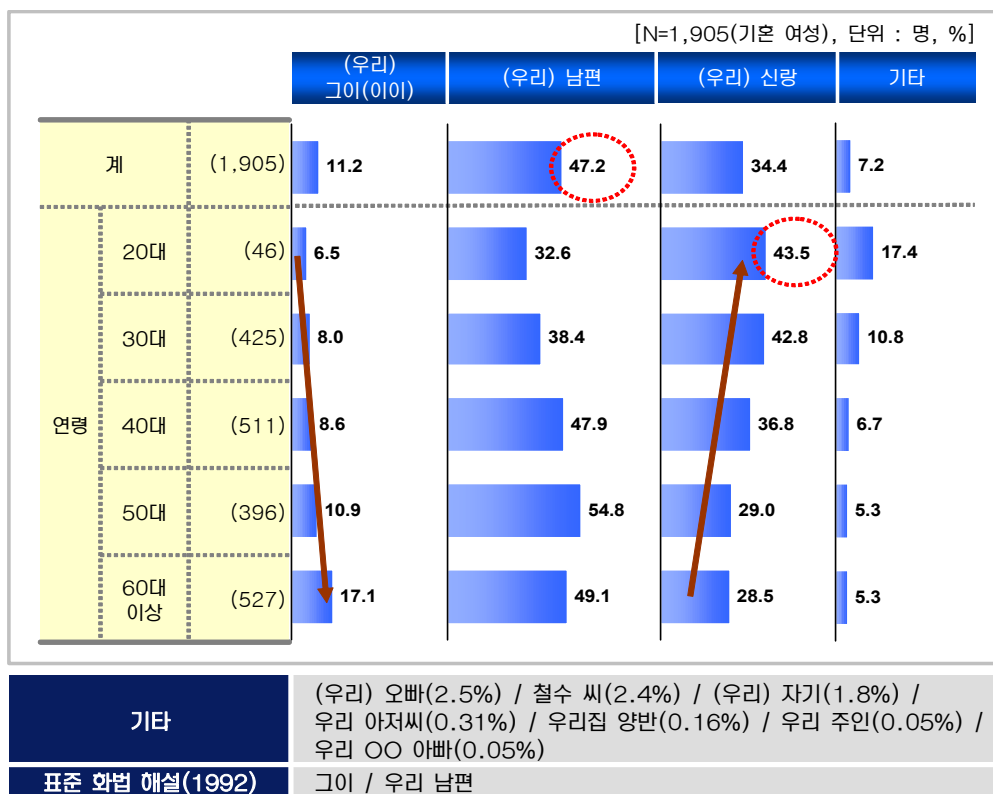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타.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1)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쓰는 말을 조사한 결과 ‘(우리) 남편’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리) 신랑’(34.4%), ‘(우리) 그이(이이)’(11.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우리) 오빠’, ‘철수 씨’, ‘(우리) 자기’, ‘우리 아저씨’, ‘우리집 양반’, ‘우리 주인’, ‘우리 OO 아빠’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7]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 / 거주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에서는 ‘(우리)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에서는 ‘(우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은 50대에서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43.5%, 30대 42.8%, 40대 36.8%, 50대 29.0%, 60대 이상 28.5%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우리) 그이(이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6.5%, 30대 8.0%, 40대 8.6%, 50대 10.9%, 60대 이상 17.1%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 오빠’의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17.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리)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권에서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우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그이(이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자녀가 없는 경우에 ‘그이’, ‘우리 남편’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47.2%, ‘(우리) 그이(이이)’가 11.2%로 나타났으며, ‘(우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이 34.4%를 차지했다.

[표 50]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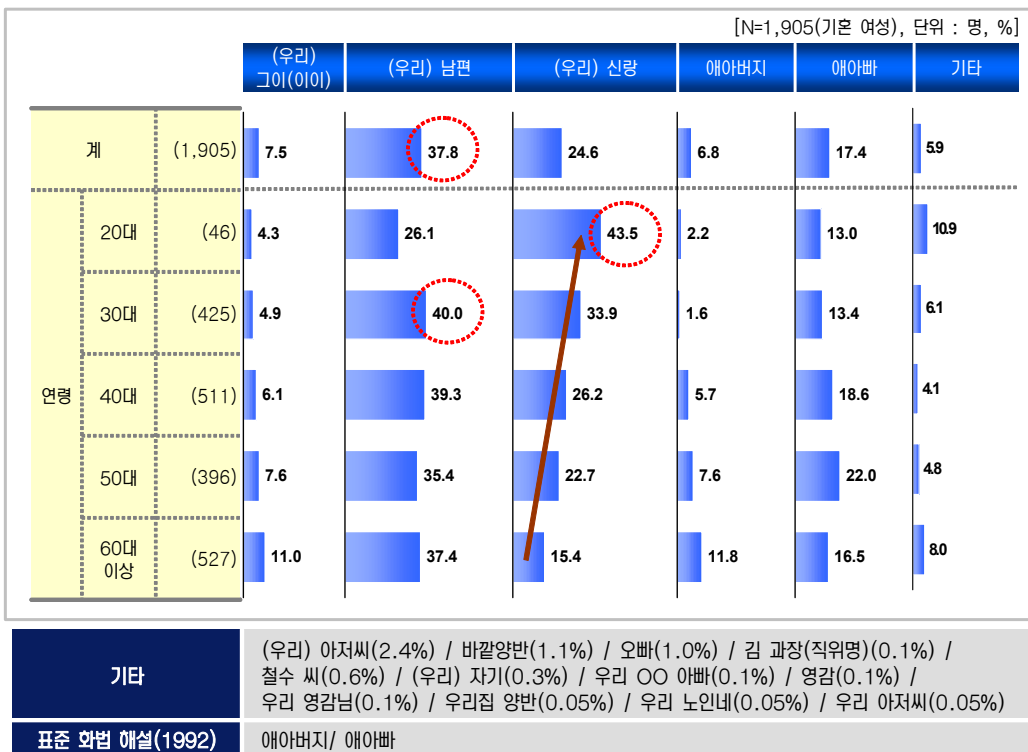
		응답자 수	(우리) 그이 (이이)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우리) 오빠	철수 씨	(우리) 자기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905)	11.2	47.2	34.4	2.5	2.4	1.8	0.6	
연령	20대	(46)	6.5	32.6	43.5	17.4	0.0	0.0	0.0	155.65 ***
	30대	(425)	8.0	38.4	42.8	5.9	1.9	3.1	0.0	
	40대	(511)	8.6	47.9	36.8	1.8	3.3	1.2	0.4	
	50대	(396)	10.9	54.8	29.0	0.3	2.3	2.0	0.8	
	60대 이상	(527)	17.1	49.1	28.5	0.8	2.1	1.3	1.1	
거주 지역	수도권	(909)	13.4	48.5	31.2	2.4	2.6	1.5	0.2	114.58 ***
	충청권	(195)	16.4	42.6	36.4	1.0	0.5	2.1	1.0	
	강원권	(67)	19.4	49.3	23.9	3.0	3.0	1.5	0.0	
	영남권	(503)	4.8	50.1	38.2	3.2	1.6	1.8	0.4	
	호남권	(208)	11.1	35.1	42.3	2.4	3.8	2.9	2.4	
	제주권	(23)	0.0	73.9	17.4	0.0	8.7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503)	13.5	45.3	33.2	3.2	2.6	1.6	0.6	70.57 n.s
	충청권	(271)	15.9	46.9	32.8	0.7	1.8	1.5	0.4	
	강원권	(109)	18.3	49.5	26.6	1.8	0.9	2.8	0.0	
	영남권	(611)	6.4	49.4	37.2	2.9	2.0	1.8	0.3	
	호남권	(378)	11.6	43.9	35.4	2.4	3.2	2.1	1.3	
	제주권	(25)	0.0	60.0	32.0	0.0	8.0	0.0	0.0	
	기타	(8)	0.0	87.5	12.5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쓰는 말을 조사한 결과 ‘(우리) 남편’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 신랑’(24.6%), ‘애아빠’(17.4%), ‘(우리) 그이(이이)’(7.5%), ‘애아버지’(6.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우리) 아저씨’, ‘바깥양반’, ‘오빠’, ‘철수 씨’, ‘(우리) 자기’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8]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우리)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는 ‘(우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리)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우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우리)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 지역에서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애아버지’, ‘애아빠’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애아버지’는 6.8%, ‘애아빠’는 17.4%에 그쳤다. 자녀가 없는 경우 바람직하다고 했던 ‘(우리) 남편’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신랑’도 24.6%를 차지했다.

[표 51]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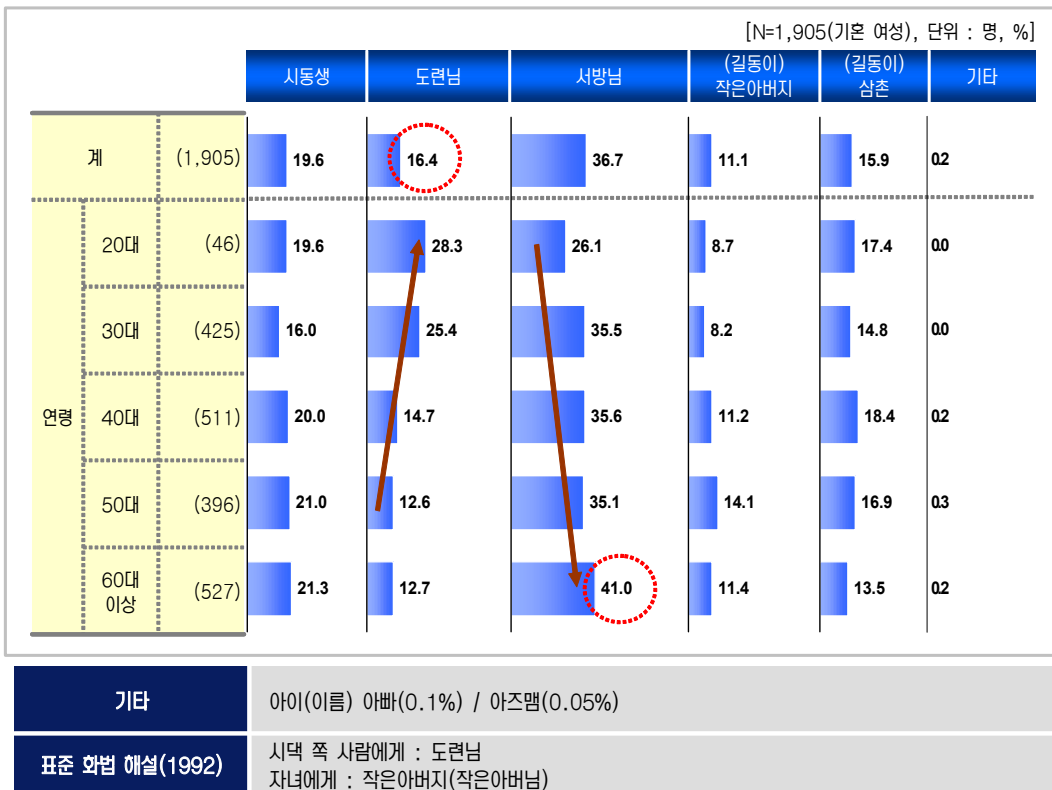
		응답자 수	(우리) 그이 (이이)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우리) 아저씨	애아 아버지	애아 뺨	바깥 양반	김 교장 (직 위명)	오빠	철수 씨	(우리) 자기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905)	7.5	37.8	24.6	2.4	6.8	17.4	1.1	0.1	1.0	0.6	0.3	0.5	
연령	20대	(46)	4.3	26.1	43.5	0.0	2.2	13.0	0.0	0.0	10.9	0.0	0.0	0.0	235.54 ***
	30대	(425)	4.9	40.0	33.9	1.6	1.6	13.4	0.0	0.0	2.1	1.2	1.2	0.0	
	40대	(511)	6.1	39.3	26.2	2.2	5.7	18.6	0.4	0.0	0.6	0.6	0.2	0.2	
	50대	(396)	7.6	35.4	22.7	2.8	7.6	22.0	0.8	0.3	0.3	0.5	0.0	0.3	
	60대 이상	(527)	11.0	37.4	15.4	3.2	11.8	16.5	3.0	0.0	0.2	0.2	0.0	1.3	
거주 지역	수도권	(909)	8.9	38.9	23.2	1.4	6.2	18.2	1.0	0.0	1.2	0.7	0.1	0.2	171.43 ***
	충청권	(195)	10.3	29.7	21.5	3.1	9.2	23.6	0.5	0.0	0.0	1.0	0.0	1.0	
	강원권	(67)	10.4	46.3	3.0	1.5	7.5	26.9	1.5	0.0	1.5	1.5	0.0	0.0	
	영남권	(503)	3.8	41.2	29.8	2.6	7.0	13.1	0.8	0.0	1.2	0.0	0.2	0.4	
	호남권	(208)	7.2	27.4	29.3	5.8	6.3	16.3	2.4	0.5	0.5	1.0	1.9	1.4	
	제주권	(23)	0.0	56.5	13.0	4.3	8.7	13.0	4.3	0.0	0.0	0.0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503)	9.7	35.8	22.3	2.0	5.4	20.7	0.8	0.0	1.6	1.2	0.2	0.4	133.10 **
	충청권	(271)	8.9	36.5	21.8	1.5	9.6	18.5	1.5	0.0	0.0	0.7	0.0	1.1	
	강원권	(109)	12.8	43.1	11.0	1.8	7.3	22.9	0.0	0.0	0.9	0.0	0.0	0.0	
	영남권	(611)	4.3	40.8	28.3	2.6	7.2	13.9	1.1	0.0	1.3	0.0	0.2	0.3	
	호남권	(378)	7.7	32.8	28.0	3.7	5.6	17.5	1.6	0.3	0.5	0.8	1.1	0.5	
	제주권	(25)	0.0	56.0	24.0	0.0	12.0	8.0	0.0	0.0	0.0	0.0	0.0	0.0	
	기타	(8)	0.0	87.5	1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파.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을 조사한 결과 ‘서방님’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동생’(19.6%), ‘도련님’(16.4%), ‘(길동이) 삼촌’(15.9%), ‘(길동이) 작은아버지’(11.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이(이름) 아빠’, ‘아즈맴’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49]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서방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는 '도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방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방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강원권에서는 그 응답 비율이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권에서는 '(길동이) 삼촌'에 대한 응답 비율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에서는 '서방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는 '(길동이) 삼촌'에 대한 응답 비율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지역에서는 '서방님'과 '시동생'이 각각 37.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 시댁 쪽 사람에게는 '도련님'으로, 자녀에게는 '작은아버지(작은아버님)'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상황을 나누어서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방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36.7%, '시동생'에 대한 응답 비율이 19.6%로 '도련님'(16.4%), '(길동이) 작은아버지'(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2]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

[N = 1,905(기혼 여성), 단위 : 명, %]

		응답자 수	시동생	도련님	서방님	(길동이) 작은 아버지	(길동이) 삼촌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905)	19.6	16.4	36.7	11.1	15.9	0.2	
연령	20대	(46)	19.6	28.3	26.1	8.7	17.4	0.0	59.02 ***
	30대	(425)	16.0	25.4	35.5	8.2	14.8	0.0	
	40대	(511)	20.0	14.7	35.6	11.2	18.4	0.2	
	50대	(396)	21.0	12.6	35.1	14.1	16.9	0.3	
	60대 이상	(527)	21.3	12.7	41.0	11.4	13.5	0.2	
거주 지역	수도권	(909)	19.8	13.3	37.7	11.4	17.7	0.0	121.93 ***
	충청권	(195)	17.4	13.3	48.2	8.2	12.8	0.0	
	강원권	(67)	23.9	11.9	61.2	1.5	1.5	0.0	
	영남권	(503)	19.5	21.9	32.0	11.9	14.3	0.4	
	호남권	(208)	20.2	20.2	28.4	13.9	17.3	0.0	
	제주권	(23)	17.4	26.1	8.7	8.7	34.8	4.3	
출신 지역	수도권	(503)	18.5	15.5	39.8	11.1	14.9	0.2	58.09 *
	충청권	(271)	19.2	15.1	44.6	9.6	11.4	0.0	
	강원권	(109)	21.1	7.3	47.7	9.2	14.7	0.0	
	영남권	(611)	20.1	19.8	32.9	12.3	14.6	0.3	
	호남권	(378)	19.8	16.1	31.2	10.8	22.0	0.0	
	제주권	(25)	20.0	16.0	20.0	8.0	36.0	0.0	
	기타	(8)	37.5	0.0	37.5	25.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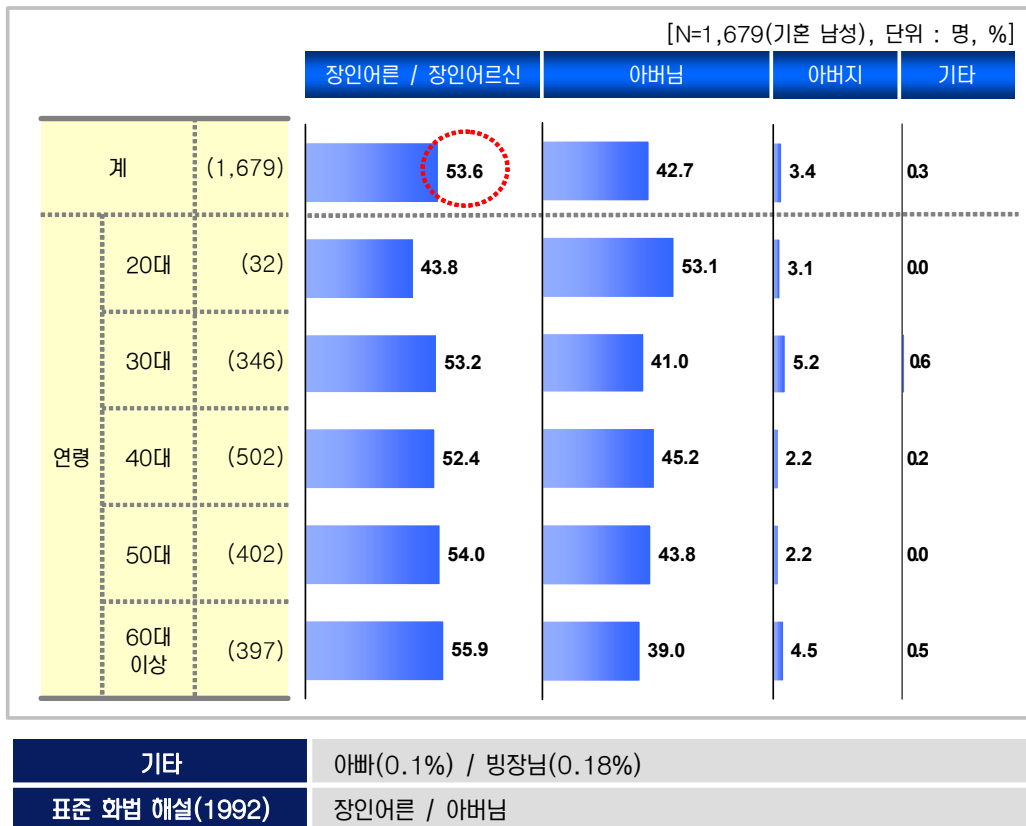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4. 가정에서의 호칭 · 지칭어_남자

가.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인어른/장인어르신’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버님’(42.7%), ‘아버지’(3.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빠’, ‘빙장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50]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인어른/장인어르신’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52.0%, 강원권에서 57.4%, 영남권에서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에서 53.8%, 호남권에서 50.8%, 제주권에서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주권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체 응답 비율 3.4%보다 11.6% 높은 15.0%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장인어른/장인어르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기타 지역 66.7%, 영남권 64.6%, 강원권 60.6%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57.1%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N = 1,679(기혼 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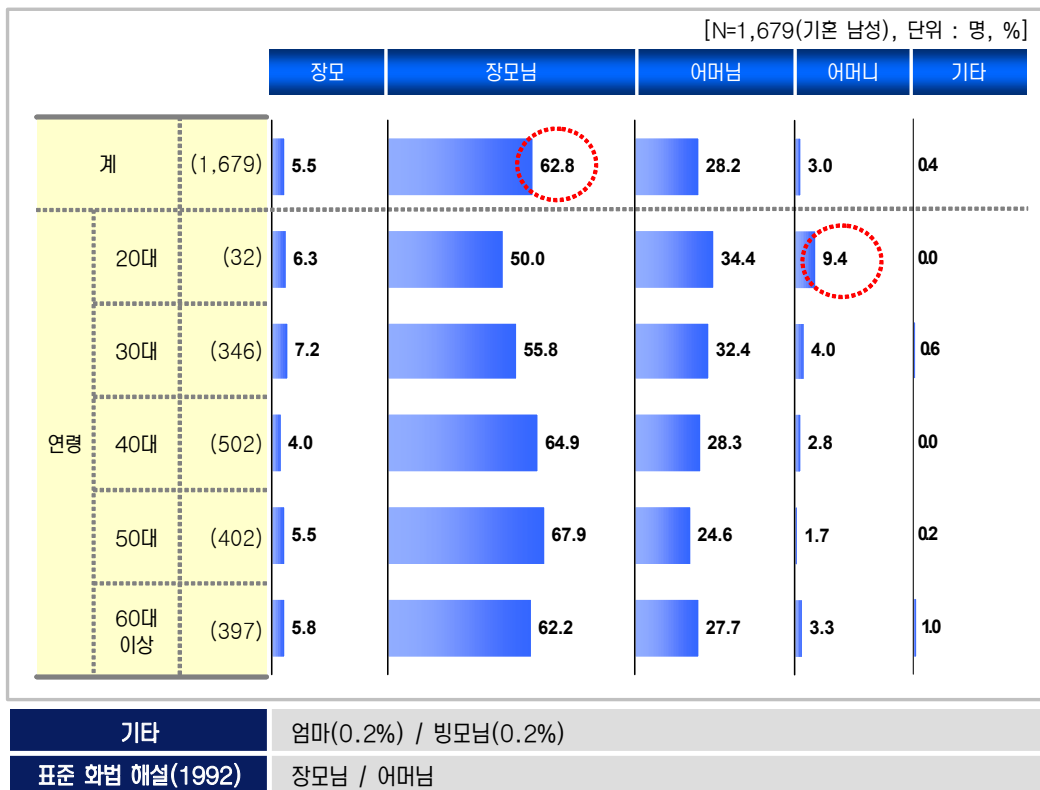
		응답자 수	장인어른/ 장인어르신	아버님	아버지	아빠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679)	53.6	42.7	3.4	0.1	0.2	
연령	20대	(32)	43.8	53.1	3.1	0.0	0.0	24.31 n.s
	30대	(346)	53.2	41.0	5.2	0.6	0.0	
	40대	(502)	52.4	45.2	2.2	0.0	0.2	
	50대	(402)	54.0	43.8	2.2	0.0	0.0	
	60대 이상	(397)	55.9	39.0	4.5	0.0	0.5	
거주 지역	수도권	(787)	52.0	45.4	2.3	0.1	0.3	78.04 ***
	충청권	(171)	42.7	53.8	2.9	0.6	0.0	
	강원권	(54)	57.4	42.6	0.0	0.0	0.0	
	영남권	(454)	66.1	29.7	4.0	0.0	0.2	
	호남권	(193)	42.5	50.8	6.7	0.0	0.0	
	제주권	(20)	25.0	60.0	15.0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443)	49.2	48.1	2.3	0.2	0.2	98.25 ***
	충청권	(272)	47.8	48.2	3.7	0.0	0.4	
	강원권	(94)	60.6	39.4	0.0	0.0	0.0	
	영남권	(540)	64.6	31.9	3.3	0.0	0.2	
	호남권	(293)	45.4	49.5	5.1	0.0	0.0	
	제주권	(28)	25.0	57.1	14.3	3.6	0.0	
	기타	(9)	66.7	33.3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나.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모님'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인을 부를 때 '장인어른/장인어르신'(53.6%)으로 부르는 것보다 약 9.2%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28.2%로 나타났으며, '장모'(5.5%), '어머니'(3.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엄마', '빙모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51]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장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50대에서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 64.9%, 30대 55.8%, 20대 50.0% 순으로 50대를 기준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응답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32.4%, 40대 28.3%, 50대 24.6%로 50대를 기점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장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 77.8%로 가장 높게, 호남권에서 4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어머님’(37.8%)과 ‘어머니’(11.4%)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전체 응답 값보다 약 8%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에서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장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님’과 ‘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각각 36.5%,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4]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

[N = 1,679(기혼 남성), 단위 : 명, %]

		응답자 수	장모	장모님	어머님	어머니	엄마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679)	5.5	62.8	28.2	3.0	0.2	0.2	
연령	20대	(32)	6.3	50.0	34.4	9.4	0.0	0.0	39.67 **
	30대	(346)	7.2	55.8	32.4	4.0	0.6	0.0	
	40대	(502)	4.0	64.9	28.3	2.8	0.0	0.0	
	50대	(402)	5.5	67.9	24.6	1.7	0.2	0.0	
	60대 이상	(397)	5.8	62.2	27.7	3.3	0.0	1.0	
거주 지역	수도권	(787)	4.7	65.4	27.7	1.8	0.1	0.3	108.66 ***
	충청권	(171)	5.3	53.8	39.2	1.2	0.6	0.0	
	강원권	(54)	3.7	77.8	18.5	0.0	0.0	0.0	
	영남권	(454)	8.6	66.3	22.2	2.4	0.0	0.4	
	호남권	(193)	2.1	48.2	37.8	11.4	0.5	0.0	
	제주권	(20)	5.0	60.0	25.0	10.0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443)	4.3	63.0	30.2	1.8	0.2	0.5	109.73 ***
	충청권	(272)	5.9	59.2	32.7	1.8	0.0	0.4	
	강원권	(94)	3.2	80.9	14.9	1.1	0.0	0.0	
	영남권	(540)	8.0	68.0	22.0	1.9	0.0	0.2	
	호남권	(293)	3.8	50.9	36.5	8.5	0.3	0.0	
	제주권	(28)	0.0	60.7	28.6	7.1	3.6	0.0	
	기타	(9)	0.0	66.7	33.3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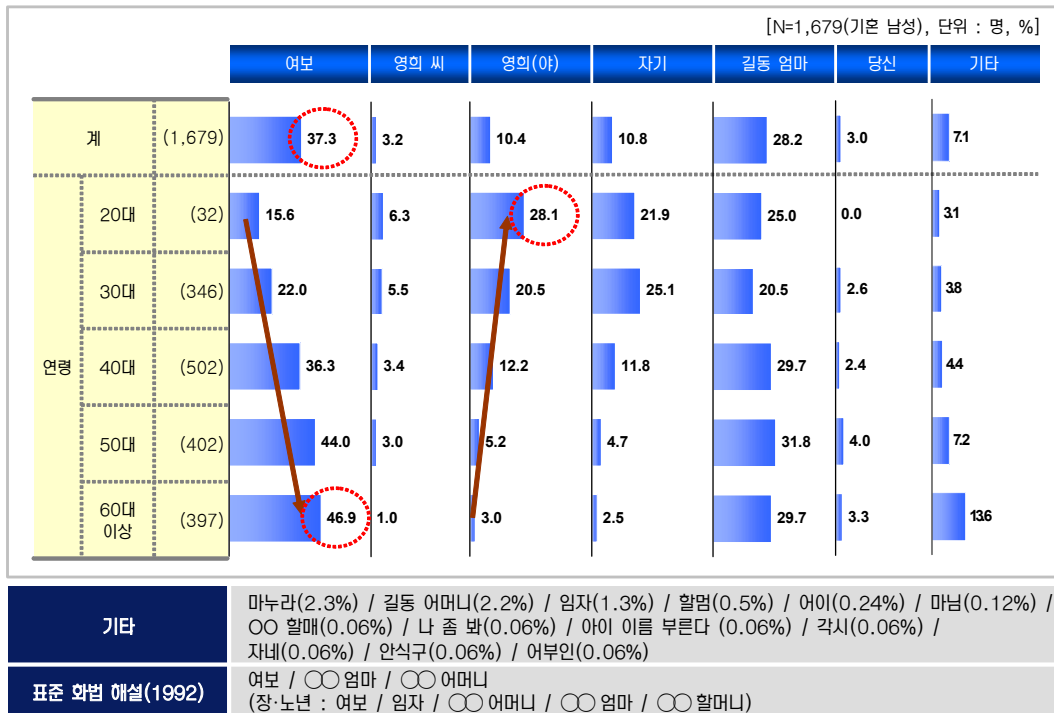
다.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1)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길동 엄마'(28.2%), '자기'(10.8%), '영희(아)'(10.4%), '영희 씨'(3.2%), '당신'(3.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마누라', '길동 어머니', '임자', '할멈' 등이 조사되었다.

자녀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길동 엄마'와 '길동 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늘면서 '자기'는 21.6%에서 10.8%로, '영희(아)'는 17.3%에서 10.4%로, '영희 씨'는 9.9%에서 3.2%로 줄었으며, '여보'는 39.8%에서 37.3%로 소폭 줄어들었다.

[그림 52]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15.6%, 30대 22.0%, 40대 36.3%, 50대에서 44.0%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3.0%, 50대 5.2%, 40대 12.2%, 30대 20.5%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길동 엄마’에 대한 응답 비율은 50대 31.8%, 40대와 60대 이상에서 29.7%로 4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30대 25.1%, 20대 21.9%로 3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는 ‘길동 엄마’에 대한 응답 비율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타 지역과 강원권에서 각각 44.4%, 42.6%로 높게 나타났으며, ‘길동 엄마’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46.4%,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18.1%, ‘자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에서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여보’, ‘OO 엄마’, ‘OO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임자’, ‘OO 할머니’도 적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희 씨’(3.2%), ‘영희(야)’(10.4%)와 같이 아내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13.6%로 나타났으며, ‘자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10.8%를 차지했다.

[표 55]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N = 1,679(기혼 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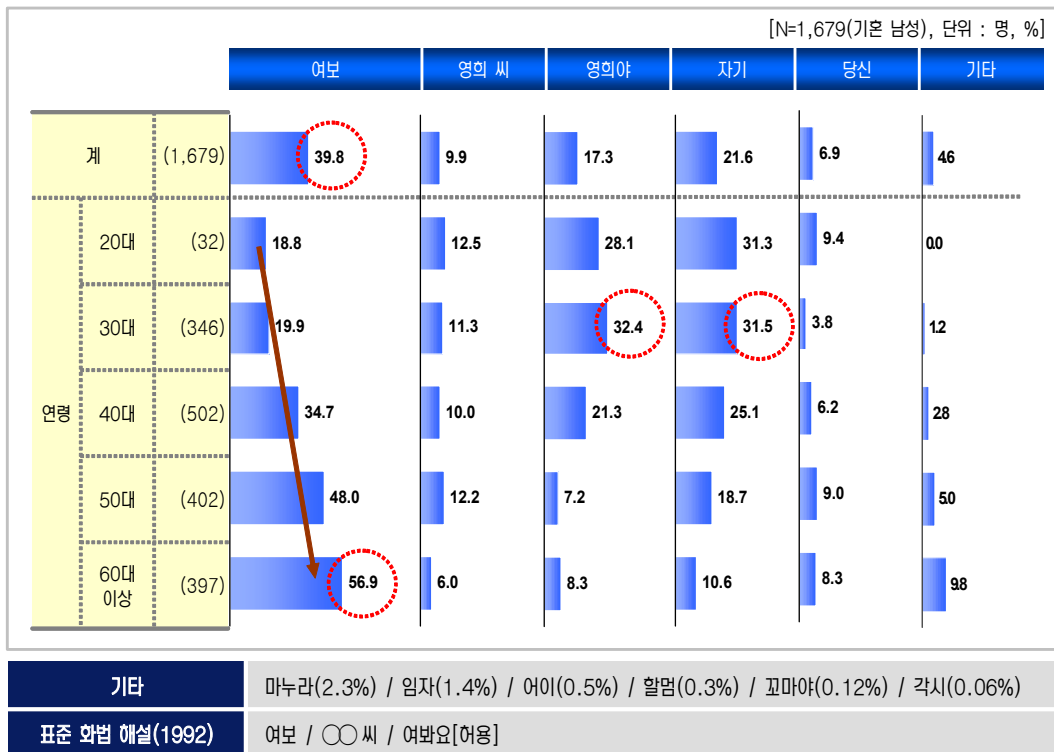
		응답자 수	여보	영희 씨	영희 (아)	자기	임자	할멈	마누라	길동 어머니	길동 엄마	당신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679)	37.3	3.2	10.4	10.8	1.3	0.5	2.3	2.2	28.2	3.0	0.8	
연령	20대	(32)	15.6	6.3	28.1	21.9	0.0	0.0	0.0	3.1	25.0	0.0	0.0	341.83 ***
	30대	(346)	22.0	5.5	20.5	25.1	0.6	0.0	0.3	2.6	20.5	2.6	0.3	
	40대	(502)	36.3	3.4	12.2	11.8	0.6	0.0	1.4	1.4	29.7	2.4	1.0	
	50대	(402)	44.0	3.0	5.2	4.7	1.2	0.0	3.2	2.0	31.8	4.0	0.7	
	60대 이상	(397)	46.9	1.0	3.0	2.5	3.0	2.3	4.3	3.0	29.7	3.3	1.0	
거주 지역	수도권	(787)	36.2	2.2	7.1	13.7	1.3	0.3	1.8	2.5	30.6	4.3	0.0	238.33 ***
	충청권	(171)	38.6	4.1	8.2	14.0	1.2	1.2	2.3	1.2	27.5	1.2	0.6	
	강원권	(54)	42.6	1.9	7.4	16.7	0.0	0.0	0.0	0.0	29.6	0.0	1.9	
	영남권	(454)	39.2	5.5	20.0	5.3	0.7	0.0	0.9	2.0	22.9	1.8	1.8	
	호남권	(193)	35.8	2.1	4.1	8.3	3.1	2.6	7.8	3.1	28.5	3.1	1.6	
	제주권	(20)	25.0	0.0	5.0	5.0	5.0	0.0	5.0	0.0	55.0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443)	37.0	2.0	9.0	13.3	2.3	0.2	0.9	2.3	28.7	4.1	0.2	195.78 ***
	충청권	(272)	39.7	2.9	6.3	15.1	0.7	0.7	2.9	1.8	27.2	2.2	0.4	
	강원권	(94)	42.6	1.1	5.3	11.7	0.0	0.0	1.1	2.1	30.9	4.3	1.1	
	영남권	(540)	35.7	5.4	18.1	6.5	0.6	0.0	1.3	2.0	27.8	1.5	1.1	
	호남권	(293)	37.9	2.4	3.8	11.3	1.7	2.0	5.8	3.1	26.3	4.4	1.4	
	제주권	(28)	21.4	0.0	10.7	10.7	3.6	0.0	3.6	0.0	46.4	3.6	0.0	
	기타	(9)	44.4	0.0	0.0	0.0	11.1	0.0	0.0	0.0	44.4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을 때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21.6%), '영희(아)'(17.3%), '영희 씨'(9.9%), '당신'(6.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마누라', '임자', '할멈', '어이', '꼬마야', '각시'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53]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을 때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 18.8%, 30대 19.9%, 40대 34.7%, 50대 48.0%, 60대 이상 56.9%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30대에서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50대 이상의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도 30대에서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50대 이상의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에서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권에서는 ‘영희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에서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지역과 강원권에서 ‘여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77.8%, 46.8%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에서 30.9%로,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26.5%로, ‘영희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여보’, ‘OO 씨’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21.6%를 차지했다.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표 56]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N = 1,679(기혼 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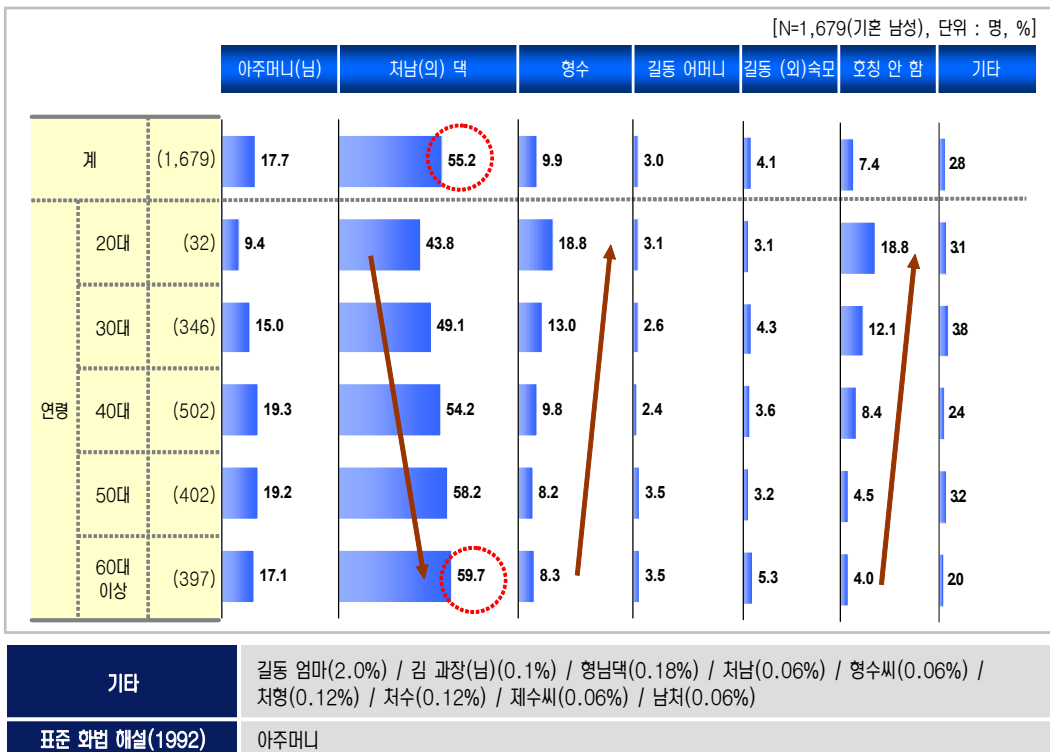
		응답자 수	여보	영희 씨	영희 (아)	자기	임자	할멈	마누라	당신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679)	39.8	9.9	17.3	21.6	1.4	0.3	2.3	6.9	0.7	
연령	20대	(32)	18.8	12.5	28.1	31.3	0.0	0.0	0.0	9.4	0.0	295.02 ***
	30대	(346)	19.9	11.3	32.4	31.5	0.3	0.0	0.9	3.8	0.0	
	40대	(502)	34.7	10.0	21.3	25.1	0.2	0.2	1.4	6.2	1.0	
	50대	(402)	48.0	12.2	7.2	18.7	1.5	0.2	2.0	9.0	1.2	
	60대 이상	(397)	56.9	6.0	8.3	10.6	3.8	0.8	5.0	8.3	0.3	
거주 지역	수도권	(787)	40.0	6.9	13.9	26.8	1.4	0.3	1.9	8.8	0.1	224.28 ***
	충청권	(171)	42.7	8.2	11.7	30.4	0.0	0.0	0.6	5.8	0.6	
	강원권	(54)	40.7	5.6	13.0	29.6	0.0	0.0	1.9	9.3	0.0	
	영남권	(454)	36.6	16.1	28.9	11.5	1.8	0.0	1.5	3.1	0.7	
	호남권	(193)	45.1	8.3	10.4	15.5	1.6	1.6	6.2	8.3	3.1	
	제주권	(20)	25.0	30.0	15.0	5.0	5.0	0.0	10.0	1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443)	40.0	7.0	17.6	23.5	2.5	0.5	1.1	7.9	0.0	194.97 ***
	충청권	(272)	41.2	7.7	9.2	30.9	0.0	0.0	2.6	8.1	0.4	
	강원권	(94)	46.8	3.2	10.6	26.6	0.0	0.0	3.2	9.6	0.0	
	영남권	(540)	35.9	15.2	26.5	15.2	1.3	0.0	1.7	3.5	0.7	
	호남권	(293)	43.7	7.2	9.9	21.5	1.0	1.0	4.1	9.6	2.0	
	제주권	(28)	21.4	28.6	17.9	10.7	3.6	0.0	7.1	10.7	0.0	
	기타	(9)	77.8	0.0	0.0	11.1	11.1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라. 손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손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처남(의) 댁’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주머니(님)’(17.7%), ‘형수’(9.9%), ‘길동 (외)숙모’(4.1%), ‘길동 어머니’(3.0%) 순으로 나타났다. ‘호칭을 안 한다’는 응답도 7.4%를 차지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길동 엄마’, ‘김 과장(님)’, ‘형님댁’, ‘처남’, ‘형수씨’, ‘처형’, ‘처수’, ‘제수씨’, ‘남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54] 손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



손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처남(의) 닥'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에서 43.8%, 30대 49.1%, 40대 54.2%, 50대 58.2%, 60대 이상 59.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머니(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40대에서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를 기점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수'라고 부르거나 '호칭을 하지 않는 경우'는 20대에서 각각 18.8%의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처남(의) 닥'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영남권에서 76.4%로 나타났다. '길동 (외)숙모'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25.0%, 강원권에서 24.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형수'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25.9%, '아주머니(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23.1%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처남(의) 닥'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에서 70.2%, '아주머니(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충청권에서 24.3%, '형수'에 대한 응답 비율이 호남권에서 19.8%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손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 '아주머니'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처남(의) 닥'이 55.2%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주머니(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17.7%에 그쳤다.

[표 57] 순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

[N = 1,679(기혼 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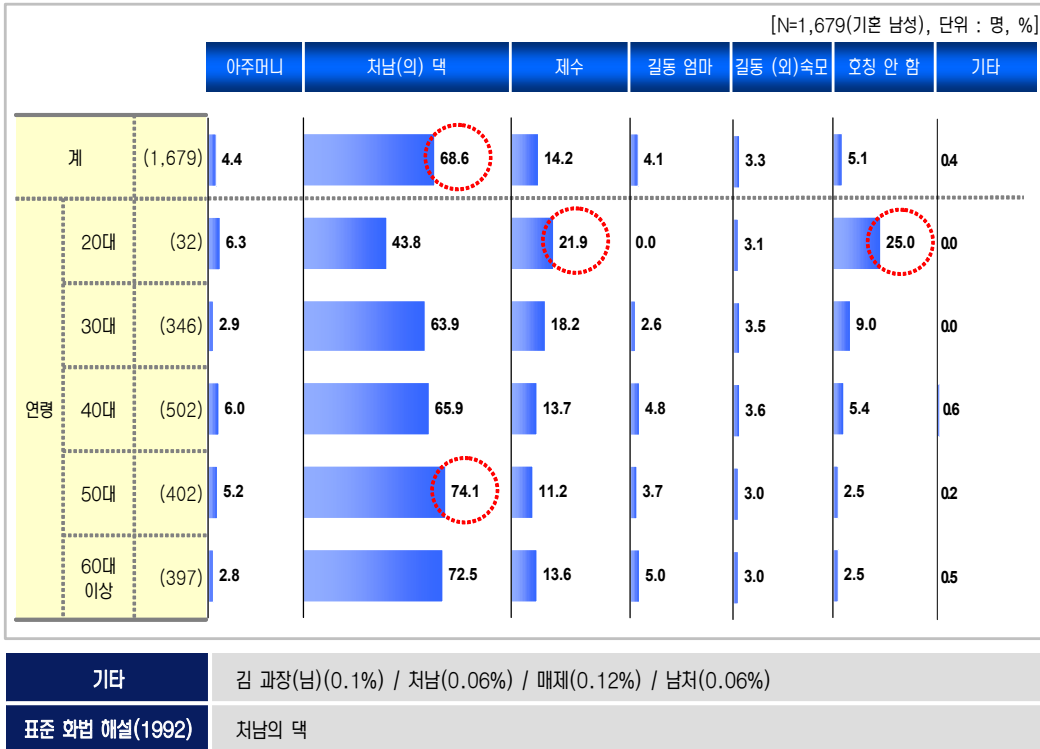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주머니 (남)	처남 (의) 덕	형수	길동 어머니	길동 엄마	길동 (외) 숙모	김 과장 (님)	호칭 안 함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679)	17.7	55.2	9.9	3.0	2.0	4.1	0.1	7.4	0.7	
연령	20대	(32)	9.4	43.8	18.8	3.1	3.1	3.1	0.0	18.8	0.0	89.28 **
	30대	(346)	15.0	49.1	13.0	2.6	3.5	4.3	0.0	12.1	0.3	
	40대	(502)	19.3	54.2	9.8	2.4	1.6	3.6	0.4	8.4	0.4	
	50대	(402)	19.2	58.2	8.2	3.5	2.0	3.2	0.0	4.5	1.2	
	60대 이상	(397)	17.1	59.7	8.3	3.5	1.3	5.3	0.0	4.0	0.8	
거주 지역	수도권	(787)	23.1	47.4	8.6	3.7	2.3	4.7	0.1	10.0	0.0	377.77 ***
	충청권	(171)	18.1	57.9	9.4	1.2	5.8	2.9	0.0	4.1	0.6	
	강원권	(54)	11.1	50.0	5.6	1.9	3.7	24.1	0.0	1.9	1.9	
	영남권	(454)	11.7	76.4	5.9	1.1	0.0	0.9	0.0	2.4	1.5	
	호남권	(193)	10.9	38.3	25.9	5.7	2.1	2.1	0.5	13.5	1.0	
	제주권	(20)	20.0	35.0	10.0	10.0	0.0	25.0	0.0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443)	19.6	46.7	9.5	3.8	2.3	5.6	0.0	12.2	0.2	442.99 ***
	충청권	(272)	24.3	54.8	8.8	2.2	3.3	2.6	0.0	3.7	0.4	
	강원권	(94)	9.6	60.6	2.1	3.2	3.2	16.0	0.0	5.3	0.0	
	영남권	(540)	15.4	70.2	5.9	1.7	0.7	1.5	0.2	3.3	1.1	
	호남권	(293)	15.4	42.0	19.8	4.4	2.4	2.7	0.3	12.3	0.7	
	제주권	(28)	21.4	35.7	14.3	7.1	0.0	17.9	0.0	3.6	0.0	
	기타	(9)	11.1	22.2	44.4	0.0	11.1	0.0	0.0	0.0	11.1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마.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 부인을 부를 때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의 부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을 조사한 결과 ‘처남(의) 댁’이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수’(14.2%), ‘아주머니’(4.4%), ‘길동 엄마’(4.1%), ‘길동 (외)숙모’(3.3%) 순으로 나타났다. ‘호칭을 안 한다’는 응답 비율도 5.1%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김 과장(님)’, ‘처남’, ‘매제’, ‘남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55]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 부인을 부를 때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 부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처남(의) 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50대에서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 72.5%, 40대 65.9%, 30대 63.9%, 20대 43.8%로 5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수'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5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는 '호칭을 안 한다'는 경우가 25.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처남(의) 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영남권에서 80.6%로 나타났다. 제주권에서는 '제수'에 대한 응답 비율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길동 (외)숙모'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처남(의) 댁'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79.8%, '제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39.3%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 부인을 부를 때 '처남의 댁'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처남의 댁'이 68.6%로 높게 나타났으나, '제수'(14.2%), '아주머니'(4.4%), '길동 엄마'(4.1%) 등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 부인을 부를 때

[N = 1,679(기혼 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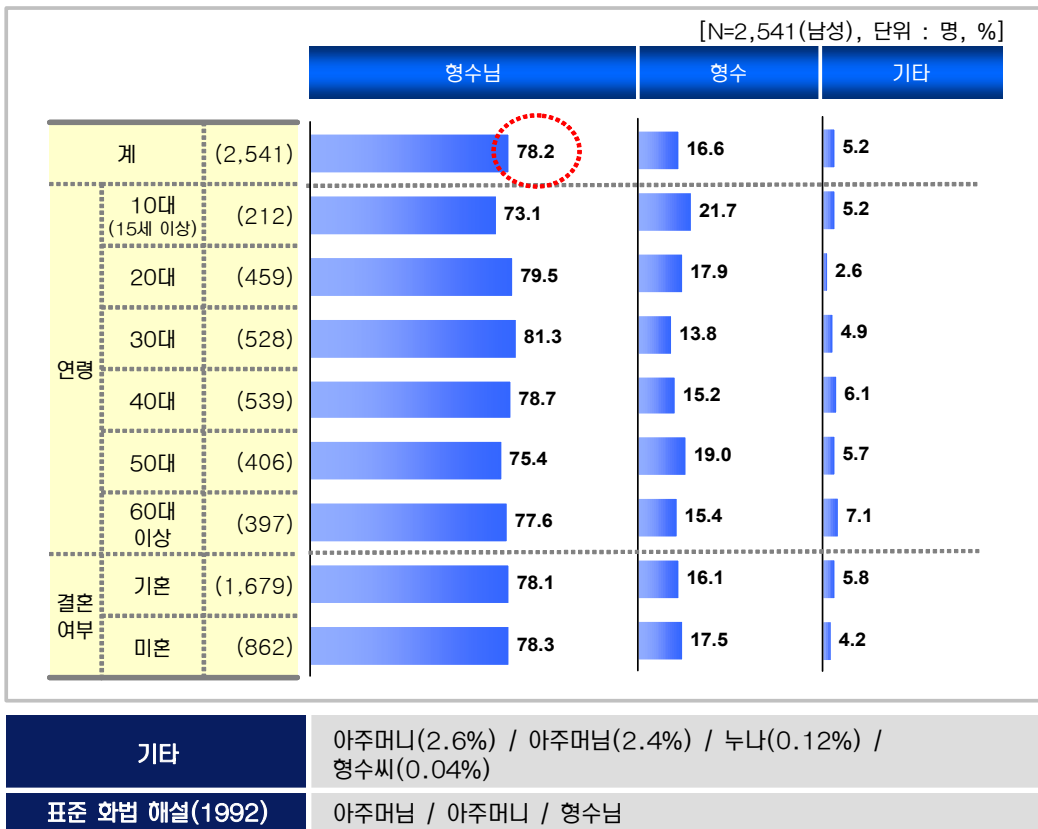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주 머니	저남 (의) 맥	제수	길동 엄마	길동 (외) 숙모	김 과장 (남)	호칭 안 함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679)	4.4	68.6	14.2	4.1	3.3	0.1	5.1	0.2	
연령	20대	(32)	6.3	43.8	21.9	0.0	3.1	0.0	25.0	0.0	82.78 ***
	30대	(346)	2.9	63.9	18.2	2.6	3.5	0.0	9.0	0.0	
	40대	(502)	6.0	65.9	13.7	4.8	3.6	0.2	5.4	0.4	
	50대	(402)	5.2	74.1	11.2	3.7	3.0	0.2	2.5	0.0	
	60대 이상	(397)	2.8	72.5	13.6	5.0	3.0	0.0	2.5	0.5	
거주 지역	수도권	(787)	5.0	64.4	15.0	5.3	4.1	0.1	6.1	0.0	168.87 ***
	충청권	(171)	7.0	69.0	15.2	2.3	3.5	0.0	2.9	0.0	
	강원권	(54)	1.9	61.1	14.8	1.9	16.7	0.0	1.9	1.9	
	영남권	(454)	3.1	80.6	11.0	2.4	0.4	0.0	1.8	0.7	
	호남권	(193)	4.1	62.2	14.0	4.1	2.6	0.5	12.4	0.0	
	제주권	(20)	0.0	40.0	45.0	10.0	5.0	0.0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443)	5.4	58.2	16.7	6.1	5.4	0.2	7.7	0.2	143.03 ***
	충청권	(272)	7.0	69.5	14.3	3.3	3.7	0.0	2.2	0.0	
	강원권	(94)	3.2	69.1	10.6	2.1	11.7	0.0	3.2	0.0	
	영남권	(540)	2.8	79.8	11.7	2.8	0.6	0.0	2.0	0.4	
	호남권	(293)	3.8	65.5	13.7	4.4	2.0	0.3	9.9	0.3	
	제주권	(28)	3.6	39.3	39.3	7.1	3.6	0.0	7.1	0.0	
	기타	(9)	11.1	66.7	11.1	0.0	0.0	0.0	11.1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바. 형의 아내를 부를 때

형의 아내를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형수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2%, ‘형수’가 16.6%를 차지하여, ‘형수님’ 또는 ‘형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전체의 9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주머니’, ‘아주머님’, ‘누나’, ‘형수 씨’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56] 형의 아내를 부를 때



형의 아내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결혼 여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형수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권에서 92.4%로 나타났다. '형수'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형수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8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형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형의 아내를 부를 때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형수님'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형수'도 16.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주머니'는 2.6%, '아주머님'은 2.4%에 그쳤다.

[표 59] 형의 아내를 부를 때

[N = 2,541(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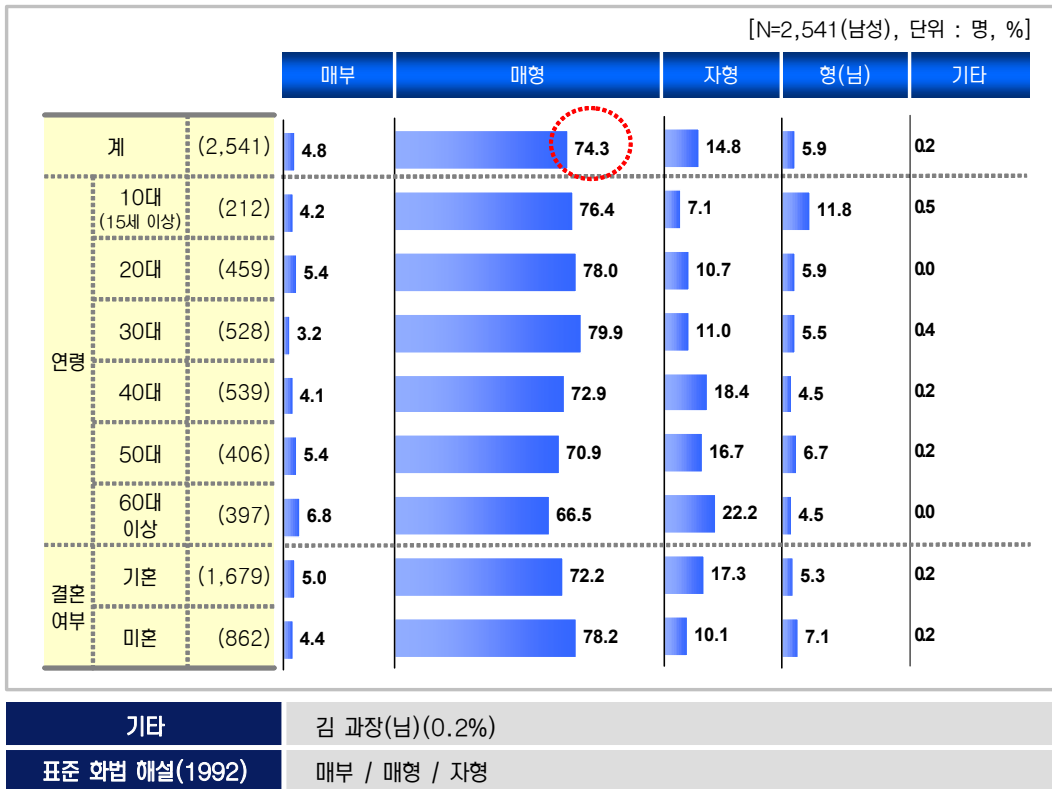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주머남	아주머니	형수님	형수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2,541)	2.4	2.6	78.2	16.6	0.2	
연령	15~19세	(212)	2.4	2.4	73.1	21.7	0.5	34.34 n.s
	20대	(459)	1.3	1.1	79.5	17.9	0.2	
	30대	(528)	1.9	3.0	81.3	13.8	0.0	
	40대	(539)	2.6	3.5	78.7	15.2	0.0	
	50대	(406)	2.7	2.7	75.4	19.0	0.2	
	60대 이상	(397)	4.0	2.8	77.6	15.4	0.3	
결혼 여부	기혼	(1,679)	2.7	2.9	78.1	16.1	0.1	5.97
	미혼	(862)	1.9	2.1	78.3	17.5	0.2	n.s
거주 지역	수도권	(1,233)	3.2	3.2	76.2	17.2	0.2	63.78 ***
	충청권	(262)	2.7	1.9	85.9	9.5	0.0	
	강원권	(79)	1.3	1.3	92.4	5.1	0.0	
	영남권	(675)	0.3	2.4	80.4	16.7	0.1	
	호남권	(260)	4.2	2.3	69.2	23.8	0.4	
	제주권	(32)	3.1	0.0	81.3	15.6	0.0	
출신 지역	수도권	(843)	3.4	3.2	76.5	16.6	0.2	48.91 *
	충청권	(371)	2.7	1.9	82.5	12.9	0.0	
	강원권	(122)	2.5	1.6	86.1	9.8	0.0	
	영남권	(777)	0.5	2.6	80.1	16.7	0.1	
	호남권	(380)	3.9	2.6	72.1	21.1	0.3	
	제주권	(38)	2.6	0.0	73.7	23.7	0.0	
	기타	(10)	0.0	10.0	70.0	2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사.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은 ‘매형’이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형’(14.8%), ‘형(님)’(5.9%), ‘매부’(4.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김 과장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57]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매형’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30대에서 7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형’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40대 이상의 연령에서 그 응답 비율이 30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매형’에 대한 응답 비율은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40대 이상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매형’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의 경우 78.2%로 기혼(72.2%)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형’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의 경우 17.3%로 미혼(10.1%)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형’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강원권에서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형’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36.4%, ‘형(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18.1%, ‘매부’에 대한 응답 비율도 호남권에서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매형’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강원권 86.9%, 충청권 83.6%, 수도권 82.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60]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N = 2,541(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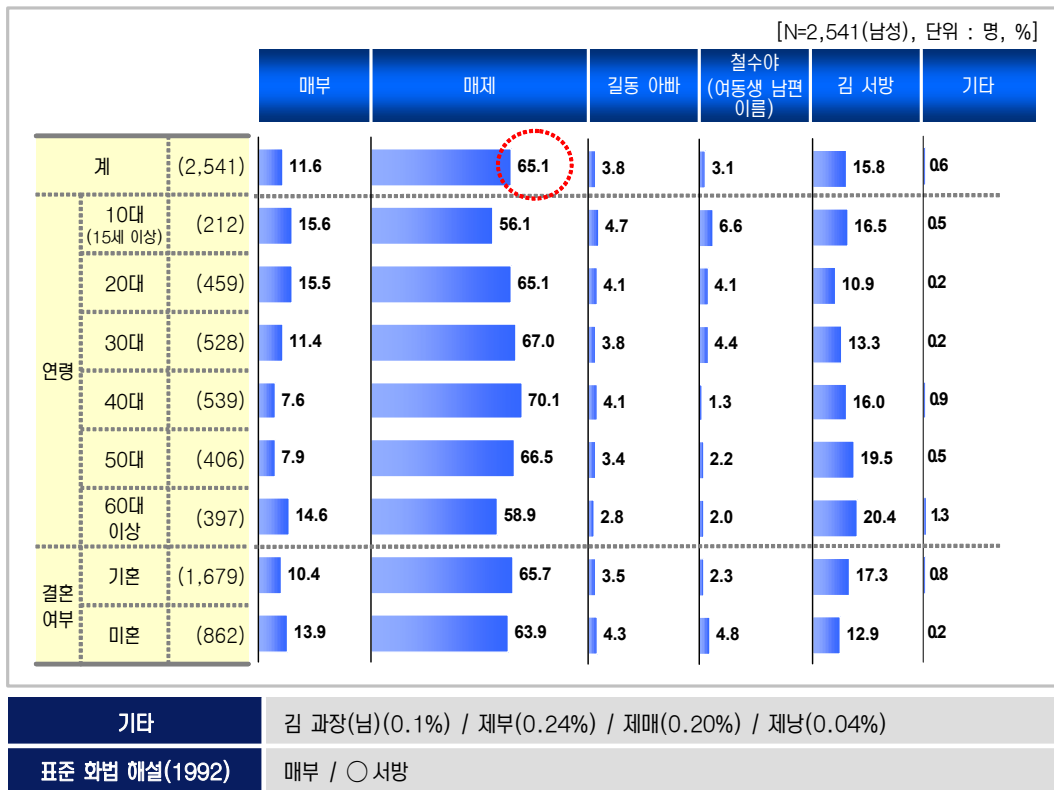
		응답자 수	매부	매형	자형	형(남)	김 과장님	통계량 (χ^2)
계		(2,541)	4.8	74.3	14.8	5.9	0.2	
연령	15~19세	(212)	4.2	76.4	7.1	11.8	0.5	73.49 ***
	20대	(459)	5.4	78.0	10.7	5.9	0.0	
	30대	(528)	3.2	79.9	11.0	5.5	0.4	
	40대	(539)	4.1	72.9	18.4	4.5	0.2	
	50대	(406)	5.4	70.9	16.7	6.7	0.2	
	60대 이상	(397)	6.8	66.5	22.2	4.5	0.0	
결혼 여부	기혼	(1,679)	5.0	72.2	17.3	5.3	0.2	26.04
	미혼	(862)	4.4	78.2	10.1	7.1	0.2	***
거주 지역	수도권	(1,233)	6.4	82.2	6.3	4.8	0.3	453.67 ***
	충청권	(262)	3.1	84.0	10.7	2.3	0.0	
	강원권	(79)	7.6	87.3	3.8	1.3	0.0	
	영남권	(675)	1.3	57.3	36.4	4.9	0.0	
	호남권	(260)	7.7	67.3	6.5	18.1	0.4	
	제주권	(32)	0.0	71.9	15.6	12.5	0.0	
출신 지역	수도권	(843)	6.2	82.8	5.8	4.7	0.5	344.77 ***
	충청권	(371)	3.2	83.6	10.0	3.2	0.0	
	강원권	(122)	6.6	86.9	3.3	3.3	0.0	
	영남권	(777)	2.7	60.2	32.0	5.0	0.0	
	호남권	(380)	7.4	71.3	7.6	13.4	0.3	
	제주권	(38)	2.6	73.7	13.2	10.5	0.0	
	기타	(10)	0.0	60.0	4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아.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⁷⁾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은 '매제'가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김 서방' 15.8%, '매부' 11.6%, '길동 아빠' 3.8%, '철수야'와 같이 여동생 남편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 3.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김 과장(님)', '제부', '제낭', '제매'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58]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7) 여동생 남편의 상대적인 나이(손위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여동생의 남편을 상대적인 나이 구분없이 '매부', '○ 서방'으로 호칭한다고 제시하였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매제’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에서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20.4%, 50대 19.5% 등 높은 연령대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별로 ‘매제’에 대한 응답 비율이 기혼의 경우 65.7%로 미혼(63.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도 기혼의 경우 17.3%로 미혼(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에서 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 서방’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27.3%, 호남권에서 26.5%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매제’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강원권에서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1]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N = 2,541(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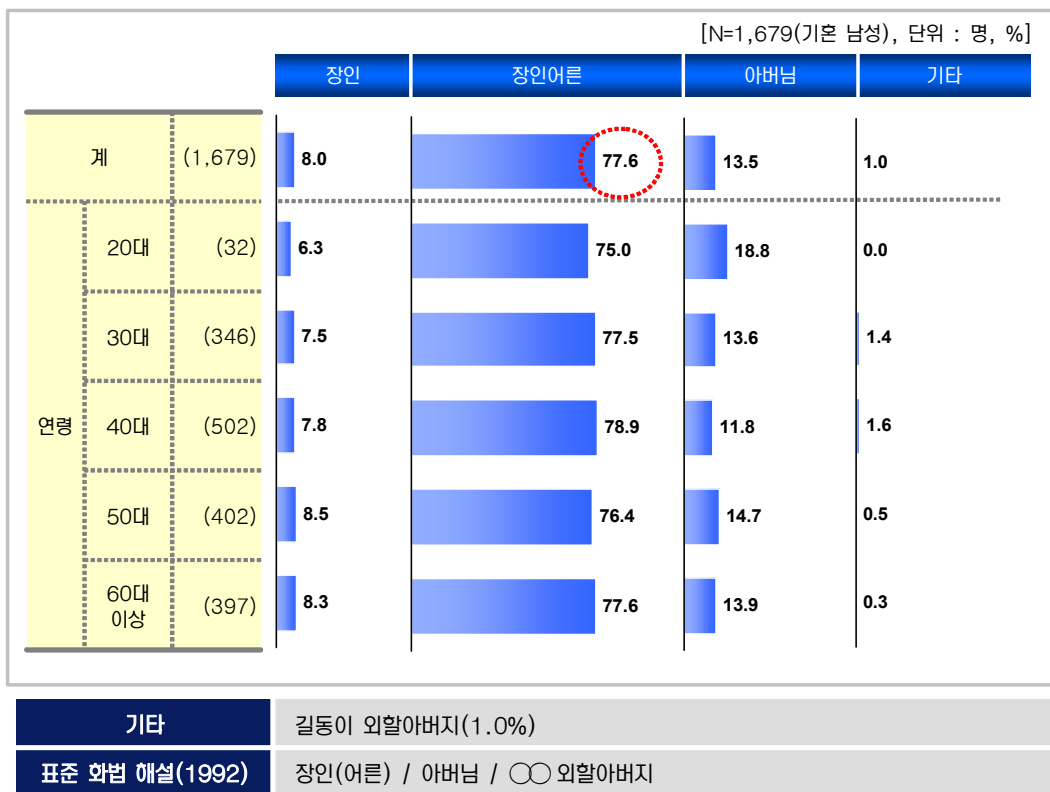
		응답자 수	매부	매제	길동 아빠	철수야 (여동생 남편의 이름)	김 서방	김 과장 (남)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2,541)	11.6	65.1	3.8	3.1	15.8	0.1	0.5	
연령	15~19세	(212)	15.6	56.1	4.7	6.6	16.5	0.0	0.5	101.56 ***
	20대	(459)	15.5	65.1	4.1	4.1	10.9	0.0	0.2	
	30대	(528)	11.4	67.0	3.8	4.4	13.3	0.2	0.0	
	40대	(539)	7.6	70.1	4.1	1.3	16.0	0.4	0.6	
	50대	(406)	7.9	66.5	3.4	2.2	19.5	0.0	0.5	
	60대 이상	(397)	14.6	58.9	2.8	2.0	20.4	0.0	1.3	
결혼 여부	기혼	(1,679)	10.4	65.7	3.5	2.3	17.3	0.2	0.6	29.50
	미혼	(862)	13.9	63.9	4.3	4.8	12.9	0.0	0.2	**
거주 지역	수도권	(1,233)	15.2	68.4	4.4	2.4	9.3	0.2	0.1	250.02 ***
	충청권	(262)	3.4	77.9	5.7	3.1	9.9	0.0	0.0	
	강원권	(79)	15.2	74.7	5.1	1.3	3.8	0.0	0.0	
	영남권	(675)	9.9	56.3	2.2	2.8	27.3	0.0	1.5	
	호남권	(260)	6.5	55.8	2.3	8.1	26.5	0.4	0.4	
	제주권	(32)	6.3	71.9	6.3	3.1	12.5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843)	15.4	66.3	5.0	3.0	9.8	0.2	0.2	188.71 ***
	충청권	(371)	7.8	76.0	4.9	1.9	9.4	0.0	0.0	
	강원권	(122)	10.7	79.5	2.5	0.8	6.6	0.0	0.0	
	영남권	(777)	11.5	57.8	2.2	3.1	24.3	0.0	1.2	
	호남권	(380)	8.2	61.8	3.4	5.3	20.8	0.3	0.3	
	제주권	(38)	7.9	73.7	7.9	0.0	10.5	0.0	0.0	
	기타	(10)	0.0	40.0	0.0	30.0	3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자.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사위가 장인을 지칭하는 말을 조사한 결과 ‘장인어른’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버님’(13.5%), ‘장인’(8.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길동이 외할아버지’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59]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장인어른’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과 제주권에서 각각 81.7%, 80.0%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에서 18.1%로 가장 높았으며, ‘장인’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장인어른’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 강원권에서 각각 83.1%, 83.0%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21.4%, ‘장인’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2]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

[N = 1,679(기혼 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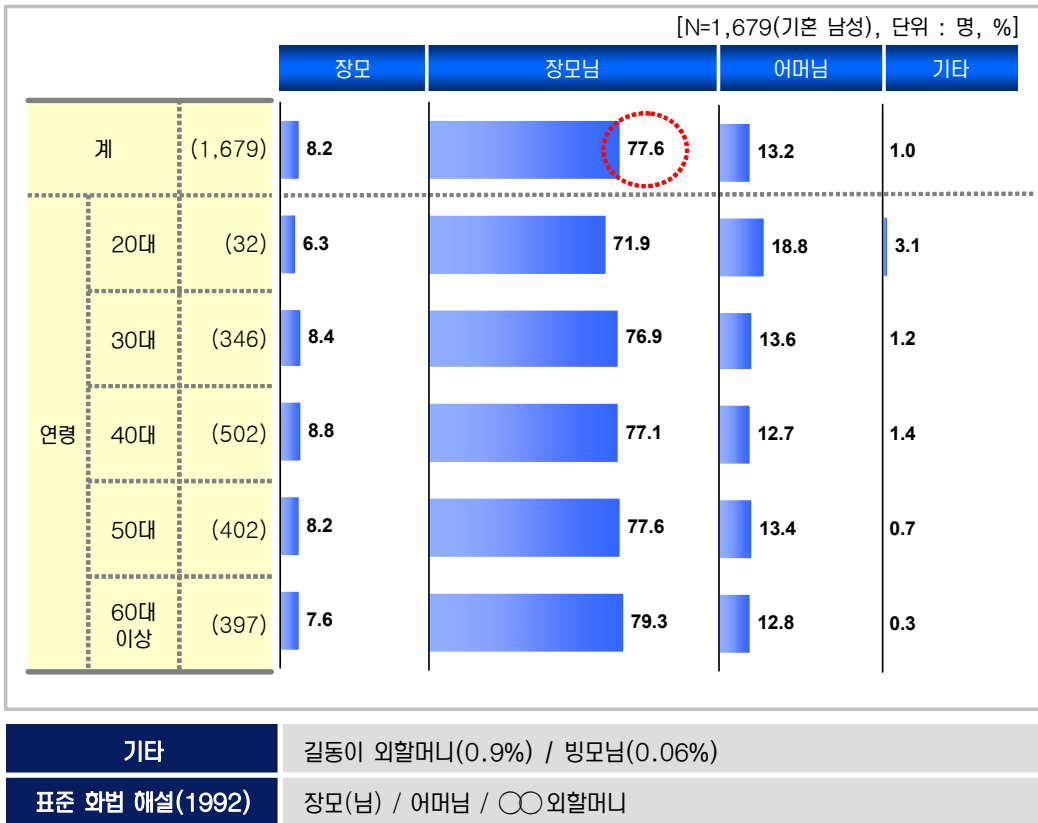
		응답자 수	장인	장인어른	아버님	길동이 외할아버지	통계량 (χ^2)
계		(1,679)	8.0	77.6	13.5	1.0	
연령	20대	(32)	6.3	75.0	18.8	0.0	9.14 n.s
	30대	(346)	7.5	77.5	13.6	1.4	
	40대	(502)	7.8	78.9	11.8	1.6	
	50대	(402)	8.5	76.4	14.7	0.5	
	60대 이상	(397)	8.3	77.6	13.9	0.3	
거주 지역	수도권	(787)	6.5	77.5	15.1	0.9	56.29 ***
	충청권	(171)	1.8	79.5	18.1	0.6	
	강원권	(54)	3.7	79.6	14.8	1.9	
	영남권	(454)	10.4	81.7	7.3	0.7	
	호남권	(193)	15.5	65.8	16.6	2.1	
	제주권	(20)	5.0	80.0	15.0	0.0	
출신 지역	수도권	(443)	8.6	73.8	16.7	0.9	51.48 ***
	충청권	(272)	3.7	79.8	15.8	0.7	
	강원권	(94)	2.1	83.0	13.8	1.1	
	영남권	(540)	9.1	83.1	7.2	0.6	
	호남권	(293)	11.3	69.6	17.1	2.0	
	제주권	(28)	3.6	75.0	21.4	0.0	
	기타	(9)	11.1	77.8	11.1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차. 사위가 장모를 지칭할 때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사위가 장모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을 조사한 결과 ‘장모님’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머님’(13.2%), ‘장모’(8.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길동이 외할머니’, ‘빙모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0] 사위가 장모를 지칭할 때



사위가 장모를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장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과 충청권에서 각각 85.0%, 81.9%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16.6%로 가장 높았으며, '장모'에 대한 응답 비율도 호남권에서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장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82.0%), 강원권(81.9%), 충청권(81.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타 지역 22.2%, 제주권에서 17.9%로, '장모'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3] 사위가 장모를 지칭할 때

[N = 1,679(기혼 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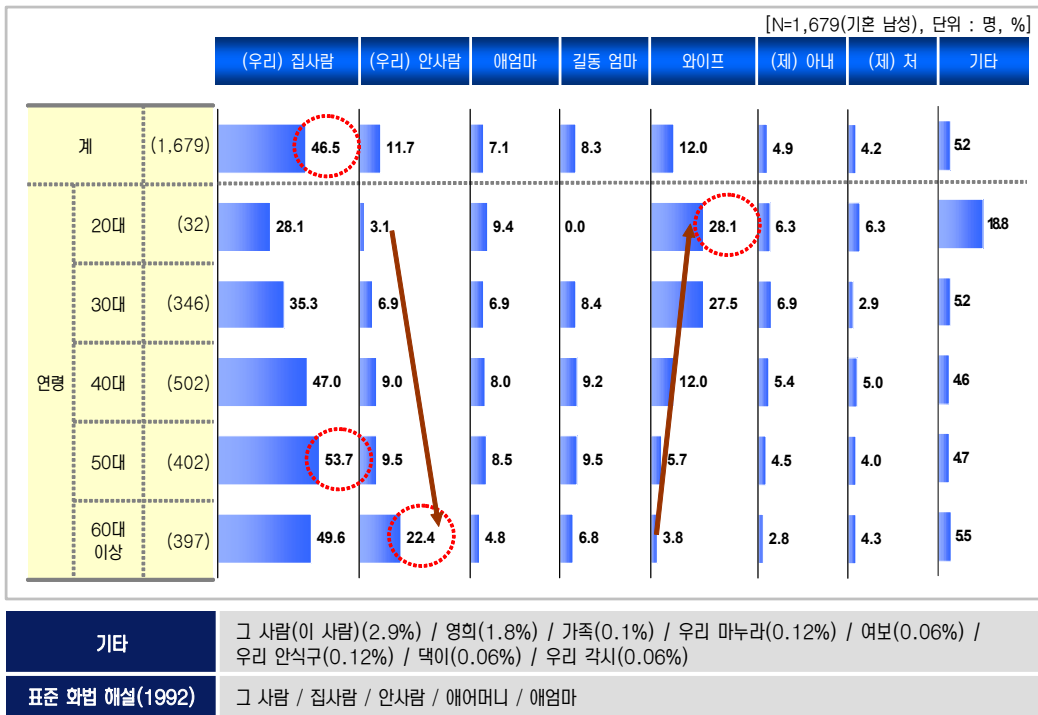
		응답자 수	장모	장모님	어머님	길동이 외할머니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679)	8.2	77.6	13.2	0.9	0.1	
연령	20대	(32)	6.3	71.9	18.8	3.1	0.0	12.14 n.s
	30대	(346)	8.4	76.9	13.6	1.2	0.0	
	40대	(502)	8.8	77.1	12.7	1.4	0.0	
	50대	(402)	8.2	77.6	13.4	0.7	0.0	
	60대 이상	(397)	7.6	79.3	12.8	0.0	0.3	
거주 지역	수도권	(787)	6.1	77.9	15.1	0.9	0.0	67.89 ***
	충청권	(171)	2.3	81.9	15.8	0.0	0.0	
	강원권	(54)	3.7	79.6	14.8	1.9	0.0	
	영남권	(454)	10.8	80.8	7.5	0.7	0.2	
	호남권	(193)	17.6	63.7	16.6	2.1	0.0	
	제주권	(20)	5.0	85.0	10.0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443)	7.4	74.9	16.3	1.1	0.2	56.47 ***
	충청권	(272)	3.3	81.6	15.1	0.0	0.0	
	강원권	(94)	3.2	81.9	13.8	1.1	0.0	
	영남권	(540)	9.6	82.0	7.6	0.7	0.0	
	호남권	(293)	13.3	68.6	16.4	1.7	0.0	
	제주권	(28)	3.6	78.6	17.9	0.0	0.0	
	기타	(9)	11.1	66.7	22.2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카.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남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쓰는 말을 조사한 결과 ‘(우리) 집사람’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와이프’(12.0%), ‘(우리) 안사람’(11.7%), ‘길동 엄마’(8.3%), ‘애엄마’(7.1%), ‘(제) 아내’(4.9%), ‘(제) 처’(4.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그 사람(이 사람)’, ‘영희’, ‘가족’, ‘우리 마누라’, ‘여보’, ‘우리 안식구’, ‘댁이’, ‘우리 각시’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1]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남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리) 집사람’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대에서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40대 이상의 연령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우리) 안사람’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와이프’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28.1%, 30대 27.5%로 30대 이하 연령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영희’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15.6%로 전체 응답 값 1.8%에 비해 13.8%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우리) 집사람’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와이프’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안사람’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우리) 집사람’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54.3%로, ‘와이프’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25.0%, ‘(우리) 안사람’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젊은 층에서 남들에게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wife)’라고 말하는 풍조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고유한 우리말을 두고 외국어를 당연한 것처럼 쓰는 풍조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본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는데 ‘와이프’는 20대의 경우 ‘(우리) 집사람’과 동일한 비율(28.1%)로 1위를 차지했으며, 30대의 경우도 27.5%로 2위를 차지했다.

[표 64]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N = 1,679(기혼 남성), 단위 : 명, %]

		응답자 수	그 사람 (이 사람)	(우리) 집사람	(우리) 안사람	영희	애엄마	길동엄마	와이프	가족	(제) 아내	(제) 처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1,679)	2.9	46.5	11.7	1.8	7.1	8.3	12.0	0.1	4.9	4.2	0.4	
연령	20대	(32)	3.1	28.1	3.1	15.6	9.4	0.0	28.1	0.0	6.3	6.3	0.0	270.05 ***
	30대	(346)	1.7	35.3	6.9	3.5	6.9	8.4	27.5	0.0	6.9	2.9	0.0	
	40대	(502)	2.4	47.0	9.0	1.6	8.0	9.2	12.0	0.2	5.4	5.0	0.4	
	50대	(402)	3.2	53.7	9.5	1.0	8.5	9.5	5.7	0.2	4.5	4.0	0.2	
	60대 이상	(397)	4.3	49.6	22.4	0.3	4.8	6.8	3.8	0.0	2.8	4.3	1.0	
거주 지역	수도권	(787)	4.3	42.9	11.8	1.1	8.1	8.4	13.6	0.1	4.3	5.1	0.1	140.20 ***
	충청권	(171)	0.6	50.3	14.0	4.7	6.4	5.8	8.8	0.0	7.0	1.8	0.6	
	강원권	(54)	1.9	53.7	22.2	1.9	1.9	5.6	9.3	0.0	1.9	1.9	0.0	
	영남권	(454)	0.9	57.7	8.4	2.2	4.8	8.1	9.3	0.0	4.4	4.0	0.2	
	호남권	(193)	4.7	29.5	14.0	1.0	10.9	11.4	14.0	0.5	7.8	4.1	2.1	
	제주권	(20)	0.0	40.0	15.0	0.0	5.0	10.0	30.0	0.0	0.0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443)	3.6	45.6	9.3	1.8	8.6	8.1	13.5	0.2	5.0	4.1	0.2	286.47 ***
	충청권	(272)	2.6	43.4	17.3	3.3	4.4	7.0	12.1	0.0	4.8	4.8	0.4	
	강원권	(94)	1.1	50.0	22.3	1.1	5.3	3.2	10.6	0.0	4.3	2.1	0.0	
	영남권	(540)	1.9	54.3	9.1	1.7	5.7	8.5	9.6	0.0	4.8	4.3	0.2	
	호남권	(293)	4.8	36.5	12.3	1.0	10.2	10.2	13.3	0.3	5.8	4.4	1.0	
	제주권	(28)	0.0	39.3	7.1	0.0	10.7	14.3	25.0	0.0	0.0	3.6	0.0	
	기타	(9)	11.1	22.2	11.1	0.0	11.1	22.2	11.1	0.0	0.0	0.0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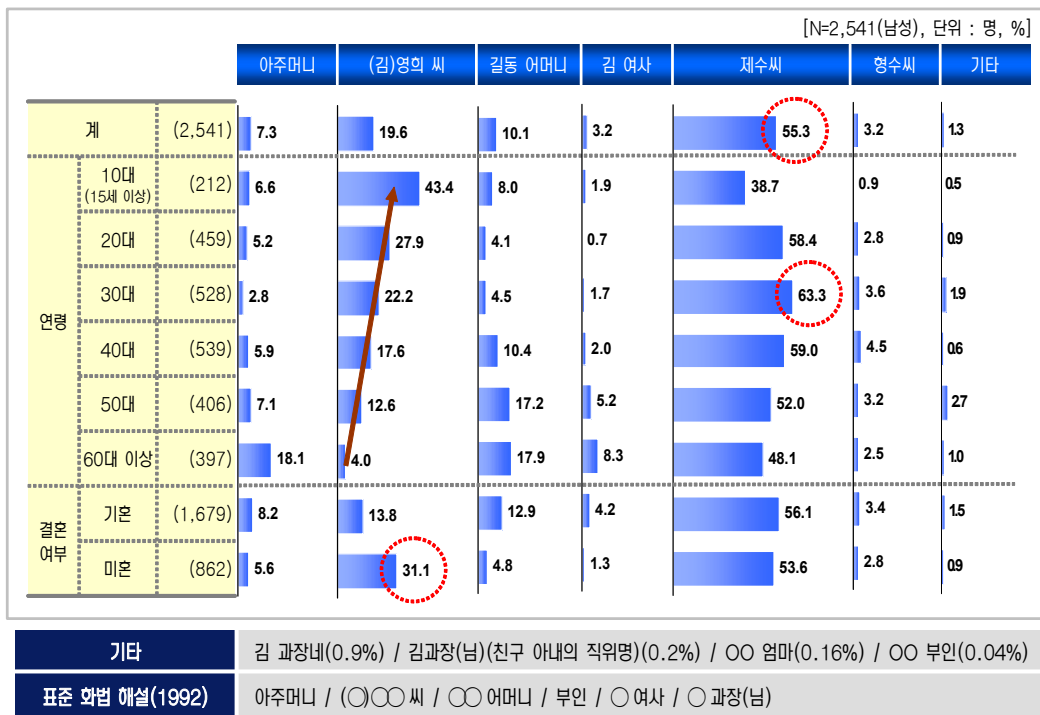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5. 사회에서의 호칭 · 지칭어

가. (남자)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⁸⁾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수씨’가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김)영희 씨’(19.6%), ‘길동 어머니’(10.1%), ‘아주머니’(7.3%), ‘김 여사’(3.2%), ‘형수씨’(3.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김 과장네’, ‘김 과장(님)’과 같이 친구의 아내 직위명을 바로 부르는 경우, ‘OO 엄마’, ‘OO 부인’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2]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8) 10대는 결혼한 친구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물어봄.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대에서는 ‘(김)영희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43.4%로 가장 높았는데, 2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27.9%, 30대 22.2%, 40대 17.6%, 50대 12.6%, 60대 이상 4.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길동 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17.9%, 50대에서 1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주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도 60대 이상에서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56.1%로 미혼(53.6%)보다 2.5% 높게 나타났으며, ‘길동 어머니’의 경우 기혼이 12.9%로 미혼(4.8%)보다 8.1% 높게 나타났다. 반면 ‘(김)영희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이 31.1%로 기혼(13.8%)보다 17.3%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영희 씨’에 대한 응답 비율도 영남권에서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길동 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19.0%로, ‘아주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 62.8%, 제주권 60.5%로 높게 나타났으며, ‘(김)영희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23.6%로, ‘길동 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타 지역에서 20.0%, ‘아주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으로 ‘아주머니’, ‘(O)OO 씨’, ‘OO 어머니’, ‘부인’, ‘O 여사’, ‘O 과장(님)’을 제시하고, ‘제수씨’, ‘제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5] (남자)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N = 2,541(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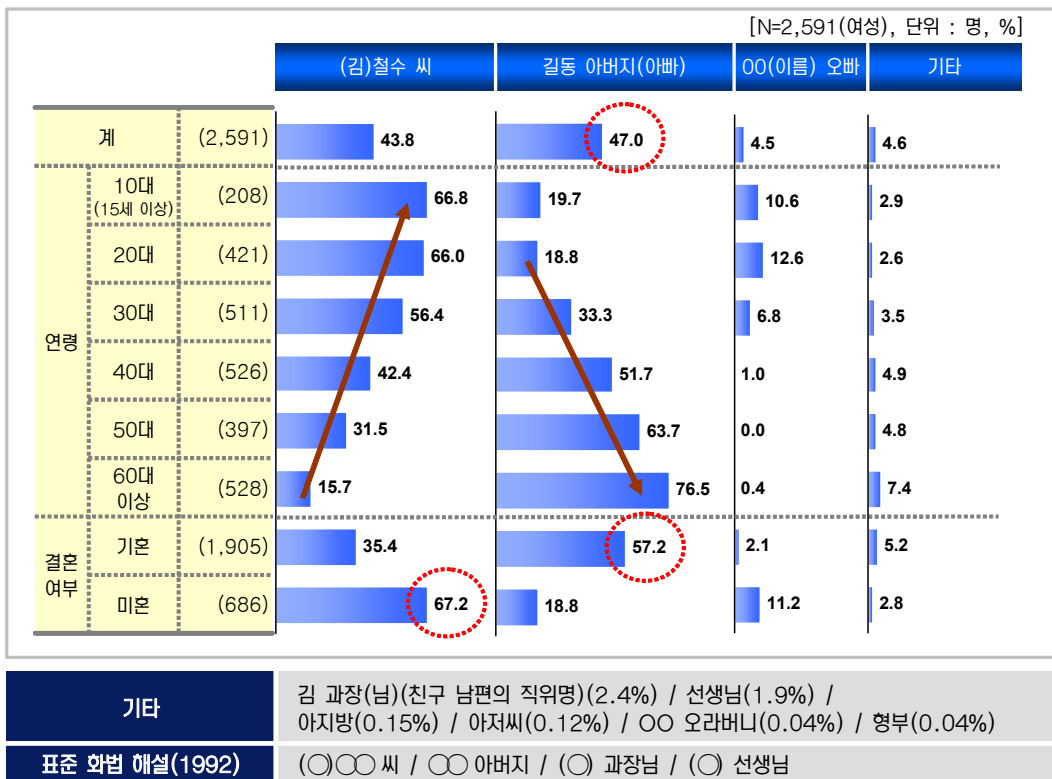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주 머니	(김) 영희 씨	길동 어머 니	김 과장 네	김 여사	김 과 장(남) (친구 아 내 의 직 위명)	재수 씨	형수 씨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2,541)	7.3	19.6	10.1	0.9	3.2	0.2	55.3	3.2	0.2	
연령	15~19세	(212)	6.6	43.4	8.0	0.5	1.9	0.0	38.7	0.9	0.0	413.54 ***
	20대	(459)	5.2	27.9	4.1	0.7	0.7	0.2	58.4	2.8	0.0	
	30대	(528)	2.8	22.2	4.5	1.7	1.7	0.2	63.3	3.6	0.0	
	40대	(539)	5.9	17.6	10.4	0.2	2.0	0.4	59.0	4.5	0.0	
	50대	(406)	7.1	12.6	17.2	1.5	5.2	0.5	52.0	3.2	0.7	
	60대 이상	(397)	18.1	4.0	17.9	0.5	8.3	0.0	48.1	2.5	0.5	
결혼 여부	기혼	(1,679)	8.2	13.8	12.9	0.9	4.2	0.3	56.1	3.4	0.3	149.30 ***
	미혼	(862)	5.6	31.1	4.8	0.8	1.3	0.1	53.6	2.8	0.0	
거주 지역	수도권	(1,233)	6.7	20.9	10.8	1.4	2.7	0.2	51.7	5.5	0.0	207.65 ***
	충청권	(262)	7.6	16.8	13.0	0.4	6.9	0.8	52.3	2.3	0.0	
	강원권	(79)	5.1	12.7	19.0	0.0	5.1	0.0	57.0	1.3	0.0	
	영남권	(675)	4.4	21.8	6.7	0.4	2.2	0.0	63.9	0.6	0.0	
	호남권	(260)	18.1	13.8	9.2	0.4	3.8	0.4	51.5	0.8	1.9	
	제주권	(32)	6.3	12.5	18.8	0.0	3.1	0.0	59.4	0.0	0.0	
출신 지역	수도권	(843)	6.8	23.6	10.7	1.4	2.3	0.2	49.6	5.5	0.0	169.01 ***
	충청권	(371)	8.9	15.6	12.1	0.5	7.5	0.5	50.7	4.0	0.0	
	강원권	(122)	3.3	13.9	16.4	0.0	4.1	0.8	59.0	2.5	0.0	
	영남권	(777)	5.1	20.8	7.3	0.5	2.2	0.0	62.8	1.2	0.0	
	호남권	(380)	12.9	15.0	9.7	1.1	2.6	0.3	55.0	2.1	1.3	
	제주권	(38)	5.3	13.2	15.8	0.0	5.3	0.0	60.5	0.0	0.0	
	기타	(10)	10.0	10.0	20.0	0.0	0.0	0.0	6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나. (여자)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⁹⁾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길동 아버지(아빠)'와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47.0%, 4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OO(이름) 오빠'가 4.5%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김 과장(님)'과 같이 친구 남편의 직위명을 직접 부르는 경우, '선생님', '아지방', '아저씨', 'OO 오라버니', '형부'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3]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9) 10대는 결혼한 친구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물어봄.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에서는 ‘길동 아버지(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40대 51.7%, 50대 63.7%, 60대 이상 76.5%로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하에서는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30대 56.4%, 20대 66.0%, 10대 66.8%로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OO(이름) 오빠’에 대한 응답은 10대와 20대에서 각각 10.6%, 12.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길동 아버지(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57.2%로 미혼(18.8%)보다 38.4% 높게 나타났으며,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이 67.2%로 기혼(35.4%)보다 31.8% 높게 나타났다. ‘OO(이름) 오빠’에 대한 응답 비율도 미혼이 11.2%로 기혼(2.1%)보다 9.1%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길동 아버지(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강원권(58.1%), 충청권(57.1%), 호남권(5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48.6%), 영남권(48.1%), 수도권(45.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길동 아버지(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기타 지역(75.0%), 강원권(58.2%), 제주권(54.3%), 호남권(53.7%), 충청권(52.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49.6%), 영남권(46.2%)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자)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는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O)OO 씨’, ‘OO 아버지’, ‘(O) 과장님’, ‘(O) 선생님’을 제시하였는데,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와 달리 이 책에서 제시한 대로 ‘길동 아버지(아빠)’,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6] (여자)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N = 2,591(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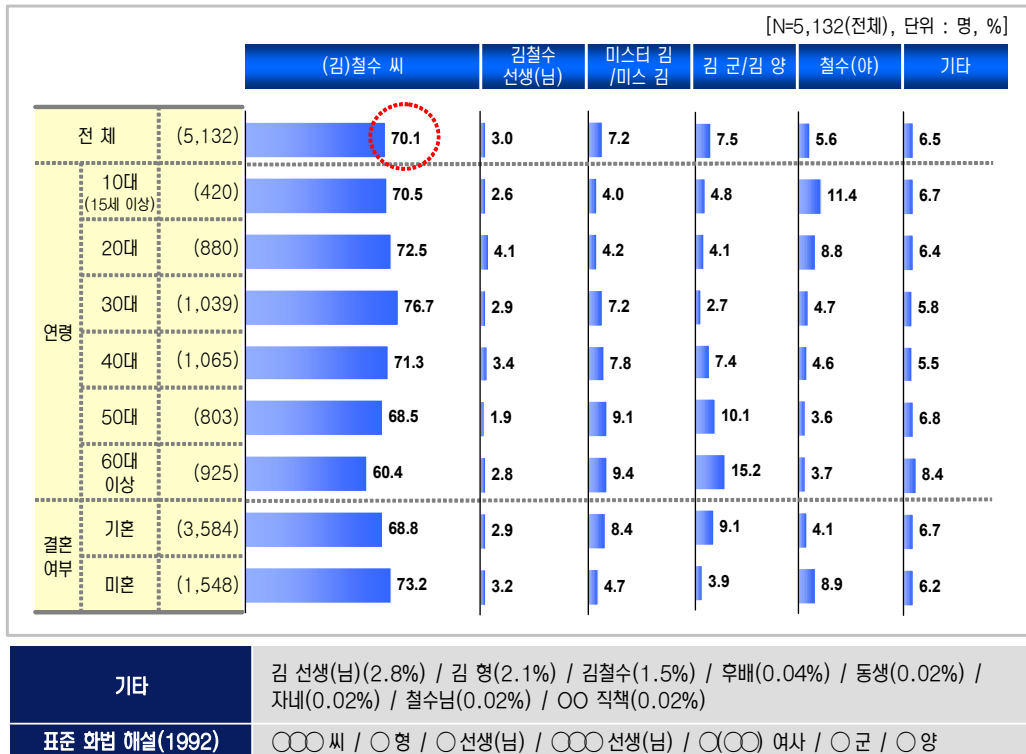
		응답자 수	(김)철수 씨	길동 아버지 (아빠)	김 과장(님) (친구 남편의 직위명)	선생님	OO (이름) 오빠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2,591)	43.8	47.0	2.4	1.9	4.5	0.3	
연령	15~19세	(208)	66.8	19.7	0.5	1.9	10.6	0.5	626.07 ***
	20대	(421)	66.0	18.8	1.0	1.4	12.6	0.2	
	30대	(511)	56.4	33.3	2.0	1.0	6.8	0.6	
	40대	(526)	42.4	51.7	2.9	2.1	1.0	0.0	
	50대	(397)	31.5	63.7	3.5	1.0	0.0	0.3	
	60대 이상	(528)	15.7	76.5	3.4	3.4	0.4	0.6	
결혼 여부	기혼	(1,905)	35.4	57.2	3.0	1.9	2.1	0.4	382.36 ***
	미혼	(686)	67.2	18.8	0.7	1.7	11.2	0.3	
거주 지역	수도권	(1,251)	45.9	45.2	2.2	2.2	4.3	0.2	127.33 ***
	충청권	(268)	37.7	57.1	0.4	0.0	3.7	1.1	
	강원권	(86)	33.7	58.1	1.2	0.0	7.0	0.0	
	영남권	(694)	48.1	42.9	2.2	0.9	5.5	0.4	
	호남권	(257)	31.5	52.9	6.6	5.8	3.1	0.0	
	제주권	(35)	48.6	45.7	0.0	0.0	2.9	2.9	
출신 지역	수도권	(815)	49.6	40.9	1.6	1.6	6.1	0.2	157.23 ***
	충청권	(350)	42.6	52.6	0.3	0.9	2.9	0.9	
	강원권	(134)	33.6	58.2	3.0	0.7	4.5	0.0	
	영남권	(811)	46.2	44.9	2.2	1.2	5.1	0.4	
	호남권	(438)	34.0	53.7	5.5	4.8	2.1	0.0	
	제주권	(35)	40.0	54.3	0.0	0.0	2.9	2.9	
	기타	(8)	0.0	75.0	25.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다.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¹⁰⁾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김 군/김 양'(7.5%), '미스터 김/미스 김'(7.2%), '철수(아)'(5.6%), '김철수 선생(님)'(3.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김 선생(님)', '김 형', '김철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4]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10)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함.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73.4%로 남성(66.7%)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김)철수 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30대의 응답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다. '김 군/김 양'과 '미스터 김/미스 김'은 60대 이상에서 그 응답 비율이 각각 15.2%,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이 73.2%로 기혼(68.8)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김 군/김 양'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9.1%로 미혼(3.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스터 김/미스 김'에 대한 응답 비율도 기혼이 8.4%로 미혼(4.7%)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영남권에서 79.0%로 가장 높았다. '김 군/김 양'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스터 김/미스 김'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12.0%로, '철수(아)'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에서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OOO 씨'를 쓰고,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O 선생님', 'OOO 선생님'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이외에 남자 직원에게는 'O 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이 든 기혼의 여자 직원에게는 아랫사람이라도 'O 여사'라고 할 수 있으며, 나이 어린 직원에게는 'O 군' 또는 'O 양'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이름에 의존명사 '씨'를 붙여 쓰는 호칭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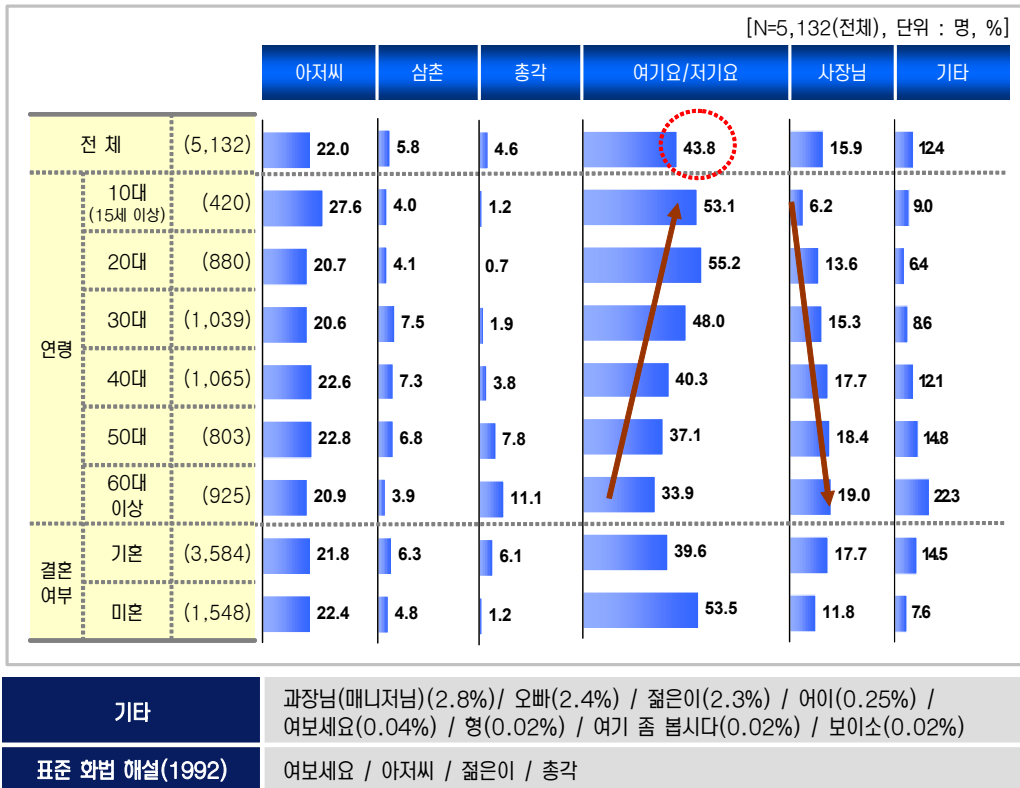
		응답자 수	(김)철수 씨	김철수 선생 (남)	김 선생 (남)	김 영	미스터 김 / 미스 김	김 군 / 김 양	김철수	철수 (아)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70.1	3.0	2.8	2.1	7.2	7.5	1.5	5.6	0.1	
성별	남성	(2,541)	66.7	3.1	2.8	3.1	7.4	7.9	1.7	7.2	0.1	64.02
	여성	(2,591)	73.4	2.9	2.8	1.1	7.1	7.1	1.4	4.0	0.2	***
연령	15~19세	(420)	70.5	2.6	3.8	1.2	4.0	4.8	1.7	11.4	0.0	291.91 ***
	20대	(880)	72.5	4.1	3.6	1.3	4.2	4.1	1.4	8.8	0.1	
	30대	(1,039)	76.7	2.9	2.9	1.6	7.2	2.7	1.3	4.7	0.0	
	40대	(1,065)	71.3	3.4	2.1	2.0	7.8	7.4	1.5	4.6	0.0	
	50대	(803)	68.5	1.9	1.9	3.4	9.1	10.1	1.4	3.6	0.2	
	60대 이상	(925)	60.4	2.8	3.1	3.0	9.4	15.2	1.9	3.7	0.3	
결혼 여부	기혼	(3,584)	68.8	2.9	2.7	2.4	8.4	9.1	1.5	4.1	0.1	116.81
	미혼	(1,548)	73.2	3.2	3.2	1.5	4.7	3.9	1.5	8.9	0.1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65.9	3.5	2.0	2.5	12.0	7.3	2.2	4.8	0.0	384.62 ***
	충청권	(530)	75.7	2.1	4.0	3.2	2.3	5.1	1.3	6.0	0.4	
	강원권	(165)	66.7	3.6	3.6	0.0	4.2	7.9	1.8	10.9	1.2	
	영남권	(1,369)	79.0	2.7	2.5	1.4	2.5	6.9	0.3	4.6	0.1	
	호남권	(517)	63.4	2.7	6.2	2.3	3.1	10.3	1.7	10.3	0.0	
	제주권	(67)	62.7	0.0	1.5	0.0	9.0	23.9	0.0	3.0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67.9	3.3	2.2	2.5	10.5	6.2	2.1	5.3	0.1	217.00 ***
	충청권	(721)	69.8	2.4	3.3	3.5	6.8	6.9	1.7	5.4	0.3	
	강원권	(256)	69.1	2.0	2.3	0.8	6.3	8.6	2.3	7.8	0.8	
	영남권	(1,588)	76.7	3.0	2.3	1.5	4.1	7.1	0.8	4.5	0.1	
	호남권	(818)	63.4	3.8	4.9	1.8	7.2	9.5	1.5	7.8	0.0	
	제주권	(73)	60.3	0.0	1.4	1.4	8.2	26.0	0.0	2.7	0.0	
	기타	(18)	72.2	0.0	0.0	0.0	16.7	5.6	0.0	5.6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라.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호칭이 없는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저씨'(22.0%), '사장님'(15.9%), '삼촌'(5.8%), '총각'(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과장님(매니저님)', '오빠', '젊은이'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5]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46.4%로 남성(41.2%)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사장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이 19.4%로 여성(12.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55.2%, 10대 53.1%, 30대 48.0%, 40대 40.3%, 50대 37.1%, 60대 이상 33.9%로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장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에서 18.4%, 40대 17.7%, 30대 15.3%, 20대 13.6%, 10대 6.2%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에서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0%대 초반의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구분 없이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의 경우 53.5%로 기혼(39.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장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의 경우 17.7%로 미혼(11.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장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26.1%로, ‘삼촌’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제주권에서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여보세요’, ‘아저씨’, ‘젊은이’, ‘총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8]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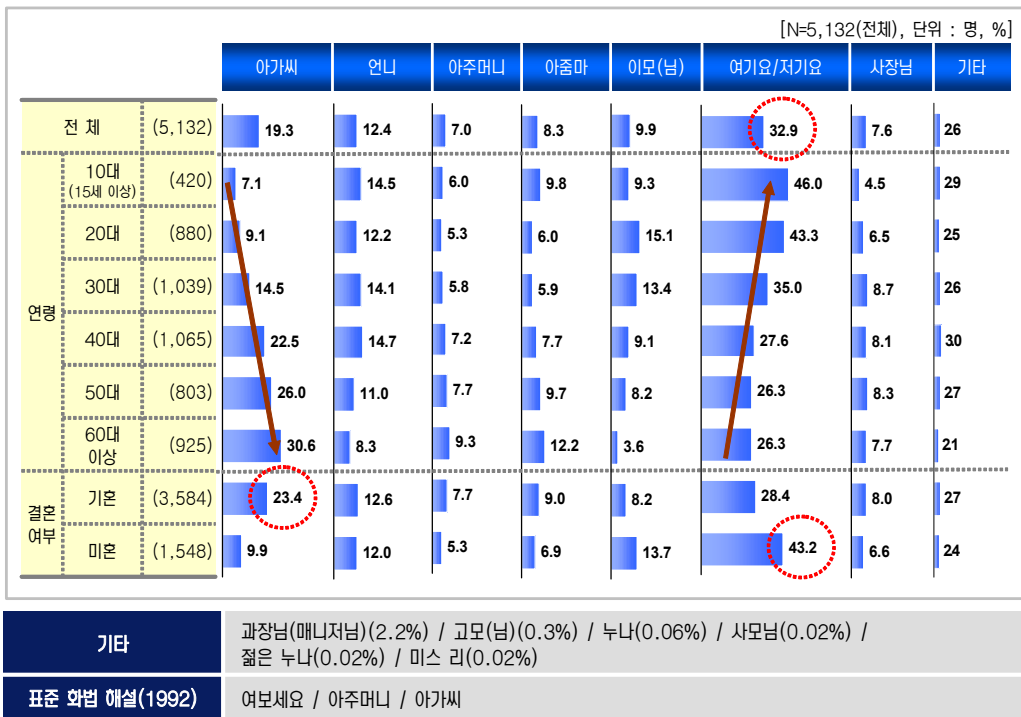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저씨	오빠	과장님 (매니저님)	삼촌	젊은이	총각	여기요 /저기요	사장님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체		(5,132)	22.0	2.4	2.8	5.8	2.3	4.6	43.8	15.9	0.4	
성별	남성	(2,541)	21.8	2.0	2.8	4.8	2.9	4.6	41.2	19.4	0.4	71.18
	여성	(2,591)	22.2	2.7	2.7	6.9	1.7	4.7	46.4	12.5	0.3	***
연령	15~19세	(420)	27.6	5.0	2.4	4.0	0.5	1.2	53.1	6.2	0.0	463.70 ***
	20대	(880)	20.7	2.4	2.3	4.1	0.9	0.7	55.2	13.6	0.1	
	30대	(1,039)	20.6	2.5	3.2	7.5	0.9	1.9	48.0	15.3	0.1	
	40대	(1,065)	22.6	2.1	4.0	7.3	1.8	3.8	40.3	17.7	0.4	
	50대	(803)	22.8	1.4	2.2	6.8	2.4	7.8	37.1	18.4	1.0	
	60대 이상	(925)	20.9	2.2	1.9	3.9	6.5	11.1	33.9	19.0	0.5	
결혼 여부	기혼	(3,584)	21.8	2.1	2.9	6.3	2.9	6.1	39.6	17.7	0.5	166.96
	미혼	(1,548)	22.4	3.0	2.4	4.8	0.9	1.2	53.5	11.8	0.1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25.3	3.6	3.0	5.1	2.5	3.8	40.2	16.3	0.2	240.66 ***
	충청권	(530)	19.4	2.3	5.5	3.8	3.0	5.1	45.7	14.7	0.6	
	강원권	(165)	21.8	0.6	4.2	6.1	0.6	4.8	35.8	26.1	0.0	
	영남권	(1,369)	20.3	0.9	1.8	6.8	0.7	6.1	49.0	14.2	0.3	
	호남권	(517)	14.7	1.2	1.0	9.3	5.0	4.4	46.2	16.8	1.4	
	제주권	(67)	11.9	0.0	3.0	4.5	3.0	3.0	59.7	13.4	1.5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24.6	3.6	3.4	5.2	1.9	2.8	43.9	14.4	0.2	269.57 ***
	충청권	(721)	22.5	2.9	3.7	4.0	3.3	5.1	40.6	17.6	0.1	
	강원권	(256)	25.4	0.8	3.9	6.6	2.3	3.5	37.1	20.3	0.0	
	영남권	(1,588)	20.8	1.3	1.8	6.8	1.1	6.4	46.2	15.2	0.3	
	호남권	(818)	18.5	2.2	2.0	7.2	3.9	5.0	42.8	17.6	0.9	
	제주권	(73)	13.7	0.0	4.1	1.4	4.1	2.7	61.6	11.0	1.4	
	기타	(18)	11.1	0.0	0.0	0.0	16.7	0.0	27.8	33.3	11.1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마.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호칭이 없는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19.3%, ‘언니’(12.4%), ‘이모님’(9.9%), ‘아줌마’(8.3%), ‘사장님’(7.6%), ‘아주머니’(7.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과장님(매니저님)’, ‘고모(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6]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34.5%로 여성(31.3%)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여성의 응답 비율이 46.4%로 남성(41.2%)보다 높았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이 19.4%였으나, 남성의 응답 비율도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대 46.0%, 20대 43.3%, 30대 35.0%, 40대 27.6%, 50대와 60대 이상 26.3%로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에서 26.0%, 40대 22.5%, 30대 14.5%, 20대 9.1%, 10대 7.1%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40대에서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구분 없이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이 43.2%로 기혼(28.4%)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23.4%로 미혼(9.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17.2%로, ‘이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16.5%로, ‘아줌마’와 ‘아주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모두 호남권에서 13.0%,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에서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9]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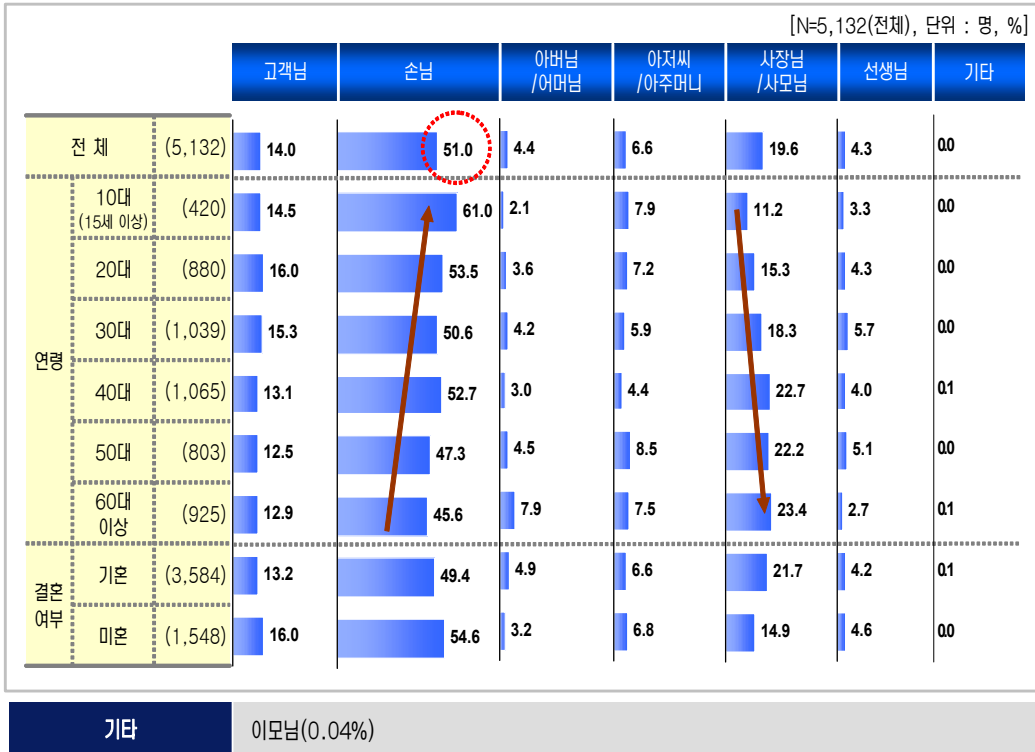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가 씨	언니	과장님 (매니저님)	아주머니	아줌마	고모(님)	이모(님)	여기요/저기요	사장님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19.3	12.4	2.2	7.0	8.3	0.3	9.9	32.9	7.6	0.1	
성별	남성	(2,541)	20.9	5.3	2.3	8.8	8.5	0.3	10.0	34.5	9.2	0.2	282.11
	여성	(2,591)	17.9	19.4	2.2	5.2	8.1	0.2	9.8	31.3	6.0	0.0	***
연령	15~19세	(420)	7.1	14.5	2.4	6.0	9.8	0.2	9.3	46.0	4.5	0.2	451.07 ***
	20대	(880)	9.1	12.2	2.2	5.3	6.0	0.1	15.1	43.3	6.5	0.2	
	30대	(1,039)	14.5	14.1	2.4	5.8	5.9	0.2	13.4	35.0	8.7	0.0	
	40대	(1,065)	22.5	14.7	2.8	7.2	7.7	0.2	9.1	27.6	8.1	0.0	
	50대	(803)	26.0	11.0	2.2	7.7	9.7	0.2	8.2	26.3	8.3	0.2	
	60대 이상	(925)	30.6	8.3	1.4	9.3	12.2	0.5	3.6	26.3	7.7	0.1	
결혼 여부	기혼	(3,584)	23.4	12.6	2.3	7.7	9.0	0.3	8.2	28.4	8.0	0.1	234.35
	미혼	(1,548)	9.9	12.0	2.0	5.3	6.9	0.2	13.7	43.2	6.6	0.2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9.5	17.2	2.6	8.4	8.0	0.5	7.0	29.1	7.6	0.1	463.57 ***
	충청권	(530)	21.1	15.1	4.2	8.5	6.8	0.0	5.8	32.1	5.8	0.6	
	강원권	(165)	11.5	13.9	3.6	6.1	11.5	0.0	4.8	26.7	21.8	0.0	
	영남권	(1,369)	19.1	4.4	1.3	2.8	7.9	0.0	16.5	41.0	7.0	0.0	
	호남권	(517)	19.0	7.7	0.6	10.1	13.0	0.0	11.0	32.1	6.4	0.2	
	제주권	(67)	26.9	10.4	1.5	4.5	0.0	0.0	14.9	34.3	7.5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8.0	16.6	2.6	8.3	6.9	0.4	7.7	32.1	7.3	0.1	299.63 ***
	충청권	(721)	21.2	16.0	3.2	8.9	7.5	0.4	6.5	28.3	7.8	0.3	
	강원권	(256)	15.2	11.7	3.1	9.0	11.3	0.0	5.1	28.5	16.0	0.0	
	영남권	(1,588)	19.8	6.5	1.6	3.8	8.1	0.0	15.1	38.0	6.9	0.1	
	호남권	(818)	19.7	12.7	1.6	8.2	11.7	0.4	8.9	29.7	7.0	0.1	
	제주권	(73)	26.0	12.3	2.7	2.7	5.5	0.0	9.6	35.6	5.5	0.0	
	기타	(18)	44.4	5.6	0.0	16.7	5.6	0.0	0.0	16.7	11.1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바.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손님’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장님/사모님’(19.6%), ‘고객님’(14.0%), ‘아저씨/아주머니’(6.6%), ‘아버님/어머님’(4.4%), ‘선생님’(4.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이모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7]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1.3%로 남성(5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대 61.0%, 20대 53.5%로 높게 나타났다. '사장님/사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에서 30대 이하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구분 없이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54.6%로 기혼(49.4%)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장님/사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의 경우 21.7%로 미혼(14.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에서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장님/사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에서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17.9%로, '아버님/어머님'과 '아저씨/아주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각각 10.3%,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일하게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지역에서 72.2%, 제주권에서 60.3%로 높게 나타났다. '사장님/사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24.9%,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0]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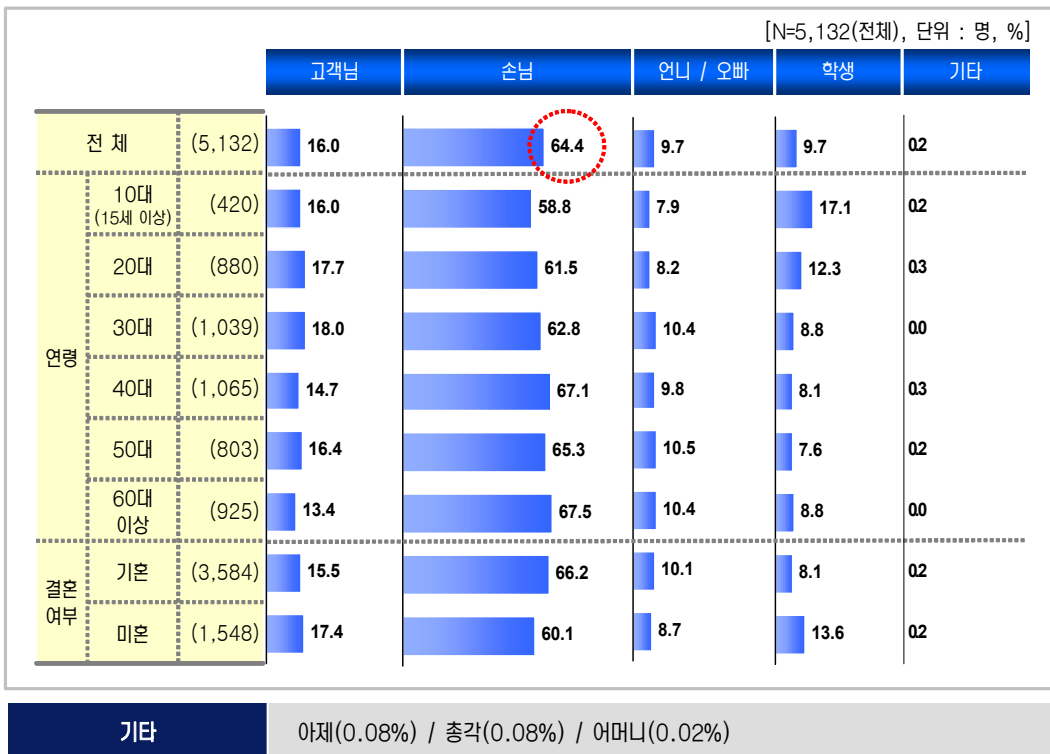
		응답자 수	고객님	손님	아버님 /어머님	아저씨 /아주 머니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14.0	51.0	4.4	6.6	19.6	4.3	0.0	
성별	남성	(2,541)	14.0	50.6	3.5	7.0	19.8	5.1	0.0	21.27
	여성	(2,591)	14.0	51.3	5.3	6.3	19.5	3.5	0.1	**
연령	15~19세	(420)	14.5	61.0	2.1	7.9	11.2	3.3	0.0	123.00 ***
	20대	(880)	16.0	53.5	3.6	7.2	15.3	4.3	0.0	
	30대	(1,039)	15.3	50.6	4.2	5.9	18.3	5.7	0.0	
	40대	(1,065)	13.1	52.7	3.0	4.4	22.7	4.0	0.1	
	50대	(803)	12.5	47.3	4.5	8.5	22.2	5.1	0.0	
	60대 이상	(925)	12.9	45.6	7.9	7.5	23.4	2.7	0.1	
결혼 여부	기혼	(3,584)	13.2	49.4	4.9	6.6	21.7	4.2	0.1	46.67
	미혼	(1,548)	16.0	54.6	3.2	6.8	14.9	4.6	0.0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6.6	51.3	4.0	8.3	14.9	4.8	0.0	220.04 ***
	충청권	(530)	10.4	44.7	7.0	6.8	27.7	3.4	0.0	
	강원권	(165)	7.3	50.9	10.3	10.9	15.2	5.5	0.0	
	영남권	(1,369)	14.1	49.8	2.3	4.2	26.0	3.7	0.0	
	호남권	(517)	6.8	58.0	7.7	4.1	19.1	4.1	0.2	
	제주권	(67)	17.9	56.7	3.0	4.5	14.9	3.0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7.8	50.4	3.9	7.4	15.3	5.2	0.0	160.17 ***
	충청권	(721)	10.8	47.0	6.1	9.8	22.6	3.6	0.0	
	강원권	(256)	12.9	53.5	6.6	7.0	14.8	5.1	0.0	
	영남권	(1,588)	13.4	50.1	2.6	5.0	24.9	4.0	0.0	
	호남권	(818)	10.8	55.3	7.0	5.5	17.7	3.5	0.2	
	제주권	(73)	15.1	60.3	1.4	6.8	13.7	2.7	0.0	
	기타	(18)	11.1	72.2	0.0	0.0	16.7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사. 식당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식당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의 응답 비율 51.0%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객님'(16.0%), '언니/오빠'(9.7%), '학생'(9.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아제', '총각', '어머니'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8] 식당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식당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65.3%로 여성(6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에서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30대에서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언니/오빠'에 대한 응답 비율은 50대에서 10.5%, '학생'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에서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과 미혼 모두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의 경우 66.2%로 미혼(60.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이 17.4%로 기혼(15.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에서 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언니/오빠', '학생'에 대한 응답 비율은 모두 강원권에서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일하게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에서 83.3%, 호남권에서 72.0%로 높게 나타났다.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20.2%, '언니/오빠'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15.2%, '학생'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1] 식당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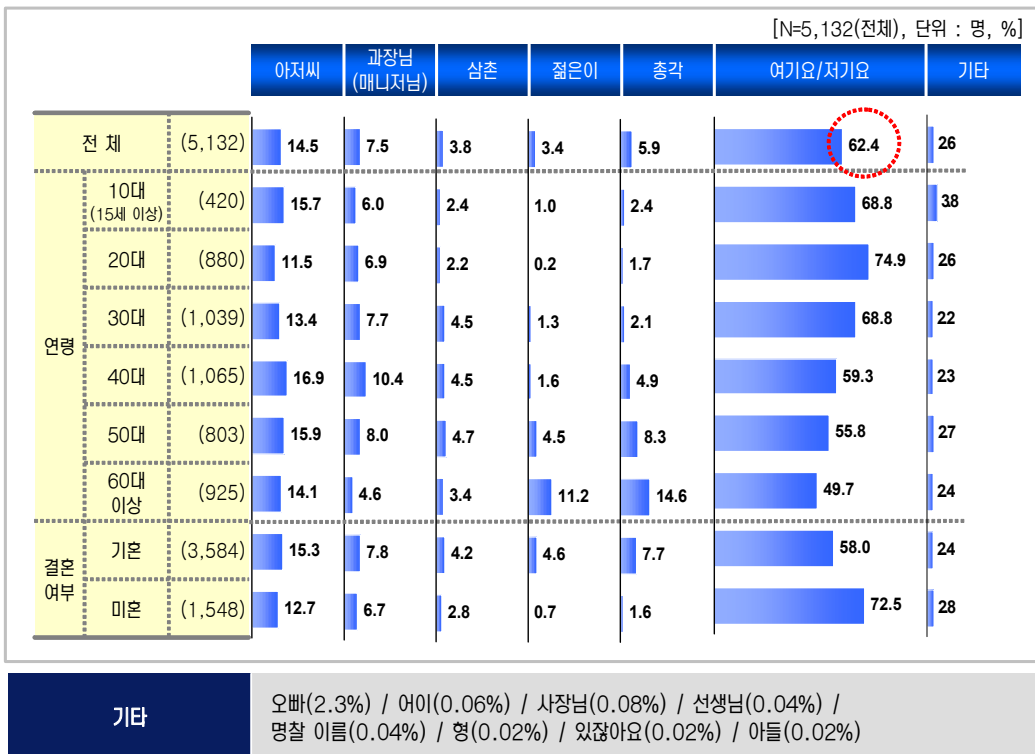
		응답자 수	고객님	손님	언니/오빠	학생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16.0	64.4	9.7	9.7	0.2	
성별	남성	(2,541)	17.2	65.3	7.8	9.4	0.3	26.53 ***
	여성	(2,591)	14.9	63.5	11.5	10.1	0.1	
연령	15~19세	(420)	16.0	58.8	7.9	17.1	0.2	76.16 ***
	20대	(880)	17.7	61.5	8.2	12.3	0.3	
	30대	(1,039)	18.0	62.8	10.4	8.8	0.0	
	40대	(1,065)	14.7	67.1	9.8	8.1	0.3	
	50대	(803)	16.4	65.3	10.5	7.6	0.2	
	60대 이상	(925)	13.4	67.5	10.4	8.8	0.0	
결혼 여부	기혼	(3,584)	15.5	66.2	10.1	8.1	0.2	45.68 ***
	미혼	(1,548)	17.4	60.1	8.7	13.6	0.2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8.3	62.0	12.6	7.0	0.2	191.70 ***
	충청권	(530)	12.8	64.2	11.5	11.5	0.0	
	강원권	(165)	10.9	57.6	15.8	15.8	0.0	
	영남권	(1,369)	16.7	64.6	4.9	13.5	0.3	
	호남권	(517)	7.7	77.9	4.3	9.9	0.2	
	제주권	(67)	22.4	62.7	10.4	4.5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20.2	60.1	11.4	8.1	0.2	117.99 ***
	충청권	(721)	13.3	64.8	12.1	9.8	0.0	
	강원권	(256)	12.9	60.5	15.2	11.3	0.0	
	영남권	(1,588)	16.2	65.0	6.2	12.3	0.3	
	호남권	(818)	10.9	72.0	9.2	7.8	0.1	
	제주권	(73)	16.4	68.5	9.6	5.5	0.0	
	기타	(18)	5.6	83.3	5.6	5.6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아.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호칭이 없는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저씨’(14.5%), ‘과장님(매니저님)’(7.5%), ‘총각’(5.9%), ‘삼촌’(3.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오빠’, ‘젊은이’, ‘어이’, ‘형’, ‘사장님’, ‘있잖아요’, ‘아들’, ‘선생님’, ‘명찰 이름을 보고 부른다’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69]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63.8%로 남성(61.0%)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아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이 16.2%로 여성(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저씨’, ‘과장님(매니저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40대에서 각각 16.9%,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이’, ‘총각’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각각 11.2%, 14.6%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구분 없이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이 72.5%로 기혼(58.0%)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에서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저씨’, ‘과장님(매니저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각각 17.9%, 1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기타 지역과 호남권에서 각각 83.3%, 66.0%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표 72]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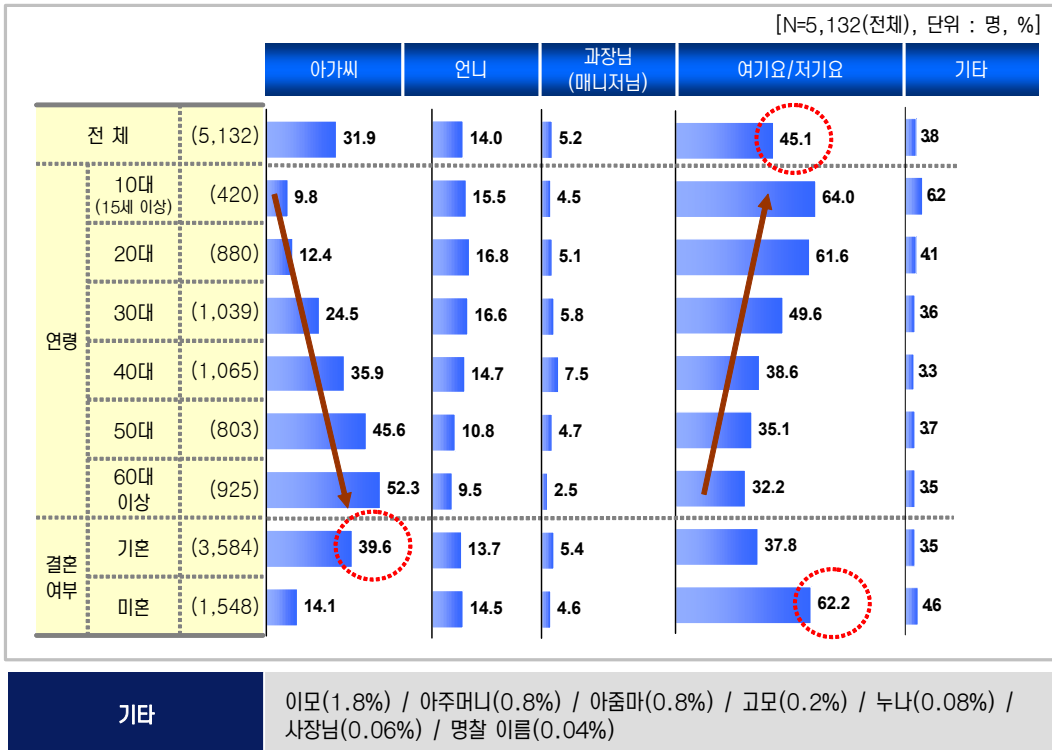
		응답자 수	아저씨	오빠	과장님 (매니저님)	삼촌	젊은이	총각	여기요 / 저기요	기타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14.5	2.3	7.5	3.8	3.4	5.9	62.4	0.3	3.4	
성별	남성	(2,541)	16.2	1.7	7.5	3.1	4.4	5.7	61.0	0.4	4.4	48.55
	여성	(2,591)	12.9	2.9	7.5	4.4	2.4	6.0	63.8	0.2	2.4	***
연령	15~19세	(420)	15.7	3.6	6.0	2.4	1.0	2.4	68.8	0.2	1.0	569.66 ***
	20대	(880)	11.5	2.5	6.9	2.2	0.2	1.7	74.9	0.1	0.2	
	30대	(1,039)	13.4	2.0	7.7	4.5	1.3	2.1	68.8	0.2	1.3	
	40대	(1,065)	16.9	2.0	10.4	4.5	1.6	4.9	59.3	0.4	1.6	
	50대	(803)	15.9	2.0	8.0	4.7	4.5	8.3	55.8	0.7	4.5	
	60대 이상	(925)	14.1	2.4	4.6	3.4	11.2	14.6	49.7	0.0	11.2	
결혼 여부	기혼	(3,584)	15.3	2.1	7.8	4.2	4.6	7.7	58.0	0.3	4.6	171.49
	미혼	(1,548)	12.7	2.6	6.7	2.8	0.7	1.6	72.5	0.2	0.7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6.0	3.5	9.3	3.5	4.3	6.0	57.0	0.2	4.3	213.48 ***
	충청권	(530)	13.0	1.7	8.9	2.5	3.8	3.6	66.0	0.6	3.8	
	강원권	(165)	11.5	0.6	9.7	4.2	4.8	6.1	63.0	0.0	4.8	
	영남권	(1,369)	15.5	1.1	5.1	4.0	0.9	6.6	66.5	0.3	0.9	
	호남권	(517)	6.6	1.0	2.1	5.6	5.2	5.6	73.7	0.2	5.2	
	제주권	(67)	17.9	1.5	13.4	1.5	1.5	3.0	61.2	0.0	1.5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5.6	3.5	9.4	3.3	3.3	3.8	60.9	0.3	3.3	175.18 ***
	충청권	(721)	14.0	1.9	7.8	4.2	6.2	5.8	59.8	0.3	6.2	
	강원권	(256)	18.0	2.3	11.7	4.7	5.1	6.6	51.6	0.0	5.1	
	영남권	(1,588)	15.1	1.7	5.9	3.6	1.4	7.1	64.8	0.3	1.4	
	호남권	(818)	10.3	1.5	4.6	4.9	4.8	7.7	66.0	0.2	4.8	
	제주권	(73)	17.8	0.0	13.7	0.0	1.4	4.1	63.0	0.0	1.4	
	기타	(18)	11.1	0.0	0.0	0.0	5.6	0.0	83.3	0.0	5.6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자.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호칭이 없는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가씨(31.9%), ‘언니’(14.0%), ‘과장님(매니저님)’(5.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이모’, ‘아주머니’, ‘아줌마’, ‘고모’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70]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47.5%로 여성(42.8%)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여성이 63.8%로 남성(61.0%)보다 높았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도 남성이 35.8%로 여성(2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이 21.3%였으나, 남성의 응답 비율도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연령에서는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 64.0%, 20대 61.6%, 30대 49.6%, 40대 38.6%, 50대 35.1%, 60대 이상 32.2%로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에서 45.6%, 40대 35.9%, 30대 24.5%, 20대 12.4%, 10대 9.8%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연령별 구분과 비례하여 미혼의 경우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62.2%로 기혼(37.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의 경우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39.6%로 미혼(14.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19.2%로, ‘과장님(매니저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에서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3]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자 수	아가씨	언니	과장님 (매니저님)	아주머니	아줌마	고모	이모	여기요 /저기요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31.9	14.0	5.2	0.8	0.8	0.2	1.8	45.1	0.2	
성별	남성	(2,541)	35.8	6.5	5.3	1.1	1.0	0.2	2.2	47.5	0.3	252.57 ***
	여성	(2,591)	28.1	21.3	5.1	0.5	0.6	0.2	1.5	42.8	0.0	
연령	15~19세	(420)	9.8	15.5	4.5	1.4	2.4	0.0	1.9	64.0	0.5	631.07 ***
	20대	(880)	12.4	16.8	5.1	0.9	0.2	0.1	2.6	61.6	0.2	
	30대	(1,039)	24.5	16.6	5.8	0.9	0.2	0.4	1.9	49.6	0.2	
	40대	(1,065)	35.9	14.7	7.5	0.7	0.6	0.2	1.8	38.6	0.1	
	50대	(803)	45.6	10.8	4.7	0.6	1.1	0.5	1.2	35.1	0.2	
	60대 이상	(925)	52.3	9.5	2.5	0.6	1.3	0.0	1.5	32.2	0.0	
결혼 여부	기혼	(3,584)	39.6	13.7	5.4	0.7	0.8	0.2	1.6	37.8	0.1	379.45 ***
	미혼	(1,548)	14.1	14.5	4.6	1.0	0.8	0.2	2.3	62.2	0.3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29.7	19.2	6.4	1.0	0.9	0.4	1.2	41.1	0.1	265.07 ***
	충청권	(530)	34.9	14.9	6.4	0.4	0.8	0.0	0.6	41.9	0.2	
	강원권	(165)	24.2	12.1	7.9	1.2	0.6	0.0	0.6	53.3	0.0	
	영남권	(1,369)	34.5	6.6	3.4	0.5	0.4	0.1	2.3	51.7	0.4	
	호남권	(517)	35.2	8.3	1.2	0.8	1.4	0.0	5.0	48.2	0.0	
	제주권	(67)	31.3	13.4	9.0	0.0	0.0	0.0	4.5	41.8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25.9	18.3	6.6	1.0	0.8	0.4	1.3	45.5	0.2	191.52 ***
	충청권	(721)	36.8	16.0	5.5	1.0	0.8	0.0	0.6	39.3	0.1	
	강원권	(256)	27.7	16.0	8.6	0.4	0.4	0.4	1.2	45.3	0.0	
	영남권	(1,588)	35.1	8.6	3.7	0.8	0.6	0.1	2.3	48.7	0.3	
	호남권	(818)	34.1	14.1	3.2	0.6	1.5	0.2	3.2	43.0	0.1	
	제주권	(73)	32.9	8.2	11.0	0.0	0.0	0.0	5.5	42.5	0.0	
	기타	(18)	61.1	0.0	0.0	0.0	0.0	0.0	0.0	38.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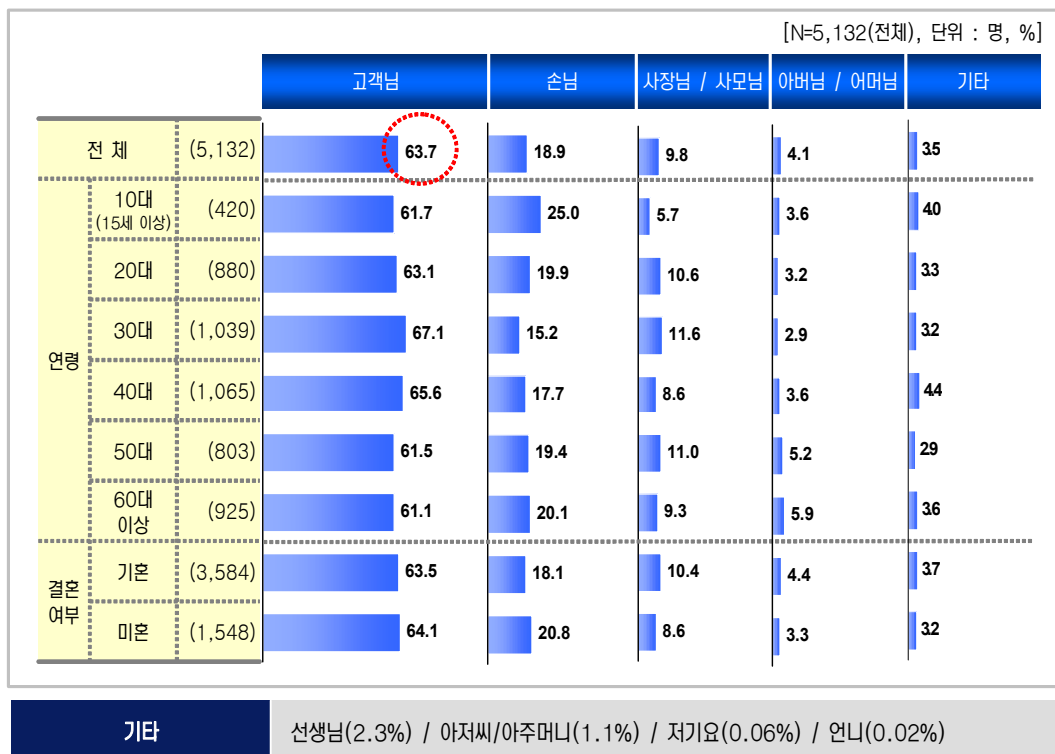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차.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중년 손님을 부를 때

백화점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18.9%, ‘사장님/사모님’(9.8%), ‘아버님/어머님’(4.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선생님’, ‘아저씨/아주머니’ 등이 조사되었다.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51.0%,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14.0%였던 것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1]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중년 손님을 부를 때



백화점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응답 비율이 30대에서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 61.1%로 가장 낮게 나타나 그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에서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장님/사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30대에서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구분 없이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64.1%로 기혼(63.5%)보다 0.6% 높게 나타났다.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도 미혼이 20.8%로 기혼(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장님/사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에서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기타 지역과 영남권에서 각각 88.9%, 66.0%로 높게 나타났다.

[표 74]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중년 손님을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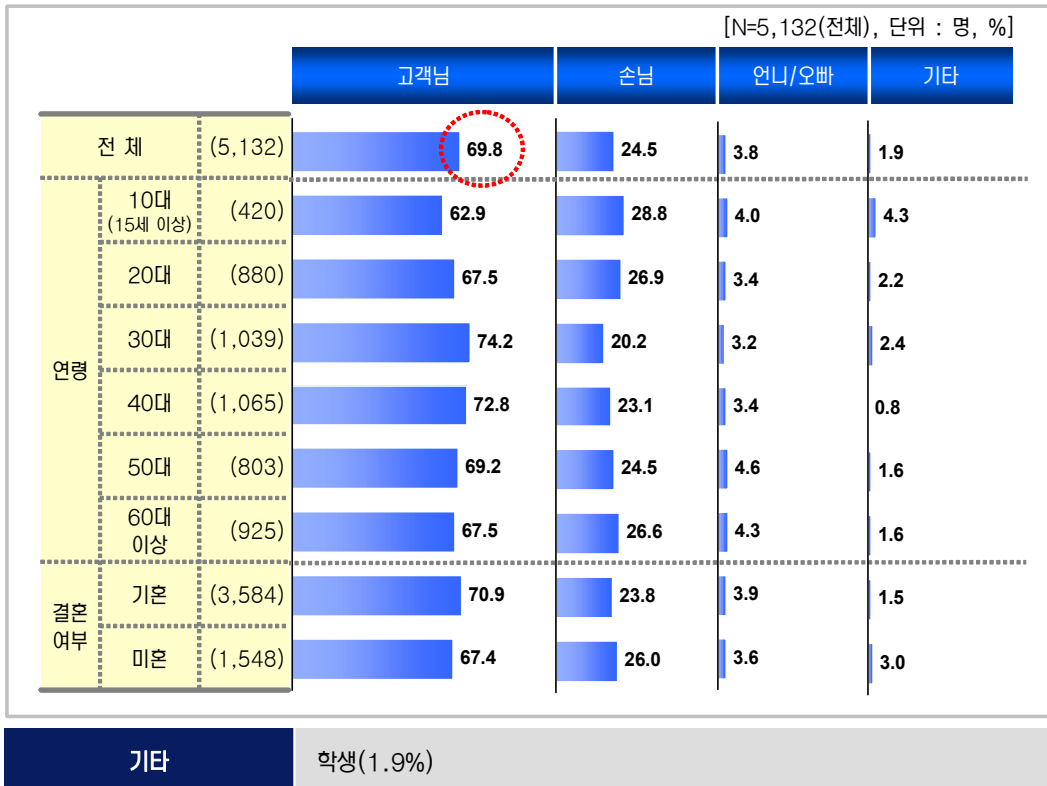
		응답자 수	고객님	손님	아버님 /어머님	아저씨 /아주머니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63.7	18.9	4.1	1.1	9.8	2.3	0.1	
성별	남성	(2,541)	64.0	18.1	3.7	1.3	10.0	2.8	0.0	11.50 n.s
	여성	(2,591)	63.4	19.6	4.4	0.9	9.7	1.9	0.1	
연령	10대	(420)	61.7	25.0	3.6	1.9	5.7	2.1	0.0	76.38 ***
	20대	(880)	63.1	19.9	3.2	1.3	10.6	1.8	0.2	
	30대	(1,039)	67.1	15.2	2.9	0.6	11.6	2.6	0.0	
	40대	(1,065)	65.6	17.7	3.6	1.1	8.6	3.1	0.2	
	50대	(803)	61.5	19.4	5.2	0.7	11.0	2.1	0.0	
	60대 이상	(925)	61.1	20.1	5.9	1.6	9.3	1.9	0.0	
결혼 여부	기혼	(3,584)	63.5	18.1	4.4	1.1	10.4	2.5	0.1	14.35 *
	미혼	(1,548)	64.1	20.8	3.3	1.1	8.6	2.0	0.1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62.6	19.2	4.5	1.1	9.2	3.2	0.1	151.24 ***
	충청권	(530)	58.1	16.4	4.9	1.1	16.8	2.5	0.2	
	강원권	(165)	53.9	18.2	8.5	1.2	16.4	1.8	0.0	
	영남권	(1,369)	68.7	20.7	1.7	1.4	6.1	1.4	0.1	
	호남권	(517)	66.5	13.3	5.8	0.6	12.8	1.0	0.0	
	제주권	(67)	46.3	32.8	3.0	1.5	14.9	1.5	0.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64.2	18.5	4.6	1.2	8.4	3.0	0.1	114.97 ***
	충청권	(721)	61.0	16.9	4.9	0.6	13.6	2.9	0.1	
	강원권	(256)	60.5	15.2	5.5	0.8	16.4	1.6	0.0	
	영남권	(1,588)	66.0	21.2	2.2	1.6	7.1	1.8	0.1	
	호남권	(818)	62.7	16.9	5.5	0.7	12.5	1.7	0.0	
	제주권	(73)	45.2	34.2	2.7	1.4	13.7	2.7	0.0	
	기타	(18)	88.9	11.1	0.0	0.0	0.0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카.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젊은 손님을 부를 때

백화점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의 호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백화점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의 응답 비율 63.7%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손님’(24.5%), ‘언니/오빠’(3.8%)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 ‘학생’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72]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젊은 손님을 부를 때



백화점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의 호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70.6%로 여성(69.1%)보다 1.5%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에서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에서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기혼의 경우 70.9%로 미혼(67.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이 26.0%로 기혼(23.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에서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일하게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지역에서 83.3%, 호남권에서 71.5%로 높게 나타났다.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5]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젊은 손님을 부를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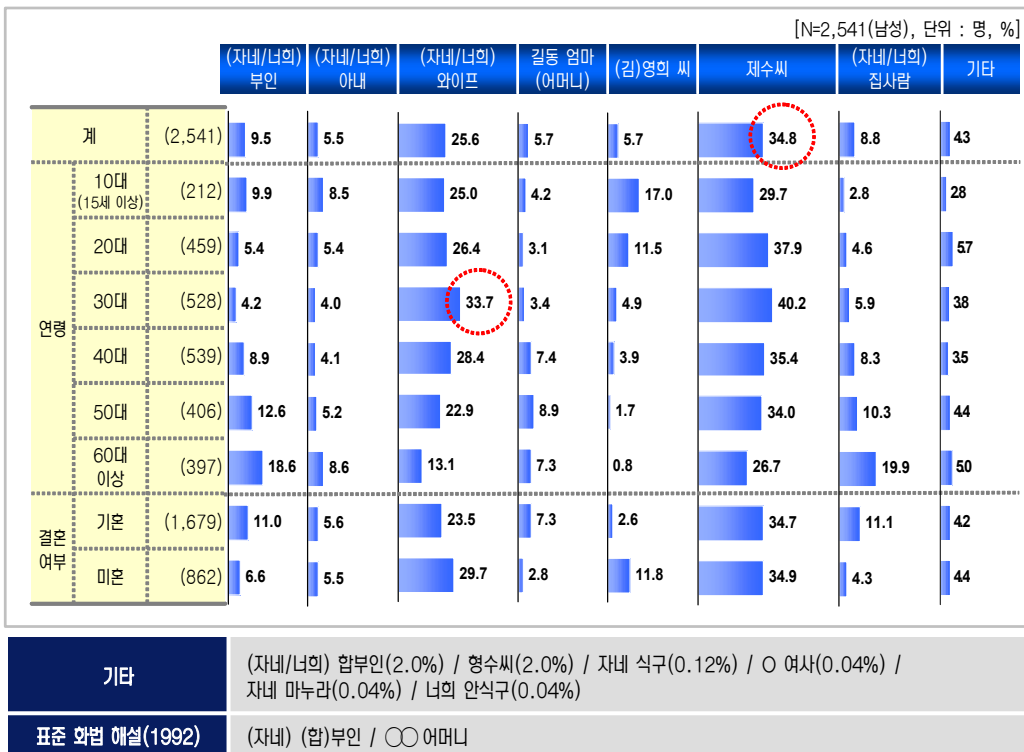
		응답자 수	고객님	손님	언니/오빠	학생	통계량 (χ^2)
전 체		(5,132)	69.8	24.5	3.8	1.9	
성별	남성	(2,541)	70.6	24.1	3.0	2.3	12.30 *
	여성	(2,591)	69.1	24.9	4.5	1.5	
연령	15~19세	(420)	62.9	28.8	4.0	4.3	50.52 ***
	20대	(880)	67.5	26.9	3.4	2.2	
	30대	(1,039)	74.2	20.2	3.2	2.4	
	40대	(1,065)	72.8	23.1	3.4	0.8	
	50대	(803)	69.2	24.5	4.6	1.6	
	60대 이상	(925)	67.5	26.6	4.3	1.6	
결혼 여부	기혼	(3,584)	70.9	23.8	3.9	1.5	17.31 **
	미혼	(1,548)	67.4	26.0	3.6	3.0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69.0	24.8	4.5	1.7	69.99 ***
	충청권	(530)	68.3	22.6	6.0	3.0	
	강원권	(165)	63.6	24.8	7.9	3.6	
	영남권	(1,369)	71.3	25.3	1.7	1.8	
	호남권	(517)	76.2	20.5	1.5	1.7	
	제주권	(67)	50.7	40.3	7.5	1.5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69.9	24.0	4.5	1.6	63.39 ***
	충청권	(721)	70.0	22.3	4.4	3.2	
	강원권	(256)	68.4	19.9	8.6	3.1	
	영남권	(1,588)	69.8	26.4	2.1	1.7	
	호남권	(818)	71.5	23.8	3.2	1.5	
	제주권	(73)	50.7	41.1	6.8	1.4	
	기타	(18)	83.3	16.7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타. 친구의 아내를 지칭할 때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쓰는 말을 조사한 결과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네/너희) 와이프’에 대한 응답 비율이 25.6%, ‘(자네/너희) 부인’ 9.5%, ‘(자네/너희) 집사람’ 8.8%, ‘길동 엄마(어머니)’ 5.7%, ‘(김)영희 씨’ 5.7%, ‘(자네/너희) 아내’ 5.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형수씨’, ‘(자네/너희) 합부인’, ‘O 여사’, ‘자네 마누라’, ‘자네 식구’, ‘너희 안식구’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73] 친구의 아내를 지칭할 때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에서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네/너희) 와이프'에 대한 응답 비율도 30대에서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네/너희) 부인'과 '(자네/너희) 집사람'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각각 60대 이상에서 18.6%,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자네/너희) 와이프'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이 29.7%로 기혼(23.5%)보다 6.2% 높게 나타났으며, '(김)영희 씨'에 대한 응답 비율도 미혼이 11.8%로 기혼(2.6%)보다 9.2%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자네/너희) 부인'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11.0%로 미혼(6.6%)보다 4.4% 높게 나타났으며, '(자네/너희) 집사람'에 대한 응답 비율도 기혼이 11.1%로 미혼(4.3%)보다 6.8%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에서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네/너희) 와이프'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과 제주권에서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에서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자네) (함)부인', 'OO 어머니'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준 화법 해설> 목록에 없었던 '제수씨'(34.8%), '(자네/너희) 와이프'(25.6%)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자네) 부인'(9.5%), 'OO 어머니'(5.7%)를 쓰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표 76] 친구의 아내를 지칭할 때

[N = 2,541(남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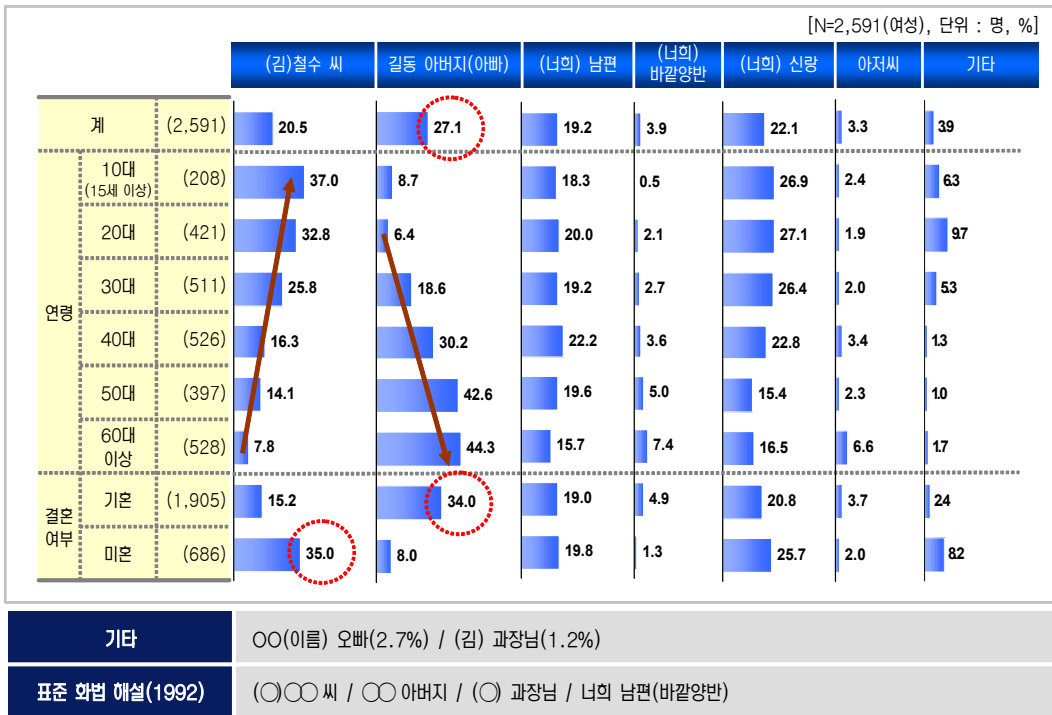
		응답자 수	(자네/너희) 부인	(자네/너희) 합부인	(자네/너희) 아내	(자네/너희) 와이프	길동 엄마 (어머니)	(김) 영희 씨	제수씨	형수씨	(자네/너희) 집사람	기타 응답	통계량 (χ^2)
계		(2,541)	9.5	2.0	5.5	25.6	5.7	5.7	34.8	2.0	8.8	0.2	
연령	15~19세	(212)	9.9	1.9	8.5	25.0	4.2	17.0	29.7	0.9	2.8	0.0	372.88 ***
	20대	(459)	5.4	3.5	5.4	26.4	3.1	11.5	37.9	2.2	4.6	0.0	
	30대	(528)	4.2	1.7	4.0	33.7	3.4	4.9	40.2	2.1	5.9	0.0	
	40대	(539)	8.9	1.7	4.1	28.4	7.4	3.9	35.4	1.9	8.3	0.0	
	50대	(406)	12.6	2.0	5.2	22.9	8.9	1.7	34.0	2.0	10.3	0.5	
	60대 이상	(397)	18.6	1.5	8.6	13.1	7.3	0.8	26.7	2.5	19.9	1.0	
결혼 여부	기혼	(1,679)	11.0	2.0	5.6	23.5	7.3	2.6	34.7	1.9	11.1	0.4	157.83 ***
	미혼	(862)	6.6	2.2	5.5	29.7	2.8	11.8	34.9	2.2	4.3	0.0	
거주 지역	수도권	(1,233)	10.3	1.9	6.4	29.0	5.8	6.3	30.5	2.8	7.0	0.0	224.15 ***
	충청권	(262)	10.3	1.9	4.2	31.3	7.6	6.1	23.3	1.5	11.8	1.9	
	강원권	(79)	16.5	2.5	3.8	29.1	11.4	10.1	24.1	1.3	1.3	0.0	
	영남권	(675)	8.0	2.7	4.4	16.7	3.9	4.1	50.2	1.2	8.7	0.0	
	호남권	(260)	6.9	1.5	6.5	25.0	6.5	5.4	29.6	1.2	16.9	0.4	
	제주권	(32)	6.3	0.0	3.1	31.3	6.3	6.3	37.5	0.0	9.4	0.0	
출신 지역	수도권	(843)	9.7	1.9	6.0	29.8	6.2	8.7	29.3	2.5	5.9	0.0	192.63 ***
	충청권	(371)	10.8	1.6	5.7	29.4	7.3	4.6	26.1	2.2	11.1	1.3	
	강원권	(122)	16.4	0.8	4.1	27.0	8.2	7.4	27.0	0.8	8.2	0.0	
	영남권	(777)	8.1	3.0	4.8	18.5	4.4	3.9	47.1	1.7	8.6	0.0	
	호남권	(380)	8.7	1.6	6.6	26.1	5.8	3.7	32.1	2.1	13.2	0.3	
	제주권	(38)	5.3	0.0	5.3	28.9	2.6	7.9	44.7	0.0	5.3	0.0	
	기타	(10)	10.0	0.0	0.0	30.0	0.0	0.0	20.0	0.0	4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파.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길동 아버지(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너희) 신랑’(22.1%), ‘(김)철수 씨’(20.5%), ‘(너희) 남편’(19.2%), ‘(너희) 바깥양반’(3.9%), ‘아저씨’(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OO(이름) 오빠’, ‘김 과장(님)’과 같이 친구 남편의 직위명을 직접 부르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74]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에서는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37.0%,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는 '(너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에서는 '길동 아버지(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40대 30.2%, 50대 42.6%, 60대 이상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길동 아버지(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34.0%로 미혼(8.0%)보다 26.0% 높게 나타났으며,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이 35.0%로 기혼(15.2%)보다 19.8% 높게 나타났다. 'OO(이름) 오빠'에 대한 응답 비율도 미혼이 7.6%로 기혼(0.9%)보다 6.7%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길동 아버지(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에서는 '(너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아저씨'에 대한 응답 비율도 11.3%로 전체 값 3.3%보다 8.0%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길동 아버지(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원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해당 친구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다른 친구에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해당 친구에게는 '(O)OO 씨', 'OO 아버지', '(O) 과장님', '너희 남편(바깥양반)'으로, 남편에게는 'OO 남편(바깥양반)', '(O) 과장님'으로, 자녀에게는 'OO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 '(O) 과장님'으로, 다른 친구에게는 'OO 남편(바깥양반)'으로 제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표준 화법 해설>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너희) 신랑'이라는 지칭어가 22.1%로 두 번째로 높게 선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신랑'은 '신혼 초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지만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어의가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7]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N = 2,591(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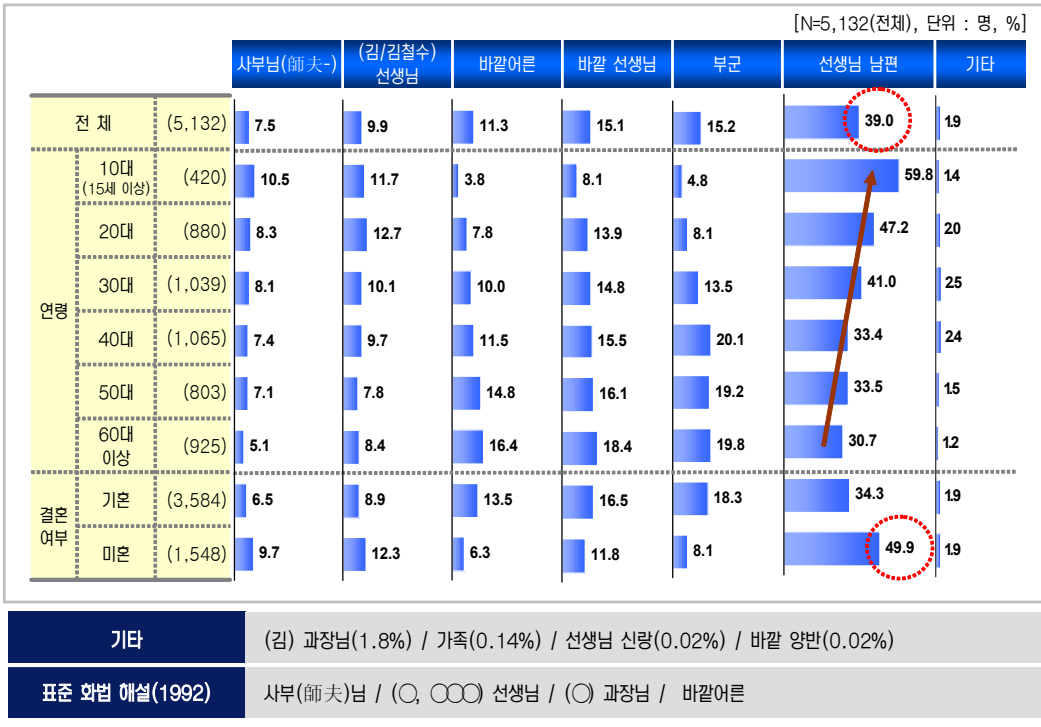
		응답자 수	(김) 철수 씨	길동 아버지 (아빠)	(김) 과장님	(너희) 남편	(너희) 바깥 양반	(너희) 신랑	아저씨	OO (이름) 오빠	통계량 (χ^2)
계		(2,591)	20.5	27.1	1.2	19.2	3.9	22.1	3.3	2.7	
연령	15~19세	(208)	37.0	8.7	0.0	18.3	0.5	26.9	2.4	6.3	522.67 ***
	20대	(421)	32.8	6.4	0.7	20.0	2.1	27.1	1.9	9.0	
	30대	(511)	25.8	18.6	2.0	19.2	2.7	26.4	2.0	3.3	
	40대	(526)	16.3	30.2	1.1	22.2	3.6	22.8	3.4	0.2	
	50대	(397)	14.1	42.6	1.0	19.6	5.0	15.4	2.3	0.0	
	60대 이상	(528)	7.8	44.3	1.5	15.7	7.4	16.5	6.6	0.2	
결혼 여부	기혼	(1,905)	15.2	34.0	1.4	19.0	4.9	20.8	3.7	0.9	332.91 ***
	미혼	(686)	35.0	8.0	0.6	19.8	1.3	25.7	2.0	7.6	
거주 지역	수도권	(1,251)	20.8	24.2	1.3	22.9	5.0	21.7	2.1	2.0	163.64 ***
	충청권	(268)	20.1	29.5	0.4	15.3	2.6	28.0	1.5	2.6	
	강원권	(86)	18.6	39.5	0.0	17.4	7.0	15.1	0.0	2.3	
	영남권	(694)	23.5	31.3	1.7	13.0	2.6	20.2	3.7	4.0	
	호남권	(257)	10.1	21.8	0.8	23.3	3.5	26.8	11.3	2.3	
	제주권	(35)	31.4	37.1	0.0	14.3	0.0	11.4	0.0	5.7	
출신 지역	수도권	(815)	25.0	21.0	0.9	21.8	3.3	23.8	1.2	2.9	140.27 ***
	충청권	(350)	19.1	29.1	0.9	18.6	4.9	22.0	3.1	2.3	
	강원권	(134)	16.4	35.1	1.5	19.4	9.0	17.2	0.0	1.5	
	영남권	(811)	21.6	30.9	1.8	14.2	3.2	20.8	3.9	3.5	
	호남권	(438)	11.6	26.9	0.9	23.5	4.3	24.2	7.1	1.4	
	제주권	(35)	28.6	34.3	0.0	20.0	2.9	8.6	0.0	5.7	
	기타	(8)	12.5	12.5	0.0	50.0	0.0	12.5	12.5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하.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에 쓰는 말을 조사한 결과 ‘선생님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군’(15.2%), ‘바깥 선생님’(15.1%), ‘바깥어른’(11.3%), ‘(김/김철수) 선생님’(9.9%), ‘사부님’(7.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김) 과장님’, ‘가족’, ‘선생님 신랑’, ‘바깥양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75]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선생님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41.0%로 남성(3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선생님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0대에서 59.8%, 20대 47.2%, 30대 41.0%, 40대 33.4%, 50대 33.5%, 60대 이상 30.7%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군’에 대한 응답 비율은 40대에서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선생님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은 미혼이 49.9%로 기혼(34.3%)보다 15.6% 높게 나타난 반면, ‘부군’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혼이 18.3%로 미혼(8.1%)보다 10.2%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선생님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에서 50.9%로 가장 높았다. ‘부군’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31.3%로 가장 높았으며, ‘바깥 선생님’과 ‘바깥어른’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각각 18.3%,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김철수) 선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호남권에서 15.3%, ‘사부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12.7%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도 거주 지역과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선생님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은 기타 지역에서 50.0%, 호남권에서 42.1%로 높게 나타났다.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사부님’, ‘(O, OOO) 선생님’, ‘(O) 과장님’, ‘바깥어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생님 남편’에 대한 응답 비율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의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인 ‘부군’에 대한 응답 비율도 15.2%를 차지했다.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표 78]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자 수	사부님 (師父-)	(김/김철수) 선생님	(김) 과장님	바깥어 른	바깥 선생님	부군	선생님 남편	기타 응답	통계량 (χ^2)
전 체		(5,132)	7.5	9.9	1.8	11.3	15.1	15.2	39.0	0.2	
성별	남성	(2,541)	6.9	11.5	2.2	12.2	14.5	15.5	37.0	0.3	34.28
	여성	(2,591)	8.0	8.4	1.3	10.5	15.7	15.0	41.0	0.1	***
연령	15~19세	(420)	10.5	11.7	1.2	3.8	8.1	4.8	59.8	0.2	334.06 ***
	20대	(880)	8.3	12.7	1.9	7.8	13.9	8.1	47.2	0.1	
	30대	(1,039)	8.1	10.1	2.0	10.0	14.8	13.5	41.0	0.5	
	40대	(1,065)	7.4	9.7	2.4	11.5	15.5	20.1	33.4	0.0	
	50대	(803)	7.1	7.8	1.5	14.8	16.1	19.2	33.5	0.0	
	60대 이상	(925)	5.1	8.4	1.0	16.4	18.4	19.8	30.7	0.2	
결혼 여부	기혼	(3,584)	6.5	8.9	1.8	13.5	16.5	18.3	34.3	0.2	234.55
	미혼	(1,548)	9.7	12.3	1.7	6.3	11.8	8.1	49.9	0.2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8.7	8.1	2.2	14.9	18.3	13.7	34.1	0.1	323.40 ***
	충청권	(530)	10.9	9.1	0.9	6.2	10.0	16.4	45.8	0.6	
	강원권	(165)	12.7	9.1	1.2	13.3	17.0	18.8	27.9	0.0	
	영남권	(1,369)	5.0	11.8	1.2	6.5	14.0	19.4	41.9	0.1	
	호남권	(517)	4.3	15.3	2.3	12.0	8.3	7.0	50.9	0.0	
	제주권	(67)	0.0	9.0	0.0	9.0	7.5	31.3	41.8	1.5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0.0	9.4	2.0	12.5	16.5	12.1	37.5	0.1	178.73 ***
	충청권	(721)	9.2	8.0	1.4	10.7	15.0	14.3	41.2	0.3	
	강원권	(256)	12.1	9.4	1.6	16.0	15.6	18.4	27.0	0.0	
	영남권	(1,588)	5.0	10.6	1.6	8.5	14.9	19.4	39.8	0.3	
	호남권	(818)	5.1	11.4	2.1	14.1	13.2	12.1	42.1	0.0	
	제주권	(73)	0.0	8.2	1.4	6.8	9.6	32.9	39.7	1.4	
	기타	(18)	0.0	22.2	0.0	11.1	11.1	5.6	5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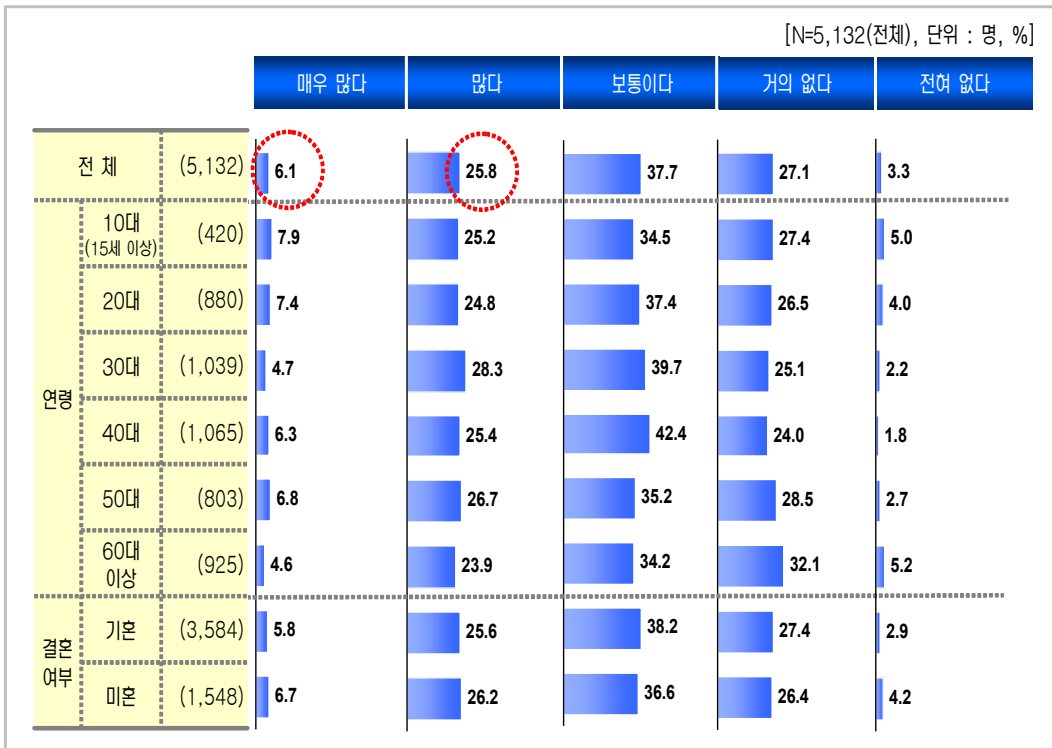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6.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가.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

표준 화법(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많다'라는 의견은 25.8%, '매우 많다'는 6.1%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31.9%가 일상생활에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등을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없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27.1%였으며, '전혀 없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6]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표준 화법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준 화법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50대에서 33.5%(매우 많다 6.8% + 많다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그 응답 비율이 28.5%(매우 많다 4.6% + 많다 2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표준 화법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미혼 32.9%(매우 많다 6.7% + 많다 26.2%)로, 기혼 31.4%(매우 많다 5.8% + 많다 25.6%)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에서 표준 화법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36.8%(매우 많다 6.6% + 많다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이 24.2%(매우 많다 4.2% + 많다 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기타 지역을 제외한 호남권에서 36.2%(매우 많다 6.0% + 많다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 23.2%(매우 많다 2.7% + 많다 2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9]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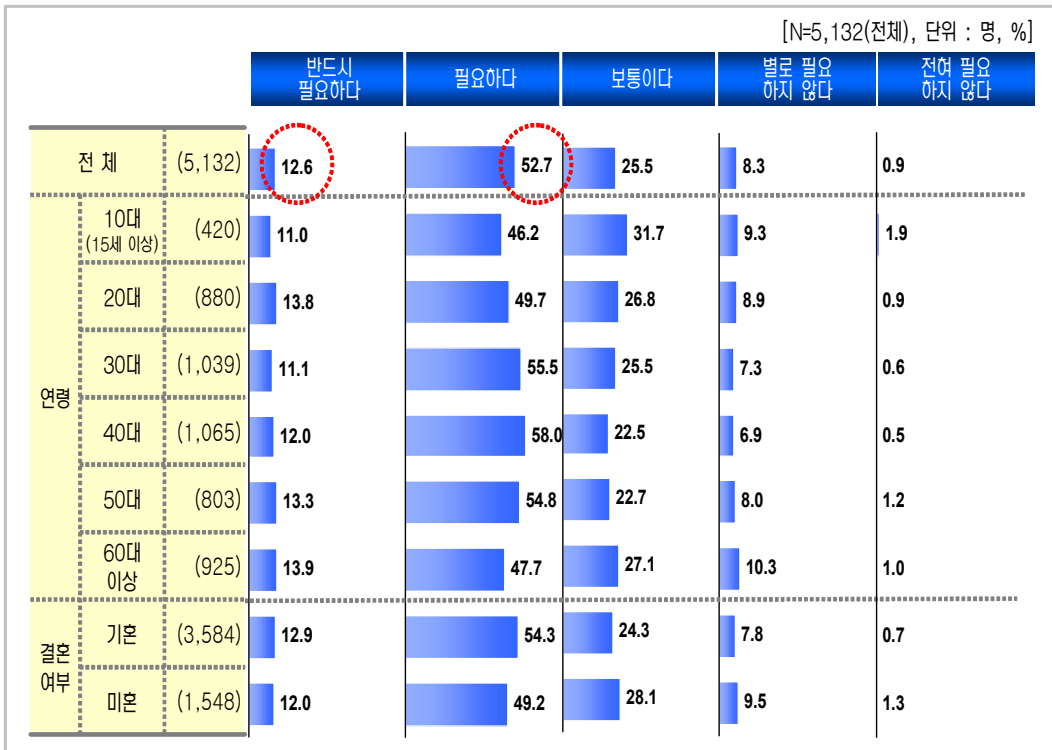
		응답자 수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통계량 (χ^2)
전 체		(5,132)	6.1	25.8	37.7	27.1	3.3	
성별	남성	(2,541)	6.6	25.3	36.6	28.1	3.4	6.14
	여성	(2,591)	5.6	26.3	38.8	26.1	3.2	n.s
연령	15~19세	(420)	7.9	25.2	34.5	27.4	5.0	70.69 ***
	20대	(880)	7.4	24.8	37.4	26.5	4.0	
	30대	(1,039)	4.7	28.3	39.7	25.1	2.2	
	40대	(1,065)	6.3	25.4	42.4	24.0	1.8	
	50대	(803)	6.8	26.7	35.2	28.5	2.7	
	60대 이상	(925)	4.6	23.9	34.2	32.1	5.2	
결혼 여부	기혼	(3,584)	5.8	25.6	38.2	27.4	2.9	8.30
	미혼	(1,548)	6.7	26.2	36.6	26.4	4.2	n. s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6.9	27.2	40.5	23.7	1.7	129.71 ***
	충청권	(530)	5.3	28.3	35.5	27.4	3.6	
	강원권	(165)	4.2	20.0	47.9	26.1	1.8	
	영남권	(1,369)	5.0	21.4	35.0	33.0	5.6	
	호남권	(517)	6.6	30.2	29.4	29.2	4.6	
	제주권	(67)	3.0	25.4	47.8	17.9	6.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7.5	26.3	39.6	24.3	2.3	97.93 ***
	충청권	(721)	5.1	28.2	37.2	26.8	2.8	
	강원권	(256)	4.3	24.2	45.3	25.0	1.2	
	영남권	(1,588)	5.5	22.3	36.0	31.3	4.8	
	호남권	(818)	6.0	30.2	33.9	27.0	2.9	
	제주권	(73)	2.7	20.5	57.5	15.1	4.1	
	기타	(18)	5.6	38.9	27.8	11.1	16.7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나.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 화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12.6%, ‘필요하다’는 응답이 52.7%로 65.3%가 표준 화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77]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표준 화법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가 70.0%(반드시 필요하다 12.0% + 필요하다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대가 57.2%(반드시 필요하다 11.0% + 필요하다 4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이 67.2%로 미혼(61.2%)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표준 화법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호남권에서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표준 화법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강원권에서 5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이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권이 5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0] 표준 화법의 조사 및 정비 필요성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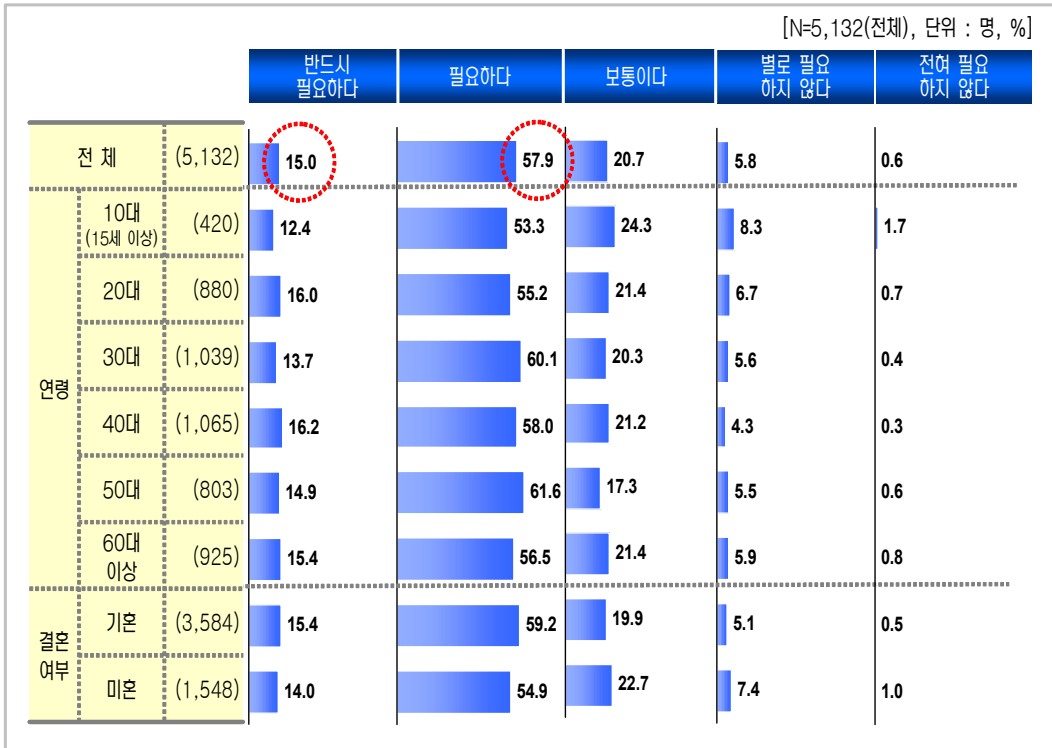
		응답자 수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통계량 (χ^2)
전 체		(5,132)	12.6	52.7	25.5	8.3	0.9	
성별	남성	(2,541)	12.8	51.8	25.5	9.1	0.9	5.229 n.s
	여성	(2,591)	12.4	53.7	25.5	7.5	0.9	
연령	15~19세	(420)	11.0	46.2	31.7	9.3	1.9	55.173 ***
	20대	(880)	13.8	49.7	26.8	8.9	0.9	
	30대	(1,039)	11.1	55.5	25.5	7.3	0.6	
	40대	(1,065)	12.0	58.0	22.5	6.9	0.5	
	50대	(803)	13.3	54.8	22.7	8.0	1.2	
	60대 이상	(925)	13.9	47.7	27.1	10.3	1.0	
결혼 여부	기혼	(3,584)	12.9	54.3	24.3	7.8	0.7	19.843 **
	미혼	(1,548)	12.0	49.2	28.1	9.5	1.3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1.0	56.9	24.4	7.4	0.3	219.29 ***
	충청권	(530)	15.8	51.1	24.0	8.3	0.8	
	강원권	(165)	10.3	41.8	41.8	5.5	0.6	
	영남권	(1,369)	9.1	50.0	27.9	10.6	2.3	
	호남권	(517)	27.1	45.8	19.5	7.4	0.2	
	제주권	(67)	9.0	46.3	32.8	10.4	1.5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1.4	55.6	26.0	6.6	0.4	138.83 ***
	충청권	(721)	13.5	53.1	24.3	8.5	0.7	
	강원권	(256)	9.0	50.0	34.8	5.9	0.4	
	영남권	(1,588)	9.7	51.3	26.8	10.3	2.0	
	호남권	(818)	20.9	51.1	19.6	8.3	0.1	
	제주권	(73)	9.6	46.6	31.5	11.0	1.4	
	기타	(18)	27.8	38.9	22.2	11.1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다.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 화법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15.0%,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로 72.9%가 표준 화법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78]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 필요성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표준 화법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74.4%(반드시 필요하다 14.5% + 필요하다 59.9%)로 남성의 응답 비율 71.3%(반드시 필요하다 15.5% + 필요하다 5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데, 50대에서 76.5%(반드시 필요하다 14.9% + 필요하다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대에서 65.7%(반드시 필요하다 12.4% + 필요하다 5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이 74.6%로 미혼(68.9%)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각각 76.5%,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 6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표준 화법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호남권은 75.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표준 화법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호남권에서 76.6%로 기타 지역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표준 화법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제주권에서 6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1] 표준 화법의 교육 및 홍보 필요성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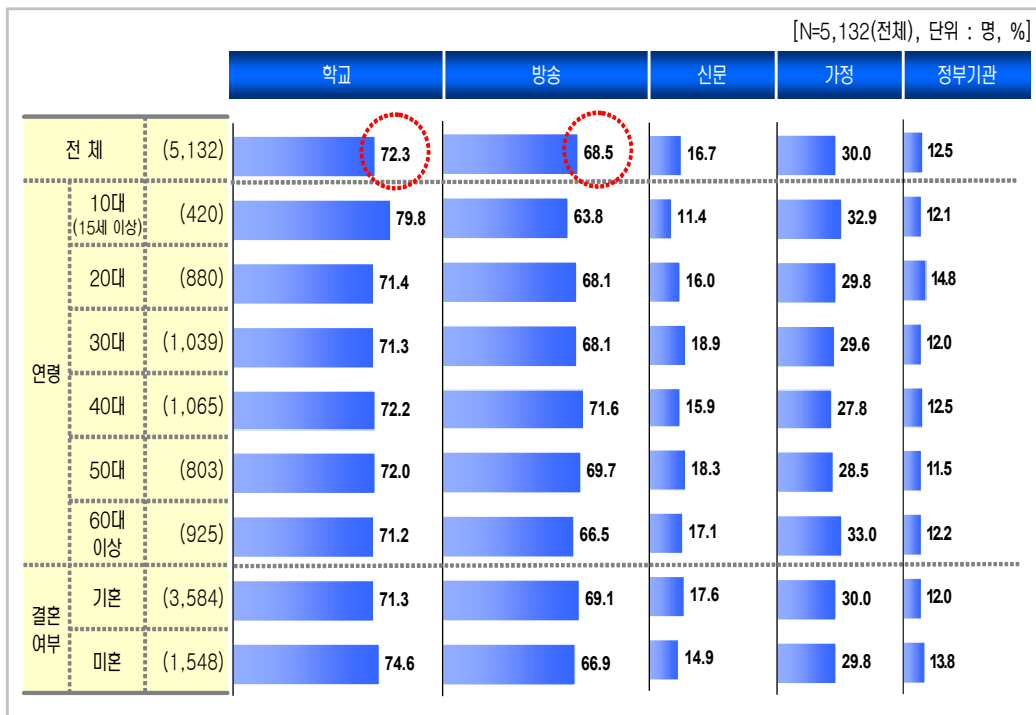
		응답자 수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통계량 (χ^2)
전 체		(5,132)	15.0	57.9	20.7	5.8	0.6	
성별	남성	(2,541)	15.5	55.8	21.3	6.7	0.7	13.32
	여성	(2,591)	14.5	59.9	20.2	4.9	0.5	*
연령	15~19세	(420)	12.4	53.3	24.3	8.3	1.7	38.92 **
	20대	(880)	16.0	55.2	21.4	6.7	0.7	
	30대	(1,039)	13.7	60.1	20.3	5.6	0.4	
	40대	(1,065)	16.2	58.0	21.2	4.3	0.3	
	50대	(803)	14.9	61.6	17.3	5.5	0.6	
	60대 이상	(925)	15.4	56.5	21.4	5.9	0.8	
결혼 여부	기혼	(3,584)	15.4	59.2	19.9	5.1	0.5	23.80
	미혼	(1,548)	14.0	54.9	22.7	7.4	1.0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4.0	62.4	18.8	4.5	0.3	172.40 ***
	충청권	(530)	17.4	59.1	17.7	5.3	0.6	
	강원권	(165)	16.4	46.1	32.7	4.2	0.6	
	영남권	(1,369)	11.0	54.8	24.5	8.3	1.4	
	호남권	(517)	27.7	48.0	18.4	5.8	0.2	
	제주권	(67)	13.4	50.7	25.4	9.0	1.5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3.7	61.2	19.8	4.9	0.4	108.27 ***
	충청권	(721)	15.4	60.5	19.3	4.4	0.4	
	강원권	(256)	13.7	55.9	26.2	3.9	0.4	
	영남권	(1,588)	12.2	56.2	22.5	7.8	1.3	
	호남권	(818)	23.5	53.1	18.3	5.0	0.1	
	제주권	(73)	11.0	52.1	27.4	8.2	1.4	
	기타	(18)	16.7	61.1	11.1	11.1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라. 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 화법을 가르치고 개선하는 일’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2가지 선택)에 대한 응답은 ‘학교’에 대한 응답 비율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송’ 68.5%, ‘가정’ 30.0%, ‘신문’ 16.7%, ‘정부기관’ 1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9] 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



성별로 살펴보면, ‘신문’과 ‘정부기관’은 남성 응답자들에게, ‘학교’, ‘방송’, ‘가정’은 여성 응답자들에게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학교’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에서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송’은 40대에서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문’은 30대에서 18.9%로, ‘가정’은 60대 이상에서 33.0%로, ‘정부기관’은 20대에서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이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송’, ‘신문’, ‘가정’은 기혼에게, ‘학교’, ‘정부기관’은 미혼에게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 8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방송’에 대한 응답 비율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 응답은 기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별 응답과 마찬가지로 강원권에서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2] 표준 화법의 교육기관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자 수	학교	방송	신문	가정	정부기관
전 체		(5,132)	72.3	68.5	16.7	30.0	12.5
성별	남성	(2,541)	71.6	67.4	18.3	29.7	13.0
	여성	(2,591)	73.0	69.5	15.2	30.3	12.1
연령	15~19세	(420)	79.8	63.8	11.4	32.9	12.1
	20대	(880)	71.4	68.1	16.0	29.8	14.8
	30대	(1,039)	71.3	68.1	18.9	29.6	12.0
	40대	(1,065)	72.2	71.6	15.9	27.8	12.5
	50대	(803)	72.0	69.7	18.3	28.5	11.5
	60대 이상	(925)	71.2	66.5	17.1	33.0	12.2
결혼 여부	기혼	(3,584)	71.3	69.1	17.6	30.0	12.0
	미혼	(1,548)	74.6	66.9	14.9	29.8	13.8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68.9	71.4	19.4	26.3	14.0
	충청권	(530)	80.8	70.2	9.8	27.9	11.3
	강원권	(165)	89.1	47.3	4.2	43.0	16.4
	영남권	(1,369)	72.8	70.2	20.3	30.3	6.4
	호남권	(517)	72.3	55.5	6.4	43.9	21.9
	제주권	(67)	79.1	62.7	10.4	35.8	11.9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70.7	69.9	17.2	27.0	15.2
	충청권	(721)	75.2	71.3	15.7	26.9	11.0
	강원권	(256)	83.6	59.8	8.2	30.9	17.6
	영남권	(1,588)	72.2	70.1	20.5	29.8	7.4
	호남권	(818)	70.0	62.8	12.5	37.8	16.9
	제주권	(73)	74.0	68.5	15.1	31.5	11.0
	기타	(18)	44.4	55.6	0.0	72.2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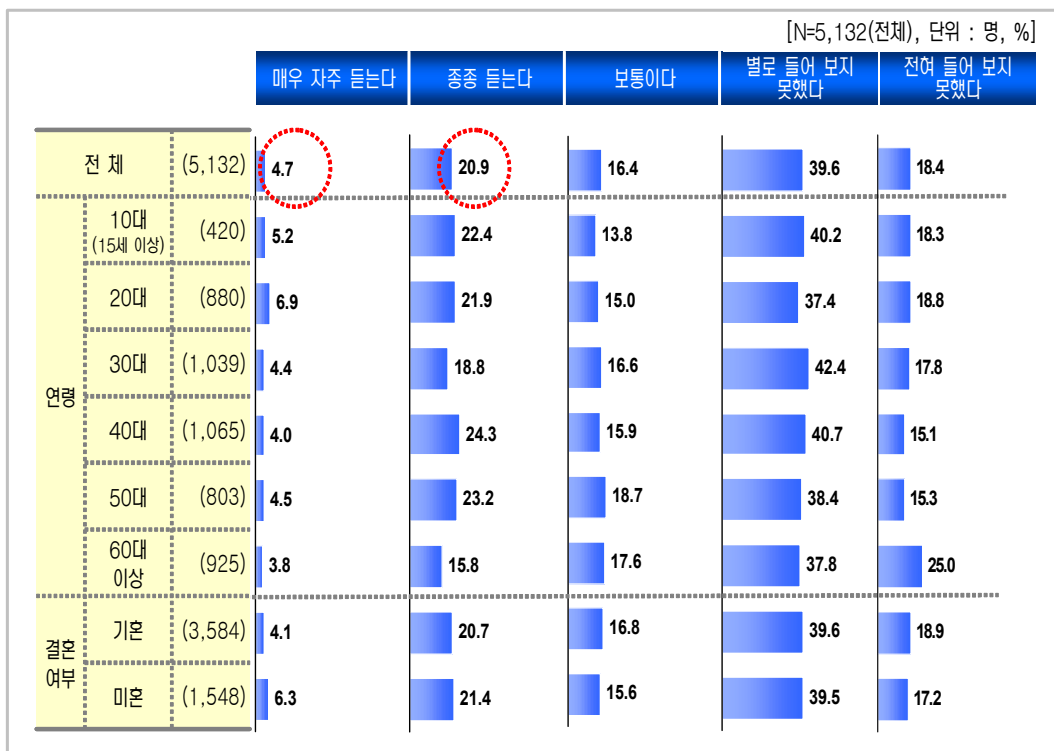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마. 비문법적 표현에 대한 듣기 경험과 수용성

(1) 비문법적 표현에 대한 듣기 경험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라는 말을 4.7%가 ‘매우 자주 듣는다’, 20.9%가 ‘종종 듣는다’라고 응답해 25.6%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0]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에 대한 듣기 경험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라는 표현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듣는) 경우가 26.4% (매우 자주 듣는다 5.5% + 종종 듣는다 20.9%)로 남성의 응답 비율 24.8% (매우 자주 듣는다 3.9% + 종종 듣는다 2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28.8% (매우 자주 듣는다 6.9% + 종종 듣는다 21.9%)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19.6% (매우 자주 듣는다 3.8% + 종종 듣는다 1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이 27.7% (매우 자주 듣는다 6.3% + 종종 듣는다 21.4%)로 기혼 24.8% (매우 자주 듣는다 4.1% + 종종 듣는다 20.7%)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제주권에서 32.8% (매우 자주 듣는다 13.4% + 종종 듣는다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 17.6% (매우 자주 듣는다 5.5% + 종종 듣는다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거주 지역과 동일하게 제주권에서 28.8% (매우 자주 듣는다 9.6% + 종종 듣는다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에서 21.7% (매우 자주 듣는다 3.4% + 종종 듣는다 18.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3] “봉투 값은 오십 원이됩니다.”에 대한 듣기 경험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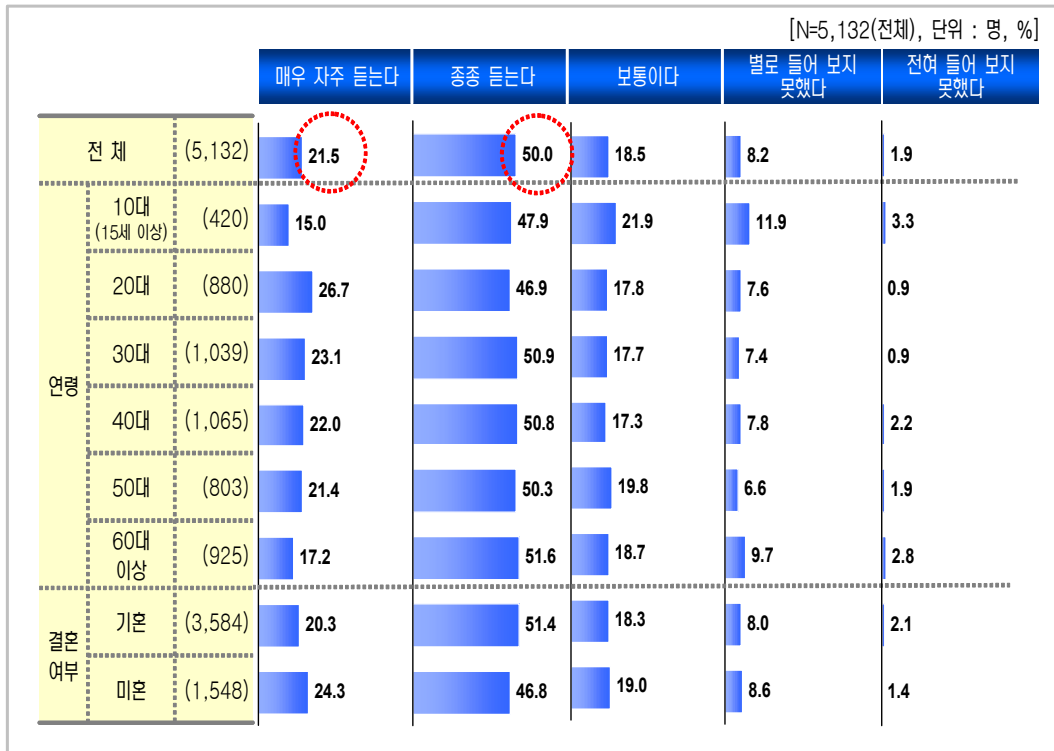
		응답자 수	매우 자주 듣는다	종종 듣는다	보통이다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전혀 들어 보지 못했다	통계량 (χ^2)
전 체		(5,132)	4.7	20.9	16.4	39.6	18.4	
성별	남성	(2,541)	3.9	20.9	17.1	40.6	17.4	11.78
	여성	(2,591)	5.5	20.9	15.8	38.5	19.3	*
연령	15~19세	(420)	5.2	22.4	13.8	40.2	18.3	78.39 ***
	20대	(880)	6.9	21.9	15.0	37.4	18.8	
	30대	(1,039)	4.4	18.8	16.6	42.4	17.8	
	40대	(1,065)	4.0	24.3	15.9	40.7	15.1	
	50대	(803)	4.5	23.2	18.7	38.4	15.3	
	60대 이상	(925)	3.8	15.8	17.6	37.8	25.0	
결혼 여부	기혼	(3,584)	4.1	20.7	16.8	39.6	18.9	13.98
	미혼	(1,548)	6.3	21.4	15.6	39.5	17.2	**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3.7	21.7	15.2	44.6	14.7	195.61 ***
	충청권	(530)	6.8	19.1	15.7	33.0	25.5	
	강원권	(165)	5.5	12.1	9.1	32.1	41.2	
	영남권	(1,369)	5.8	22.6	18.4	37.3	16.0	
	호남권	(517)	3.3	17.6	19.5	32.7	26.9	
	제주권	(67)	13.4	19.4	22.4	22.4	22.4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4.4	22.4	15.1	43.5	14.6	94.13 ***
	충청권	(721)	5.0	20.0	16.6	36.2	22.2	
	강원권	(256)	4.7	19.1	11.3	34.4	30.5	
	영남권	(1,588)	5.4	21.5	17.6	39.4	16.0	
	호남권	(818)	3.4	18.3	17.4	37.4	23.5	
	제주권	(73)	9.6	19.2	23.3	31.5	16.4	
	기타	(18)	5.6	16.7	27.8	27.8	22.2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한편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표현은 21.5%가 ‘매우 자주 듣는다’, 50.0%가 ‘종종 듣는다’라고 응답해 71.5%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1]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한 듣기 경험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표현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듣는) 경우가 72.3% (매우 자주 듣는다 20.7% + 종종 듣는다 51.6%)로 여성의 응답 비율 70.6%(매우 자주 듣는다 22.2% + 종종 듣는다 4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74.0%(매우 자주 듣는다 23.1% + 종종 듣는다 50.9%)로 가장 높았고, 10대에서 62.9%(매우 자주 듣는다 15.0% + 종종 듣는다 4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기혼이 71.7%(매우 자주 듣는다 20.3% + 종종 듣는다 51.4%)로 미혼 71.1%(매우 자주 듣는다 24.3% + 종종 듣는다 46.8%)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에서 85.3%(매우 자주 듣는다 36.8% + 종종 듣는다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 57.6%(매우 자주 듣는다 14.3% + 종종 듣는다 4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거주 지역과 동일하게 호남권에서 80.1%(매우 자주 듣는다 30.8% + 종종 듣는다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 60.6%(매우 자주 듣는다 14.8% + 종종 듣는다 4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4]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한 듣기 경험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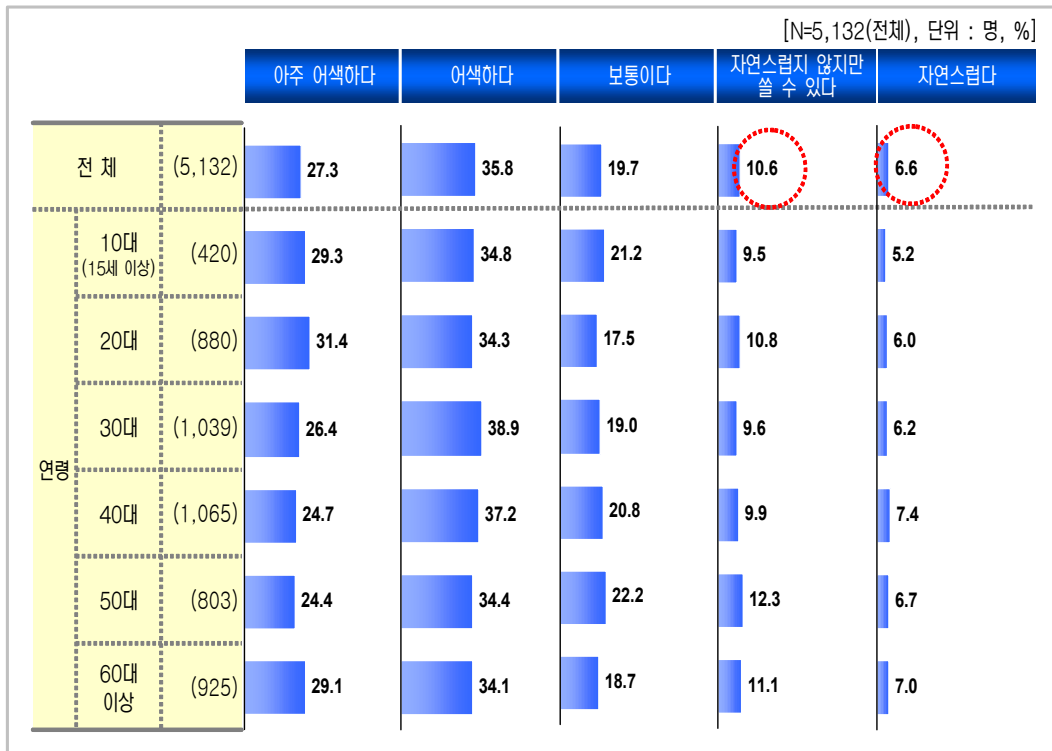
		응답자 수	매우 자주 듣는다	종종 듣는다	보통이다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전혀 들어 보지 못했다	통계량 (χ^2)
전 체		(5,132)	21.5	50.0	18.5	8.2	1.9	
성별	남성	(2,541)	20.7	51.6	17.6	8.5	1.5	9.65 *
	여성	(2,591)	22.2	48.4	19.4	7.8	2.2	
연령	15~19세	(420)	15.0	47.9	21.9	11.9	3.3	69.70 ***
	20대	(880)	26.7	46.9	17.8	7.6	0.9	
	30대	(1,039)	23.1	50.9	17.7	7.4	0.9	
	40대	(1,065)	22.0	50.8	17.3	7.8	2.2	
	50대	(803)	21.4	50.3	19.8	6.6	1.9	
	60대 이상	(925)	17.2	51.6	18.7	9.7	2.8	
결혼 여부	기혼	(3,584)	20.3	51.4	18.3	8.0	2.1	16.32 **
	미혼	(1,548)	24.3	46.8	19.0	8.6	1.4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9.8	55.2	17.4	7.2	0.5	413.72 ***
	충청권	(530)	32.5	46.0	15.3	6.0	0.2	
	강원권	(165)	21.8	50.3	23.6	4.2	0.0	
	영남권	(1,369)	14.3	43.3	23.4	13.4	5.6	
	호남권	(517)	36.8	48.5	11.2	3.1	0.4	
	제주권	(67)	25.4	35.8	29.9	6.0	3.0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20.9	54.3	16.9	7.1	0.8	285.44 ***
	충청권	(721)	27.2	49.8	15.4	7.5	0.1	
	강원권	(256)	18.4	56.3	20.7	4.7	0.0	
	영남권	(1,588)	14.8	45.8	22.7	11.9	4.8	
	호남권	(818)	30.8	49.3	14.5	5.0	0.4	
	제주권	(73)	27.4	35.6	27.4	6.8	2.7	
	기타	(18)	33.3	33.3	22.2	11.1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비문법적 표현에 대한 수용성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수용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에 대해 10.6%가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6.6%가 ‘자연스럽다’라고 응답해 17.2% 정도가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2]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에 대한 수용성



“봉투 값은 오십 원입니다.”에 대한 수용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 연령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19.3%(‘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11.3% + ‘자연스럽다’ 8.0%)가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14.9%(‘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9.8% + ‘자연스럽다’ 5.1%)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 19.0%(‘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12.3% + ‘자연스럽다’ 6.7%)로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에서 14.7%(‘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9.5% + ‘자연스럽다’ 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권이 37.3%(‘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17.9% + ‘자연스럽다’ 19.4%)로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는 수용성이 7.2%(‘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4.8% + ‘자연스럽다’ 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유사하게 제주권이 34.3%(‘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19.2% + ‘자연스럽다’ 15.1%)로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을 제외한 강원권에서 12.1%(‘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7.4% + ‘자연스럽다’ 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5]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에 대한 수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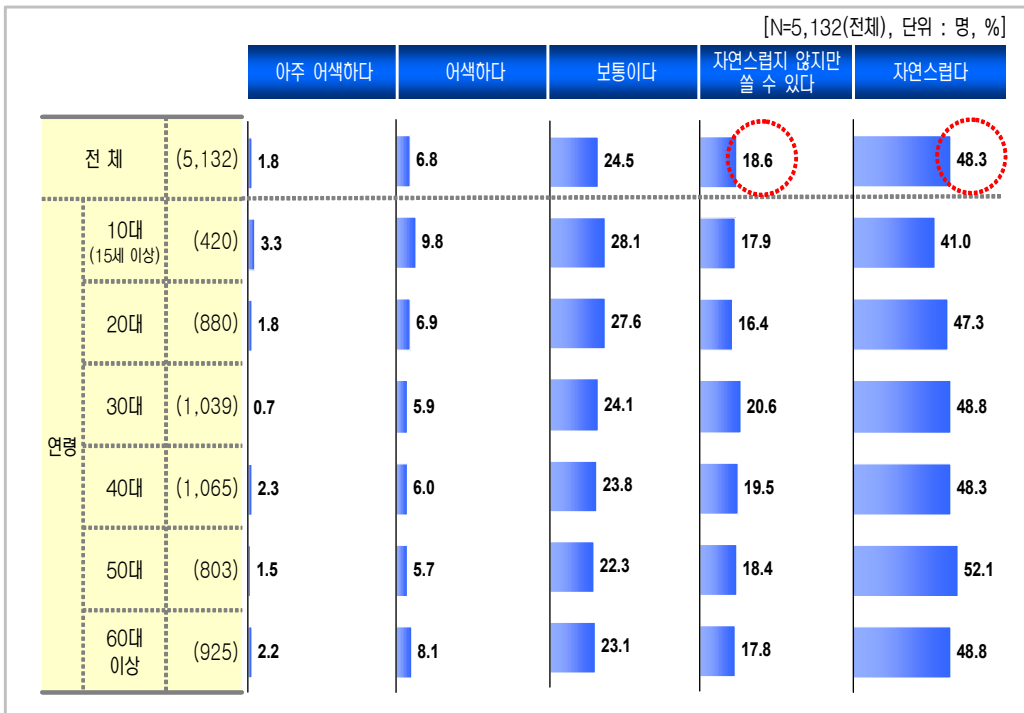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자 수	아주 어색하다	어색하다	보통이다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자연스럽다	통계량 (χ^2)
전 체		(5,132)	27.3	35.8	19.7	10.6	6.6	
성별	남성	(2,541)	26.8	37.5	20.8	9.8	5.1	27.13
	여성	(2,591)	27.8	34.2	18.7	11.3	8.0	***
연령	15~19세	(420)	29.3	34.8	21.2	9.5	5.2	32.03 *
	20대	(880)	31.4	34.3	17.5	10.8	6.0	
	30대	(1,039)	26.4	38.9	19.0	9.6	6.2	
	40대	(1,065)	24.7	37.2	20.8	9.9	7.4	
	50대	(803)	24.4	34.4	22.2	12.3	6.7	
	60대 이상	(925)	29.1	34.1	18.7	11.1	7.0	
결혼 여부	기혼	(3,584)	26.3	36.2	19.9	10.8	6.8	5.88
	미혼	(1,548)	29.5	35.0	19.3	10.0	6.1	n.s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23.8	42.3	18.2	10.9	4.9	261.90 ***
	충청권	(530)	39.4	27.5	20.0	9.6	3.4	
	강원권	(165)	50.3	33.9	8.5	4.8	2.4	
	영남권	(1,369)	28.8	28.9	20.7	11.3	10.3	
	호남권	(517)	20.5	34.6	28.6	8.7	7.5	
	제주권	(67)	28.4	17.9	16.4	17.9	19.4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25.5	40.1	18.5	10.5	5.4	116.46 ***
	충청권	(721)	32.6	33.1	20.2	11.0	3.1	
	강원권	(256)	36.3	37.1	14.5	7.4	4.7	
	영남권	(1,588)	28.0	32.1	19.8	10.7	9.4	
	호남권	(818)	22.6	37.5	22.9	10.5	6.5	
	제주권	(73)	23.3	23.3	19.2	19.2	15.1	
	기타	(18)	22.2	33.3	44.4	0.0	0.0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한편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해 18.6%가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48.3%가 ‘자연스럽다’라고 응답해 66.9% 정도가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3]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한 수용성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한 수용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 70.5%(‘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18.4% + ‘자연스럽다’ 52.1%)로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에서 58.9%(‘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17.9% + ‘자연스럽다’ 4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78.2%(‘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15.5% + ‘자연스럽다’ 62.7%)로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는 수용성이 55.3%(‘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7.5% + ‘자연스럽다’ 4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거주 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이 75.4%(‘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17.5% + ‘자연스럽다’ 57.9%)로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 제주권이 58.9%(‘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8.2% + ‘자연스럽다’ 5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6]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한 수용성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자 수	아주 어색하다	어색하다	보통이다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자연스럽다	통계량 (χ^2)
전 체		(5,132)	1.8	6.8	24.5	18.6	48.3	
성별	남성	(2,541)	1.7	6.8	25.4	18.5	47.6	3.07 n.s
	여성	(2,591)	2.0	6.8	23.6	18.7	48.9	
연령	15~19세	(420)	3.3	9.8	28.1	17.9	41.0	47.93 ***
	20대	(880)	1.8	6.9	27.6	16.4	47.3	
	30대	(1,039)	0.7	5.9	24.1	20.6	48.8	
	40대	(1,065)	2.3	6.0	23.8	19.5	48.3	
	50대	(803)	1.5	5.7	22.3	18.4	52.1	
	60대 이상	(925)	2.2	8.1	23.1	17.8	48.8	
결혼 여부	기혼	(3,584)	1.8	6.6	23.6	18.6	49.4	7.61 n.s
	미혼	(1,548)	1.9	7.2	26.6	18.5	45.7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1	5.7	23.7	20.5	49.0	290.76 ***
	충청권	(530)	1.1	4.2	24.3	10.0	60.4	
	강원권	(165)	3.0	4.2	18.2	8.5	66.1	
	영남권	(1,369)	3.9	11.6	28.4	21.4	34.7	
	호남권	(517)	0.4	2.9	18.6	15.5	62.7	
	제주권	(67)	1.5	6.0	37.3	7.5	47.8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5	5.6	23.7	20.1	49.1	178.39 ***
	충청권	(721)	0.7	4.7	24.8	14.4	55.3	
	강원권	(256)	1.6	7.4	21.5	16.0	53.5	
	영남권	(1,588)	3.3	10.4	27.5	20.4	38.5	
	호남권	(818)	0.9	3.7	20.0	17.5	57.9	
	제주권	(73)	1.4	4.1	35.6	8.2	50.7	
	기타	(18)	0.0	22.2	27.8	16.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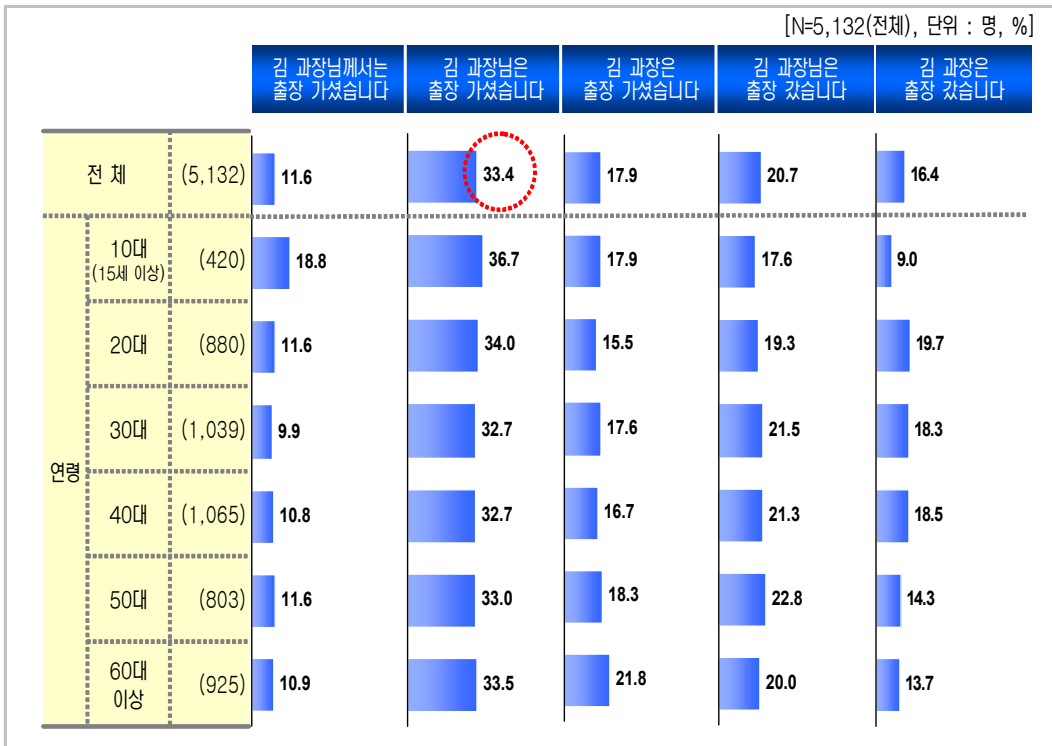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바. 압존법에 대한 인식

(1) 평직원이 사장에게 과장에 대해 말할 때

직장에서 평직원이 사장에게 과장에 대해 말할 때의 표현법을 조사한 결과 압존법에 맞게 표현한 ‘김 과장은 출장 갔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16.4%로 나타났다. ‘김 과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 과장님은 출장 갔습니다’ 20.7%, ‘김 과장은 출장 가셨습니다’ 17.9%, ‘김 과장님께서는 출장 가셨습니다’ 11.6%의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84] 평직원이 사장에게 과장에 대해 말할 때



직장에서의 압존법의 인식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 연령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압존법에 맞는 ‘김 과장은 출장 갔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이 20.0%로 여성(1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김 과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이 36.6%로 남성(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압존법에 맞는 ‘김 과장은 출장 갔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에서 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김 과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압존법에 맞는 ‘김 과장은 출장 갔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강원권에서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과 제주권에서는 각각 10.3%, 10.4%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김 과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압존법에 맞는 ‘김 과장은 출장 갔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에서 20.0%, 강원권에서 19.9%의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는 9.6%의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김 과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주권에서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7] 평직원이 사장에게 과장에 대해 말할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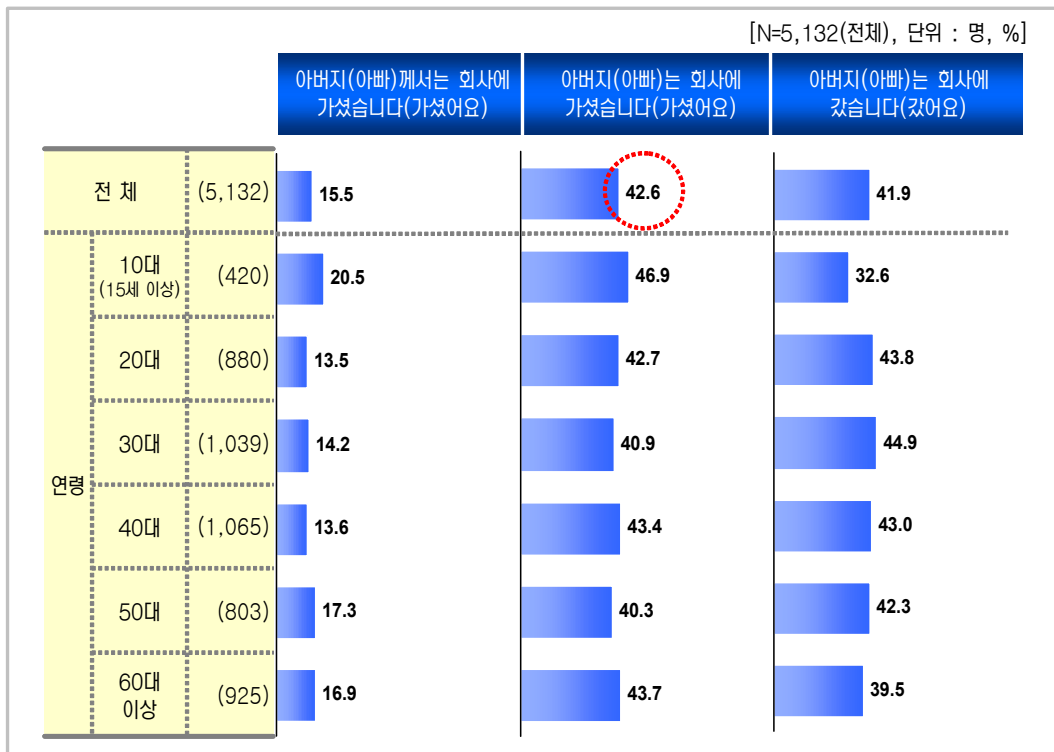
		응답자 수	김 과장님 께서는 출장 가셨습니다	김 과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	김 과장은 출장 가셨습니다	김 과장님은 출장 갔습니다	김 과장은 출장 갔습니다	통계량 (χ^2)
전 체		(5,132)	11.6	33.4	17.9	20.7	16.4	
성별	남성	(2,541)	10.7	30.2	18.2	20.9	20.0	60.62
	여성	(2,591)	12.4	36.6	17.7	20.5	12.8	***
연령	15~19세	(420)	18.8	36.7	17.9	17.6	9.0	72.05 ***
	20대	(880)	11.6	34.0	15.5	19.3	19.7	
	30대	(1,039)	9.9	32.7	17.6	21.5	18.3	
	40대	(1,065)	10.8	32.7	16.7	21.3	18.5	
	50대	(803)	11.6	33.0	18.3	22.8	14.3	
	60대 이상	(925)	10.9	33.5	21.8	20.0	13.7	
결혼 여부	기혼	(3,584)	10.9	33.5	18.4	21.3	15.9	9.34
	미혼	(1,548)	13.0	33.3	16.9	19.3	17.4	n.s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1.2	38.1	16.6	17.8	16.4	201.21 ***
	충청권	(530)	14.3	32.3	13.2	20.2	20.0	
	강원권	(165)	12.1	32.7	13.3	17.6	24.2	
	영남권	(1,369)	8.7	24.4	23.2	27.2	16.6	
	호남권	(517)	15.3	35.4	18.6	20.5	10.3	
	제주권	(67)	32.8	40.3	6.0	10.4	10.4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1.3	38.8	16.5	17.2	16.2	174.18 ***
	충청권	(721)	13.6	33.0	14.6	18.9	20.0	
	강원권	(256)	11.7	33.6	17.2	17.6	19.9	
	영남권	(1,588)	9.3	25.6	21.5	26.4	17.3	
	호남권	(818)	13.1	37.9	18.0	19.6	11.5	
	제주권	(73)	28.8	42.5	4.1	15.1	9.6	
	기타	(18)	11.1	11.1	33.3	33.3	11.1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2)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가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의 표현법을 조사한 결과 압존법에 맞게 표현한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갔습니다(갔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41.9%로 나타났다.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가셨습니다(가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아빠)께서는 회사에 가셨습니다’는 15.5%의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85]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가정에서의 압존법의 인식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 연령 / 거주 지역 /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압존법에 맞는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갔습니다(갔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이 44.8%로 여성(39.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가셨습니다(가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이 44.9%로 남성(4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압존법에 맞는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갔습니다(갔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30대에서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에서는 3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가셨습니다(가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에서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압존법에 맞는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갔습니다(갔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제주권에서는 각각 35.5%, 35.8%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가셨습니다(가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별로는 압존법에 맞는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갔습니다(갔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영남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을 제외한 제주권과 수도권에서 각각 35.6%, 35.8%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가셨습니다(가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8]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N = 5,132(전체), 단위 : 명, %]

		응답자 수	아버지(아빠) 께서는 회사에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아버지(아빠) 는 회사에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아버지(아빠) 는 회사에 갔습니다 (갔어요)	통계량 (χ^2)
전 체		(5,132)	15.5	42.6	41.9	
성별	남성	(2,541)	14.9	40.3	44.8	17.70 ***
	여성	(2,591)	16.0	44.9	39.1	
연령	15~19세	(420)	20.5	46.9	32.6	32.33 ***
	20대	(880)	13.5	42.7	43.8	
	30대	(1,039)	14.2	40.9	44.9	
	40대	(1,065)	13.6	43.4	43.0	
	50대	(803)	17.3	40.3	42.3	
	60대 이상	(925)	16.9	43.7	39.5	
결혼 여부	기혼	(3,584)	15.7	42.4	41.9	0.45 n.s
	미혼	(1,548)	15.0	43.2	41.9	
거주 지역	수도권	(2,484)	16.2	48.3	35.5	172.91 ***
	충청권	(530)	17.9	39.1	43.0	
	강원권	(165)	14.5	39.4	46.1	
	영남권	(1,369)	9.9	36.4	53.7	
	호남권	(517)	21.5	38.9	39.7	
	제주권	(67)	37.3	26.9	35.8	
출신 지역	수도권	(1,658)	15.0	49.2	35.8	149.32 **
	충청권	(721)	20.0	40.5	39.5	
	강원권	(256)	12.9	42.6	44.5	
	영남권	(1,588)	10.8	37.5	51.7	
	호남권	(818)	20.4	42.1	37.5	
	제주권	(73)	31.5	32.9	35.6	
	기타	(18)	33.3	38.9	27.8	

※ n.s=non-significance, *p<0.05, **p<0.01, ***p<0.001

사. 기타 의견

표준 화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데, 존칭어 사용이 어렵다는 점, 표준 화법이 일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호칭하기 어렵다는 점, 적절한 인사말이 없어 어렵다는 점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양한 의견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9] 표준 화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

[단위 : 명, %, 중복응답]

	응답자 수	빈도
전체	679	100.0
존칭어 사용 시 어려움이 많음	223	32.8
표준 화법이 일상화되어 있지 못함	109	16.1
호칭에 어려움이 많음	81	11.9
적절한 인사말을 찾기 어려움	71	10.5
표준 화법 교육이 필요함	57	8.4
돌아가신 가족에게 건네는 말이 어려움	31	4.6
지칭할 때 헛갈리는 경우가 많음	24	3.5
젊은 세대의 언어 표현에 문제가 많음	15	2.2
존댓말 표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13	1.9
친족 소개 시 명칭 사용이 난해함	11	1.6
다른 지방 사람과 대화 중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이 있음	11	1.6
우리나라 말 예절이 어려움	10	1.5
경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8	1.2
외래어를 써서 우리말이 어색할 때가 있음	7	1.0
윗사람에게 말할 때 높임말 사용이 어려움	7	1.0
한글 맞춤법 표기가 어려움	6	0.9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가정에서 쓰는 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방송이 필요	5	0.7
젊은 세대의 경우 호칭을 잘 모르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4	0.6
나이 많으신 어른을 만났을 때 어려움	3	0.4
호칭을 할 때 제주도 사투리가 어색한 경우가 있음	2	0.3
물건에 존칭을 쓸 때가 있음	1	0.1
회사 생활에서 전화 인사법이 어려움	1	0.1
경조사에 사용하는 화법이 어려움	1	0.1
두음법칙으로 인한 발음 표기가 어려움	1	0.1
억양에 따라 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양에 조심해서 사용	1	0.1
위로할 때의 말이 어려움	1	0.1
외국인들이 물어볼 때 고민이 됨	1	0.1
아랫사람에게 예의가 없는 말을 자주 들을 때가 있음	1	0.1
비효율적인 호칭 방법 개선(예를 들어 서양식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음)	1	0.1

제3장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1992년 발간된 <표준 화법 해설>에서 규정한 내용과 관련된 화법 실태가 어떠한지, 최근 화법 사용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9년에 수도권 지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표준 화법을 설정하기 위해 16개 시·도에서 15세 이상 남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준 화법 실태 전반을 조사하였으며,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화법 실태와 표준 화법 규정으로 보아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준 화법 점검을 위한 기초 설문을 만들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설문지를 조정하고,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녀 일반인을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변인을 고려한 비례할당추출법을 활용하여 1:1 개별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통계 검증을 통하여 성별 / 연령별 / 결혼 여부별 / 거주 지역별 / 출신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의 표준 화법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민이 31.9%나 되었다. 특히 50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33.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실제 화법에서 상황맥락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지만, 화자나 청자가 이들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표준 화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5.3%로 다수의 인원이 표준 화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그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반면, 10대에서는 그 필요를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인사말, 호칭 및 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에서 일반 국민들의 전체 응답 비율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10대들이 표준 화법 교육의 필요를 덜 느끼는 반면, 10대의 부모 세대인 40대와 50대는 그 필요를 더 느끼고 있어 표준 화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알리고 그 체계를 정립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 규정을 정하고, 학교나 방송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72.9%의 응답자들이 국가 차원의 표준 화법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일상 언어생활 개선을 위해 화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조사와 연구, 학교와 방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1세기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를 반영하면서도 국민 모두가 합리성을 인정하는 표준 화법 체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차원의 전국적 화법 실태와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21세기 한국 현대 표준 화법' 규정을 만들고, 학교와 방송 등 공공 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가르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간편하고 미래 지향적인 표준 화법 설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가. 인사말

(1) 집안에서 인사말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 ① 집안에서 아침에 아버지에게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20.0%(10대의 경우 41.7%)이고, 어머니에게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20.1%(10대의 경우 41.7%)로 나타났다.

(2) '해요'체와 '해'체가 '합쇼'체와 '해라'체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 ① 집안에서 아침에 아버지에게 하는 인사말은 37.5%가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를 쓰는 반면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를 쓰는 경우는 18.5%에 불과했다. 이런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 나타났으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합쇼'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지는데 10대의 경우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이 8.1%, 20대는 11.8%로 나타났다.
- ②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은 34.4%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쓰는 반면 29.9%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에서 아침에 아버지에게 하는 인사말과 동일하게 연령이 낮아질수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10대 48.1%, 20대 46.7%, 30대 34.6%, 40대 30.4%, 50대 27.9%, 60대 이상 26.4%)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10대 26.4%, 20대 26.1%, 30대 30.5%, 40대 30.0%, 50대 31.8%, 60대 이상 32.8%)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어머니에게 하는 아침 인사말에는 2.0%가 '잘 잤어?'라는 반말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 ④ 하교(퇴근)후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에는 6.7%가 '나 왔어'라는 반말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15.2%, 20대의 경우는 14.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나' 중심 표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 ① 집안에서 아침에 어머니께 2.6%가 '저 일어났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10대의 경우 6.2%), 아버지께는 1.7%(10대의 경우 5.0%)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② 하교(퇴근)후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로 9.2%가 '나(저) 왔어요'(30대의 경우 10.1%)를, 6.7%가 '나 왔어'(10대의 경우 15.2%)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에서는 32.1%가 '내일 뵙겠습니다'를, 25.8%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를, 17.5%가 '먼저 (나)가겠습니다'를 사용하고, 9.9%가 '수고하십시오'를, '6.4%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명사형 인사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①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안녕?'에 대한 응답 비율이 17.6%(10대 44.5%, 20대 22.6%, 30대 16.8%, 40대 13.7%, 50대 14.4%, 60대 이상 8.9%)로 나타났다. '좋은 아침!'에 대한 응답 비율은 13.3%(10대 10.5%, 20대 12.2%, 30대 16.7%, 40대 14.7%, 50대 13.1%, 60대 이상 10.3%)로 나타났다.

(5) 여성이 남성보다 변화에 민감하다.

- ①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로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성은 18.6%, 여성은 13.9%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남성이 19.4%, 여성이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로 반말체인 '다녀올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성 2.5%, 여성 4.0%로 나타났으며, '갔다 올게'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 4.0%, 여성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성 33.5%, 여성 26.4%로 나타났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 30.2%, 여성 38.5%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④ 회갑(칠순)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로 '만수무강하십시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성 19.7%, 여성 12.0%로 나타났으며, '(생신) 축하드려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 5.0%, 여성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자신의 성씨를 소개하는 말로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

이 남성 20.8%, 여성 15.9%로 나타났으며, ‘(저는) 김씨입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 27.9%, 여성 33.8%로 나타났다.

(6) 수도권 거주자는 부모와의 인사말에서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며, 특별히 인사말을 하지 않는 비중이 낮은 경향이 있다.

①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로 수도권 거주자는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를 41.9%가 사용해 전체 값(37.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은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를 39.8%가 사용해 전체 값(3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로 ‘다녀올게요’를 30.7%가 사용해 전체 값(26.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교(퇴근)후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은 ‘다녀왔어요’를 34.1%가 사용해 전체 값(28.7%)보다 높게 나타났다.

② 아침에 아버지께 특별히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수도권 거주자는 15.2%로 전체 값(20.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께 특별히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는 수도권 거주자는 15.3%로 전체 값(20.1%)보다 낮게 나타났다.

(7) 강원권 거주자는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부모와의 인사말에서 반말체를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①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로 강원권 거주자는 ‘잘 잤어?’를 2.4%가 사용해 전체 값(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은 ‘잘 잤어?’를 4.2%가 사용해 전체 값(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로 ‘갔다 올게’를 9.1%가 사용해 전체 값(5.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교(퇴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로 ‘나왔어’를 10.9%가 사용해 전체 값(6.7%)보다 높게 나타났다.

(8) 새해 인사말의 경우 건강과 관련된 인사말의 비중이 줄고 복과 관련된 인사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①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로 34.4%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9.9%가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사용하는 반면, 21.1%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를, 13.6%가 '건강하세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직장 윗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로 58.0%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사용하는 반면, 13.0%가 '건강하세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로 44.6%가 '새해 복 많이 받아요'를 사용하는 반면, 9.3%가 '건강하세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다음과 같은 말들은 사회적 인사말로 많이 사용된다.

① 헤어질 때 : '들어가세요'

-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로 '들어가세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27.3%(10대 12.1%, 20대 22.0%, 30대 31.6%, 40대 30.4%, 50대 29.4%, 60대 이상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25.8%(10대 16.4%, 20대 25.2%, 30대 30.6%, 40대 27.3%, 50대 23.5%, 60대 이상 25.4%)로 나타났다.

② 윗사람에게 : '고생하다', '수고하다' 등

- 직장 윗사람에게 연말연시에 하는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17.4%(10대 8.6%, 20대 16.3%, 30대 19.2%, 40대 17.4%, 50대 20.7%, 60대 이상 17.5%)로 나타났다.

-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수고하십시오'에 대한 응답 비율이 9.9%(10대 11.4%, 20대 11.1%, 30대 10.0%, 40대 8.5%, 50대 9.5%, 60대 이상 9.8%)로 나타났으며, '고생하십시오'에 대한 응답 비율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정에서의 호칭 · 지칭어

[세대 간 호칭 · 지칭어의 특징 비교]

(1) 연령이 낮을수록 친근감이 있는 호칭을 선호한다.

- ①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에 대한 응답 비율은 66.7%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9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87.0%), 30대(75.3%), 40대(66.9%), 50대(54.0%), 60대 이상(35.9%) 순으로 나타났다.
- ②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에 대한 응답 비율은 32.7%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9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71.8%), 30대(39.7%), 40대(15.7%), 50대(6.6%), 60대 이상(4.0%) 순으로 나타났다.
- ③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은미(야)(며느리 이름)’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5%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2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14.3%), 40대(10.2%), 50대(9.9%), 60대 이상(7.3%) 순으로 나타났다.
- ④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오빠’에 대한 응답 비율은 7.3%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3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17.2%), 40대(5.7%), 60대 이상(2.8%), 50대(1.8%) 순으로 나타났다.
- 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자기’에 대한 응답 비율은 12.3%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2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20.5%), 40대(13.1%), 50대(10.4%), 60대 이상(5.3%) 순으로 나타났다.
- ⑥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43.9%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7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53.2%), 40대(44.4%), 50대(42.9%), 60대 이상(34.2%) 순으로 나타났다.
- ⑦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우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은 34.4%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4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42.8%), 40대(36.8%), 50대(29.0%), 60대 이상(28.5%) 순으로 나타났다.

- ⑧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우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은 24.6%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4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33.9%), 40대(26.2%), 50대(22.7%), 60대 이상(15.4%) 순으로 나타났다.

(2)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호칭하는 경향이 강하다.

- ①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영희(야)’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4%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2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20.5%), 40대(12.2%), 50대(5.2%), 60대 이상(3.0%) 순으로 나타났다.
- ②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김)영희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19.6%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4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27.9%), 30대(22.2%), 40대(17.6%), 50대(12.6%), 60대 이상(4.0%) 순으로 나타났다.
- ③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43.8%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6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66.0%), 30대(56.4%), 40대(42.4%), 50대(31.5%), 60대 이상(15.7%)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호칭 · 지칭어의 특징 비교]

(1) 남성은 격식을 갖춘 호칭을, 여성은 친근감이 있는 호칭을 선호한다.

- ① 나의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비율은 여성이 78.0%, 남성이 55.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비율은 남성이 38.7%, 여성이 20.3%로 나타났다.
- ②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비율은 남성이 66.5%, 여성이 58.0%로

나타났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비율은 여성이 39.8%, 남성이 25.6%로 나타났다.

(2) 남성보다 여성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① 혼인한 딸을 ‘영희(야)’라고 부르는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이 34.8%, 남성이 30.7%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74.3%, 남성이 73.7%로 나타났다.
- ② 시부모가 며느리를 ‘은미(야)’라고 부르는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이 11.2%, 남성이 9.6%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17.5%, 남성이 15.1%로 나타났다.

(3) 20대, 30대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경향이 있다.

- ① 남편이 아내를 ‘영희(야)’라고 부르는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 20대 남편 28.1%, 30대 남편 20.5%로 40대(12.2%), 50대(5.2%), 60대 이상(3.0%)보다 아내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20대 남편 28.1%, 30대 남편 32.4%로 40대(21.3%), 50대(7.2%), 60대 이상(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 내의 여성의 위치나 관계 변화를 알 수 있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매부’가 대세이고, ‘매형’과 ‘자형’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10년 조사에 의하면, ‘매부’에 대한 응답 비율이 4.8%에 그친 것에 비해, ‘매형’에 대한 응답 비율은 74.3%, ‘자형’은 14.8%로 나타났다.
- ② 손위(손아래) 처남 부인을 부를 때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는 손위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를 ‘아주머니’로, 손아래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를 ‘처남의 닻’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손위 처남의 부인에 대한 응답 결과 ‘아주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은 17.7%인 반면, ‘처남의 닻’에 대한 응답 비율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손아래 처남의 부인에 대한 응답은 ‘처남의 닻’이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수’에 대한 응

답 비율이 14.2%(20대에서 21.9%로 가장 높음)로 나타났다.

[지역 간 호칭 · 지칭어의 특징 비교]

(1)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호칭 · 지칭어가 있다.

- ①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길동) 아범아’의 경우 수도권에서 35.8%의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호남권, 제주권에서는 10% 중반 이하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길동) 아비(애비)야’의 경우 제주권에서 2.3%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철수(야)’의 경우 영남권에서 43.1%의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에서 10% 중반 이하의 비율로 나타났다. ‘(길동) 아빠(야)’의 경우 제주권에서 48.8%의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 ② 혼인한 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영희야’의 경우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각각 55.4%, 44.4%의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19.8%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영수) 엄마(야)’의 경우에는 제주권에서 51.2%의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영수) 어멈아’의 경우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각각 8.7%, 7.5%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으며, ‘(영수) 어미야’의 경우 제주권에서 4.7%의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 ③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길동) 어미(야)’의 경우 수도권(41.7%)과 충청권(44.5%), 영남권(34.4%), 호남권(39.2%)에서 높게 나타났고, ‘(길동) 어멈(야)’의 경우 강원권(40.5%), 제주권(32.6%)에서 높게 나타났다.
- ④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새)아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권에서는 ‘은미(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주권에서 ‘어멈(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16.3%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는 ‘은미(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25.3%, 호남권에서는 ‘애(야)’에 대한 응답 비율이 20.7%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수도권 거주자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비율이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①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철수(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수도권에서는 13.0%로 전체 값(23.6%)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철수(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52.7%로 전체 값(64.7%)보다 낮게 나타났다.

② 혼인한 딸을 부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영희(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수도권에서는 19.8%로 전체 값(32.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영희(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62.9%로 전체 값(74.0%)보다 낮게 나타났다.

③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은미(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수도권에서는 6.1%로 전체 값(10.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은미(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12.1%로 전체 값(16.4%)보다 낮게 나타났다.

(3) 영남권 거주자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비율이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①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철수(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영남권에서는 43.1%로 전체 값(23.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철수(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83.2%로 전체 값(64.7%)보다 높게 나타났다.

② 혼인한 딸을 부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영희(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영남권에서는 55.4%로 전체 값(32.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영희(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89.3%로 전체 값(74.0%)보다 높게 나타났다.

③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은미(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영남권에서는 21.1%로 전체 값(1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은미(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25.3%로 전체 값(16.4%)보다 높게 나타났다.

- (4) 출신 지역은 거주 지역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며, 거주 지역보다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①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등은 출신 지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회에서의 호칭 · 지칭어

[세대 간 호칭 · 지칭어의 특징 비교]

- (1) 윗세대일수록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호칭 · 지칭어가 있다.
- ①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에서는 그 응답 비율이 60.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미스터 김(미스 김)'에 대한 응답 비율이 9.4%, '김 군(김 양)'에 대한 응답 비율이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②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에서는 그 응답 비율이 4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아주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18.1%, '길동 어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연령대별로 사용 비율이 증가 및 감소하는 호칭 · 지칭어가 있다.
- ①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43.8%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5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0대(53.1%), 30대(48.0%), 40대(40.3%), 50대(37.1%), 60대 이상(33.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장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15.9%로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에서 그 응답 비율이 1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0대(18.4%), 40대(17.7%), 30대(15.3%), 20대(13.6%), 10대(6.2%) 순으로 나타났다.

- ②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32.9%로 나타났으며, 1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4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43.3%), 30대(35.0%), 40대(27.6%), 50대(26.3%), 60대 이상(26.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은 19.3%로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에서 그 응답 비율이 3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0대(26.0%), 40대(22.5%), 30대(14.5%), 20대(9.1%), 10대(7.1%) 순으로 나타났다.
- ③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는 '손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51.0%로 나타났는데, 10대에서 그 응답 비율이 61.0%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장님(사모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19.6%로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에서 23.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세대별로 차이가 없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백화점 등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각 세대의 사용 빈도가 모두 '고객님', '손님', '언니(오빠)'의 순서로 세대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② 백화점 등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에도, 각 세대의 사용 빈도가 모두 '고객님', '손님', '사장님'의 순서로 세대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4) 연령대가 낮을수록 식당 및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녀 간 호칭·지칭어의 특징 비교]

- (1)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씨'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남성 66.7%에 비해 여성이 73.4%로 높게 나타났다. '철수(아)'와 같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비율은 남성이 7.2%로 여성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 ②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이 46.4%로 남성(4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장님'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이 19.4%로 여성(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 ③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오히려 남성이 34.5%로 여성(3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여성이 19.4%로 남성(5.3%)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④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도, '여기요(저기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성이 47.5%로 여성(4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가씨'에 대한 응답 비율도 남성이 35.8%로 여성(2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언니'에 대한 응답 비율이 여성이 21.3%로 남성(6.5%)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중년 손님을 부를 때, '고객님'에 대한 응답 비율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이 64.0%로 여성(63.4%)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분석되었다.

[지역 간 호칭·지칭어의 특징 비교]

(1)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호칭·지칭어가 있다.

- ①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길동 아버지(아빠)'에 대한 응답이 강원권(58.1%), 충청권(57.1%), 호남권(5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김)철수 씨'에 대한 응답은 제주권(48.6%), 영남권(48.1%), 수도권(45.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②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제수씨'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영남권에서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네/너희) 와이프'에 대한 응답 비율은 충청권과 제주권에서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③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길동 아버지(아

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에서 그 응답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다. 호남권에서는 '(너희) 신랑'에 대한 응답 비율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아저씨'에 대한 응답도 11.3%로 전체 값 3.3%보다 8.0% 높게 나타났다.

- (2) 호남권 기혼 여성은 남편을 지칭할 때, '신랑'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격식을 갖춘 호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①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우리) 신랑'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호남권에서는 29.3%로 전체 값(2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우리) 신랑'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42.3%로 전체 값(34.4%)보다 높게 나타났다.
 - ②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도 '(너희) 신랑'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호남권에서 26.8%로 전체 값(22.1%)보다 높게 나타났다.

라. 표준 화법에 대한 인식

- (1)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인사말, 호칭·지칭어 및 경어법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① 표준 화법(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많다'라는 의견은 25.8%, '매우 많다'는 6.1%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31.9%가 일상생활에서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등을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없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27.1%였으며, '전혀 없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정비가 필요하다.
- ①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 화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12.6%, '필요하다'는 응답이 52.7%로 65.3%가 표준 화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3) 표준 화법에 대한 조사 및 정비 후에 국가 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① 표준 화법 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 화법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15.0%,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로 72.9%가 표준 화법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4) 표준 화법의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① 표준 화법의 교육 기관으로 ‘학교’에 대한 응답 비율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송’ 68.5%, ‘가정’ 30.0%, ‘신문’ 16.7%, ‘정부기관’ 12.5% 순으로 나타났다.

(5) 비문법적 표현에 대해서는 각각의 표현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①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라는 말은 4.7%가 ‘매우 자주 듣는다’, 20.9%는 ‘종종 듣는다’, 16.4%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42.1%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표현은 21.5%가 ‘매우 자주 듣는다’, 50.0%는 ‘종종 듣는다’, 18.5%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해 90.0%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에 대해 10.6%가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6.6%가 ‘자연스럽다’라고 응답해 17.2% 정도가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좋은 하루 되세요.”에 대해 18.6%가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48.3%가 ‘자연스럽다’라고 응답해 64.9% 정도가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압존법 표현에 대한 국민의 사용 실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① 직장에서 평직원이 사장에게 과장에 대해 말할 때의 표현법을 조사한 결과

압존법에 맞게 표현한 ‘김 과장은 출장 갔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16.4%로 나타났다. ‘김 과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김 과장님은 출장 갔습니다’ 20.7%, ‘김 과장은 출장 가셨습니다’ 17.9%, ‘김 과장님께서는 출장 가셨습니다’ 11.6%의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 ② 가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께 아버지께 대해 말할 때의 표현법을 조사한 결과 압존법에 맞게 표현한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갔습니다(갔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은 41.9%로 나타났다.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가셨습니다(가셨어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아빠)께서는 회사에 가셨습니다’는 15.5%의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2. 제언

가. <표준 화법 해설>(1992)의 재평가¹¹⁾

다음과 같이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다른 경향을 보이는 인사말, 호칭·지칭어에 대해서는 그 허용 여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1) 인사말

- ①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34.4%)
- ②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 ‘들어가세요’(27.3%)
- ③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 : ‘(저는) 김씨입니다’(30.9%)

(2)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어

- ① 혼인한 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 ‘영희(야)’(32.9%)
- ②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 ‘(우리) 며느리’(60.7%) / ‘(우리) 며늘애’(23.8%)
- ③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없는 경우) : ‘자기’(24.3%)
- ④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자녀가 있는 경우) : ‘자기’(12.3%)
- ⑤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없는 경우) : ‘(우리) 신랑’(34.4%)
- ⑥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자녀가 있는 경우) : ‘(우리) 신랑’(24.6%)
- ⑦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 ‘와이프’(전체 : 12.0%, 20대 : 28.1%, 30대 : 27.5%)

(3)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 ①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 ‘제수씨’(55.3%)
- ②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 ‘여기요(저기요)’(43.8%)
- ③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 ‘제수씨’(34.8%)
- ④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 ‘선생님 남편’(39.0%)

11)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본 조사 결과를 [부록2]에 비교하는 표로 제시함.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 표준 화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

표준 화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는 것은 표준 화법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와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표준 화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를 파악한 본 조사 결과와 <표준 화법 해설>(1992)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사전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자문 위원회를 좀 더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요구를 충실히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문 위원회는 표준 화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성별, 세대별, 직종별로 표준 화법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표준 화법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

표준 화법 개정 시안이 마련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제기한 것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 규정을 정하고, 학교나 방송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실태 조사에서 기타로 분류된 많은 사례들은 비록 1% 이하의 미미한 반응들이지만,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통한 직접적인 표준 화법 지도 방법과 방송 대중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표준 화법 지도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부록



[부록1]

표준 화법 실태 조사 주요 항목 비교

내용			1992	2009	2010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부모와 자녀 사이	아버지에 대한 호칭	○		○
		어머니에 대한 호칭	○	○	○
		아들(미혼)에 대한 호칭	○		○
		아들(기혼)에 대한 호칭	○ ¹²⁾	○	○
					○
		딸(미혼)에 대한 호칭	○		○
		딸(기혼)에 대한 호칭	○	○	○
					○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	○	○	○
		시아버지에 대한 지칭	○	○	○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	○		○
		시어머니에 대한 지칭	○		○
		며느리에 대한 호칭	○	○	○
					○
		며느리에 대한 지칭	○	○	○
					○
	처가 부모와 사위 사이	장인에 대한 호칭	○	○	○
		장인에 대한 지칭	○	○	○
		장모에 대한 호칭	○		○
		장모에 대한 지칭	○		○
		사위에 대한 호칭	○		○
					○
		사위에 대한 지칭	○		○
					○
	부부 사이	남편에 대한 호칭	○	○	○
					○

내용				1992	2009	2010
		남편에 대한 지칭	자녀가 있는 경우	○	○	○
			자녀가 없는 경우			○
		아내에 대한 호칭	자녀가 있는 경우	○	○	○
			자녀가 없는 경우			○
		아내에 대한 지칭		○	○	○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	형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	○
			남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누나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	○
			여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	○
		여자의 경우	오빠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	○
			남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언니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	○
			여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	○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남편의 형 ¹³⁾		○		
		남편의 아우(미혼)		○		
		남편의 아우(기혼)에 대한 지칭		○	○	○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		○	○	○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		○		○
		남편 형의 아내		○		
		남편 아우의 아내		○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		○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아내의 남자 동기		○		
		아내의 여자 동기		○		
		아내의 오빠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	○
		아내의 남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		○
		아내의 여자 동기의 배우자		○		
	숙질 사이	아버지의 형		○		
		아버지의 형의 아내		○		
		아버지의 남동생		○		

내용				1992	2009	2010
		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내		○		
		아버지의 누이		○		
		아버지의 누이의 배우자		○		
		어머니의 자매		○		
		어머니의 자매의 배우자		○		
		어머니의 남자 형제		○		
		어머니의 남자 형제의 배우자		○		
		조카와 그 배우자		○		
	사돈 사이	같은 항렬		○		
		위 항렬		○		
		아래 항렬(사돈의 아들(미혼)에 대한 호칭)		○	○	○
		아래 항렬(사돈의 딸(미혼)에 대한 호칭)		○	○	○
직장, 사회에서 의 호칭어, 지칭어	직장 사람들에 대하여	동료	직함 없음	○		
			직함 있음	○		
		상사	직함 없음	○		
			직함 있음	○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	직함 없음	○	○	○
			직함 있음	○		
	타인에 대하여1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		○	○	○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		○	○	○
		친구의 남편에 대한 호칭		○		○
		친구의 남편을 지칭		○	○	○
		남편의 친구		○		
		아내의 친구		○		
		아버지의 친구		○		
		어머니의 친구		○		
		친구의 아버지		○		
		친구의 어머니		○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		○	○	○

내용				1992	2009	2010
		남자 선생님의 아내		○		
	타인에 대하여2	직장 상사의 가족		○		
		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가족		○		
		식당의 남자 직원에 대한 호칭		○	○	○
		식당의 여자 직원에 대한 호칭		○	○	○
		식당에서 중년 손님에 대한 호칭		○ ¹⁴⁾		○
		식당에서 젊은 손님에 대한 호칭				○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에 대한 호칭				○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에 대한 호칭				○
		백화점에서 중년 손님에 대한 호칭			○	○
		백화점에서 젊은 손님에 대한 호칭		○	○	○
		은행, 관공서 등의 직원		○		
		우연히 만난 어른		○		
		자기를 지칭하거나 소개하는 표현	가정에서 (가족 관계를 통해)	부모님의 친구에게		○
자녀의 친구에게				○		
자녀의 스승에게				○		
동기의 친구에게				○		
동기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		
아내(남편)의 친구에게				○		
아내(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		
직장에서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		○			
	다른 회사 사람에게		○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			○	○	○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	○	○	
경어법	가정에서	존경법 (주체 높임법)	용언 연결형에 ‘-시-’ 사용	○		
			사물 주체에 ‘-시-’ 사용		○	○
			존칭 어휘의 사용	○		

내용				1992	2009	2010
		존칭 조사 ‘께, 께서’의 사용		○		
		공손법(상대 높임법)		○		
		압존법		○		○
	직장, 사회에서	존경법 (주체 높임법)	직장에서	○		
			거래처인 다른 회사 사람에게	○		
		공손법 (상대 높임법)	직장 안의 사람들과	○		
			직장 밖의 사람들에게	○		
		높임과 겸양의 말들		○		
일상생활 에서의 인사말	아침 인사	아버지께		○ ¹⁵⁾	○	○
		어머니께			○	○
		이웃 사람에게		○		
		직장 상사에게		○		
		직장 동료 및 아래 직원에게		○	○	
		아침 시작 방송에서		○		
	저녁 인사			○		
	만나고 헤어질 때	등교(출근)시 부모님께		○ ¹⁶⁾		○
		하교(퇴근)시 부모님께				○
		거리에서 이웃 사람에게		○		
		직장에서 먼저 퇴근하면서 뒷사람에게		○ ¹⁷⁾	○	○
		식사 시간 전후에		○		
		버스, 승강기, 지하철 등 탈 것에서		○		
		저녁 모임 후 헤어지면서 뒷사람에게			○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
	전화 예절	전화를 받을 때		○		
		전화를 걸 때		○		
		전화를 끊을 때		○	○	○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할 때		○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		

내용				1992	2009	2010
	편지 쓰는 법	편지 서두의 호칭		○		
		서명란		○		
		봉투 쓰는 법		○		
특정한 때의 인사말	송년, 신년	송년 인사	직장 윗사람에게	○ ¹⁸⁾	○	○
			직장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	○	○
		연하장의 말		○		
		생일 축하	특별한 생일(나이)의 이름		○	
	회갑(칠순)을 맞은 친구 부모님께		○	○	○	
	생일 맞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	○		
	축의금의 단자와 봉투의 문구		○			
	축하, 위로	결혼		○		
		출산		○		
		정년퇴임		○		
		문병		○		
		기타(신축, 개업, 이전, 합격, 입학, 졸업, 취직, 승진, 영전, 불합격, 좌천, 재해 등)		○		
	문상	문상 인사말		○	○	○
		조장(弔狀)과 조전(弔電)		○		
		조위금 봉투와 단자		○		
		부고		○		
	손님맞이	손님을 맞을 때		○		
		손님을 보낼 때		○		
		손님으로서 들어갈 때		○		
		손님으로서 나올 때		○		
	건배할 때			○		

내용		1992	2009	2010
기타	표준 화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		○	○
	현행 표준 화법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나?		○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을 조사·정비할 필요가 있나?		○	○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을 홍보·교육할 필요가 있나?		○	○
	표준 화법의 교육·개선을 주로 담당해야 할 기관은?		○	○

- 12) 1992년 <표준 화법 해설>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음. 아래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됨.
- 13) 1992년 <표준 화법 해설>에서는 기본적으로 호칭어와 지칭어를 모두 선정했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이 중 하나만 문항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다. 2009년 및 2010년 조사 문항과의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것(1992년 <표준 화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2009년 및 2010년 조사 문항에는 없는 것)은 이를 적시하지 않았다.
- 14) 나이 구별 없음.
- 15) 구별 없음.
- 16) 구체적 장면 설명 없이, '나가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에게'로 설정되어 있음.
- 17) 화계(話階)의 구별 없이, '나가는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로만 설정함.
- 18) 직장, 가정 같은 상황이 없고, 화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음.

[부록2]

<표준 화법 해설>(1992) 비교

[인사말]

번호	문항 내용	1992년 해설	2010년 조사 결과
1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 진지 잡수셨습니까?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 / 일어나셨어요? /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
2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		
3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다녀오겠습니다. / 다녀올게요.	(학교/회사) 다녀오겠습니다. / 다녀올게요.
4	하교(퇴근)후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다녀왔습니다. / 다녀왔어요.	(학교/회사) 다녀왔습니다. / 다녀왔어요.
5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6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새해 복 많이 받게. / 소원 성취하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 올 한 해 수고했어요. / 올해 고생 많았어요.
7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어른의 덕담이 있는 후에) 과세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8	회갑(칠순)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생신) 축하합니다. /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생신)축하드립니다. /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 만수무강하십시오.
9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오.	들어가세요. / 다시(또) 연락드릴게요. / 안녕히 계십시오.
10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일찍 나왔네. / 좋은 아침입니다.
11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먼저 나가겠습니다. /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나)가겠습니다.
12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저희 아버지는(아버지의 함자는) O자 O자입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 길자, 동자입니다.
13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	자기 성씨 : '가' 남의 성씨 : '씨'	(저는) 김씨입니다. / (저는) 김가입니다.
14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	일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얼마나 슬프십니까? /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칭/지칭_집안_공통]

번호	문항 내용		1992년 해설	2010년 조사 결과
1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어릴 때: 어머니(엄마) 성장 후: 어머니	엄마 / 어머니
2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릴 때: 아버지(아빠) 성장 후: 아버지	아버지 / 아빠
3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		○○[이름]	길동아 / 아들
4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자녀 (O)	(○○) 아비(아범)	(길동) 아범아 / (길동) 아비(애비)야 / 철수(야)(아들 이름) / (길동) 아빠(야)
		자녀 (X)	○○[이름]	철수(야)(아들 이름)
5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		○○[이름]	영희야
6	혼인한 딸을 부를 때	자녀 (O)	(○○) 어미(어멈)	영희(야)(딸 이름) / (영수) 엄마(야) / (영수) 어미야
		자녀 (X)	○○[이름]	영희(야)(딸 이름)
7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자녀 (O)	(○○) 어미(어멈) / 애야	(길동) 어미(야) / (새)아가 / (길동) 어멈(야)
		자녀 (X)	아가 / 새아가	(새)아가 / 은미(야)(며느리 이름)
8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	자녀 (O)	○ 서방 / ○○아비(아범) / 여보게	김 서방
		자녀 (X)	○ 서방 / 여보게	김 서방
9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		사돈 / 사돈처녀 /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 사돈아가씨
10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		사돈 / 사돈도령 / 사돈총각	사돈총각
11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u>지칭할 때</u>	자녀 (O)	○○ 어미(어멈)	(우리) 며느리 / (우리) 며느 애
		자녀 (X)	아기 / 새아기 / 며느리 / 며느라	(우리) 며느리 / (우리) 며느 애
12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u>지칭할 때</u>	자녀 (O)	○○ 아버지(아빠) / 사위/ ○ 서방	(우리) 사위 / 김 서방
		자녀 (X)	사위 / ○ 서방	(우리) 사위 / 김 서방

[호칭/지칭_집안_여자]

번호	문항 내용	1992년 해설	2010년 조사 결과
1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아버님
2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님 / 어머니	어머님
3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녀가 없을 때)	여보 / ○○ 씨 / 여봐요[허용]	여보/ 자기 / 철수 씨
4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녀가 있을 때)	여보 / ○○ 아버지 / ○○ 아빠 (장·노년 : 여보 / 영감 / ○○ 할아버지/ ○○ 아버 지)	여보 / 길동 아빠 / 자기
5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형님	형님 / 고모
6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	아가씨 / 아기씨	아가씨 / 고모 / 아기씨(애기씨)
7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언니 / 새언니	언니 / 새언니 / 올케언니
8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남편 누나의 남편 : 아주버님 / 서방님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 : 서방님	고모부(님) / 아주버님 / 서방님
9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 서방(님)	제부 / 김 서방
10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형부	형부
11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	(시)아버님 / ○○ 할아버지(할아버님)	시아버님 / (우리) 아버님 / 시아버지
12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	(시)어머님 / ○○ 할머니(님)	시아머님 / (우리) 어머님 / 시어머니
13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자녀가 없을 때)	그이 / 우리 남편	(우리) 남편/ (우리) 신랑 / (우리) 그이(이이)
14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자녀가 있을 때)	애아버지 / 애아빠	(우리) 남편 / (우리) 신랑
15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	시댁 쪽 사람에게 : 도련님 자녀에게 :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서방님 / 시동생 / 도련님 / (길동이) 삼촌

[호칭/지칭_집안_남자]

번호	문항 내용	1992년 해설	2010년 조사 결과
1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장인어른 / 아버님	장인어른(장인어르신) / 아버님
2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	장모님 / 어머님	장모님 / 어머님
3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가 있을 때)	여보/○○엄마/○○어머니 (장·노년 : 여보/임자 / ○○어머니 / ○○엄마 / ○○할머니)	여보 / 길동 엄마 / 자기 / 영희(야)
4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가 아직 없을 때)	여보 / ○○ 씨/여봐요[허용]	여보 / 자기 / 영희(야)
5	손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	아주머니	처남(의) 댁 / 아주머니(님)
6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 부인을 부를 때	처남의 댁	처남(의) 댁 / 제수
7	형의 아내를 부를 때	아주머니 / 아주머니 / 형수님	형수님 / 형수
8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매부 / 매형 / 자형	매형 / 자형
9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매부 / ○ 서방	매제 / 김 서방 / 매부
10	사위가 장인을 <u>지칭할 때</u>	장인(어른) / 아버님 / ○○ 외할아버지	장인어른 / 아버님
11	사위가 장모를 <u>지칭할 때</u>	장모(님) / 어머님 / ○○ 외할머니	장모님 / 어머님
12	남편이 아내를 <u>지칭할 때</u>	그사람 / 집사람 / 안사람 / 애어머니 / 애엄마	(우리) 집사람 / 와이프 / (우리) 안사람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호칭/지칭_사회]

번호	문항 내용	1992년 해설	2010년 조사 결과
1_1	(남자가)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아주머니 / (○)○○ 씨 / ○○ 어머니 / 부인 / ○ 여사 / ○ 과장(님)	제수씨 / (김)영희 씨 / 길동 어머니
1_2	(여자가)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 씨 / ○○ 아버지 / (○) 과장님 / (○) 선생님	길동 아버지(아빠) / (김)철수 씨
2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 씨 / ○ 형 / ○ 선생(님) / ○○○ 선 생(님) / ○(○○) 여사 / ○ 군 / ○ 양	(김)철수 씨
3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여보세요 / 아저씨 / 젊은이 / 총각	여기요(저기요) / 아저씨 / 사장님
4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여보세요 / 아주머니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 / 아가씨 / 언니
5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자주 듣는 표현 선택)	-	손님 / 사장님(사모님) / 고객님
6	식당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자주 듣는 표현 선택)	-	손님 / 고객님
7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	여기요(저기요) / 아저씨
8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	여기요(저기요) / 아가씨 / 언니
9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중년 손님을 부를 때(자주 듣는 표현 선택)	-	고객님 / 손님
10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젊은 손님을 부를 때(자주 듣는 표현 선택)	-	고객님 / 손님
11_1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자네) (합)부인 / ○○ 어머니	제수씨 / (자네/너희) 와이프
11_2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 씨 / ○○ 아버지 / (○) 과장님 / 너의 남편(바깥양반)	길동 아버지(아빠) / (너희) 신랑 / (김)철수 씨 / (너희) 남편
12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사부(師夫)님 / (○, ○○○) 선생님 / / (○) 과장님 / 바깥어른	선생님 남편 / 부군 / 바깥 선생님

[부록3] 설문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희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화법 실태를 파악하고, 국어 표준 화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사말, 호칭 및 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에 대해서 기초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국립국어연구원과 조선일보사가 생활 언어를 중심으로 이들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여 '표준 화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현재의 표준 화법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학계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설문 조사 답변은 현재 일상 화법의 실태를 파악하고 표준 화법 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 결과는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기간 : 2010년 8월 ~ 9월

주관기관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조 사 기 관 : (주)메가리서치

담 당 연 구 원 : 이종민 연구원(☎ 02-3447-2900)

담 당 관 리 자 : 이귀숙 팀 장(☎ 02-3447-1084)

응답자 성명 : _____

응답자 연락처 : _____

응답자 주소 : _____

면접 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응답자 특성	거주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지역 구분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		4) 면	
	응답자 연령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성별	1) 남성		2) 여성					
	결혼 유·무	1) 기혼		2) 미혼					
	기혼자의 경우 (중복 선택)	1)자녀 있음		2)사위 있음		3) 며느리 있음		4) 해당 사항 없음	

인 사 말

번호	구분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기타)
1	공통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	저 일어났어요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			
2	공통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	안녕히/편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편히 주무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	저 일어났어요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음)			
3	공통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학교/회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	갔다 올게	(인사말 없음)				
4	공통	하교(퇴근) 후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학교/회사)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나(저) 왔어요	나 왔어	늦었습니다	별일 없었죠?	(인사말 없음)			
5	공통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6	공통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	올해 고생 많았어요	올해 고맙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건강하세요	올 한 해 수고했어요					
7	공통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과세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공통	회갑(칠순)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수무강 하십시오	만수무강 하세요	(오래) 자십시오	(건강하게) 사세요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더욱) 강녕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9	공통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다시(또)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먼저) 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먼저)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10	공통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	안녕?	일찍 나왔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반갑습니다	왔어?			
11	공통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고생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12	공통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 씨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홍길동 동자입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길동입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길동 동자입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길동 동자입니다				
13	공통	자신의 성씨(姓氏)를 소개하는 말	(저는) 김가입니다	김씨입니다	(저는) 김해 김가입니다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저는) 김씨 성을 씁니다					
14	공통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드물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편히 가셨을 겁니다	힘내세요	얼마나 슬프십니까	(말없이 한다)		

호칭 / 지칭_집안_공통

번호	구분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타)
1	공통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	어머니	어머님					
2	공통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아버님					
3	기혼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	길동아	애(아)	아들					
4	기혼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자녀 (O) (길동) 아비(애비)야	(길동) 아범아	(길동) 아빠(아)	철수(아) (아들 이름)	김 과장 (직위명)	애(아)	아들	
			자녀 (X) 아비(애비)야	아범아	철수(아) (아들 이름)	김 과장 (직위명)	애(아)	아들		
5	기혼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	영희야	애(아)	딸					
6	기혼	혼인한 딸을 부를 때	자녀 (O) (영수) 어미야	(영수) 어멈아	(영수) 엄마(아)	영희(아) (딸 이름)	김 과장 (직위명)	애(아)	딸	
			자녀 (X) 어미(에미)야	어멈아	영희(아) (딸 이름)	김 과장 (직위명)	애(아)	딸		
7	기혼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자녀 (O) (새)아가	(길동) 어미(아)	(길동) 어멈(아)	은미(아) (며느리 이름)	애(아)			
			자녀 (X) (새)아가	어미(아)	어멈(아)	은미(아) (며느리 이름)	애(아)			
8	기혼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	자녀 (O) 김 서방	(길동) 아비(애비)(아)	(길동) 아범(아)	철수(아) (사위 이름)	애(아)			
			자녀 (X) 김 서방	아비(애비)야	아범(아)	철수(아) (사위 이름)	애(아)			
9	기혼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	김 과장 (직위명)	영희 씨	민규 이모 (조카 이름)		
10	기혼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	사돈	사돈총각	사돈도령	김 과장 (직위명)	철수 씨	성규 (외)삼촌 (조카 이름)		
11	기혼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	자녀 (O)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늘애	(길동) 어미(에미)	(우리) 김 과장(직위명)	철수 처 (아들 이름)	은미 (며느리 이름)		
			자녀 (X)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늘애	어미(에미)	(우리) 김 과장(직위명)	철수 처 (아들 이름)	은미 (며느리 이름)		
12	기혼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	자녀 (O) (우리) 사위	(길동) 아비(애비)	(길동) 아범	(우리) 김 과장(직위명)	영희 남편 (딸 이름)	철수 (사위 이름)	김 서방	
			자녀 (X) (우리) 사위	아비(애비)	아범	(우리) 김 과장(직위명)	영희 남편 (딸 이름)	철수 (사위 이름)	김 서방	

호칭 / 지칭_집안_여자 [여자 분만 답해 주세요]

번호	구분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기타)
1	기혼 여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아버님	아빠	시아빠								
2	기혼 여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	어머님	엄마	시엄마								
3	기혼 여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녀가 없을 때)	여보	철수 씨	철수(야)	아빠	오빠	영감	자기	당신				
4	기혼 여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녀가 있을 때)	여보	철수 씨	철수(야)	아빠	오빠	영감	자기	길동 아버지	길동 아빠	당신		
5	기혼 여자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아가씨	아기씨 (애기씨)	언니	고모	형님	시누님						
6	기혼 여자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	아가씨	아기씨 (애기씨)	언니	고모	영희 씨	시누님						
7	여자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올케	언니	새언니	올케언니								
8	여자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아주버님	서방님	고모부 (님)	길동 아빠 (조카 이름)								
9	여자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김 서방	김 과장 (직위명)	제부	제남	길동 아빠 (조카 이름)	철수야 (동생 남편 이름)						
10	여자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형부	김 과장님 (직위명)	오빠	길동 아빠 (조카 이름)								
11	기혼 여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	시아버지	시아버님	시아빠	철수 씨 아버님	길동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12	기혼 여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칭할 때	시어머니	시어머님	시엄마	철수 씨 어머님	길동 할머니	(우리) 어머님						
13	기혼 여자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자녀가 없을 때)	(우리) 그이(이이)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우리) 오빠	철수 씨	(우리) 자기						
14	기혼 여자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자녀가 있을 때)	(우리) 그이(이이)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우리) 아저씨	애아버지	애아빠	바깥양반	김 과장 (직위명)	오빠	철수 씨	(우리) 자기	
15	기혼 여자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지칭할 때	시동생	도련님	서방님	(길동이) 작은아버지	(길동이) 삼촌							

호칭 / 지칭_집안_남자 (남자 분만 답해 주세요)

번호	구분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기타)
1	기혼 남자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장인어른/ 어르신	아버님	아버지	아빠							
2	기혼 남자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	장모	장모님	어머님	어머니	엄마						
3	기혼 남자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가 있을 때)	여보	영희 씨	영희(아)	자기	임자	할멈	마누라	길동 어머니	길동 엄마	당신	
4	기혼 남자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가 없을 때)	여보	영희 씨	영희(아)	자기	임자	할멈	마누라	당신			
5	기혼 남자	손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	아주머니 (님)	처남(의) 댁	형수	길동 어머니	길동 엄마	길동 (외)숙모	김 과장(님)	호칭 안 함			
6	기혼 남자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 부인을 부를 때	아주머니	처남(의) 댁	제수	길동 엄마	길동 (외)숙모	김 과장(님)	호칭 안 함				
7	남자	형의 아내를 부를 때	아주머니	아주머니	형수님	형수							
8	남자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매부	매형	자형	형(님)	김 과장님						
9	남자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매부	매제	길동 아빠	철수야 (여동생 남편의 이름)	김 서방	김 과장(님)					
10	기혼 남자	사위가 장인을 지칭할 때	장인	장인어른	아버님	길동이 외할아버지							
11	기혼 남자	사위가 장모를 지칭할 때	장모	장모님	어머님	길동이 외할머니							
12	기혼 남자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그사람 (이사람)	(우리) 집사람	(우리) 안사람	영희	애엄마	길동 엄마	와이프	가족	(제) 아내	(제) 처	

호칭 / 지칭_사회

번호	구분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기타)
1_1	남자	(남자가)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아주머니	(김)영희 씨	길동 어머니	김 과장네	김 여사	김 과장(님) (친구 아내의 직위명)	제수씨	형수씨		
1_2	여자	(여자가)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김)철수 씨	길동 아버지 (아빠)	김 과장(님) (친구 남편의 직위명)	선생님	OO(이름) 오빠					
2	공통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김)철수 씨	김철수 선생(님)	김 선생(님)	김 형	미스터 김 / 미스 김	김 군 / 김 양	김철수	철수(야)		
3	공통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아저씨	오빠	과장님 (매니저님)	삼촌	젊은이	총각	여기요 /저기요	사장님		
4	공통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아가씨	언니	과장님 (매니저님)	아주머니	아줌마	고모(님)	이모(님)	여기요 /저기요	사장님	
5	공통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자주 듣는 표현 선택)	고객님	손님	아버님 /어머님	아저씨 /아주머니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				
6	공통	식당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자주 듣는 표현 선택)	고객님	손님	언니/오빠	학생						
7	공통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아저씨	오빠	과장님 (매니저님)	삼촌	젊은이	총각	여기요 /저기요			
8	공통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아가씨	언니	과장님 (매니저님)	아주머니	아줌마	고모	이모	여기요 /저기요		
9	공통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중년 손님을 부를 때 (자주 듣는 표현 선택)	고객님	손님	아버님 /어머님	아저씨 /아주머니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				
10	공통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젊은 손님을 부를 때 (자주 듣는 표현 선택)	고객님	손님	언니/오빠	학생						
11_1	남자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자네/너희) 부인	(자네/너희) 합부인	(자네/너희) 아내	(자네/너희) 와이프	길동 엄마 (어머니)	(김)영희 씨	제수씨	형수씨	(자네/너희) 집사람	
11_2	여자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김)철수 씨	길동 아버지 (아빠)	(김) 과장님	(너희) 남편	(너희) 바깥양반	(너희) 신랑	아저씨	OO(이름) 오빠		
12	공통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사부님 (師夫-)	(김/김철수) 선생님	(김) 과장님	바깥어른	바깥 선생님	부군	선생님 남편			

총 괄

번호	구분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1	공통	표준화법(인사말, 호칭지칭, 경어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2	공통	표준화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공통	표준화법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공통	표준화법을 가르치고 개선하는 일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학교	방송	신문	가정	정부기관
5	공통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 봉투 값은 오십 원이십니다 ”	매우 자주 듣는다	종종 듣는다	보통이다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6	공통	위 표현(문5)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주 어색하다	어색하다	보통이다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자연스럽다
7	공통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 좋은 하루 되세요 .”	매우 자주 듣는다	종종 듣는다	보통이다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8	공통	위 표현(문7)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주 어색하다	어색하다	보통이다	자연스럽지 않지만 쓸 수 있다	자연스럽다
9	공통	평직원이 사장에게 과장에 대해 말할 때	김 과장님께서는 출장 가셨습니다	김 과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	김 과장은 출장 가셨습니다	김 과장님은 출장 갔습니다	김 과장은 출장 갔습니다
10	공통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대해 말할 때	아버지 (아빠)께서는 회사에 가셨습니다(가셨어요)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가셨습니다(가셨어요)	아버지(아빠)는 회사에 갔습니다(갔어요)		
11	공통	표준화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배경 질문	직업	1) 학생 2) 주부 3) 사무직 4) 전문직 5) 서비스 판매직 6) 공공기관 종사자 7) 농/수/축산업 종사자 8) 자영업 9) 무직 10) 기타 (_____)
	연 평균 가구소득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포함)	1) 소득 없음 2) 1,000만원 미만 3)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4)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5)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6)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7) 5,000만원 - 8,000만원 미만 8) 8,000만원 - 1억원 미만 9) 1억원 이상
	중고등학교를 다닌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기타 (_____)

* 종교교 시절을 보낸 지역 한 군데만 선택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4]

기타 의견

[인사말]

번호	문항 내용	기타 의견
1	아침에 아버지께 하는 인사말	아빠 안녕(1) /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4)
2	아침에 어머니께 하는 인사말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4) / 엄마 안녕(1)
3	등교(출근)하면서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잘 갔다 올게요(2) / 저 가요(1)
4	하교(퇴근) 후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오늘 재미있으셨어요(177)
5	직장 윗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	한 해 고생했습니다(3) / 운수대통 하세요(1) / 부자 되세요(1) /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1) / 명절 잘 보내십시오(1)
6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송년 인사말	수고했어(2) / 한 해 잘 마무리하세요(1) / 건강해라(1) / 애썼다(1) / 돈 많이 벌어라(1) / 잘 해 봅시다(1)
7	세배할 때 하는 인사말	만수무강하세요(5)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3) / 부자 되세요(1) / 아무 말 하지 않음(1) / 장수 하세요(1)
8	회갑(칠순) 맞은 친구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3)
9	전화를 먼저 끊을 때 하는 인사말	끊어(6) / 네 응(5) / 끊어요(4) / 수고하세요(4) / 네, 알겠습니다(4) / 쉬세요(2) / 끊을게(2) / 좋은 시간 되세요(2) / 말없이 끊는다(2) / 다음에 전화할게(2) / 안녕(1) / 바이(1) / 안녕히 계세요(1) / 다음에 밥 한번 먹자(1) / 예, 알았어요(1) / 알겠어(1) /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1)
10	출근하면서 동료/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안녕 하십니까?(1)
11	먼저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말	먼저 퇴근합니다(3)
12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	-
13	자신의 성씨를 소개하는 말	김입니다(5) / 나는 김가요(2) / 전체 이름을 말한다(2) / OO 최씨예요(1)
14	문상 가서 상을 당한 가족에게 하는 인사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4) /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3) / 애쓰십니다(3) / 상심이 크시죠(2) / 얼마나 섭섭하십니까(2) / 얼마나 망극하십니까(2) / 급하게 당하셨어요(1) /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1) / 허망합니다(1) / 어떡해(1)

[호칭/지칭_집안_공통]

번호	문항 내용		기 타
1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엄니(5) / 할매(1) / 모친(1) / 아줌마(1)
2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부지(1) / 어른(1)
3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부를 때		막내야(1) / 아가(1)
4	혼인한 아들을 부를 때	자녀 (O)	큰애야(7) / 장남(1)
		자녀 (X)	강아지(4) / 우리 딸(2) / 장녀야(1)
5	혼인하지 않은 딸을 부를 때		첫째야(1) / 에미야(1)
6	혼인한 딸을 부를 때	자녀 (O)	첫째야(1)
		자녀 (X)	OO 엄마(16) / 며느(6) / OO째(3)
7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자녀 (O)	며느라(7) / 큰며느리(1) / 막내라(1) / 큰애기(1) / 애기(1)
		자녀 (X)	사위(3) / 자네(1)
8	장인(장모)이 사위를 부를 때	자녀 (O)	사위(3) / 자네(1)
		자녀 (X)	사화생(3) / 사돈 큰애기(3) / 사지댁(1) / 사지상(1) / 사형댁(1)
9	사돈의 결혼 안 한 딸을 부를 때		사화생(3) / 사지총각(3) / 사지상(1) / 사형댁(1)
10	사돈의 결혼 안 한 아들을 부를 때		우리 자부(5) / 아가(애기)야(1) / 우리 새아기(애기)(1) / 우리 며느라(1)
11	다른 사람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	자녀 (O)	우리 자부(8) / 새애기(2) / 우리 새애기(아기)(1)
		자녀 (X)	-
12	다른 사람에게 사위를 지칭할 때	자녀 (O)	-
		자녀 (X)	-

[호칭/지칭_집안_여자]

번호	문항 내용	기타
1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
2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	-
3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녀가 없을 때)	이봐요(4) / 저기요(3) / 어이(1) / 형(1) / 여기요(1) / 아저씨(1) / 예~마리오(1) / 이보세요(1)
4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녀가 있을 때)	서방(1) / 회사 직책을 부름(1) / 신랑아(1) / 보소(1) / 이봐유(1)
5	남편의 누나를 부를 때	-
6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 때	시누(시누이)(4) / 누구 엄마(2) / 김 서방 댁(1) / 동생(1) / 시매씨(1)
7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형님(8) / 성을 부름(1) / 올케성(1)
8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시매씨(7) / 시매부(4) / 시누 남편(4) / 아저씨(2) / 아제(1) / 매형님(1) / 시누 양반(1)
9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시매씨(2) / 매제(2) / 아주방(1) / 이모부(1) / 고모부(1) / 아제(1) / 동생 남편(1) / 지낭(1)
10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	아주버님(2)
11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u>지칭할 때</u>	-
12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u>지칭할 때</u>	-
13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u>지칭할 때</u> (자녀가 없을 때)	우리 아저씨(6) / 우리집 양반(3) / 우리 주인(1) / 우리 OO 아빠(1)
14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u>지칭할 때</u> (자녀가 있을 때)	우리 OO 아빠(2) / 영감(2) / 우리 영감님(2) / 우리 아저씨(1) / 우리집 양반(1) / 우리 노인네(1)
15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u>지칭할 때</u>	아이(이름) 아빠(2) / 아즈맴(1)

[호칭/지칭_집안_남자]

번호	문항 내용	기타
1	사위가 장인을 부를 때	빙장님(3)
2	사위가 장모를 부를 때	빙모님(4)
3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가 있을 때)	어이(4) / 마님(2) / OO 할매(1) / 아이 이름 부른다(1) / 어부인(1) / 자네(1) / 안식구(1) / 각시(1) / 나 좀 봐(1)
4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녀가 아직 없을 때)	어이(8) / 꼬마야(2) / 각시(1)
5	손위 처남(아내의 오빠) 부인을 부를 때	형님댁(3) / 처형(2) / 처수(2) / 처남(1) / 형수씨(1) / 제수씨(1) / 남처(1)
6	손아래 처남(아내의 남동생) 부인을 부를 때	매제(2) / 처남(1) / 남처(1)
7	형의 아내를 부를 때	누나(3) / 형수씨(1)
8	누나의 남편을 부를 때	-
9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제부(6) / 제매(3) / 계매(2) / 제낭(1)
10	사위가 장인을 <u>지칭할 때</u>	-
11	사위가 장모를 <u>지칭할 때</u>	빙모님(1)
12	남편이 아내를 <u>지칭할 때</u>	우리 마누라(2) / 우리 안식구(2) / 여보(1) / 댁이(1) / 우리 각시(1)

[호칭/지칭_사회]

번호	문항 내용	기타
1_1	(남자가)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OO 엄마(4) / OO 부인(1)
1_2	(여자가)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아지방(4) / 아저씨(3) / OO 오라버니(1) / 형부(1)
2	직장에서 직함이 없는 아래 직원을 부를 때	후배(2) / 동생(1) / 자네(1) / 철수님(1) / OO 직책(1)
3	식당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어이(13) / 여보세요(2) / 형(1) / 주인장(1) / 여기 좀 봅시다(1) / 보이소(1)
4	식당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누나(3) / 사모님(1) / 젊은 누나(1) / 미스 리(1)
5	식당에서 중년 손님을 부를 때 (자주 듣는 표현 선택)	이모님(2)
6	식당에서 젊은 손님을 부를 때 (자주 듣는 표현 선택)	아제(4) / 총각(4) / 어머니(1)
7	백화점에서 남자 직원을 부를 때	사장님(4) / 어이(3) / 명찰 이름(2) / 선생님(2) / 형(1) / 있잖아요(1) / 아들(1)
8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을 부를 때	누나(4) / 사장님(3) / 명찰 이름(2)
9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중년 손님을 부를 때 (자주 듣는 표현 선택)	저기요(3) / 언니(1)
10	백화점에서 종업원이 젊은 손님을 부를 때 (자주 듣는 표현 선택)	-
11_1	친구의 아내를 친구에게 지칭할 때	자네 식구(3) / O 여사(1) / 자네 마누라(1) / 너희 안식구(1)
11_2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	-
12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지칭할 때	가족(7) / 선생님 신랑(1) / 바깥양반(1)

연구 책임자 : 안태숙(메가리서치)
공동 연구원 : 심영택(청주교육대학교)
민병곤(경인교육대학교)
박재현(상명대학교)
나은미(한성대학교)
연구 보조원 : 김희정(메가리서치)
한송이(메가리서치)
이종민(메가리서치)
임자경(메가리서치)
보 조 원 : 이귀숙(메가리서치)
담당 연구원 : 이준석(국립국어원)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발행인 권 재 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방화3동 827)

전화 : 02-266-9723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10년 12월 20일

발행일 2010년 12월 20일

인쇄 한다디자인
